

제54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 2022년 1월 14일(금요일)
 주제 : 근현대 국어 연구 자료 및 주요 쟁점
 주최 : 한말연구학회

[제1발표장] <https://us02web.zoom.us/j/9597670836?pwd=ZGF2ZVZyemNjOUlFZTUyN21HQVhrUT09>

회의 ID: 959 767 0836 / 암호: g8dDQ0

[제2발표장] <https://us02web.zoom.us/j/81420393975?pwd=RGhzSXZOOEpsNWFlV1pVVDhVMTFzUT09>

회의 ID: 814 2039 3975 / 암호: 683351

개회식[제1발표장]		사회 : 윤혜영(한라대)	
10:10 ~ 10:40	회원 입장		
10:40 ~ 11:00	개회사 : 김용경(한말연구학회 회장)		
제1부	<제1 분과> 한국어교육	<제2 분과> 언어학	
	[제1발표장] 사회 : 정대현(협성대)	[제2발표장] 사회 : 조용준(건국대)	
11:00 ~ 11:30	한국어의 수용 가능한 발음에 대한 실험 연구 발표자: 정환민(고려대) 토론자: 오재혁(건국대)	정보통신 분야의 TV 광고 분석: 유무선 콘텐츠 광고를 중심으로 발표자: 윤재연(호서대) 토론자: 조태린(연세대)	
11:30 ~ 12:00	근현대 조선에 거주한 서양인들의 '언어의식'과 한국어에 대한 관점 연구 발표자: 고경민(건국대) 토론자: 김주연(건국대)	이북 문화언어학에 나타난 문화 요소 분석 및 탐색: 김영항(2013), 문화언어학을 중심으로 발표자: 오현아(강원대) 토론자: 유미향(동양미래대)	
점심 : 12:00~13:20			
제2부	<제3 분과> 주제발표	[제1발표장]	사회 : 김양진(경희대)
13:20 ~ 14:00	근현대 국어교육 연구 자료 및 주요 쟁점 발표자: 허재영(단국대)		토론자: 김유범(고려대)
14:00 ~ 14:40	근현대 일본인이 만든 한국어 학습서 및 주요 쟁점 발표자: 이강민(한양대)		토론자: 이상혁(한성대)
14:40 ~ 15:20	근현대 사전 편찬 자료 및 주요 쟁점 발표자: 이준환(전남대)		토론자: 황용주(국어원)
휴식 : 15:20~15:30			
제3부	<제4 분과> 현대국어	<제5 분과> 국어사	
	[제1발표장] 사회 : 김연희(대진대)	[제2발표장]	사회: 정수현(호서대)
15:30 ~ 16:00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과 변이: 메신저 말뭉치를 중심으로 발표자: 하영우(전주대) 토론자: 송인성(상명대)	『韓語通』의 통시적 기술에 대하여 발표자: 허인영(고려대) 토론자: 최대희(제주대)	
16:00 ~ 16:30	비유리 문장의 의미 양상 고찰: 부사어와 서술어 구성을 중심으로 발표자: 정유남(중앙대) 토론자: 도재학(경기대)	19-20세기 전환기의 한글 자료: 모범이 없는 글쓰기의 자료적 가치 발표자: 김현주(공주교대) 토론자: 이규범(강원대)	
16:30 ~ 17:00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표준어화 현상 연구: 문법 형태소를 중심으로 발표자: 신우봉(제주대) 토론자: 최영미(경동대)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점도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발표자: 문현수(인하대) 토론자: 이용(시립대)	
< 폐회 >			

한 말 연 구 학 회

차 례

【제1부 제1 분과 한국어교육】

정환민(고려대)	한국어의 수용 가능한 발음에 대한 실험 연구.....	1
오재혁(건국대)	토론	12
고경민(건국대)	근현대 조선에 거주한 서양인들의 ‘언어의식’과 한국어에 대한 관점 연구	14
김주연(건국대)	토론	31

【제1부 제2 분과 언어학】

윤재연(호서대)	정보통신 분야의 TV광고 분석: 유무선 콘텐츠 광고를 중심으로.....	35
조태린(연세대)	토론	54
오현아(강원대)	이북 문화언어학에 나타난 문화 요소 분석 및 탐색: 김영항(2013), 문화언어학을 중심으로.....	56
유미향(동양미래대)	토론	57

【제2부 주제발표】

허재영(단국대)	근현대 국어교육 연구 자료 및 주요 쟁점.....	61
김유범(고려대)	토론	78
이강민(한양대)	근현대 일본인이 만든 한국어 학습서 및 주요 쟁점.....	80
이상혁(한성대)	토론	88
이준환(전남대)	근현대 사전 편찬 자료 및 주요 쟁점.....	90
황용주(국립국어원)	토론	105

【제3부 제3 분과 현대국어】

하영우(전주대)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과 변이: 메신저 말뭉치를 중심으로.....	110
송인성(상명대)	토론	123
정유남(중앙대)	비유리 문장의 의미 양상 고찰: 부사와 서술어 구성을 중심으로.....	125
도재학(경기대)	토론	140
신우봉(제주대)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표준어화 현상 연구: 문법 형태소를 중심으로...	142
최영미(경동대)	토론	155

【제3부 제4 분과 국어사】

허인영(고려대)	『韓語通』의 통시적 기술에 대하여.....	160
최대희(제주대)	토론	183
김현주(공주교대)	19-20세기 전환기의 한글 자료: 모범이 없는 글쓰기의 자료적 가치...	184
이규범(강원대)	토론	185
문현수(인하대)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점도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187
이용(시립대)	토론	206

제1부 <제1 분과 한국어교육>

한국어의 수용 가능한 발음에 대한 연구

정환민(고려대)

<차 례>

1. 서론
2. 연구 방법
3. 결과
4. 논의
5. 결론

1. 서론

발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L2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대자와 성공적인 상호작용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즉 L2 학습자의 발화가 청자에게 이해되고, 이후 청자의 언어적 행동이 지속되어 대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발음의 정확성’의 차원과 ‘이해 가능한 발음’의 차원에서 L2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의 목표나 평가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차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궁금한 영역이다. 어느 정도 정확한 발음이어야, 혹은 어느 정도로 이해 가능한 발음이어야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지속해 이어나갈지, 청자의 이후 언어적 행동을 결정할 요소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김가연(2018)에서 L2 한국어 학습자의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L2 한국어 화자를 대하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태도가 다소 부정적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L2 화자의 한국어 발화를 기다려 주는 태도보다는 답답해하는 태도, 발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향(2016)에서는 L2 한국어 화자의 발음과 관련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는 외국 어투 (foreign accent)가 있는 화자가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음은 그 사람의 언어적 이질성을 즉각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이봉원, 2015), 이러한 이질성에 대한 청자의 판단이 L2 화자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 및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L2 한국어 화자의 발음과 관련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이 종종 보고되나, L2 한국어 화자의 발음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태도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봉원(2015)에서는 언어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데 주목하여, 발음의 차이가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즉 발음의 정확성이나 이해 가능성의 정도에 대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발음의 수용 가능성

(acceptability)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국 어투(accent), 이해 명료성(intelligibility) 및 이해 가능성(comprehensibility)을 넘어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은 L2 발음과 관련된 또 다른 차원이다(Thomson, 2018). 그러나 수용 가능성의 개념은 L2 의사소통 판단에 대한 L1 화자의 평가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후 언어적 행동을 결정하는 개념이다. 즉 특정 화자의 말하기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을 넘어 이 화자와 언어적 행동을 실제로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L2 화자에게 끼칠 사회적인 영향까지도 결정하는 개념인 것이다. 예를 들어 Tulaja(2020)에서는 덴마크어 모어 화자들이 덴마크어 L2 화자와 의사소통 상황에 놓였을 때 덴마크어가 아닌 공통어(lingua-franca)로 전환하는 경향으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수용 가능성이 조사되었다. 이것은 덴마크어 모어 화자들이 L2 화자를 의사소통 상대자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김태희 외(2010)에서 말투의 차이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Pilott(2016)에서는 수용 가능성의 개념을 통해 L2 화자의 발음이 고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도 수용 가능성의 개념이 한국어 모어 화자가 특정 L2 한국어 화자를 만났을 때, L2 화자의 발음에 대한 판단을 넘어 상대 L2 화자와 의사소통을 지속할 것인지, 혹은 특정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지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어 말하기 및 발음 평가를 위해 여러 차원의 개념, 이해 가능성(comprehensibility), 외국 어투(foreign accent), 분절음의 정확성, 억양의 자연스러움, 유창성이 측정되고 조사되었다(이향, 2013; 2017; 홍진혁, 2019; 정환민, 2020 등 참조). 그러나 그러한 발음의 차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가 L2 화자와 의사소통을 이어나갈 것인지, 혹은 L2 화자와 특정 과제를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차원들이 관련이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본고에서는 발음 평가와 관련된 여러 차원, 이해 가능성(comprehensibility), 외국 어투(foreign accent), 분절음의 정확성, 억양의 자연스러움, 유창성에 대한 정도성을 측정하여 수용 가능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자 한다. 즉 한국어 모어 화자가 의사소통 상대자로서 L2 화자와 언어적 의사소통을 이어나갈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발음 평가의 여러 차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본고에서 정의한 수용 가능성의 개념을 한국어 모어 청자(평가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여,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L2 한국어 발음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1. 발음 평가의 여러 차원(이해 가능성, 외국 어투, 분절음의 정확성, 억양의 자연스러움, 유창성)이 수용 가능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발음 평가의 여러 차원이 부정적으로 평가됨에도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행동을 보이는가?
2. 이 연구에서 한국어 모어 청자(평가자)에게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의 개념이 독립된 차원의 개념으로 해석되었는가? 즉 평가자들은 수용 가능성이 독립된 척도로서 기능했다고 생각하는가?

2. 연구 방법

2.1 자극

L2 한국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총 30명이 산출한 한국어 짧은 문장을 지각 실험의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각각 중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가 모어인 한국어 L2 화자들과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었고, 집단별로 6명의 화자(남성 3명, 여성 3명, 20~30대)가 포함되었다. L2 한국어 화자 집단은 2017년 서울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5개 국적 중에서 선택되었다. L2 한국어 화자는 모두 중급 이상의 화자들로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쉽게 할 수 있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모두 서울 출신으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없었다.

화자 30명이 각각 동일한 문장 60개를 산출하였으나, 화자별로 문장이 겹치지 않도록 문장을 1개씩 임의로 추출하여 지각 실험의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자가 실험에서 평가하게 될 실험 자극은 모두 30개였다. 30개의 자극은 모두 4~8어절 길이의 문장들이었다.

2.2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 평가에 대한 조작적 정의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수용 가능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운영해 왔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Settinieri(2011)에서는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을 조사하기 위해 어투(accentedness)에 대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1에서 7까지의 척도로 나타냈다. 그러나 Settinieri(2011)에서는 악센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사회적 반응을 의미하는지, 이해의 어려움이나 난이도를 뜻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Tulaja, 2020). Agnieszka(2016)에서는 목표 음소에 대한 발음이 정확했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수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척도는 발음 오류의 심각성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고, 지표 1은 매우 심각한 오류, 지표 5는 오류가 아님을 표시하였다. 특히 모어 청자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 오류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고,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명료도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Agnieszka(2016)에서는 발음에 대한 정확성의 판단을 청자의 수용 가능도로 해석함으로써 다른 차원이 동일한 차원으로 해석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극복되어 수용 가능성의 개념이 L2 화자의 발음을 평가하는 여러 차원(예를 들어, 이해 가능성이나 외국 어투 등과 같은 차원)과 구분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말로 표현하여 수용 가능성의 차원을 운영해야 한다(Tulaja, 2020). 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Pilott(2016)에서는 회사에 고용하기에 L2 화자의 말하기가 어느 정도로 용인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발음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나타냈다. Tulaja(2020)에서는 공통어(lingua-franca)로의 전환 행동을 용인도 평가를 위한 척도로 기능하게 하였다. 즉 모어 화자에게 ‘나는 그/그녀에게 덴마크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말할 것이다’라고 제시함으로써, 모어 화자가 L2 화자를 목표 언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파트너로 평가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즉 Pilott(2016)에서는 L2 화자의 발음을 회사 고용과 관련지어, Tulaja(2020)에서는 공통어로 전환하는 행동과 관련지어 사회적인 영향을 수용 가능성의 개념에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화자의 발음을

듣고 한국 사람은 이 화자와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이유로든)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바꿔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대화를 회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수용 가능성 개념의 배경을 설정하고, 수용 가능성의 척도는 “나는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나가기에 이 정도의 발음은 수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를 평가하도록 운영하였다. 1점에서 9점까지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성 척도로, 1점에 가까울수록 “동의하지 않는다”, 9점에 가까울수록 “전적으로 동의한다”를 나타내도록 설계하였다.

2.3 평가자

본 연구에서 수용 가능성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고,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해당 척도가 독립된 척도로서 기능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용 가능성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는 L2 화자의 발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한국어 교사의 평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 3~13년 경력의 한국어 교사 10명이 지각 실험의 평가자로 참여하였다.

2.4 평가 절차

지각 실험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총 6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었고, 첫 번째 항목에서는 실험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 마지막 항목에서는 간단한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다. 가운데 2부터 5까지의 항목에서는 순차적으로 지각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1(항목 2)에서는 Derwing & Munro(2015)에 기반하여 이해 가능도(comprehensibility)와 이해 명료도(intelligibility)를 평가하였다.¹⁾ 이해 가능도(comprehensibility)를 위해 “이 화자가 말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느 정도로 어려웠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9점 정도 척도에서 1점에 가까울수록 “전혀 어렵지 않았다”, 9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어려웠다”를 나타냈다. 특히 이해 가능성을 위한 평가에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혹은 얼마나 쉬웠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평가자마다 다를 수 있어, 다른 차원의 항목과 겹치지 않는 홍진혁(2019)의 이해 가능성 판단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²⁾ 이해 명료도(intelligibility)를 위해서는 “이 화자가 말한 것을 철자법에 따라 전사해 주세요.”라고 요청되었다.

실험 2(항목 3)에서는 정환민(2020)에 기반하여 외국 어투(foreign accent)를 평가하였다. 외국 어투 평가를 위해 “방금 들은 말에서 외국인 말투가 어느 정도로 느껴졌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9점 정도 척도에서 1점에 가까울수록 “외국인 말투가 전혀 없다”, 9에 가까울수록 “외국인 말투가 매우 강하다”를 나타냈다.

실험 3(항목 4)에서는 본고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나가기에 이 정도의 발음은 수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질문하였고, 9점의 정도 척도에서 1점에 가까울

1) 이해 가능도(comprehensibility)란 발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청자가 느끼는 난이도로 노력, 처리 어려움 등의 유의어가 있고, 이해 명료도(intelligibility)란 화자의 의도된 메시지와 청자의 이해 간의 일치 정도로 실제 이해, 이해 등의 유의어가 있다 (Derwing & Munro, 2015:5).

2) 홍진혁(2019)에서 제시한 이해 가능성(comprehensibility)을 위한 두 가지 기준은 즉각성과 의식성이었다. 즉각성이란 “듣고 머뭇거리림 없이 즉각 이해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즉각적으로 이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의식성이란 “발음에 대한 의식 없이, 내용에만 집중하게 하는 발음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귀에 거슬리거나 불편한 발음으로 인해 내용보다는 발음을 의식하게 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수록 “동의하지 않는다”, 9에 가까울수록 “전적으로 동의한다”를 나타냈다. 즉 1에 가까울수록 수용될 수 있다, 9에 가까울수록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실험 4(항목 5)에서는 분절음의 정확성, 억양의 자연스러움, 유창성(발화 속도와 휴지의 자연스러움)을 평가하였다. 세 차원 모두 위의 세 가지 차원의 척도와 동일하게 9점의 정도 척도였다. 분절음의 정확성을 위해 “모음과 자음의 발음이 어느 정도로 정확했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1점에 가까울수록 “전반적으로 정확하다”, 9점에 가까울수록 “틀린 발음이 대부분이다”를 나타냈다. 억양의 자연스러움의 정도를 위해 “억양이 어느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1에 가까울수록 “매우 자연스럽다”, 9에 가까울수록 “매우 어색하다”를 나타냈다. 유창성을 위해 “이 화자의 발화 속도와 휴지가 어느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1에 가까울수록 “매우 자연스럽다”, 9에 가까울수록 “매우 어색하다”를 나타내었다.

평가자는 실험 1에서 3까지는 음성 샘플을 2회 청취할 수 있었고, 실험 4에서만 3회 청취할 수 있었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3.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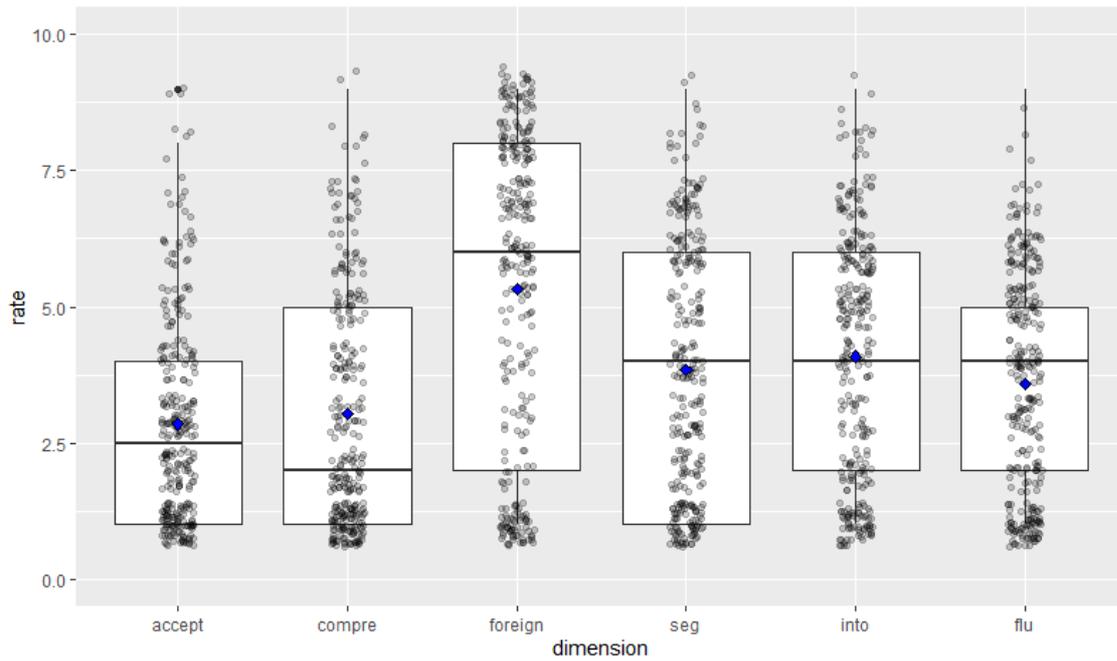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총 6개의 차원이 정도성으로 평가되었다. 모든 차원의 척도가 1점에 가까울수록 음성 자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9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각 차원에서 제시된 자극 30개를 10명의 평가자가 평가함으로써, 한 차원당 300개의 반응을 획득할 수 있었고, 총 1800개의 반응을 확보하였다.

먼저 30명의 화자가 산출한 각 문장은 모두 이해 명료도(intelligibility)가 매우 높아, 화자가 의도한 메시지를 평가자가 90% 이상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명료도가 높은 음성 샘플임에도, 각 차원의 평균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에 대한 평가자 반응의 평균, 중앙값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차원	수용 가능성 acceptability	이해 가능성 comprehensibility	외국 어투 foreign accent	분절음 segment	억양 intonation	유창성 fluency
평균	2.84	3.03	5.32	3.85	4.09	3.59
중앙값	2.5	2	6	4	4	4
표준편차	1.88	2.13	2.87	2.34	2.24	2.02

<표 4> 차원별 평균 및 표준편차

6개의 차원 중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된 차원은 5.32점으로 외국 어투였다. 전반적으로 외국 어투가 강했음에도 수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2.84로 가장 긍정적이었다. 차원별 전체 평가자 반응의 분포를 아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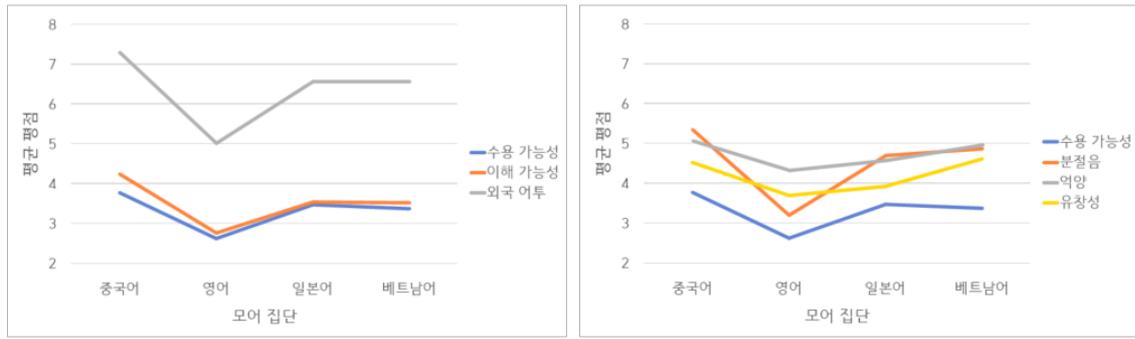
<그림 2> 차원별 반응 분포 (참고: accept=수용 가능성, compre=이해 가능성, foreign=외국 어투, seg=분절음 정확성, into=억양의 자연스러움, flu=유창성)

위의 상자 그림에서 동그라미는 청자의 반응을 나타내고, 가운데 마름모는 평균을 나타낸다. 상자 안의 실선은 중앙값을 나타낸다(<표 1> 참고). <그림 1>에서 보듯이, 외국 어투는 반응의 50% 이상이 6점 이상에 분포하고 있고, 이것은 반응의 50% 이상이 외국 어투가 강하다고 평가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수용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에 대한 반응은 이와 대조적이다. 수용 가능성의 중앙값은 2.5점으로, 반응의 50%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해 가능성 또한 중앙값이 2점으로, 반응의 50% 이상이 음성 자극을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했다.

각 차원에 대한 평가 경향을 더욱 자세히 살피기 위하여, 각 차원에 대한 평가자의 반응을 화자의 국적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 2>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표 2>를 <그림 2>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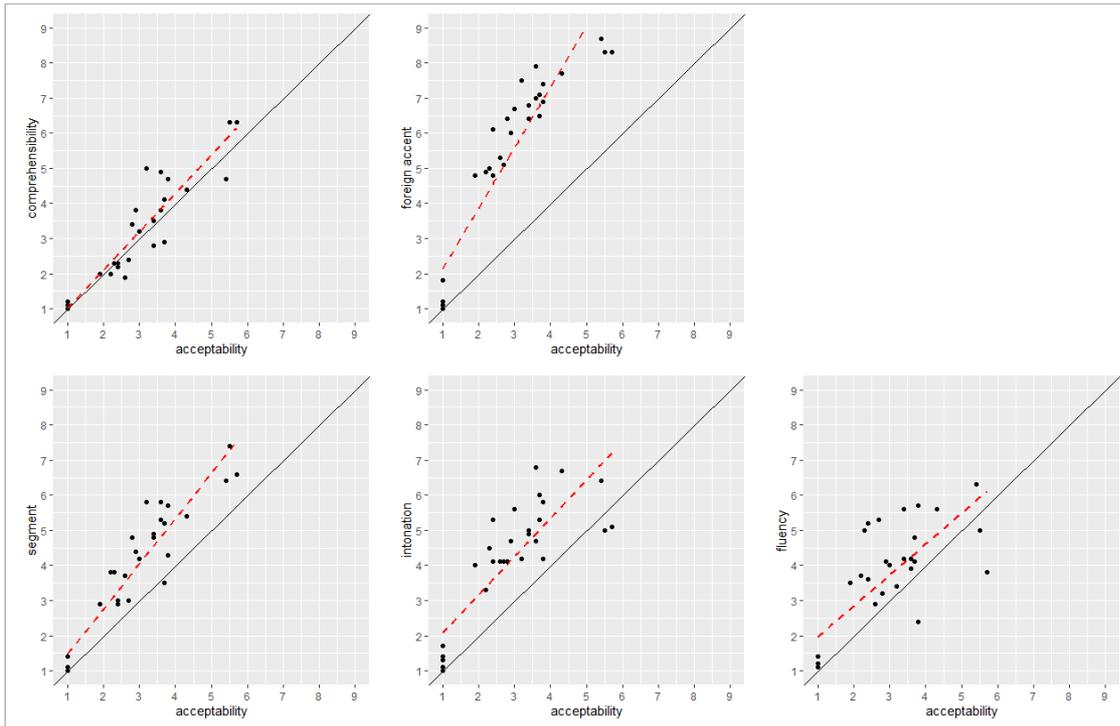
모어	수용 가능성 acceptability	이해 가능성 comprehensibility	외국 어투 foreign accent	분절음 segment	억양 intonation	유창성 fluency
중국어	3.77	4.25	7.3	5.35	5.07	4.53
영어	2.62	2.77	5.02	3.2	4.33	3.7
일본어	3.47	3.55	6.57	4.7	4.85	3.93
베트남어	3.37	3.53	6.57	4.87	4.97	4.62
한국어	1	1.05	1.17	1.12	1.22	1.17

<표 5> 각 차원에 대한 그룹별 평균



<그림 3> 각 차원에 대한 그룹별 평균(한국어 모어 그룹 제외)

수용 가능성의 차원과 비교하는 차원이 많기 때문에, <표 2>의 결과를 <그림 2>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에서 왼쪽은 수용 가능성을 이해가능성, 외국 어투와 비교하고, 오른쪽은 수용 가능성을 분절음, 억양, 유창성과 비교한다. <그림 2> 왼쪽에서 수용 가능성의 평균 평점 패턴과 이해 가능성의 평균 평점 패턴이 비슷하고, 외국 어투의 평균 평점 또한 수용 가능성의 패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수용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에 대하여 Kendall의 상관 계수를 구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tau = 0.81$). 또한 수용 가능성과 외국 어투에 대하여 Kendall의 상관 계수를 구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tau = 0.84$). <그림 2> 오른쪽에서 수용 가능성의 평균 평점 패턴은 분절음, 억양, 유창성이 패턴과 ‘중국어, 영어, 일본어’ 집단 구간에서의 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수용 가능성은 ‘일본어, 베트남어’ 집단 구간에서 점수가 하강하는 패턴을 보이나, 나머지 차원에서는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수용 가능성과 나머지 차원에 대하여 Kendall의 상관 계수를 구한 결과 분절음($p < .001$, $\tau = 0.76$), 억양($p < .001$, $\tau = 0.7$), 유창성($p < .001$, $\tau = 0.53$)은 이해 가능성이나 외국 어투에 비하여 낮은 상관을 보였다. 특히 유창성의 경우 수용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수용 가능성과 각 차원의 관계 (참고: 상좌: 이해 가능성, 상우: 외국 어투, 하좌: 분절음, 하중: 억양, 하우: 유창성)

다음으로 이해 가능성, 외국 어투, 분절음의 정확성, 억양의 자연스러움, 유창성이 수용 가능성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선형 혼합 효과 모델을 R에서 구축하였다.³⁾ 고정 효과로 이해 가능성, 외국 어투, 분절음 정확성, 억양의 자연스러움, 유창성 점수가 고려되었고, 화자가 랜덤 인터셉트(random intercept)로 고려되었다.

Predictors	Estimate	SE	T	p
(Intercept)	0.11355	0.15526	0.731	0.47
comprehensibility	0.34591	0.04360	7.934	<.001
foreign accent	-0.09770	0.04332	-2.255	<0.05
segment	0.31843	0.04951	6.432	<.001
intonation	0.12409	0.05269	2.355	<0.05
fluency	0.13085	0.04977	2.629	<0.01

<표 6> 수용 가능성에 대한 선형 혼합 모델의 결과

그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모든 차원이 수용 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중 이해 가능성(comprehensibility)과 분절음의 정확성(segment)이 수용 가능성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3) Formula: accept ~ compre + foreign + seg + into + flu + (1 | talker)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발음 평가의 여러 차원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수용 가능성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발음 평가의 여러 차원(이해 가능성, 외국 어투, 분절음의 정확성, 억양의 자연스러움, 유창성)이 수용 가능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수용 가능성이 여러 차원과 각각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해 가능성과 외국 어투 각각은 수용 가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 가능성이 이해 가능성과 연관성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한 Tulaja(2020)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Tulaja(2020)에서는 특정 발음 오류가 포함된 단어를 지각 실험을 통해 평가한 결과, 오류 간에 외국 어투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이해 가능성의 정도는 오류에 따라 상이하였다. 통계적으로 외국 어투는 수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ulaja(2020)에서는 발음 오류로 인해 나타나는 발음의 이질성, 즉 외국 어투에 대해서 청자들이 정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외국 어투의 정도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외국 어투의 정도가 다른 음성이 고려되어도 여전히 수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지는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발음 오류에 집중하지 않고 짧은 문장 자극을 청취함으로써 외국 어투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정도로 측정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수용 가능성과 정도성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해 가능성뿐만 아니라 외국 어투 또한 수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선형 혼합 효과 회귀 분석 모델에서, 이해 가능성과 분절음의 정확성이 수용 가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사소통 접근법의 성행으로 발음 교육이 원어민 수준의 정확성보다는 이해 가능한 발음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다(이미향 외, 2018). 그러나 한국어 모어 청자의 평가에는 여전히 분절음의 정확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분절음 발음에 대한 정확성이 이해 명료성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는데(이향, 2017),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분절음의 정확성이 여전히 한국어 L2 화자의 발음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수용 가능성은 이해 가능성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은 Tulaja(2020), Pilott(2016)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두 연구에서도 수용 가능성 평가와 이해 가능성 평가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해 가능성이 수용 가능성의 필수적인 조건일 수 있다는 Tulaja(2020)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 참여한 평가자, 한국어 모어 청자들은 수용 가능성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평가자들이 각 차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자 10명에게 각각의 차원이 독립된 내용을 측정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10명 중 4명은 수용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이 비슷한 내용을 측정할 것 같다고 답했다. 평가자들이 수용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이 비슷한 내용을 측정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Tulaja(2020)의 주장처럼 수용 가능성의 개념은 이해 가능성을 기반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⁴⁾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더욱 영향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후 연구를 통해서도 수용 가능성의 개념이 더욱 사회적 평가가 표현되도록 정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정의한 수용 가능성의 척도는 “나는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나가기에

4) 2명은 모든 차원이 독립된 내용을 측정할 것 같다고 답했고, 1명은 모든 차원이 동일한 내용을 측정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정도의 발음은 수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였다. 수용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상황”이었는데, 평가자들은 의미 전달이나 발음 자체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용 가능성의 척도가 의미 전달이나 발음 자체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면, 수용 가능성이 평가하고자 하는 본래의 개념을 온전하게 측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를 통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표현하도록, 예를 들어, 과제를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상황을 결부시켜,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발음 평가의 여러 차원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수용 가능성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살피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이 이해 가능성이 수용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외국 어투 또한 수용 가능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절음의 정확성 또한 수용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이해 가능성이 수용 가능성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용 가능성의 개념이 사회적인 영향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가연(2018).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정체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태희·김수진(2010). “시·청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언어중재가 북한이탈주민의 자연스러운 발화에 미치는 효과”. 말소리와 음성과학 2(4): 213-221쪽.
- 이미향·안미애(2018).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 유창성에 대한 한국어 교원의 인식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 184: 85-117쪽.
- 이봉원(2015).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의사소통: 발음 변이에 대한 용인성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31: 5-27쪽.
- 이향(2013). “발음 평가에 있어서 정확성, 유창성, 이해명료성, 이해가능성 기준 간의 영향 관계 연구”. 언어와 문화 9(3). 221-243쪽.
- 이향(2016). “외국인 어투에 대한 한국어 원어민 화자의 언어 태도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3(3): 199-229쪽.
- 이향(2017). “한국어 발음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재고를 위한 실험연구”. 한국어 교육, 28(3): 105-126쪽
- 정환민(2020). 한국어 학습자의 단어 발화에서 인식된 외국 어투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진혁(2019). “이해도 기반 한국어 발음 평가 방안: 라오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제한국어교

- 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Jul 06, 2019: 615-642쪽.
- Agnieszka Bryła-Cruz(2016). Native speakers' acceptability judgements on Polish-accented English. *Lublin Studies in Modern Languages and Literature* 40(1), 98-115
- Settinieri, J. (2011). Soziale Akzeptanz unterschiedlicher Normabweichungen in der L2-Aussprache Deutsch. *Zeitschrift für Interkulturellen Fremdsprachenunterricht*, 16, 66-80.
- Thomson, R. (2018). Measurement of accentedness, intelligibility, and comprehensibility. In: Kang, O. & A. Ginther (Eds.), *Assessment in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pp. 11-29). London/New York: Routledge.
- Derwing, T. M., & Munro, M. J. (2015). *Pronunciation fundamentals. Evidence-based perspectives for L2 teaching and research*.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Pilott, M. (2016). *Migrant pronunciation: What do employers find acceptable?* Wellingto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Diss.
- Tulaja, L. (2020). Exploring acceptability: L1 Judgements OF L2 Danish learners' errors. In O. Kang, S. Staples, K. Yaw, & K. Hirschi (Eds.), *Proceedings of the 11th Pronunci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conference*, ISSN 2380-9566, Northern Arizona University, September 2019 (pp. 197-206). Ames, IA: Iowa State University

■ 토 론

“한국어의 수용 가능한 발음에 대한 실험 연구”에 대한 토론문

오재혁(건국대)

한국어 발음 교육의 연구는 한국어와 해당 외국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하는 연구들로부터 시작해,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에 대한 연구, 발음 오류 수정 방법에 대한 연구, 발음 교육 방법 및 그 효과에 대한 연구들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발표문을 읽고서는 이제 드디어 발음의 정확성을 넘어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발음이 무엇인지를 찾는 연구로 이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고 반가운 연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연구는 발음 평가의 여러 차원(이해 가능성, 외국 어투, 분절음의 정확성, 억양의 자연스러움, 유창성)이 ‘수용 가능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찾고자 한 연구입니다. 새로운 요인과 말하기 평가의 기존의 요인들의 상관을 찾는 연구로 이해됩니다. 아래는 토론자로서 발표문을 먼저 읽으며 들었던 생각, 질문을 몇 가지 적은 것입니다. 혹시 잘못 이해한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음 평가와 관련된 여러 차원, 즉 “이해 가능성(comprehensibility), 외국 어투(foreign accent), 분절음의 정확성, 억양의 자연스러움, 유창성” 등이 동일한 차원에 있는 요인들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계를 갖고 있거나, 전혀 다른 차원의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분절음의 정확성, 억양의 자연스러움’은 ‘화자’가 분절음과 운율을 얼마나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산출’했느냐에 관련된 요인이고, ‘유창성’은 이 두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상위의 평가 요인일 것 같습니다. ‘이해 가능성’은 화자가 아니라 ‘청자’와 관련되는 평가 요인일 것이며, ‘외국 어투’는 일반적인 말하기 평가 요인이 아니라 ‘L2 화자’에 국한된 평가 요인이 될 것 것입니다. 평가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위계 구조를 생각하여 그 영향 관계를 고려하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실제로 <그림 2>에서 발표자가 두 개의 그림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이유도 아마 이러한 차원, 위계의 상이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수용 가능성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그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하자면 청자가 화자에 대해 갖는 태도나, 대화 상황 맥락 등이 ‘수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친절한 한국인’이 길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의 ‘도움을 들어주는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발음과, 한국인과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를 이어 나가야 하는 협상 맥락’에 단체의 대표로 한국어를 잘 하는 외국인 한 명을 선발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수용 가능한’ 발음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도 발표문 말미에 언급하였듯이, 이후 연구에서는 구체적 맥락에 따른 ‘수용 가능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3. 평가자로서 교사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교사는 외국인 학습자 발음에 대해 나름의 이해 전략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수용 가능성을 '나는 한국어로 대화를 이어나가기에 이 정도의 발음은 수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로 정의하였는데, 외국인 학습자의 발음을 오래 들어온 교사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더욱 더 참을성도 많고 이해력도 높을 것입니다. 왜 교사를 평가자로 선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지요?

4. 말하기의 '어떤 평가'가 그 (외국인이 한) 말의 '수용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 연구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평가'와 '수용 가능성'은 다른 방법으로 측정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구에서는 '수용 가능성'도 '이해 명료도', '유창성'과 같은 말하기 평가 요인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문을 통해 측정했습니다. 즉, '어떤 평가' 하나가 더 늘어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피험자들에게 동일한 설문 하나를 더 추가하여 '수용 가능성'과 '어떤 평가'의 상관을 논한 것이 과연 방법론적으로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거친 발화를 대상으로, 일반인들에게 '수용 가능성'을 측정하고 어떤 평가 요인이 수용 가능성과 강한 상관을 보이는지를 측정하거나, 혹은 '수용 가능성'을 설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측정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론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용 가능성'을 측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근현대 조선에 거주한 서양인들의 ‘언어의식’과 한국어에 대한 관점 연구

고경민(건국대)

<차 례 >

1. 들어가며
2. 서양인 연구자의 조선에 대한 관점
3. 서양인 선교사들의 한국어 인식
4. 나오며

1. 들어가며

19세기 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 근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로 한글이 국문으로서의 위상을 막 갖추기 시작한 때로 볼 수 있다. 한문으로만 간행되던 관보는 1895년 2월 이후 국한문 혼용체로 펴내게 되었고, 각종 학교 법령과 관제를 점검하기 시작한 때도 이 무렵이다. 이 시기 서양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조선의 법령 제정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심은 한국어 학습서의 편찬이나 사전, 신문, 학술지 등 다양한 매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 시기 서양인의 한국어에 대한 저술을 살펴는 데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은 선교를 목적으로 조선에 거주한 선교사이다. 의료나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조선에 거주했던 서양인들 가운데 선교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당시의 한국 사회에서 선교사들이 갖는 위상과 역할 때문이다.¹⁾

1880년대 한국에서 활동한 개신교 선교사들에 대해 살핀 이수기(2015:93)에서는 이 시기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들을 두 분류로 보고 있다. 하나는 외교 관계와 관련 있는 외교관 부

1) 육영수(2018:115)에서는 선교사 연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이유로 기술하고 있다.

첫째, 이들은 단기간에 특정한 공무나 비즈니스로 한국을 방문했던 외교관과 사업가, 여행자 등과는 달리 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한국인과 한국전통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었다는 차별적인 장점을 갖는다.

둘째,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의 기독교화라는 일차적인 목표 외에도 서구적 가치관으로 계몽시키는 ‘문명화 사명’의 전위대였다. 직선적인 시간 개념, 개체적인 개인 개념, 신체와 성에 관한 문명화된 이해 등과 같은 ‘서구의 세부적인 문화적 가치의 중개 활동’에 선교사들은 종사했다.

셋째, 서양인 선교사들은 공식적인 외교채널이나 국제 무역 네트워크 등과는 다른 성격의 긴밀하고도 총칭한 선교 망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종의 트랜스내셔널 지식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넷째, 선교사들이 남긴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들, 일기, 편지, 리포트, 소설, 역사서, 번역서, 지방 언어의 문법책, 민속풍습 연구서 등은 매우 기초적이며 영향력 있는 ‘제국의 아카이브’이다. 제국과 식민지, 중앙과 변경, 백인과 유색인, 국경과 경계 등에서 발생하는 ‘상호 뒤엉킴의 형태’를 엿볼 수 있다.

류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활동과 관련 있는 선교사 부류이다. 이 시기에 방문한 외교관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7년간 체류한 반면 선교사들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30년간을 체류하였다. 하지만 모든 선교사가 같은 생각으로 조선에 거주한 것은 아니다. 특히 1880년대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했던 다니엘 기포드(Daniel Lyman Gifford)는 식민사관에 입각한 임나일본부설과 한국이 일본의 조공국이었다는 주장 외에 갑오개혁에 대해 일본에 의한 한국의 개혁은 완벽하고 훌륭했다는 평가를 해 일본에 편파적인 서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선교사들과 차이를 보인다. 같은 미국인 선교사였고 비슷한 시기에 방문했던 험버트(Homer Bezaleel Hulbert)는 갑오개혁에 대해 일본의 간섭으로 독립적인 개혁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과는 달랐다. 이들이 모여 편찬한 잡지나 신문에서도 한국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고, 이런 매체에 대한 평가 역시 다양하다. 영문잡지 『코리아 리포지토리』²⁾(The Korean Repository, 1892-1899)는 한국에서 영문으로 간행된 최초의 잡지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풍습, 종교, 언어 등을 해외에 알리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소개하여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문잡지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³⁾

이렇듯 이 시기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서양인들의 관점은 개인에 따라, 출신국에 따라, 종교 분파에 따라⁴⁾, 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것이 한국어에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시기의 서양인 편찬의 한국어 관련 저술은 한국어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에 대한 역할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근현대 시기 서양인 대상으로 간행된 한국어 관련 학술저널과 교재, 기고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근현대 조선에 거주했던 서양인 연구자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의식⁵⁾과 관점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의식이나 관점을 살피는 과정은 한국어에

2) 이 잡지의 역할에 대해 유영렬(2004:2)에서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풍습, 종교, 언어 등을 해외에 알리는 데 공헌했으며,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소개하여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데 역할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육영수(2018:147)에서는 『Korean Repository』와 같은 영문잡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와 함께 여기에 담긴 제국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영어월간지가 미국(제국)과 일본(제국)의 식민지 개척과 정복에 유용한 지식을 상호 공모·교류하는 포럼을 기능했다는 가설이다. 미국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축적했던 조선에 관한 부정적인 지식들이 일본에 수입되어 조선의 식민지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 재구성, 운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선교사들이 무의식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서구화에 가장 앞장섰던 모범생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근대화’(=서구화)에 늦장부리거나 저항하는 국가들 - 중국과 조선-을 논리적으로 제압할 권력-지식들을 상호 교환했다는 점을 증언해 준다.”

4) 개신교가 중심이 된 잡지나 신문에서는 가톨릭 신부들이 포교에만 전념하고, 조선의 실상을 모른척한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가톨릭 월간지에는 개신교가 엄청난 물량으로 ‘조선 천주교에 위협’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이 엄청난 물량은 의료와 교육 분야였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5) 이 연구의 제목과 목적에서 제시한 ‘언어의식’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 용어이고, 연구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인들이 자국의 언어에 대해 갖는 인식, 자국과 타국의 언어에 대한 위상의 차이, 자국 언어의 정체성 등이 한국어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저술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이를 ‘언어의식’이라는 광범위한 용어에 담고자 한다.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자국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서양인 연구자들이 펴낸 잡지와 신문, 한국어 학습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론을 기술하기에 앞서 이 연구와 관련한 연구의 전제와 연구를 진행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아마도 이것이 이 연구의 연구 문제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접한 다나카(2005:59)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잡한’ 언어라는 개념을 언어의 구조 자체에까지 확대하는 사고방식은 확실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미개한 언어와 발달한 언어라고 하는 식으로 대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발전 단계의 질서로서의 진화의 도식 위에 위치시킬 때 그것은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지적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언어와 민족은 분리할 수 있다는 언어 제국주의를 지탱하는 언어 이론」,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다나카 가쓰히코, 59p.

연구 주제를 준비하면서 서양인 연구자의 ‘언어의식’에는 분명 제국주의적 색채 또는 오리엔탈리즘이 내재화된 의식이 팽배했을 것이라 단정을 짓고 있었다. 2장에서 살펴볼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봤을 때 이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전제라 판단했다. 하지만 거칠게나마 3장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이것이 매우 위험하고, 경솔한 판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한국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잘못된 것은 있지만⁶⁾ 적어도 비문명어⁷⁾로서의 평가 절하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 있다.

첫째, 연구자들이 언어적 우월성이나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영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한국어는 영어와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Edwing(1838:71, 미우라 2005:124 재인용)의 저술에서 “그 언어(영어)는 빠른 속도로 문명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 언어는 힌두 사람들에게는 법과 문학의 언어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상업적 교역의 언어고, 태평양에 흩어져 사는 섬나라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언어다.”라는 기술을 볼 수 있다. 서양인 연구자 특히 선교사의 다수를 차지하는 영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국은 영어 사회권의 영향을 받는 국가가 아니며, 그렇기에 영어와의 비교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6) 잘못된 정보나 인지에 대한 사례는 상당히 많지만 여기서는 Jones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Ice=O-reum(얼음) 이 단어는 피를 응고시키는 것(얼)과 추위(음)를 의미하는 표현에서 파생된 한국식 유추이다. “세상의 물은 신체의 피와 같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순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굳을 것이다. 추위는 물이 순환하는 것을 막고, 우리에게 응고된 피를 연상시키는 상태로 물을 감소시킴으로써 물에 이러한 효과를 끼친다. 따라서 이 결과물(얼음)은 추위에 따라 응고된 것으로 부를 수 있다.” G. H. Jones, 『Studies in Korean Etymology』, 『Korean Repository』 1권, 1892, pp 293-299. 연구자 역.

7) 앞서 인용한 다나카(2005:59)의 주장은 ‘언어를 도구’로 보았을 때 좀 더 진보한 기술에 적합한 도구로서의 ‘문명어’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 있다. 우리는 이미 진화한 언어와 지체된 언어라는 분류가 생물진화론의 도식을 적용한 것임을 보았고, 언어상으로 이러한 ‘과학적’인 유별을 부여하고 진화한 언어의 우수성을 서술한 이론가들 모두가 ‘진화한 굴절형의 언어’를 모어로 하는 유럽인들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연구자들이 영어나 프랑스어 사용자 중심의 제국주의 프레임을 중국이나 일본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은 중국이나 일본이 아시아의 ‘제국’과 같은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근대 한국과 중국의 관계나 강점기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한 비교 준거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문화권과의 비교가 우선이기에 영어나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평가하는 일이 적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어와의 비교는 ‘권력어’로서의 중국 문자의 위치와 그 위상이 문어로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언어 의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한국어문이 갖는 편리성과 과학적인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앞선 내용에서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지배-피지배)를 갖는 일본의 경우 충분히 영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국어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사회나 풍습, 한국인에 대한 편견의 글들과 달리 한국의 언어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제국주의적 관점이 담긴 글이 별로 없다는 점(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에서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글들이 이때부터 소개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한 점이다.

본 발표에서는 서양인 연구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2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3장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의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서양인 연구자의 조선에 대한 관점

근현대 서양인 연구자들의 저서와 자료를 살피는 과정에서 ‘언어의식’이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리엔탈리즘’이나 ‘제국주의적 관점’과의 영향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제국주의 영향 아래에서 성장한 이들의 타자에 대한 시각에는 이미 의도를 하든 하지 않든 내재화된 의식의 잔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을 바라보는 식민지를 경험했거나 유사한 지배를 경험한 이들 역시 당위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이러한 시각을 갖고 이 시기와 이들을 바라보게 된다. 제국의 시민들이 식민지인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의 시민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이른바 ‘문명론’의 관점이라 하겠다. 이혜석(1990:252)에서는 서구 제국주의의 해외팽창 과정에서 본국인에게는 제국주의 정신을 합리화하고 식민지인에게는 제국주의 침탈을 문명화의 길로 미화함으로써 민족적 모순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선교사’들이 담당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또한 황재범(2004:239)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서구 기독교 선교가 제국주의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 가장 근본적 이유로 당시 선교가 선교사들 개인의 순수한

종교적 동기뿐만 아니라 당시 서구의 시대정신 혹은 역사의식이었던 ‘정복주의’ 혹은 ‘십자군 정신’ 혹은 ‘식민지주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문명론의 관점에서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 안에서도 양가적 입장이 존재하고 있고, 모든 기술을 ‘제국주의’의 틀 안에서 해석하는 일은 경계해야 할 일임은 분명하다.

1832년 영국의 암허스트(Lord Amherst) 호가 충청의 서해 인근에서 3주 정도 머물며 한국과 수교를 시도하던 때 함께 동승했던 인물이 독일의 선교사이자 의사인 귀츨라프(Gützlaff)였다. 이미 중국어에 대한 언어 지식이 있었던 그는 직접적으로 한국 땅을 밟고 교류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조선어에 대한 견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최초로 조선에 발을 들였던 것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아닌 가톨릭 신부들이었지만 귀츨라프 이후 조선을 찾은 다수는 개신교 선교사들이었다.⁸⁾ 김승태(2004:195)에서는 1896년 10월 당시 학부대신이었던 ‘신기선’의 『유학경위』를 소개하면서 당시의 보수적인 유학자나 당시 정부 관리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제시한 바 있다.⁹⁾기독교의 전파는 단순한 종교 교리를 전하는 것 이상으로 당시 조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상이 서구사회에 전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김승태(225)에서는 개개인의 신념과 인권을 우선시하는 서구 근대인의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가 수용되었다는 점과 사회 문화적 의식의 개혁을 가져왔다는 점, 신분 차별과 같은 사회 문화적 폐습의 개혁을 가져왔다는 점, 세계관의 확대와 국제 교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당시 기독교 전파의 의미를 찾고 있다. 이 가운데 선교사들이 특히 주목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당시의 ‘여성인권’에 대한 부분이다.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조선크리스도인회보>¹⁰⁾를 보면 ‘녀성론’이나 ‘녀학교론’과 같이 여성의 권리와 교육에 대한 사설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또 그 중에 우심흔 풍속은 인물을 미매함이라. 사나희보다 계집종을 혼이 미매함느니 었지 야만의 나라에 악풍이 아니리오. 그 폐단을 궁구하여 보건디 도모지 녀즈를 ?라치지

8) 김승태(2006:41)에서는 1945년 이전에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1,592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이 1059명으로 가장 많고, 영국이 199명, 캐나다가 98명, 호주가 85명 기타 88명이다.

9) “근세 서양인의 이른바 예수교 같은 것은 비천하고 망녕되어 곧 오랑개 풍속의 비천한 것일 뿐이요, 더불어 말하기에도 부족하다. 예수의 가르침에 그 이른바 천당 화복의 설은 불교의 지류에 가깝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시골의 천한 풍속의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다. 천신을 예배하고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종종 하늘을 속이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풍속은 저절로 오랑개의 비천한 풍속일 뿐이어서 본래 이단의 목록에도 넣기에 부족하며 요즈음은 그 교도 조금 쇠퇴하였다. 그러나 아시아대륙의 여러 나라 외에 모든 지구상의 구라파 종자들은 오히려 모두 그 교를 숭상하고 중국의 선비와 백성도 간혹 그에 오염된 자가 있는 것은 홀로 무엇 때 문인가” 신기선 『유학경위』 476-477

10) 류대영(2005:7)에서는 선교사 신문의 창간 배경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조선크리스도인회보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1897년 2월 2일 창간하여 대체로 주간으로 발행하던 4~6면 분량의 순 한글 신문이었다. 이 신문은 그해 12월 초 국호가 대한으로 바뀌어 제국이 되자 제목을 <대한크리스도인회보>로 바꾸었는데 1900년 9월 아펜젤러가 안식년 휴가를 맞아 미국으로 가면서 발행이 중단되었다. 아펜젤러가 조선으로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회보>는 복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미국의 남북감리교가 합동으로 <그리스도인회보>라는 신문을 1905년 1월부터 내다가 교회 연합 운동의 일환으로 장로교 신문인 <그리스도 신문>과 통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못한 식습이라. 학문에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하매 남조의 천디를 밟으려니와 만일 텃디 리치와 고금 스적과 외국 형세까지 알진디 가히 교소 노릇도 하며, 판인이 되어 국소를 의론하며, 빅성을 다스릴 터이여늘 엇지 구구히 남조의 천디를 밟으며 사나회가 엇지 녀조를 업수히 녀이리오. 미국이 남녀의 권리를 동등으로 행한 후에 거룩한 부국이 되었으며, 일본이 녀학교를 확장한 후에 나라히 강하게 되었으니 국가의 흥왕하고 쇠패함이 실노 녀조를 거르치고 아니 거르치는 디 잇는지라. 「녀학교론」, 『조선그리스도인회보』 2권 31호, 1898년 7월 27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시민이 식민지 시민의 억압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문명론’의 관점에서 논지를 시작하는 것이다. 즉, 문명이나 개화와 같은 개념을 등에 업고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낙인을 찍은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시작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더글러스 로빈슨(2002:67)에서는 유럽 중심의 문명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3) 역사는 원시적 과거에서부터 동시대 유럽 문명과 현저하게 유사한 근대라는 목적지 혹은 ‘텔로스’를 향해 나아간다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이 관념은 유럽의 관점과 상이한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 종족의 ‘과거’라는 것이다. 즉 그 타자들은 궁극적으로 유럽인의 자아가 생겨난 인간의 진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런 유럽 중심적인 관점은 ‘봉건 체제’ 혹은 ‘수렵 단계’와 같은 인류학적 용어들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문화들 간의 불균형 관계를 은폐하고 어떤 문화는 인간의 유년 시절을 상징적으로 대표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약한’ 혹은 ‘피지배’ 문화나 언어는 시공간적으로 모두 ‘멀리’ 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는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는 ‘초기’에 해당하고, 무의식적으로는 2천 년 전의 유럽인 혹은 3천 년 전의 그리스인들과 연관된다. 달리 말해 그들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원시적인 것이다. 『번역과 제국』, 더글러스 로빈슨, 2002, 67p.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보자면 당시 조선의 문화는 ‘약한 것’이고, ‘멀리 떨어진 것’이고, ‘옛날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명론과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약하고, 오래된 것은 가르쳐야 하는 야만적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육영수(2018:148)에서는 이 시기 서양인 선교사들에 대해 조금 더 과격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주축이 되어 편찬했던 『Korean Repository』와 같은 잡지를 두고 서양 선교사들이 체계적으로 식민사관을 재가공한 매체로 기술하기도 했다.¹¹⁾ 아래 역시 (2)와 비슷한 내용의 사설이다.

11) 육영수(2018:148)에서는 『Korean Repository』가 일본제국의 조선 식민지화를 후원하고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제국과 그에 부역했던 학자들이 조선 역사에 내재된 것으로 꼽았던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사대주의론’, ‘문화적 독창성 결어론’ 등 식민사관의 거의 모든 핵심 요소들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생산·주조·제품화·수출·재가공 했던 주역이 서양 선교사들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갖는 한국학 담론의 생산과 소비 사이클의 최고정점에 ‘코리아 리포지터리’가 우뚝 서 있다고 기술하였다.

(4) 그런즉 점점 녀인은 더 못쓸 물건이 되고 녀인이 못쓸 물건이 될수록 남자는 더욱 무지한 야만이 되느니 남자가 다 야만이 되면 그 나라를 야만국이라 하느니 야만국과 문명국이 충돌이 었더하리요. 또 한가지 더 더러운 악습은 부자라 귀인이라 하는 이들이 첩 두셋을 두고 밤낮 회색으로 세월을 보내고 큰 마누라니 적은 마누라니 하여 질투하는 모습 이 여차에 나 집안에 화평한 기운 잇는 날이 업고 혹 그 중에서 즈식이 나면 덕즈니 셔즈니 하여 턴륜을 손상케 하니 이거시 턴명을 거역함이라 당초에 하늘이 일남일녀를 니시매. 「부인의 교육이 데일 급무」, 『조선그리스도인회보』 3권 7호, 1899년 2월 15일.

문화를 ‘문명’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점은 문화를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직선 위에 둔다는 점이다. 문화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윤색한 ‘진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유럽과 비기독교 문화는 야만이나 ‘반개화’ 또는 ‘반문명’의 상태가 된다. 유럽 사회에서 오랜 시간 ‘이교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역사적 사건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시기 조선의 모습은 선교사들에게 참혹한 곳이었을 것이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누구보다 박식하고, 애정이 있던 게일 목사조차 “한국인이 오컬트에 심취해 있다는 점은 두말할 것 없는 사실”로 단정하기도 했다.¹²⁾ 다만 종교적 목적이 분명한 선교사의 관점에서 이 시기 무속 신앙이나 미신과 같은 주제는 공격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종교나 미신과 관련한 내용은 차치하고, 앞서 살핀 (2)와 (4)와 같이 여성의 교육 문제는 선교사들이 꽤 관심을 기울인 주제임에는 분명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과 참정권에 대한 논쟁이 19세기 중반부터 있었다고는 해도 미국의 여성 참정권이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에 의해 통과되었다는 점이나 19세기 중반까지 영국과 유럽 일부에서 자행되었던 ‘아내 팔기’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 악질적인 노예 거래를 고려할 때 이 점은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 없다.¹³⁾

앞선 기사와 달리 직접적으로 문명론의 관점에서 기술한 글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래는 인종과 개화에 대해 작성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4) 세계의 인민은 그 풍속과 법도와 인륜과 학문의 나아가며 나아가지 못함을 좇차 진화의 분수가 각각 다름이 잇스니 아메리사와 아프리카의 본포 빅성과 아시아 주의 혼쑉 빅

12) 『코리아 매거진』 1권에 게일 목사는 “Concerning The Occult”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13) 앞선 여성의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주목할 점은 ‘누가 이들의 가장 효과적인 포교 대상이 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당시 한글(언문)을 중심으로 어문생활을 하고,(또는 할 수밖에 없었던)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렵지 않았던 여성들이 포교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이들에게도 여성의 교육은 여성 인권의 신장이라는 목표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일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2)에서 인용한 기사글의 다음 호에는 “녀조라 하는 거슨 우흐로 남편을 돕고 아래로 아들을 가르치며 니명의 일을 주관하야 집의 도를 창성케 하느니”로 시작하는 점이나 “또 그 중에 우심흔 풍속은 인물을 미매함이라. 사나히보다 계집종을 혼이 미매하느니 었지 야만의 나라에 악풍이 아니리오”와 같은 기사의 내용을 볼 때 여성 권리와 인권의 관점에서 기사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노예 매매의 잔재가 서구에서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자신들이 자행했던 역사를 모를 리 없는 서양인 선교사들에게 당시의 조선은 문명화되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야만적인 것=과거의 것’이라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성을 광막한 산들과 흑 바다가에 거쳐야 물고기 산양으로써 생업을 해야 형상이 굴속에 잇슬 때와 다름이 업스니 야만이라 날코느니라 중략 그 밧기 아셔야 중의 허다한 인민은 농스와 공장과 장사의 업을 흥하며 기예와 문조를 외여 너히니 기화치 못흔 빅성의게 비 흥면 그화흔 디경에 니르되 흥곳 네를 귀히녀이고 다시 문명의 진보함을 브라지 아니흥며 실흔 학문을 강구치 아니흥고 허탄흔디 미혹흥야 조그 잇습만 알고 나라히 잇습을 알지 못흥며 헛된 레모에 얽미여 지식을 발달할 뜻시 업스니 반기화의 빅성이라 흥느니라. 「인종과 기화의 등급(만국략스)」, 『그리스도신문』 5권 37호, 1901년 9월 12일.

이향순(2003:212)에서는 선교사들이 미국인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하기도 했으며, 『은자의 나라 한국』과 같이 선교사들 사이에서 널리 읽힌 저서 내용 중 서양인들이 아기를 삶아 먹는다는 언급을 통해 왜곡된 사실이나 주장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게일의 저서 내용을 근거로 침대를 사용하는 서양의 생활 양식과는 달리 온돌에서 자는 한국인들을 미개하고 불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든가, 서양 음식은 문명인의 것이지만 한국의 음식들은 미개인들이나 먹는 냄새나고 이상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언급한 바 있다.¹⁴⁾ 다만 이런 점들을 근거로 이들이 모두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조선을 평가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대의 한국을 방문했던 선교사들 역시 ‘문화기대’와 ‘문화충격’의 단계를 거쳤을 것이기에 모든 꾸념과 불만을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평가로 규정짓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조선에서 선교사들에게 갖는 기대와 호의는 남다른 것이어서 고종의 침소를 지키는 일을 하거나 국가의 대소사에 자문을 하는 등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김희영(2007:171)에서는 이러한 서양인들이 갖는 ‘제국주의 시대의 서양문화’가 동양에 대해 토착적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공감이가는 충고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시기 선교사들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잘 설명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몇 종의 잡지와 신문에 실린 글이 서양인 선교사 모두의 생각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 한국에 대한 선교사들의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종교와 문명이다.

첫째, 종교적인 관점에서 한국인은 ‘비기독교인’이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교도’이다. 종교적인 관점은 가장 강력한 동기이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 또한 이것은 서양인 선교사들에게 내재된 제국주의적 관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¹⁵⁾ 중세와 달라진 것은 이

14) 또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한국어 교육과 보급에 열성적이었던 언더우드조차 편지 내용에 한국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한국인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상모략과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내용이나 게일이 말한 “천 년에 걸쳐 조선은 발명도 없었고, 발견도 없었고 진보도 없었다. 무의식중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되뇌면서 국가는 조금씩 퇴보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15) 이런 선교사들에 대한 평가나 관점을 선교사들 자신도 알고 있었고,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스니드(A.C.Snead) 선교사는 “우리는 미국인이거나 캐나다인으로서 또는 다른 어떤 나라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선교지에 가야 한다. 우리의 사명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우리 서구 문화를 받아들일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태어나 모든 이의 구세주가 되신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교도들을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다.

둘째, 문명론의 관점에서 한국은 ‘반문명’ 국가이다. 예의와 전통을 존중하고, 독립된 문자 체계를 갖는 국가이지만 동시에 악습이 많고, 부정과 부패가 심각한 곳이며,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이다. 여기서의 ‘반문명’의 기준은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정도 또는 제국과 인접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고,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임과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선교사들이 한국에 머무르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3. 서양인 선교사들의 한국어 인식

3장에서는 서양인 연구자의 ‘언어 인식’, 그 가운데 한국어에 대한 관점을 제국주의적 관점과의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근현대 서양인의 한국어 관련 저술을 토대로 서양인 연구자의 한국어 인식에 영향을 끼친 요소¹⁶⁾들을 함께 살필 것이다.

이 시기 언어 면에서의 주목할만한 변화로 이광숙(2014:8)에서는 편집국이 국문철자를 사용한 점을 들고 있는데 1894년 12월 17일 반포된 칙령을 통해 이전까지 한문으로 간행되던 관보는 1895년 2월 이후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하게 된다. 글보다 말을 바꾸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국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했던 것에 비한다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¹⁷⁾ 하지만 이 시기 선교사들의 저술에서 공통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 중 ‘한자 중심의 어문 생활’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실제 국문이 정착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5) 우리가 그전에는 한문과 언문이 어능거시 용이하고도 묘한 글인줄 분간치 못했거니와 지금 보건대 이만치 보기도 쉽고 알기도 쉬운 거슨 언문만한 글이 업스니 불가불 공부하여야 할 거시오. 「지식」, 『그리스도신문』 1권 18호, 1897년 7월 29일.

(6) 한문조만 가지고 엇지 나라희 대쇼스를 다 담당허리오. 지금 태서 각국을 불진대 이 십륙조 글을 가지고도 텃하 대스를 능히하며 한문을 아지 못홀지라도 텃하에 문명함과 부국강병한 나라히 되는 거슨 춤 리치를 투득함이니. 「국문이 편리한 말」, 『그리스도신문』 1권 21호, 1897년 8월 19일.

16) 안철택(2006:167)에서는 타국 또는 피지배 언어를 바라보는 제국의 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국의 언어가 피지배 언어보다 ‘발달된 언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는 특정 언어가 일정한 발전의 단계를 거치면서 더 논리적 과학적이며 학문적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기에 각각의 주체적 개인이 제국 언어 습득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개인의 이러한 바람 뒤에는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이 있다는 것이다.”

17) 이현희 외(2015:251)에서는 박제가, 이희경, 윤행임과 같은 지식인들이 문어인 한자를 바꿀 수는 없으니 언문일치를 위해 조선어 대신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한 점을 제시한 바 있다.

(5)와 (6)은 선교사들의 신문인 『그리스도신문』 1897년에 실린 논설로 당시 한국인 연구자들의 국문론¹⁸⁾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많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다. 한국어 학습이 의무에 가까웠다¹⁹⁾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내국인보다 더 강한 어조로 국문의 사용을 주장했던 바로 이 지점이 ‘제국-아프리카’와는 다른 차별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김병욱(2012:7)에서는 ‘언어 제국주의’를 ‘언어’를 수단으로 자행되는 문화적 지배로 보았으며, 언어 제국주의가 언어를 중심으로 지배 욕구와 저항 의지 사이에 펼쳐지는 투쟁 과정이라고 보았다. 직접적인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아니기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기존의 근대 제국주의와 한국과 관련한 논의나 ‘언어 제국주의’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제국-서양인-선교사-언어’의 키워드는 큰 저항감 없이 제국주의의 프레임을 모든 분야에 덧씌우게 한다. 이 시기 서양인 연구자들이 한국을 개화가 필요하고 문명이 도래하지 않은 반문명국으로 묘사하거나 일부의 풍습이나 생활상을 전체의 것으로 확대하고 재매개하는 일이 한국어에 대한 인식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자들이 언어적 우월성이나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영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한국어는 영어와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나 영어나 프랑스어 사용자가 누리는 ‘제국’의 위치를 중국이나 일본으로 치환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제국-한국어의 관점이 아닌 중국어-한국어의 관점에서 이들의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한국의 학생은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종주국가(suzerain)의 문명과 문학의 영향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교육적인 활동은 중국 한자를 익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하락. J.Scott, 『언문말척』, 1877, 서문 中, 연구자 역.

(7)은 『언문말척』에 나오는 책 서문을 시작하는 문장으로 ‘종주국가’라는 말이 눈에 띈다. 종주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예는 많지 않지만 ‘중국으로부터’, ‘중국에서’와 같이 중국과의 영향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은 빈번히 등장한다. 아래 귀츨라프가 쓴 「한국어에 대한 단상」에서도 중국과의 영향 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8) 동아시아 대부분의 문명과 문학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에서 최초로 생각을 표

18) 고길설 외(2011)에서는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를 포함한 제국 지식인들의 조선어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자국어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평가에 대해 조선 지식인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았다. 한 가지는 제국의 기준에 맞는 조선어 특히 조선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될 것이며, 다음으로 ‘국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부심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선교사들의 조선어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자국어’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 이 시기의 어문교육과 국문론에 대한 논의는 허재영(2011)과 고경민(2017)을 참조할 수 있다.

19) 서양인 연구자 중 특히 선교사들의 경우 한국어 학습이나 연구가 선교 또는 개인의 열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종의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새암(2018:59)에서는 한국어 학습 역시 선교사에게 부여된 업무이며,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선교사들은 활동에 제약이 있었는데 1년 차에 예정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선교사들은 선교회 일에 관한 투표권이 제한되었고, 최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선교사는 편집, 교육, 평가, 위원회 직책, 선교회나 선교지부의 책임직을 맡을 수 없었으며, 새롭게 개척된 선교지부에 부임도 할 수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하기 위해 문자들이 형성되었다. 중국에는 현자들과 법관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이 문자를 가르쳤다. 다른 국가들은 자신들의 문물제도를 중국으로부터 받았다. 한국, 일본과 류큐(Lewchew) 섬, 코친차이나(Cochinchina), Tungking(베트남 추정)은 잇따라 야만성을 탈피했다. 이러한 여러 국가들이 중국의 문장 방식을 채택했을 때, 이들은 또한 문자의 본래 음들을 도입했다.-하략. Charles Gutzlaff, 「Remarks on the Korean language」, 『Chinese Repository』 Vol. I, 1832, 176p. 연구자 역.

(8)에서는 문명과 문학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앞서 문명론의 관점에서 이를 살펴본다면 이들의 관점이 '제국=문명국'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제국이자 문명국에 해당하는 것이 '중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물론 이러한 사실은 모든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한국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언어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판단 실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내재화된 또는 내재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그 대상을 중국이나 일본으로 한정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의식한다는 점은 분명히 되짚어볼 문제이다. 허재영(2013:297)에서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개별 언어가 어떤 지위를 갖는가는 근본적으로 정치 권력이 결정하는 문제로 보이며, 이들 정치 권력에 내재하는 언어의 위계화는 본질적으로 '소통 능력'을 담보로 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오랜 기간 한국에서의 '소통 능력'을 담보로 하는 언어(정확히는 문자)는 중국 문자였다. 선교사들에게 중국 문자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글자가 어려운 것임과 동시에 각종 매체와 정부, 문학 작품에서 두루 사용되는 제국의 문자이기도 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의 입국이 '중국'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중국어를 먼저 학습하고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중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를 더 부추겼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어 학습서의 저자 가운데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기술한 예는 자주 볼 수 있다.²¹⁾

(9) 우리는 한국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했다. 한국어와 연관이 많은 언어로 중국어를 옆두에 두고, 두 언어의 상관관계 등도 함께 다루어 보았다.-하략. Ridet(프랑스외방선교회), 『Grammaire Coreene』, 1881, 서문 中, 연구자 역.

(10) 언어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만큼 관습과 세계관에서 한국인들은 중국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실제로 한국어에서 이중 언어가 존재한다. Andreas Eckardt, 『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 mit Lesestücken und Gesprächen』, 1923, 서문 中, 서민정 외

20) 실제 중국에서 기원한 많은 것들이 있고,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나 동아시아의 국제적 정세를 고려할 때 틀린 말은 아니나 이들의 판단 근거가 역사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세워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21) 이상혁(2016:192)에서는 초기 선교를 담당했던 프랑스의 구베아 주교는 유럽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한국어를 “그 형상이나 의미나 중국인의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했으며, 1874년에 「La language coreenne」를 간행한 달레 신부도 “조선어는 중국어의 한 방언에 불과하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

(2010) 번역 옮김.

(9)에서 저자 리델은 서문에서 한국어와 연관이 많은 언어로 중국어를 기술하고, 학습서 앞에도 천자문을 가장 먼저 제시하며, 설명을 달기도 했다. (10)에서는 한국어와의 관련성을 넘어 ‘이중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언어 체계모니와 권력에 관해 기술한 가스야 케스케(2016:289)는 언어를 말하는 집단 간의 사회적 역학 관계에 의해 언어적 사건의 사회적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 간의 상호 행위와 주변 상황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단 제국의 언어적 위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제국의 언어가 아닌 그리고 비문명 또는 반문명 국가의 언어가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고 발전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험버트(Homer Hulbert)조차 아래와 같이 중국어의 영향 관계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했다.²²⁾

(11) 그렇다면 당시 한국인들은 문자 창제를 위해 어떤 원천들을 사용했던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따로 살펴보아야 하는 중국의 문어이다. 상상의 나라를 펼치지 않고도, 우리는 한글이 중국의 표의문자에서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하략. Hulbert, 「The Korean Alphabet」, 『Korea Repository』 1권, 1892, 9p, 연구자 역.

(11)까지의 내용을 통해 근현대 서양인 선교사들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중국어-한국어의 관계를 지배어-피지배어와 같은 ‘권력’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고, 하나는 인구어를 사용하는 선교사들의 특성상 언어 비교를 통한 연구 방법론의 관점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비교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핀 가스야 케스케(2005:525)에서는 언어 제국주의가 언어라는 차원에서 권력 관계의 양태로서 나타나며, 언어적 지배가 타민족에 대한 정치적 지배의 단순한 귀결이 아니라 그 통합적 요인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언어와 권력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한국의 문자는 권력을 갖는 지배 언어나 메이저 언어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지식 계층이나 권력층이 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한국에서의 권력은 ‘한자’가 갖고 있었다. 이는 선교사들 역시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한자 중심의 어문 생활에 대한 비판이나 국문 사용의 편리함과 같은 논설에 잘 나와 있다. 중국어(한자)가 갖는 위치와 이에 대한 서양인 연구자들의 생각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글이 아래 (12)에 인용한 글이다.

(12) 몇 세기 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은 특성상 한국은 오늘날 중국의 기원이 아닌 생활이나 문학, 사상이 없다. -중략. 한국의(여기서는 ‘그녀’라고 표현) 언어 또한 중국의 것과

22) 이후 험버트는 몇 번에 걸쳐 게재된 훈민정음과 관련한 글에서 중국의 영향, 티베트 기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현존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완벽한 문자”의 앞 문단에는 중국어와 티베트어에서 빌려온 것은 무지하거나 맹종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유용한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선택이자, 과학적 계획에 따른 개조였다는 내용이 있다. 험버트에 대한 해당 논의는 이상현(2016), 고경민(2021)을 참조할 수 있다.

는 완전히 다른 언어 형태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그것과(중국어) 접목된 언어를 구사했고, 그와 같은 사상이 본질이 되어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자가 필요했다. 이것이 원어민 문자에 대한 원어민의 경멸을 설명해 줄 것이다. -중략. 언문은 한문의 노예가 되었고, 문장의 모든 험한 역할, 즉 끝과 연결과 굴절어 역할을 한다. 반면 한문은 위엄있게 명사와 동사를 담당한다.

Jas. S. Gale,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Jas. S. Gal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AS』 1권, 1900, pp 14-15, 연구자 역.

(12)에서는 당시 선교사들이 본 한글의 역할, 그리고 한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문의 역할을 ‘위엄있게’ 또는 ‘위풍당당하게’로 해석할 수 있는 “while the Han-mun, in its lordly way, provides the nouns and verbs”라고 표현한 점이다. 북미나 유럽에서 이렇게 권위가 있거나 위엄이 있는 언어로 표현되는 언어가 있는데 바로 ‘라틴어’이다. 한글과 한자의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자료 가운데 라틴어와 직접적인 비교를 한 자료가 다수인 것은 아니지만 아래 자료를 통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관점 외에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래 (13)은 ‘백인과 한국인의 대화’라는 내용으로 1901년 『The Korea Review』 9월 호에 실린 글이다.

(13) K. 네, 한국에서는 중국 문자를 사용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러한 복잡한 표의문자를 공부하느라 하루종일 앉아있는 것이 매우 지루했으며,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는 어떤 종류의 공직에서든 중국 문자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나는 중국 문자를 쓰고 읽을 줄 모른다면 살아가는 동안 내내 불리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E. 흥미롭네요, 하지만 나도 매우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열 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라틴어 문법을 공부하라고 시켰으며, 내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에 대해 불평하자, 아버지는 웃으면서 네가 정말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라틴어를 알지 못하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틴어는 공직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었지만 전문직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변호사, 의사, 성직자, 언론인, 과학자는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라틴어를 모르고는 자신의 직업에서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K. 그렇다면 당신은 라틴어로 말하는 법을 배웠겠군요.

E. 오, 아니요. 아무도 라틴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것은 단지 문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고대 고전들을 원어로 읽기 위해서 라틴어를 배웁니다. 우리 언어의 대부분이 라틴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영어 어원학에 대한 지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라틴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문학은 고전 주제들에 대한 암시로 가득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을 수 없다면 영문학 과목을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K. 우리와 똑같네요. 어떤 한국인도 중국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문어에 불과하죠. 모든 한국 문학은 중국 모델을 기초로 하며, 중국 고전 자체는 한국에서 지식 계층이 읽는 책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층민이 토착 문자로 읽는 많은 이야기들도 고전 주제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중국 문자 습득을 향한 지속적 경향이 존재합니다. 편집부, 「An Anglo-Korean Conversation」, 『Korea Review』 1권 9호, 1901, 387p, 연구자 역

(13)을 보면 중국어-한국어의 관계를 라틴어-영어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어’가 아닌 ‘문어’로서 누리는 언어 위계 상의 위치와 자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지배어-피지배어’, ‘문명어-비문명어’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舊語-新語’의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럽에서 라틴어가 학문과 종교, 문학 등의 영역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철저하게 ‘문어’ 중심이라는 점은 당시 중국어와 한국어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김신곤(1995:12)에서는 프랑스어를 통해 영국에 자리 잡은 라틴어를 영국의 문법체계에서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풍조였고, 특히 고전 교육에서의 라틴어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시기(중세) 라틴어는 교회의 언어였을 뿐 아니라 학문의 언어로 당시의 지식인들이 문어나 적게는 그들의 발화에도 라틴어를 인용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라틴어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한 자료들이 많지는 않지만 헐버트(Hulbert)도 「Korean Survivals」에서 다음과 같이 라틴어와 한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14) 그는(설총) 이 문제에 있어서 영국인들을 라틴어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디딘 사람들보다 훨씬 큰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했다. H. B. Hulbert, 「Korean Survival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AS』 1권, 1900, 31p, 연구자 역

(14)에서는 헐버트가 한국어의 기원 및 한국 역사에 대해 기술하는 과정에서 ‘설총’의 역할과 업적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문과 이두 표기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라틴어와 영어의 관계를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15) 중국어는 한국의 라틴어로 부를 수 있다. ‘라틴어화’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예의 바르고 학문적이다. 그러나 상인이나 중산층의 대화,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중국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H.R. Underwood, 『한영문법』, 1890, 5p, 연구자 역

(15)에서는 언더우드가 한국어 문법과 품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²³⁾ 한문 사용과 라틴어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중국어(한문)를 전문적(학문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

23) 이밖에도 한국어 어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언더우드는 영어와 라틴어 어휘를 함께 제시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군, the more generally used, is a termination equivalent to the Latin “ator”, or the English “er”, and may be added to almost any word with which work of any kind is connected. 『한영문법』 30p.

무래도 라틴어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성경이나 고전 문학의 번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 비친 중국어-한국어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라틴어-영어의 관계가 가장 적절한 비교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3장에서 살핀 선교사들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에 대한 인식’은 정확히는 ‘한국 문자’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서양인 연구자들이 펴낸 신문이나 잡지, 학술지 등에서 논하거나 평하는 것은 ‘구어’가 아닌 ‘문어’에 대한 것이다. 게재한 글의 내용 중에 ‘중국어’나 ‘한국어’로 표현한 것들은 글의 맥락이나 지칭 대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문자’, ‘한국의 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서양인 연구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한국 문자에 대한 인식 역시 구분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어(한글)의 기원이나 영향 관계를 논하는 데 있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증명하거나 구체적인 영향 관계를 논한 자료는 거의 없다. 헐버트의 글에서 상관관계를 추측하는 글을 게재하기는 했으나 글 자체의 신빙성은 떨어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없음에도 이들이 의식적으로 중국어와의 상관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문명이나 진화의 개념이 제국에 적용되는 것이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그나마 제국과 유사한 중국을 제국으로 치환해서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된다는 점, 하나는 인구 사용자들의 특성상 주변 언어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언어 연구(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점²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라틴어’와 같은 위치와 역할을 ‘중국어’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일반적인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발달된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 ‘진화한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 ‘과학적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로 대별되는 구분이 한국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어나 일본어와의 영향 관계를 논하는 것과 별개로 한국어(한글)의 편리함과 독창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이점은 제국주의 시대의 언어관에서 상당히 특별한 지위를 갖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시기에 근대 ‘한국에 대한 평가’와 결이 다른 ‘한국어에 대한 평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4. 나오며

근대에서 현대로의 전환기를 흔히 ‘격변(激變)’의 시기라고 한다. 새로운 문물과 지식,

24) 파리외방전교회(2015:14)에서 저술한 『조선 천주교 그 기원과 발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어는 중국어와 상당히 다르다. 중국어는 다음절어인데 조선어는 다음절어로서 교착어의 한 갈래에 속한다. 조선어는 한편으로 일본어와 이웃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랄 알타이어족-몽골어·통구스어·터키어·사모예드어 등-과 가까우며, 또한 인도의 드라비다어족-타밀어·말라바르어 등-과도 유사한 점이 많아 보인다.”

거기에 새로운 종교와 사상까지 들어오면서 근대 한국은 격변의 시기를 겪었고 이 변화의 한 축에 서양인 선교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일본의 침탈과는 다른 유형의 정신·사상적 침탈로 보기도 하고, 지식과 문화를 꽃피우게 한 축복으로 보기도 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서양인 선교사들의 역할과 가치가 명확했다는 점일 것이다. 반드시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의료와 교육에서 이들의 역할이 분명했고, 한국어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널리 알렸다는 점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에 가려 논의되지 않은 점들, 그리고 선교를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고 가르쳐야 하는 당위적 이유를 견어낸 이들의 인식도 분명 존재했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찬란하고 아름다운’의 수식어가 빠진 사실적인 인식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들의 인식을 몇 종의 잡지와 신문, 학습서에 실린 글을 통해 살펴 보았다. 몇 편의 글이 이들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글은 이들의 경향을 알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나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다소 무거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자료들을 살펴다보니 이들의 업적과 가치를 폄훼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그리고 그것이 이들을 한 방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질적인 문화가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지금, 근대 선교사들의 지혜로운 한 편의 글로 이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조선인들이 매일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들, 예를 들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같은 말들은 ‘평화’라는 단어가 아주 빈번히 쓰이는 복음서 속의 표현들, “너희에게 내 평화를 주고 가노라”, “마음이 착한 이들에게는 평화가 있기를” 등을 떠올리게 한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란 인사말은 천주교 신자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조선인이 하루에 백번도 넘게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중략. 만약 어떤 조선인이 친구를 방문한다면 그는 똑같은 표현을 쓸 것이다. 그런 표현에 이국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들은 조선인 자신의 것이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조선의 소묘」, 『극동』 6월, 1938년 기사 中

참고문헌

- 가스야 게스케 저, 고영진 외 역(2016), 『언어·헤게모니·권력』, 소명.
- 고경민(2017) 「근대계몽기 인쇄매체를 통해 살핀 ‘어문 의식’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대한 고찰 - 신문과 학술지를 중심으로 -」, 『한말연구』 44호, 한말연구학회, 5-32쪽.
- 고경민(2021), 「근현대 서양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학습서의 총체적 접근과 분석 -한국어 인식의 차원에서 구체화에 이르기까지」, 『영주어문』 49권, 영주어문학회, 289-322쪽.
- 고길섭 외(2010), 『민족의 언어와 이데올로기』, 박이정출판사.
- 김병욱(2012) 「언어식민주의와 아프리카의 언어 수용 양상」, 『한국프랑스학논집』 79권, 한국프랑스학회, 1-37쪽.

- 김승태(2004), 「개화기 기독교 전파의 사회 문화적 의미」, 『개화기 한국과 서양의 상호 교류』, 국학자료원.
- 김승태(2006), 『한말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김신곤(1995), 「영어어휘에 미친 라틴어요소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 2권, 창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7-49쪽.
- 김희영(2007), 「오리엔탈리즘과 19세기 말 서양인의 조선 인식」, 『경주사학』, 경주사학회 26권, 165-181쪽.
- 더글러스 로빈슨(2002), 정혜옥 역, 『번역과 제국』, 동문선.
- 류대영(2004),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미우라 노부타카 외(2005),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 박새암(2018) 『개신교 선교사 한국어교육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적 연구』,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 서민정, 김인택(2010), 『근대 한국어를 보는 제국의 시선』, 박이정.
- 수원교회사연구소(2004) 「I. 선교와 제국주의 - 프랑스 선교사들은 왜 조선에 들어왔나? -」, 『상교우서』 5권, 수원교회사연구소, 10-14쪽.
- 안철택(2006), 「문화제국주의와 언어의 다양성」, 『독일문학』 100권, 한국독어독문학회, 153-180쪽.
- 유영렬(2004),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경인문화사.
- 육영수(2018), 「서양 선교사가 주도한 근대 한국학의 발명과 국제화, 1870년대-1880년대」, 『역사민속학』 55호, 한국역사민속학회, 111-157쪽.
- 이광숙(2014), 『개화기의 외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상혁(2016), 「근대 초기 영문 잡지에 나타난 서양인의 ‘조선어’인식에 대하여-」, 『한국인물사연구』 25호, 한국인물사연구회, 185-212쪽.
- 이상현(2016), 「익명의 한국학자, 이익습과 The korean repository誌의 ‘훈민정음 기원론 논쟁」, 『열상고전연구』 Vol 54, 열상고전연구회, 629-661쪽.
- 이수기(2015) 「1880년대 한국을 방문한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인식」, 『역사문화연구』 55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89-132쪽.
- 이향순(2003), 「미국 선교사들의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주의적 확장」, 『선교와신학』 12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9-255쪽.
- 이혜석(1990), 「한말 미국 선교사들은 무엇을 하였나」,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9호, 252-257쪽.
- 이현희 외(2015), 『근대 한국어 시기의 언어관 문자관 연구』, 소명 출판.
- 허재영(2011), 『일제강점기 어문 정책과 어문 생활』, 경진 출판.
- 허재영(2013) 「언어 권력에 대한 연구 경향과 사회언어학적 접근법에 대하여」, 『사회언어학』 21권 3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83-306쪽.
- 황재범(2004), 「현대 서구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적 경향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들」,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권 1호, 한국기독교학회, 237-259쪽.

▣ 토 론

“근현대 조선에 거주한 서양인들의 ‘언어의식’과 한국어에 대한 관점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주연(건국대)

근현대 조선에 거주한 서양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어에 대한 인식 연구는 연구자께서 꾸준히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을 읽으면서 서양인 선교사들이 ‘이교도’이며 ‘반문명’, ‘비문명’ 국가라고 한국을 평가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에 대해서는 비문명 국가의 언어로 평가 절하하지 않고 편리함과 독창성을 가진 언어라고 인식하여 차이를 보인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근현대 서양인 선교사들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언어 사용과 언어 권력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논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서양인 선교사들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 중 첫 번째 논의를 보면, ‘한국어에 대한 인식’은 구어가 아닌 ‘한국 문자’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으며 선교사들의 관련 자료에서 언급하는 ‘중국어’와 ‘한국어’는 ‘중국의 문자’와 ‘한국의 문자’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1)에서 헐버트는 ‘문자 창제를 위해 어떤 원천들을 사용했던 것인가?’라고 하면서 ‘한글’이 ‘중국의 문자’에서 진화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문자’는 ‘한글’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나 (5), (6)처럼 ‘한국의 문자’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문자로 해석한다면 한문과 한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은 ‘한국의 문자(한자)’가 라틴어와 같은 위치에서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이중언어로도 인식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의 문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2. 본 논문에 따르면 서양인 선교사들은 한국어에 대해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발달된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 ‘진화한 언어’와 그렇지 못한 언어로 구분해서 평가하지 않고 편리함과 독창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5), (6)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인 선교사들이 한글의 편리함과 독창성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12)와 같이 언문은 문장의 모든 험한 역할, 즉 끝과 연결과 굴절어 역할을 하는 반면 한자(중국어)는 명사와 동사를 담당하며 위엄있고 위풍당당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인식 논의를 정리한 부분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12)의 자료를 보면 선교사들이 ‘한글’에 대해 여전히 내재된 제국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본 논문에서 서양인 선교사들은 중국어-한국어의 관계를 지배어-피지배어와 같은 언어와 권력의 관점으로 보고 한국의 문자는 권력을 갖는 지배 언어나 메이저 언어로 보기 어려우며 지식 계층이나 권력층이 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한국에서의 권력은 ‘한자’가 갖고 있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1880년대부터 영어나 일본어와의 접촉이 본격화되고 개항 이후 설립된 각 학교의 교과목에서는 영어가 필수 과목처럼 인식되었으며 1906년에 이르러서는 일본어가 국어와 대등한 교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양인 선교사들은 그 당시 한국 사회나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언어 권력이 이동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면 연구자에게서 분석하신 자료 중에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1부 <제2 분과 언어학>

‘정보통신 분야의 TV 광고 분석

-유무선 콘텐츠 광고를 중심으로-

윤재연(호서대)

<차 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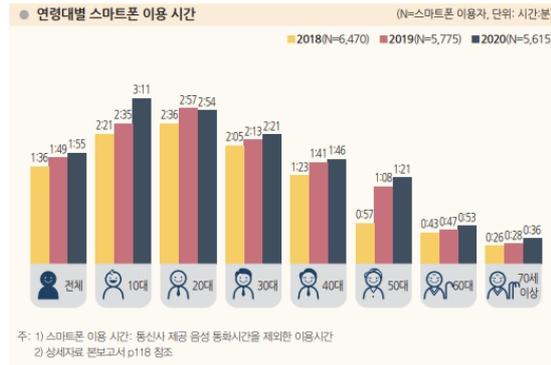
1. 머리말
2. 연구 대상
3.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텍스트 특성
4. 결론

1. 머리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각종 구매 어플, 알바 어플, 소개팅 어플 등)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상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간단히 표현하겠다.) 광고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분석, 해당 분야의 광고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경향성이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¹⁾에 따르면, 10~30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들 광고에는 앱의 주 사용층이라 할 수 있는 MZ세대²⁾의 특성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광고의 분석 결과는 사회와 세대의 변화된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는 전국의 4,042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가구원 6,029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6일~9월 18일 사이에 실시한 면접조사를 통해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 MZ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그림1>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11쪽.

2. 연구 대상

2.1. 연구 대상 광고 선정 기준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은 광고 포털 사이트인 <TVCF>에서 수집하였고, 이에 따라 제품군의 분류는 <TVCF>의 분류를 따랐다. <TVCF>에서는 광고를 산업 유형에 따라 '정보통신, 전기전자, 자동차/정유' 등 크게 14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각 유형은 해당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의 속성에 따라 다시 몇 개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정보통신' 광고는 다시 '이동통신, 휴대폰통신기기, 인터넷통신서비스, 유선통신망, 유무선콘텐츠, 기타'의 6개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때 이들 하위 유형에 속하는 실제 제품들은 정보통신 분야의 제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실제 품목별 속성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제품의 속성을 비롯하여, 주 사용자층에서도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품군별 광고 텍스트의 특성 또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하위 제품군별 광고를 따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중 최근 현대 사회의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변화의 모습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 '유무선 콘텐츠' 분야의 광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 분야 광고의 보편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광고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으나, 광고 전수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 광고의 시기를 정하고, 표본을 추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유무선 콘텐츠 분야의 광고를 대상으로 그 내용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³⁾, 일단 본 연구는 2021년 한 해 동안 방송된 광고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방송 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TVCF>에서 확인되는 유무선 콘텐츠 광고는 총 663개이다. 그런데 이에 포함된 광고는 브랜드에 따라 광고의 수도 다양하고, 광고의 매체도 공중파에서 옥외 광고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러닝타임도 5초에서 884초(14분 44

3) '한국학술정보'를 통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 광고'나 '인터넷 쇼핑몰' 광고에 대한 연구들이 찾아지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대체로 소비자 행동, 구매 실태, 인터넷 전자 상거래 등 광고 산업 측면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물론, 쇼핑몰 광고를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몇 개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유무선 콘텐츠 광고 전체를 연구한 논문은 찾지 못했다.

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때 광고의 러닝타임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요즘 유행하는 범퍼 광고⁴⁾나 웹 드라마 형식의 광고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퍼 광고나 웹 드라마 형식의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의 형식과는 다른 유형으로, 그 형식이 광고 텍스트의 내용과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일반적인 형태의 광고와 함께 살피는 것은 오히려 광고 텍스트의 정확한 분석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 이에 수집된 광고 중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TV 광고의 속성을 지니는 것들로 연구 대상을 우선 선별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총 663개 광고 중에서 연구 대상을 선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형태의 TV 광고의 러닝타임은 15~30초이므로, 수집된 광고 중에서 러닝 타임 15~30초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별하면, 범퍼 광고나 웹 드라마 형식의 광고는 자동으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수집된 광고들은 브랜드가 겹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분석 광고의 브랜드 수를 일정하게 정하지 않으면, 광고 텍스트 분석의 결과가 특정 브랜드 광고의 특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 광고는 브랜드별로 1개씩 선정하고자 하였다. 동일 브랜드의 광고가 여러 편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방영된 광고를 선택했고, 게시 날짜가 동일한 멀티스팟 광고⁵⁾의 경우에는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였다.

셋째, <TVCF>에서 ‘정보통신 → 유무선 콘텐츠’로 분류된 광고 브랜드 중에는 유무선 콘텐츠 광고로 보기 어려운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들 브랜드는 모두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KTY>는 이동 통신 요금제 광고인데, <TVCF>에서 타 브랜드의 이동 통신 요금제 광고는 ‘정보통신 → 이동통신’⁶⁾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모바일 게임 광고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TVCF>에서는 이들이 앱 광고라는 점에서 유무선 콘텐츠 광고로 분류되어 있으나, 모바일 게임 광고는 텍스트 구성에 있어, 온라인 게임 광고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바일 게임 광고는 텍스트 구성에 있어서 다른 유무선 콘텐츠 광고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게임 광고와 텍스트 유사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티저 광고나 가상 광고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상 광고는 광고 이미지를 TV 화면에 삽입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형식의 광고이다. 이는 텍스트 구성에 있어 일반적인 제품 광고와는 다른 형식적 특성을 지니는 광고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티저 광고는 회사명이나 상품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수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광고이다. 이는 광고하는 제품이 무엇인가 하는 점보다는 ‘티저’라는 기법 자체가 광고 텍스트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2. 연구 대상 및 연구 문제

이상의 기준으로 최종 추출한 광고 목록은 116개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
- 4) ‘범퍼 광고’는 간단히 말해서, 유튜브에서 노출되는 광고 중에서 스킵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광고로, 보통 최대 6초로 제한된다.
 - 5) ‘멀티스팟 광고’는 전체적으로 광고의 구성은 동일하나, 광고의 모델이나 배경 등을 바꾼다든가, 광고 카피의 일부를 바꿈으로써 변형을 주는 광고들을 의미한다.
 - 6) <TVCF>에서 ‘이동통신’으로 분류된 광고에는 각종 요금제, 부가 서비스, 통신사 관련 제품(4G, 5G, LTE, U+, T멤버십 등) 광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35편의 광고를 선정하여 이를 분석하였다.⁷⁾ 한편, 본 연구에서 유무선 콘텐츠 광고를 분석하고자 한 것은,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무선 콘텐츠 제품군 광고의 유형적 특성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특성이라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교군 광고를 따로 정하여 분석의 결과를 대조하여 보았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광고의 목록은 <표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1> 광고 목록 : 연구 대상 및 비교군

연구 대상 (품목별 날짜 내림차순)					비교군 (제품군별 날짜 내림차순)				
no	브랜드	날짜	time (초)	품목	no	브랜드	날짜	time (초)	제품군
1	시즌	12-10	15	OTT	1	네네치킨	12-27	15	식품
2	웨이브	12-01	15	OTT	2	자담치킨 불패치킨	12-25	15	식품
3	벼룩시장	12-10	15	구인,구직	3	농심 너구리	12-24	15	식품
4	알바몬	11-23	30	구인,구직	4	롯데푸드 에센뿌득	12-21	30	식품
5	알바천국	10-14	15	구인,구직	5	7번가피자	12-20	15	식품
6	잡코리아	04-08	30	구인,구직	6	굽네치킨	12-20	15	식품
7	배달특급	12-20	30	배달	7	롯데리아불고기버거	12-17	15	식품
8	요기요 요기패스	11-01	30	배달	8	배스킨라빈스	12-11	15	식품
9	카카오T 킷	08-03	25	배달	9	쉐푸드	12-11	15	식품
10	쿠팡이츠	07-04	30	배달	10	죤득초코칩	12-09	15	식품
11	요기요 선물하기	06-01	15	배달	11	비비고 수제만두집	12-07	23	식품
12	배민 선물하기	02-01	30	배달	12	물티저스	12-06	15	식품
13	트레버리	11-22	15	소통	13	엠앤엠즈	12-06	15	식품
14	인스타그램	10-02	15	소통	14	도미노피자	12-03	15	식품
15	아자르	10-01	17	소통	15	누구나흠딱반한답	12-01	15	식품
16	카카오톡	09-01	33	소통	16	써브웨이	12-01	15	식품
17	음(mm)	06-11	15	소통	17	청원생명	12-01	15	식품
18	하쿠나라이브	06-03	20	소통	18	메가젠 임플란트	12-28	30	제약
19	블라블라	04-16	30	소통	19	디닥넵	12-27	15	제약
20	비트윈	04-14	30	소통	20	씨스팡 늘비움	12-27	15	제약

7) 개인적으로 연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116개를 미처 다 살피지 못했다. 이에 116개 광고 가운데 연구 대상 최종 목록을 다시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116편 중에서 무작위 광고를 뽑아 살피는 것보다는 후속 연구를 위해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최종 연구 목록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2.1.에서 상술한 기준에 따라 추출된 유무선 콘텐츠 광고 116편은, 광고하는 제품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OTT, 금융, 구인/구직, 배달, 쇼핑, 부동산, 커뮤니티, 기타 서비스(사업/사무/직원 관리 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 품목에 따라 광고를 분류하고 보니, 해당 제품의 주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OTT 서비스는 주 이용 계층이 주로 2030 젊은 세대들이고, 구인/구직 앱의 경우, '직업'이나 '알바'를 구하는 구직자가 아무래도 기성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일 확률이 높으므로 역시 주 이용 계층을 젊은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금융이나 부동산 앱은 젊은 세대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을 이룬 30대 이상의 수용자를 주 타깃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 이용 계층이 2030 젊은 세대일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군을 먼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광고들은 추후 후속 연구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21	비패밀리	02-04	19	소통	21	누가의료기 N5	12-24	30	제약
22	원스토어	09-29	30	앱스토어	22	이기탄 에프	12-22	15	제약
23	구글플레이	08-17	30	앱스토어	23	키클래오042	12-16	15	제약
24	틱톡	12-29	15	엔터	24	락토바이옴 노즈	12-15	20	제약
25	유튜브 뮤직	11-16	15	엔터	25	그날엔	12-14	15	제약
26	유튜브 쇼츠	11-08	15	엔터	26	판피린 큐	12-13	15	제약
27	썸씽	09-09	30	엔터	27	박카스	12-13	30	제약
28	스포티파이	09-06	30	엔터	28	에버콜라겐	12-08	15	제약
29	셀러비	08-09	15	엔터	29	위시할씨	12-08	15	제약
30	PAIGE	04-01	30	엔터	30	슬로우글로우	12-07	15	제약
31	뮤직브로	02-18	15	엔터	31	락토픽	12-01	15	제약
32	여기어때	12-09	15	여행.숙소	32	브레인알엑스	12-01	15	제약
33	마이리얼트립	10-12	20	여행.숙소	33	이반케어	12-01	15	제약
34	호텔스컴바인	01-21	15	여행.숙소	34	알콘 후레쉬룩	12-01	22	제약
35	네이버 앱	08-28	15	포털	35	씨젠	12-01	30	제약

상기 목록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텍스트 구성에서 주목되는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살펴볼 내용은, 유무선 콘텐츠 광고 텍스트 구성에서 드러나는 모델 특성, 대명사의 사용, 유행어/신조어의 사용 세 가지이다.

3.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텍스트 특성

3.1. 모델

일반적으로 광고의 모델은 유명인인 경우가 많다. 유명인을 모델로 썼을 때의 광고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명확하진 않지만, 유명 연예인의 광고 출연 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용하는 것은, 그들이 광고 모델로서 갖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광고 모델의 이미지는 곧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된다. 그리고 모델의 인지도에 힘입어 브랜드의 인지도도 제고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의 경향성과 달리, 광고 모델이 유명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 35편 광고의 모델과 관련하여 모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이면 <표2>와 같다.

<표2>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모델 유형

	광고 수	% (n/35)		
유명	6	17.14	11	-
유명+무명	5	14.29	(31.43)	23
무명	18	51.43	-	(65.71)
기타	6	17.14	-	-
계	35	100		

<표3> 비교군 광고의 모델 유형

	광고 수	% (n/35)		
유명	16	45.71	22	-
유명+무명	8	22.86	(62.86)	18
무명	10	28.57	-	(51.43)
기타	1	2.86	-	-
계	35	100		

<표2>에서 ‘유명’은 광고의 모델로 유명인만 등장하는 경우로, 유명인은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을 의미한다. ‘유명+무명’은 유명인과 무명인이 함께 모델로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⁸⁾ 이때 유명인은 대체로 광고의 메인 모델이 되고, 무명 모델은 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 ‘무명’은 광고에 유명 모델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광고에 무명 모델만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 무명 모델은 진짜 일반인일 수도 있고, 전문 광고 모델일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전문 광고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일반인인지 전문 모델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타’는 실제 인물이 모델로 등장하는 않는 경우로, 광고가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특정 이미지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들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2>~<그림5>은 이들 각 경우의 예를 보인 것이다.



<그림2> 유명



<그림3> 유명+무명



<그림4> 무명



<그림5> 기타

<표2>의 분석 결과를 보면, 유무선 콘텐츠 광고는 유명인이 모델인 경우가 6편(17.14%), 유명인과 무명인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5편(14.29%), 유명인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18편(51.43%), 기타의 경우가 6편(17.14%)이다. 이때 주목되는 점은 광고의 모델로 유명인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는 유명인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의 3배나 된다는 점이다. 한편 ‘유명+무명’은 유명인과 무명인 모델이 모두 등장하는 경우이므로, 이들을 각각 ‘유명’과 ‘무명’에 합하여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들을 합하여 고려하면, 유명인이 모델인 경우는 총 11편(31.43%), 무명인이 모델인 경우는 총 23편(65.71%)으로, 이 경우에도 유명인이 모델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유명인이 등장하는 경우보다 약 2배 정도 많다. 이처럼 광고의 모델이 유명인인 경우보다 무명의 모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좀 더 분명히 명확히 확인해 보기 위하여 그 비교군으로서, 식품 광고와 제약 광고 총 35편을 임의로 선정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보았다. 이들 비교군 광고는 식품과 제약 분야의 광고 중에서 2020년 12월에 방영된 것들로, 수집된 광고는 총 77편이며, 이 중 러닝타임 30초 이상, 가상 광고, 티저 광고 등의 특수 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 49편 중에서, 임의로 35편을 추린 것이다. 한편, 비교군 광고의 제품군을 식품과 제약으로 선택한 것은, 저관여 제품군 중에서 비교적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비교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아파트, 가전, 금융 등의 고관여 제품은 광고에 있어서 모델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따라서 유명인, 그중에서도 이른바 빅모델⁹⁾의 광고 모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즉, 유명인이 모델이 아닌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이들을 비교군으로 선택한다면, 그 선택에서부터 이미 편향성을 지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편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식품, 제약 광고를 비교군으로 선택하였다.

<표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비교군 광고에서는 유명인이 모델인 경우가 16편(45.71%), 유명

8) 이때 등장 인물의 수는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9) ‘빅모델’은 대중에게 인기가 많아 광고 효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모델을 의미한다.

인이 모델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10편(28.57%)이다. 이 둘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유명인이 모델인 경우가 무명인이 모델인 경우에 비해 많은 것은 분명하며, 이는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무명인이 모델인 경우가 유명인이 모델인 경우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도 매우 크다는 점과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 하겠다.

광고의 모델 선정은 단순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¹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잡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문제이므로, 광고 모델로서 유명인과 무명인 둘 중 어느 모델의 사용 빈도가 더 높은가 하는 점은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광고의 모델은 유명인인 경우가 많다. 유명인을 모델로 사용했을 때 제품의 구매나 인지도 등에 분명히 기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는 일단 수용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명인보다는 유명인이 주목을 끌게 하는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이처럼 유명인이 모델인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독특한 특성이라 할 만하며, 이는 해당 광고의 대상이 유무선 콘텐츠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심리학의 법칙 가운데 ‘유사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신과 같은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에게 친근감이나 호감을 쉽게 갖게 되는 것은 유사성의 법칙이 작용한 결과이다. 유무선 콘텐츠는 대체로 사용자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인 경우가 많다. 이때 무명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에 대해 호감을 갖고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해 준다. 심리학적으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유사성의 법칙이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명인보다는 실제 제품의 사용자들과 유사한 사람들을 모델로 기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광고 모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무선 콘텐츠라는 제품이 모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제품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이 어떤 제품의 광고 모델이 되었을 때 일반 대중은 그 모델이 해당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점을 성문화하지 않더라도, 광고주와 광고 모델 사이에는 이에 대한 일종의 암묵적 계약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 광고 모델이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지 대중들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유재석은 한때 ‘네네치킨’ 광고의 모델이었는데, 그 당시 유재석이 ‘네네치킨’만 먹었는지 다른 치킨도 먹었는지 대중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유무선 콘텐츠의 경우는 좀 다르다. 예를 들어, 유무선 콘텐츠 제품군 가운데 커뮤니티 앱의 경우에는 제품의 사용 여부를 대중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특정 제품의 광고 모델로서 그 제품의 사용을 권유하면서, 정작 광고 모델 본인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중의 냉혹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대중에게 노출되어 있는 유명인 입장에서 유무선 콘텐츠는, 해당 광고의 모델을 하기에는 다소 꺼려지는 제품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0) 광고의 제작에 있어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은 단순한 과정은 아니다. 단순히 나이, 성별을 정하는 것도 철저한 소비자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모델의 방송 활동 여부, 기본적인 이미지, 소비자 평가, 인성, 평소 품행, 방송 활동의 여부, 비용 등 고려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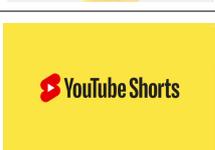
3.2. 인칭 대명사

1) 광고 텍스트와 인칭 대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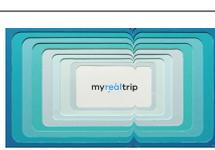
광고는 광고의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 따라서 광고의 생산자는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 텍스트를 구성할 때, 광고의 수용자가 광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다양한 장치를 사용한다. 이때 수용자가 광고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만드는 장치 가운데 하나가 대명사이다. 광고에서 대명사는 텍스트의 내부적 결속 장치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를 직접적으로 지칭하거나 호명함으로써, 수용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광고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광고에서 대명사가 사용된 경우는 쉽게 확인된다. 그런데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경우, 인칭 대명사의 사용에 있어 일반적인 광고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달라 주목되는 점이 있다. 이에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주목되는 인칭 대명사의 사용 양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때 본고에서는 광고의 배경음악에서 등장하는 인칭 대명사와 브랜드명에 포함된 인칭 대명사도 인칭 대명사 논의에 포함하였다. <예1>은 배경음악(BGM)에서 대명사 ‘나’를 확인할 수 있고, <예2>는 브랜드명에 인칭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다.

<예1> 유튜브쇼츠 (no.26) 2021-11-08

	NA1: 유튜브 쇼츠 NA2: 보고, 만들고, 놀아 봐. (자막: 짧게. 재밌게. 딱.)
	BGM: 내 손을 놓치마라, 걸 속은 나의 무기
	BGM: 광야로 걸어가. 자막: 즐거움의 광야로 걸어가
	NA2: 짧게. 재밌게. 딱. (자막: 짧게. 재밌게. 딱.) NA2: 유튜브 쇼츠 (자막: YouTube Shorts)

<예2> 마이리얼 트립 (no.33) 2021-10-12

	NA1: 지금까지 당신은 제주항공권 가격을 비교한 게 아니에요
	NA1: 당신이 비교한 건 발권 수수료.
	NA1: 숨어있던 발권 수수료를 없앴더니 연중 무휴 최저가 항공권 맛집. 마이리얼 트립
	NA2: 역시 이 집 여행 잘 아네. 자막 : myrealtrip

광고의 배경음악이 광고 텍스트의 전체적인 맥락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가사가 광고의 메시지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관여하도록 구성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런데 <예1>의 경우, 배경음악이 텍스트 전체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배경음악에 사용된 인칭 대명사도 논의에 포함한 것이다. <예1>의 세 번째 장면에서 보이는 ‘즐거움의 광야로 걸어가’는 광고의 주요 핵심 메시지이다. 그런데 이때 해당 메시지는 배경음악과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배경음악의 ‘광야로 걸어가’라는 가사와 광고의 ‘즐거움의 광야로 걸어가’라는 메시지는, 형식적, 의미적으로 호응을 이루면서 탄탄하게 결속되어 있다. 이처럼 의미적으로 잘 결속되어 있는 텍스트는 수용자에게

매우 흥미로운 텍스트가 되고, 이러한 점은 수용자가 텍스트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돕는다.

연구 대상 35편 광고에서 사용된 인칭 대명사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 <표4>와 같다. 1열의 ‘나 ~ 애/재’는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확인된 인칭 대명사를 그 인칭과 수에 따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고, 2열의 ‘어휘 수’는 이들 유형별 어휘 수(=등장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인칭과 수에 따른 인칭 대명사의 세부 유형별 어휘 수를 살펴보면, ‘나’ 16개(38.10%), ‘저’ 2개(4.76%), ‘너’ 6개(14.29%), ‘당신’ 3개(7.14%), ‘우리’ 13개(30.95%), ‘애/재’ 2개(4.76%)로,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확인된 인칭 대명사의 총 수는 42개이다.

한편, <표4> 4열의 ‘광고 수’는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광고의 수인데, 2열의 ‘어휘 수’와 4열의 ‘광고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한 광고에서 동일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광고 개수를 1개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4열의 광고 수의 계(8행)는 27편(77.17% (n/35))인데, 9행의 ‘중복 광고 제외’의 광고 수는 17편(48.57% (n/35))으로 그 수에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9행의 ‘중복 광고 제외’에 제시한 광고 수의 경우, 한 광고에 여러 개의 대명사가 등장하는 경우, 대명사의 종류와 수에 상관 없이 광고 수를 1개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레바리>(no.13)에는 대명사 ‘너’와 ‘우리’가 각 1회 등장하는데, <표4>에서 ‘너’의 ‘광고 수’ 4편과 ‘우리’의 ‘광고 수’ 6편에는 <트레바리>의 개수가 각각 1개씩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9행의 ‘중복 광고 제외’의 ‘광고 수’를 계량할 때는 <트레바리>를 1편으로 처리하였다는 말이다.

<표4> 유무선 콘텐츠 광고 (동일 어휘 중복 포함)

	어휘 수	% (n/42)	광고 수	% (n/35)
나	16	38.1	12	34.29
저	2	4.76	2	5.71
너	6	14.29	4	11.43
당신	3	7.14	2	5.71
우리	13	30.95	6	17.14
애/재	2	4.76	1	2.86
계	42	100	27	77.17
중복 광고 제외			17	48.57

<표5> 비교군 광고 (식품 17편+제약 18편)

	어휘 수	% (n/42)	광고 수	% (n/35)
나	6	46.15	6	17.14
저	0	0.00	3	8.57
너	3	23.08	2	5.71
당신	2	15.38	2	5.71
우리	2	15.38	0	0.00
애/재	0	0.00	0	0.00
계	13	100.00	13	37.14
중복 광고 제외			13	37.14

<표5>는 유무선 콘텐츠 광고와 일반적인 제품 광고의 대명사의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군 광고에서의 대명사 사용을 따로 살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비교군 광고 35편 중에서 인칭대명사는 총 13개가 등장하였으며, 세부 유형별 인칭 대명사의 수는 ‘나’ 6개(46.15%), ‘너’ 3개(23.08%), ‘당신’ 2개(15.38%), ‘우리’ 2개(15.38%)이고, 1인칭 ‘저’와 3인칭 ‘애/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광고 수에 있어서 인칭 대명사가 나타난 개별 광고 수의 합과 중복 광고 수를 제외한 것이 모두 13편인 것은 비교군 광고에서는 인칭 대명사가 한 광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대명사가 사용된 광고 수나 인칭 대명사별 출현 빈도면에서는 유무선 콘텐츠 광고와 비교군 광고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인칭 대명사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무선 콘텐츠 광고만의 특징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2) 광고 속 인칭 대명사의 두 가지 유형

광고에서 사용된 인칭 대명사는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고의 인칭 대명사는 광고 텍스트 내부의 인물만을 지칭하기도 하고, 광고 텍스트 외부의 텍스트 수용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래 <예3>, <예4>에는 공통적으로 인칭 대명사 ‘너’가 사용되어 있는데, <예3>의 ‘너’는 텍스트 내부의 인물을 지칭하고, <예4>의 ‘너’는 광고 텍스트 외부의 텍스트 수용자를 지칭한다.

<예3> 비트윈 2021-04-14



<예4> 요기요 요기팩스 2021-06-01



이때 ‘너’가 광고 텍스트에서 담당하는 기능에는 차이가 있는데, <예3>의 ‘너’는 전적으로 광고 텍스트 내부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 경우 ‘너’는 오직 텍스트의 내부적 결속을 유지하는 장치로만 기능한다. 광고 텍스트의 수용자는 ‘너’가 가리키는 인물이 누구인지 찾는 과정에서 텍스트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예3>의 두 인물 중 하나가 상대방을 ‘너’라고 부르고 있고, 두 사람이 서로 반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고 텍스트의 수용자는 둘의 관계가 친구 또는 자매 관계임을 추측할 수 있다. 즉, 텍스트 수용자는 ‘너’로써 인물들 간의 관계를 추론하고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삼게 된다는 말이다. 또한 수용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텍스트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두 참여자가 서로를 가리키는 지칭/호칭어에서의 부적절성이 있다면, 그 부적절성의 해소 여부가 텍스트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¹¹⁾

이에 비해 <예4>의 ‘너’는, 텍스트의 내부적 결속 장치로 기능하는 동시에, 텍스트 외부의 수용자가 광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한다. <예4>에서 ‘너’는 광고 텍스트의 의미적 완결성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또한 이때 ‘너’가 지칭하는 대상은 텍스트 외부에 존재하는 수용자이다. 텍스트의 수용자는 광고의 속 인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고, 그러한 부름은 수용자를 광고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처럼 인칭 대명사는 광고 텍스트 외부의 수용자와 광고 텍스트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이때 2인칭 대명사뿐만 아니라, ‘우리’, ‘나’와 같은 1인칭 대명사도 수용자를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광고 속 인칭 대명사가 텍스트 내부의 등장 인물을 지칭하는가, 텍스트 외부의 수용자를 지칭하는가와 관련하여,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인칭 대명사 ‘나’와 ‘너’

11) 물론 이러한 부적절성은 지칭이나 호칭어의 사용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광고 텍스트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자는 이러한 부적절성, 즉 정보의 불일치성을 의도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수용자를 광고에 주목하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인칭 대명사가 텍스트 내부의 등장 인물을 지칭하는가, 텍스트 외부의 수용자를 지칭하는가와 관련하여, 유무선 콘텐츠 광고와 비교군 광고의 양상을 검토한 결과는 <표6>, <표7>과 같다. 그런데 <표4>에서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출현한 대명사의 총 수가 42개였던 것과 달리, <표6>의 대명사 총 수는 31개이다. 이는 <표4>의 경우, 한 광고에서 동일한 대명사가 여럿 사용되는 경우, 이들 대명사를 각각 따로 집계하였으나, <표6>에서는 한 광고에서 동일한 대명사가 여럿 사용되었더라도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한 경우는 1개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PAIGE>(no.30)에서 ‘나’는 총 3회 등장하는데, 이는 텍스트 내부의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나’가 2개, 텍스트 외부의 수용자를 지칭하는 ‘나’가 1개이다. <표4>에서는 인칭 대명사의 지칭 대상을 따로 구분하여 살피지 않았으므로 ‘나’의 개수를 3개로 처리하였으나, <표6>에서는 인칭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별로 개수를 집계하였으므로 ‘나’의 개수를 2개로 처리하였다는 말이다.

<표6> 유무선 콘텐츠 광고 (한 광고 내 동일 유형 1개)

광고 수		텍스트 내부	% (n/대명 사별)	광고 수	% (n/35)		수용자	% (n/대명 사별)	광고 수	% (n/35)
14	나	6	42.86	6	17.14	나	8	57.14	7	20.00
2	저	2	100	2	5.71	저	0	0	0	0.00
4	너	1	25	1	2.86	너	3	75	3	8.57
2	당신	0	0	0	0.00	당신	2	100	2	5.71
7	우리	3	42.86	3	8.57	우리	4	57.14	4	11.43
2	애/재	2	100	1	2.86	애/재	0	0	0	0.00
31	계	14	45.16			계	17	54.84		

<표7> 비교군 광고 (식품 17편+제약 18편)

광고 수		텍스트 내부	% (n/대명 사별)	광고 수	% (n/35)		수용자	% (n/대명 사별)	광고 수	% (n/35)
6	나	4	66.67	4	11.43	나	2	33.33	2	5.71
0	저	0	0	0	0	저	0	0	0	0
3	너	3	100	3	8.57	너	0	0	0	0
2	당신	1	50	1	2.86	당신	1	50	1	2.86
2	우리	1	50	1	2.86	우리	1	50	1	2.86
0	애/재	0	0	0	0	애/재	0	0	0	0
13	계	9	69.23	9	25.71	계	4	30.77	4	11.43

인칭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텍스트 내부의 인물인가 텍스트 외부의 수용자인가와 관련하여, 유무선 콘텐츠 광고는 특히 인칭 대명사 ‘나’와 ‘너’의 사용 양상에서 다른 제품군 광고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칭 대명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 대상 광고의 분석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인칭 대명사 ‘나’가 텍스트 외부 인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확인된 인칭 대명사 ‘나’는 총 14개인데, 이때 ‘나’가 텍스트 내부의 등장 인물을 지칭하는 경우는 6개(42.86% (n/14))이고, 텍스트

외부의 수용자를 지칭하는 경우는 8개(57.14% (n/14))이다. 이에 비해 비교군 광고의 경우, ‘나’는 총 6회 등장하고, 이때 텍스트 내부의 등장 인물을 지칭하는 경우는 4개(66.67% (n/6)), 텍스트 외부 인물을 지칭하는 경우는 2개(33.33% (n/6))이다. 여기서 인칭 대명사 ‘나’가 텍스트 외부 인물을 지칭하는 경우만 따로 비교하여 보면,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경우는 57.14%, 비교군 광고의 경우는 33.33%로,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경우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제품군 광고에 비해,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나’라는 표현으로서 수용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유무선 콘텐츠의 주 사용층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유무선 콘텐츠의 주 사용층은 MZ세대이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며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출산을 1명 시대에 태어나 대부분 부모의 든든한 지원 아래 귀한 자녀로 성장한 MZ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극강의 개인주의를 보인다는 점이다.¹²⁾ 즉, 그들에게 ‘나 자신’은 매우 중요한데,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외부적 수용자를 ‘나’로써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러한 수용자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인칭 대명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 대상 광고에서 발견되는 가장 특징적이라 할 만한 점은,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외부의 수용자를 ‘너’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확인되며, 이때 그 비율도 75%나 된다는 점이다. 비교군의 광고에서 ‘너’는 텍스트 외부의 수용자를 지칭하는 경우는 없다. 굳이 비교군 광고의 검토 결과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광고의 ‘수용자’는 곧 ‘고객’이라는 점에서, ‘고객’을 ‘너’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수용자를 ‘너’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 하겠다.

3.3. 유행어/신조어

광고는 목표 타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광고는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광고에 사용되는 언어 표현은 정제된 표현이 사용된다. 물론 공중파에서 방송되지 않는 케이블 광고나 인터넷 광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에서 좀 더 자유로운 편이어서 심지어 광고에서 비속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¹³⁾ 그러나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특정 유행어나 인터넷 신조어 등을 광고에서 발견하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일이다. 일례로, 본 연구에

12) MZ세대의 특성에 대해서는 ‘Daum백과’에서 제공하는 ‘에듀월 시사상식 2021년 11월호’의 내용과 문화일보 기사(2021.06.28.)를 참고하였다.

13)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만 공개되는 바이럴 광고의 경우, 간혹 욕설이나 비속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 있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욕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해당 발화가 욕설임을 가정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인 ‘빠’소리로 처리하거나 욕설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유사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스크린골프 브랜드인 ‘지스윙’ 광고에서는 ‘18홀’, ‘18미터’ 등 광고 텍스트 내에 숫자 ‘18’이 많이 등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이를 발화할 때 일부러 강한 억양이 더해진 된소리로 발음함으로써 마치 욕설처럼 들리도록 표현하고 있다. 한편, 연구 대상 광고 중에도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 프로야구 라이브 중계 관련 앱인 ‘PAIGE’ 광고(<표1> no.30)에서는 등장인물이 욕설을 하는 상황을 ‘빠소리’로 처리하거나 상대방을 향하여 ‘까다’, ‘닥치다’와 같은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은 해당 광고가 바이럴 광고이기 때문이다.

서 살핀 비교군 광고의 경우, 이러한 방식의 유행어나 신조어가 발견되는 경우는 총 35편 광고 중에서 2편(5.71%)¹⁴⁾에 불과하다. 또한 연구자가 바로 직전 연구에서 분석한 바 있는 마스크의 광고 25편에서는 유행어나 신조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구 대상 광고에서는 인터넷 유행어나 신조어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 35편 광고에서 인터넷 유행어나 신조어가 사용된 광고는 총 16편(45.71%)¹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행어/신조어가 사용된 광고가 전체의 45.71%나 된다는 것은 꽤 많은 광고에서 유행어나 신조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에서 간단히 확인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TV 광고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유행어/신조어의 사용 빈도가 이처럼 높다는 것은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¹⁶⁾

<표8>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유행어

	광고 수 (유형별 중복 제외)	어휘 수 (중복 포함)	유형	어휘 항목 (괄호 숫자는 <표1>의 광고 no.)
유행어	10	11	양적 확대	콘대 (06), 셸럽 (29), MBTI (18), # (14)
			의미 변화	구독 (08), 라떼 (06), 랜선 (27), 맛집 (33), 실화 (30), 플렉스 (04)
			형태 변화	ㅇㅅㅇ (22)
신조어	8	13	줄임	민초우유 (15), 아싸 (18), 인싸 (18), 취준 (04), 취준생 (35), 엽사 (21), 프사 (21)
			합성	꿀팁 (09), 신상템 (04), 인생작 (02), 캠핑족 (15), 호캉스 (04, 34)
계	18	24		

3.2.1. 유행어

‘유행어’의 사전적 정의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절’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미 사용해 오던 특정 표현이 사회적 분위기나 변화의 영향으로 그 노출 빈도가 크게 늘어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자주 발견되는 경우, 이들을 유행어로 보았다. 연구 대상 35편에서 유행어가 사용된 광고는 총 10편(28.57%)이고, 유행어에 해당하는 어휘 항목의 수는 총 11개이다. 이들 유행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적 확대, 의미 변화,

14) 비교군 광고 35편에서 인터넷 유행어/신조어가 사용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굽네치킨’의 ‘불맛’, ‘비비고 수제 만두집’의 ‘인생만두’이다. ‘불맛’은 원래 ‘식재료가 고온의 불꽃에 직접 닿았을 때 그 부분이 살짝 타면서 요리에 스며드는 독특한 풍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요즘에는 요식업에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매운 맛’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생만두’는 ‘인생’과 ‘만두’가 결합한 합성어(구)인데, 요즘에는 ‘인생 사진, 인생 맛집, 인생템’ 등, ‘최고’를 뜻하는 수식어로서 ‘인생’을 여러 단어 앞에 접두사처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15) <표8>에서 광고 수의 합은 18편인데, 연구 대상에서 유행어/신조어가 사용된 광고는 총 16편이라고 한 것은, 동일 광고 내에 유행어와 신조어가 동시에 사용된 경우가 있어 이들이 중복되는 경우를 1편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16) 물론, 본 연구에서 검토된 광고 35편은, 유무선 콘텐츠 광고 전체 개수를 고려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행어와 신조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특성이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측면이 있다. 추후에 본 연구에서 미뤄 둔 나머지 광고들을 더 분석하여 봄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보편적 경향성을 갖는 현상인지를 보다 면밀히 연구하도록 하겠다.

형태 변화'의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양적 확대

'유행어'의 첫 번째 유형은, 기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지니면서 단순히 단어의 양적 사용이 확대된 경우이다. '꼰대, 셀럽, MBTI, #'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고유의 뜻을 그대로 지닌 상태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행처럼 언급되고 있는 표현들이라는 점에서 '유행어'로 처리하였다. 첫째, '꼰대'는 노인이나 선생님이 권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사용하던 은어로, 최근에는 상사나 선배 등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윗세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꼰대 논란이 매우 뜨거운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영향에 따라 그 사용 빈도가 크게 늘어난 표현이라 하겠다. 꼰대의 사용 빈도가 늘었다는 점은, 최근 정치판에서의 꼰대 논란은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나 포털에서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꼰대(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는 질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⁷⁾ 둘째, '셀럽'은 유명인을 뜻하는 '셀러브리티(Celebrity)'의 줄임말이다. 최근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유망적으로 떠오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인플루언서들이 연예인급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인플루언서라는 표현과 함께 셀럽이라는 표현도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방송에서도 연예인 대신에 '셀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셀럽'을 '유행어'로 보았다. 셋째, 'MBTI'는 마이어(Myers)와 브릭스(Briggs)가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Carl Jung)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성격유형검사 도구이다.¹⁸⁾ 최근 MZ세대들에게 MBTI 검사는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잡고 있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2021년 12월 초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타임라인에는 자신의 스토리에 'Guess my MBTI (내 MBTI를 추측해봐)'라는 게시물을 공유하고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MBTI를 맞추도록 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사원 채용과정에서 MBTI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¹⁹⁾ 이러한 현상들은 MBTI 검사가 최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유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광고에서 MBTI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해당 광고 속 주인공이 MBTI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나오게 된 것이다. 넷째, '#'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핵심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데이터의 한 형태인 해시태그에서 사용되는 기호이다. SNS에 글이나 게시물을 남길 때 '#'(해시) 뒤에 특정 단어를 붙여 쓰면(태그), 그 단어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최근에 SNS가 유행하게 되면서 해당 기호의 사용도 양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를 유행어로 처리하였다.

2) 의미 변화

17) 특정 표현이 유행어라는 점은 TV 등의 대중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가의 여부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2020년 MBC에서 '꼰대인턴'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기도 했다.

18) MBTI의 개념은 '매경시사용어사전'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X22146>

19) 고병찬, 소개팅도, 이력서도 MBTI...친구사귄 때 "MBTI 속이게 돼요", 한겨레, 2021.12.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215.html#csidx0c6f093dc671d538226725e1b9143d9

‘유행어’의 두 번째 유형은, 기존에 있던 어휘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면서 동시에 양적으로 그 사용이 확대된 경우를 의미한다. ‘구독, 라떼, 랜선, 맛집, 실화, 플렉스’가 이에 해당한다. 첫째, ‘구독’은 원래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구입하여 읽음’을 뜻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가 유통업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요즘 유통업계에서 ‘구독’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유행어로 보았다. 둘째, ‘라떼’는 ‘콘대’와 더불어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다. ‘라떼’는 본래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섞은 커피’를 가리키는 표현이나, 최근에는 이른바 ‘콘대’들이 주로 하는 표현인 ‘나 때는 말이야’의 ‘나 때’가 ‘라떼’와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콘대’와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셋째, ‘랜선’은 본래 ‘근거리 통신망(랜)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연결선’을 뜻하는 단어인데, 요즘 인터넷상에서는 ‘랜선 이모, 랜선 남친, 랜선 집사’ 등 ‘방송이나 인터넷 따위를 통해 맺은 관계’를 뜻하는 수식어로서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다. 넷째, ‘맛집’은 ‘음식의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음식점’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요즘 ‘맛집’은 ‘웃음 맛집, 연기 맛집, 대본 맛집’처럼, 음식점 이외의 단어와도 활발히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뛰어나다, 잘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섯째, ‘실화’는 원래 ‘실제로 있는/있었던 이야기’를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일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한 경우, 그 놀라움이나 당혹스러움을 표현할 때, ‘이게 실화냐?’라는 표현을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다. 연구 대상 광고에서의 ‘실화’도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여섯째, ‘플렉스(하다)’는 최근 들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플렉스(flex)는 원래 ‘구부리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데, 최근에는 ‘과시하거나 자랑을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플렉스(하다)’라는 표현을 ‘과시하다, 자랑하다’의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은, 2019년 8월 엠따라는 레퍼가 한 방송에서 고가의 물건을 자랑하며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라는 말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²⁰⁾

3) 형태 변화

‘유행어’의 세 번째 유형은, 이른바 ‘초성어’가 사용된 경우이다. ‘초성어’는 단어의 초성만을 이용하여 단어나 구를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점으로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초성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대상 중에서 초성어가 사용된 광고는 앱 스토어 브랜드인 <원스토어>(no.22) 광고인데, <원스토어>의 첫 장면은 ‘ㅇㅅㅇ’으로 시작한다. 이는 제품명 ‘원스토어’와 광고 모델 ‘원슈타인’에서 공통적인 초성을 딴 것이다. 초성어의 사용은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ㅋㅋ’(크크 또는 크크 등의 웃음 소리), ‘ㅎㅎ’(하하 또는 ㅎㅎ 등의 웃음 소리), ‘ㅇㅈ’(인정) 등은 이제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보편화된 초성어 표현이다. 그리고 이들 표현은 가끔 광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유행어하고 있는 초성어는 이처럼 단순한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을 중심으로 초성어를 쓰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ㄱㅇㅇ’, ‘ㄴㄴ’와 같이 어느 정도는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초성어뿐만 아니라, ‘ㄱㅇㄷ’ ‘ㅇㄴㄷ’, ‘ㄴㄱㄴ’처럼 직관적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초성어들도 많이

20) 김인구, 1990년대 美 레퍼 ‘富 자랑’서 유래… 국내선 엠따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후 유행, 문화일보 2021.01.1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2401031839179001>

사용된다.²¹⁾ 또한 이러한 초성어는 고정된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 초성어의 사용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초성 퀴즈, 초성어 맞추기 이벤트 등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스토어>에서 보이는 초성어의 사용은, 요즘의 사회 현상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3.2.2. 신조어

‘신조어’는 ‘새로 생긴 말’을 뜻하는데, 본 연구에서 ‘신조어’로 처리된 것들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신조어가 광고에 그대로 사용된 경우를 의미한다. 광고에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광고의 수용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광고 표현의 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엑스캔버스하다’, ‘쿠쿠하세요’, ‘연두해요’처럼 접미사 ‘-하다’를 브랜드명에 결합하여 표현하는 방식은 광고에서 아주 흔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어서옵션’과 같이 보편적인 표현의 일부를 어근으로 하여 브랜드명과 합치는 방식으로 새말을 사용하는 것 또한 광고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처럼 광고에서 새말 즉 신조어를 만들어 쓰는 것은 광고의 메시지 구성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 대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를 광고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광고에서 그리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신조어가 사용된 광고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유무선 콘텐츠 광고가 갖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구 대상 35편에서 신조어가 사용된 광고는 총 8편(22.86%), 신조어에 해당하는 어휘 항목의 수는 총 13개(중복 제외 12개)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신조어의 단어의 형성 방법에 따라 다시 축약에 의한 신조어와 합성에 의한 신조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축약

‘신조어’의 첫 번째 유형은, ‘축약’으로 ‘민초우유, 아싸, 인싸, 취준, 취준생, 엽사, 프사’가 이에 해당한다. ‘민초우유’의 ‘민초’는 ‘민트초코’의 줄임말이다.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로 ‘민초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민초우유’는 신조어 ‘민초단’의 ‘민초’가 사용된 표현이라는 점에서 신조어로 보았다. ‘아싸’는 ‘아웃사이더’, ‘인싸’는 ‘인사이더’(아웃사이더의 반대말), ‘취준’은 ‘취업준비’, ‘취준생’은 ‘취업준비생’, ‘엽사’는 ‘엽기 사진’, ‘프사’는 ‘프로필 사진’의 줄임말로, 이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이다. 일반적인 광고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신조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 표현이 사용된 광고가 많다는 것은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합성

‘신조어’의 두 번째 유형은, ‘합성’으로, ‘꿀팁, 신상템, 인생작, 캠핑족, 호캉스’가 이에 해당한

21)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초성어의 뜻을 묻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 첫째, ‘꿀팁’은 ‘꿀’과 ‘팁(tip)’의 합성어로, ‘매우 좋은(유용한) 팁’이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이다. 요즘 인터넷상에서는 좋거나 긍정적인 대상에 대해, ‘꿀’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새말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꿀알바, 꿀보직’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때 ‘꿀’은 ‘매우 좋다’라는 뜻을 의미한다. 둘째, ‘신상템’은 새 상품을 의미하는 ‘신상’과 ‘아이템’이 결합한 말인데, 요즘에는 아이템의 ‘템’을 다른 말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신조어를 만들어 쓰는 경향이 있다. ‘꿀템, 소장템, 잇템, 필수템’ 등이 그러한 예인데, 이처럼 특정 단어에 ‘템’을 붙여 신조어를 만드는 방식은 최근에 매우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셋째, ‘인생작’은 ‘인생에서 길이 남은 작품’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최근에는 ‘인생 맛집, 인생템, 인생 연고’ 등 특정 단어에 ‘인생’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때, ‘인생’은 ‘매우 훌륭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생작’의 의미가 전이되어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인생작’도 신조어로 처리하였다. 다만, ‘인생작’은 <표8>에 제시한 다른 신조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된 표현²²⁾이기는 하다. 넷째, ‘캠핑족’은 외래어 ‘캠핑’과 접미사 ‘-족(族)’이 결합된 표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접미사 ‘-족(族)’은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특성을 가지는 사람이나 사물의 무리’ 또는 ‘그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나 사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라고 풀이되어 있다. 이때 ‘몇몇 명사 뒤에 붙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접미사 ‘-족’의 사용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에는 ‘캠핑족, 홈카페족, 파이어족’ 등 상당히 다양한 단어 뒤에 ‘족’을 붙여 신조어를 만들어 쓰는 경향이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캠핑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캠핑족’을 신조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최근에 캠핑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언론 기사들²³⁾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로, 먼 곳으로 가서 휴가를 즐기는 대신에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호텔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휴가를 즐기는 문화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호캉스는 비교적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행 문화이며, 이러한 호캉스를 즐기는 문화는 비교적 최근에 유행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호캉스’ 또한 신조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호캉스 문화가 최근의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내용은, 각종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²⁴⁾

22) ‘인생작’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언제부터 유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특정 단어가 많이 보인다면 그 표현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검색어 ‘인생작’으로 하여 인터넷 포털 N사에서 제공되는 뉴스를 검색해 보았다. ‘인생작’이라는 표현은 2013년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2014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발견되는데, 2014년에는 1년 동안 겨우 30건의 기사문에서만 발견되던 것이, 2016년에는 1년에 4,000건 이상 사용된 것으로 나왔다. (N사에서는 검색 내용 4,000건 이상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수를 알기는 어렵다.) 즉, 인생작은 약 6년 전부터 활발하게 사용된 유행어라 하겠는데, 이는 ‘꿀팁’, ‘호캉스’ 등이 2018년~2019년을 기준으로 그 수가 많아진 것에 비하면 그것이 유행한 시기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표현이기는 하다.

23) 4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캠핑 인구는 70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내 캠핑 시장 규모는 2016년 1조5000억원에서 매년 30%씩 증가해 지난해 4조원대까지 성장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측은 “최근 ‘캠프닉’(캠핑+피크닉), ‘캠린이’(캠핑+어린이) 같은 신조어가 나오고 캠핑 관련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며 “캠핑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 홍다영, 연 30%씩 쑥쑥 성장… 유통업계, 다양한 제품으로 700만 캠핑족 유혹, 조선Biz, 2021.10.04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비교적 안전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캠핑’과 집에서 즐기는 ‘홈카페’ 트렌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퀄리티 높은 제품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니즈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이런 흐름에 발맞춘 신제품을 선보이며 홈카페족과 캠핑족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 김현주, 식품업계에도 홈카페족, 캠핑족 위한 ‘편리미엄’ 제품 인기, 세계일보, 2021.12.27.

24) 과거 다소 비하의 의미를 담았던 ‘집돌이’ ‘집순이’가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해석되고 있다. 광고회사 HS 애드가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 게시물 168억건을 분석한 결과 편한 삶을 추구하는 ‘컴포터리안’(Comfortarian)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 중략 - 호캉스와 한 달 살기 버즈량도 최근 급증하고

이상의 논의에서는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유행어와 신조어의 사용이 다른 제품군 광고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다. 이처럼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유행어의 사용 빈도가 높은 이유는,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주 향유 계층인 2030세대의 수용자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아무래도 유행어나 신조어에 민감하고 그 트렌트를 선도하는 것은 젊은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2030세대를 주 사용자층으로 하는 유무선 콘텐츠 광고라는 점에서, 광고 텍스트의 산출에 있어서 광고의 타깃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서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는 광고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교군 광고에서 확인된 유행어/신조어인 ‘불맛’과 ‘인생만두’는 모두 광고하고 있는 제품 자체의 속성과 관련성을 갖는 표현이다. ‘불맛’은 제품의 맛에 대한 표현이고, ‘인생만두’는 제품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표현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유행어/신조어는, ‘호캉스’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의 경우, 제품 자체의 속성과 관련되지 않는다. <표8>의 유행어/신조어 중 ‘호캉스’ 이외의 것들은 모두 요즘 유행하는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표현인데, 이 또한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사용되는 유행어/신조어의 또 다른 특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²⁵⁾

4. 결론

본고에서는 유무선 콘텐츠 광고 35편을 대상으로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살핀 연구 대상 35편은 유무선 콘텐츠 광고 중에서도 제품의 주 사용자층이 2030세대라 할 수 있는 ‘OTT 구인구직, 배달, 소통(커뮤니티), 앱스토어, 엔터(쇼츠, 앱 노래방 등), 여행, 숙소, 포털 사이트’의 앱 광고들이다.

유무선 콘텐츠 광고 텍스트의 내용과 구성에 주목하여 본 결과, 이들 광고는 ‘광고의 모델, 대명사의 사용, 유행어/신조어의 사용’에 있어서 일반 제품 광고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고의 모델에 있어서는 유명인보다 무명인 모델이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 대명사의 사용에 있어서 광고는 텍스트의 수용자를 ‘나’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수용자를 ‘너’로 표현하는 경우도 보인다는 점,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유행어나 신조어가 그대로 사용된다는 점이 다른 제품군 광고와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텍스트 구성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특성은 연구 대상 광고의 주 타깃층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수집한 광고를 모두 살피지 못하고 일부 광고만 살핀 결과라는 점에서, 이를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특성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추후 좀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컴퓨터리안과 방향을 같이 한다”고 HS에드 측은 분석했다. - 안선히, 집순이·집돌이들의 취향이 바뀌었다, 더피알(The PR), 2019.06.12.,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53>
 25)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다 면밀히 연구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방송통신위원회 (2020),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 신문기사

고병찬, <소개팅도, 이력서도 MBTI…친구사귄 때 “MBTI 속이게 돼요”>, 한겨레, 2021.12.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215.html#csidx0c6f093dc671d538226725e1b9143d9

김인구, <1990년대 美 래퍼 ‘富 자랑’서 유래… 국내선 옴따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후 유행>, 문화일보 2021.01.1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2401031839179001>

김현주, <10명 중 1명만 ‘중년=꼰대’… 38% “꼰대 표현이 소통 위축시켜”>, 서울신문, 2022.01.0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04016005&wlog_tag3=daum

김현주, <식품업계에도 홈카페족, 캠핑족 위한 ‘편리미엄’ 제품 인기>, 세계일보, 2021.12.27.,
<http://www.segye.com/newsView/20211227502819?OutUrl=naver>

노경민, <“라떼는 말이야~” 요즘 인싸라면 다 안다는 그 말>, 매일경제, 2019.04.19.,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44931/>

문수정, <“민초가 세상을 바꾼다”… 민초단 활약에 업계가 움직였다>, 국민일보, 2021.02.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8126&code=11151100&cp=nv>

서예진,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MZ세대 소비트렌드 ‘주목’>, 시사위크, 2020.02.12.,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934>

안선힬, <집순이·집들이들의 취향이 바뀌었다, 더피알(The PR), 2019.06.12.,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53>

정종기, <새로운 변화의 중심 MZ세대가 몰려오고 있다. 이들에 집중해라!>, 오늘경제 2021.10.27.,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83>

특별기획팀, <‘혼자’가 더 편한 외동… 부당함에 즉각 반응 ‘피드백 세대’>, 문화일보, 2021.06.2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2801030642000001>

홍다영, <연 30%씩 쑥쑥 성장… 유통업계, 다양한 제품으로 700만 캠핑족 유혹>, 조선Biz, 2021.10.04.,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1/10/04/NSC7BQTSRNG57FD6IKAQS3UPL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토 론

“정보통신 분야의 TV 광고 분석: 유무선 콘텐츠 광고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조태린(연세대)

이 연구는 정보통신 분야, 그 중에서도 유무선 콘텐츠에 대한 TV 광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토론자는 연구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과 이 연구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임무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2.1절에서 유무선 콘텐츠 광고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머리말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광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실제로 선정한 광고들도 모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광고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무선 콘텐츠 광고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광고는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혹시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다른 대상의 광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왜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도 궁금하다.

둘째, 2.2절에서는 2.1절의 기준으로 최종 추출한 광고 116개 중에 최종적으로 35개의 광고를 분석했는데, 이는 주로 2030 젊은 세대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군에 대한 광고를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 포함하지 않은 금융이나 부동산 앱 광고의 주 타겟이 젊은 세대가 아니라는 추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금융이나 부동산도 앱을 통해 접근하는 세대는 젊은 세대가 중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분석 대상이 된 앱들 중에는 카카오톡나 유튜브처럼 중년 세대 이상에서도 널리 일반화된 것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종 분석 대상의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셋째, 2.2절의 <표 1>에서는 연구 대상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비교군으로 여러 가지 제품군 광고를 동수로 선정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들 비교군 광고는 모두 식품 또는 제약 분야 광고로 그 선정 기준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넷째, 이 연구는 연구 대상 광고의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일부 논의는 광고학 분야의 논문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도 언어학 분야의 논문에서도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3.1절의 광고 모델에 관한 논의에서는 언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언어학 분야의 논문이라면 모든 논의가 언어 문제와 연관을 맺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3.1절에 대해 발표자는 어떤 의미를 두고 논의한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한다.

다섯째, 3.2절에서 인칭 대명사 ‘나’와 ‘너’에 대한 논의는 매우 흥미로운데, 문제는 이러한 특성이 유무선 콘텐츠 광고의 특징인지, 젊은 세대를 주 타겟으로 하는 광고의 특징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른 정보통신 분야의 광고나 아예 정보통신 이외 분야의 광고에서도 젊은 세대를 주 타겟으로 하는 광고라면, 유사한 특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3.3절의 유행어/신조어 관련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3.3절의 유행어/신조어의 단어 형성 유형별 특성에 대한 논의는 유무선 콘텐츠 광고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이북 문화언어학에 나타난 문화 요소 분석 및 탐색

-김영항(2013), 문화언어학을 중심으로-

오현아(강원대)

< 차 례 >

0. 들어가며
1. '문화언어학'이란 무엇인가?
2. 문화 분석의 틀
3. 김영항(2013) 문화언어학의 '문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4. 김영항(2013) 문화언어학의 '문화' 특성
5. 나가며: 한반도 문화의 현재적 탐색을 꿈꾸며

PDF 참조

이북 문화언어학에 나타난 문화 요소 분석 및 탐색

-김영황(2013), 문화언어학을 중심으로

오현아(강원대)

1

차례

0. 들어가며
1. ‘문화언어학’이란 무엇인가?
2. 문화 분석의 틀
3. 김영황(2013) 문화언어학의 ‘문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4. 김영황(2013) 문화언어학의 ‘문화’ 특성
5. 나가며 : 한반도 문화의 현재적 탐색을 꿈꾸며

2

0. 들어가며

귀한 책을 만났다.
이 책에서 나는 무엇을 만나게 될까?

3

1. 문화언어학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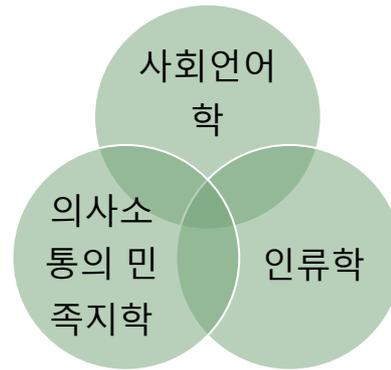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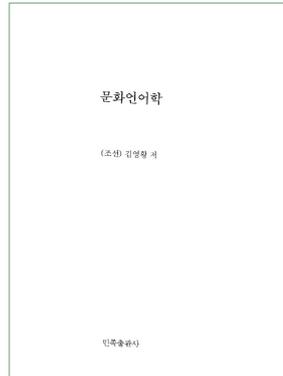
“문화언어학”이란 용어의 낱설음에 대하여

4

1. 문화언어학이란 무엇인가?

문화언어학?

문화언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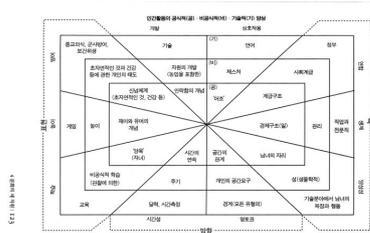
5

2. 문화 분석의 틀

6

3. 문화 분석의 틀

에드워드 홀, 인간의 10가지 기본 의사전 달 체계
(최효선 역, 2013: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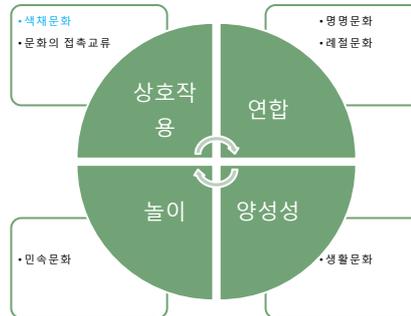
10가지 문화 용어
(최효선 역, 2013: 62-84)

- 1. 상호작용 2. 연합 3.생계 4. 양성성 5. 영토권 6. 시간성 7. 학습 8. 놀이 9. 방어 10. 개발(물질의 이용)
- 1. 상호작용은 소통입니다. 언어를 포함해 몸짓, 감정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 2. 연합은 서열을 기준으로 한 공동체를 말하고
- 3. 생계는 기본적인 먹고 사는나의 문제뿐 아니라 현대 직업의 수단까지 포함합니다.
- 4. 양성성은 성에 따라 구별되는 형태와 기능에 관해 설명하고
- 5. 영토권은 생물체가 영유하는 공간이며 또한 방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 6. 시간성은 통시적으로 보면 역사이고 미시적으로 보면 호흡, 심장박동, 생리주기까지 포함된 시간성입니다.
- 7. 학습과 습득 중 습득은 자연을 통해 환경에 맞게 진화해온 생존의 방식이고 학습은 이걸 기반으로 후세에게 전해지는 교육입니다.
- 8. 놀이는 공동체의 유희이고
- 9. 방어는 인간의 생존본능으로 전쟁뿐 아니라 종교, 의학까지 포함된 방어기제입니다.
- 10. 개발은 생존에 필요한 진화의 형태뿐 아니라 현대의 기술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7

2. 문화언어학의 ‘문화’란 무엇인가?

- 김영환(2013) 문화언어학
- 서론 문화언어학의 연구 대상과 과업
 - 제1장 언어문화와 어휘의 생성발전
 - 제2장 색채문화와 언어
 - 제3장 명명문화와 언어
 - 제4장 레절문화와 언어
 - 제5장 생활문화와 언어
 - 제6장 민속문화와 언어
 - 제7장 문화의 접촉교류와 언어



8

3. 김영항(2013) 문화언어학의 ‘문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 3.1. 색채문화의 구성 요소
- 3.2. 명명문화의 구성 요소
- 3.3. 레절문화의 구성 요소
- 3.4. 생활문화의 구성 요소
- 3.5. 민속문화의 구성 요소
- 3.6. 문화의 접촉교류의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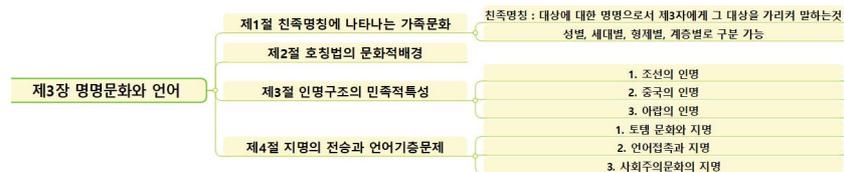
9

3.1. 색채문화의 구성 요소

제2장 색채문화와 언어	제1절 색채어의 민족적 차이		정렬, 역렬, 분노
	제2절 색채에 대한 정서와 언어표현	1. 붉은색	연발동, 손벽, 고요 정미색, 기쁨, 화평, 학문 복숭아색, 부화영당, 색장
		2. 푸른색	생명의 성장과 젊음, 희망과 행복/부정의 의식(생, 청록)
		3. 흰색과 검은색	흰색: 깨끗함, 옹골, 선량(아무것도 없음) 선동계급의 상징, 변역형 검은색: 불길, 재배, 위변
		4. 노란색	희색: 노년, 음울, 병적인 창백
제3절 문학작품의 창작과 색채어의 선택	보편적인 문화적정서에 의한 색채어의 선택과 리용	중요, 가장 고귀한것을 상징하는것(색깔)이다.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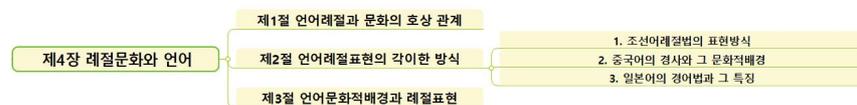
10

3.2. 명명문화의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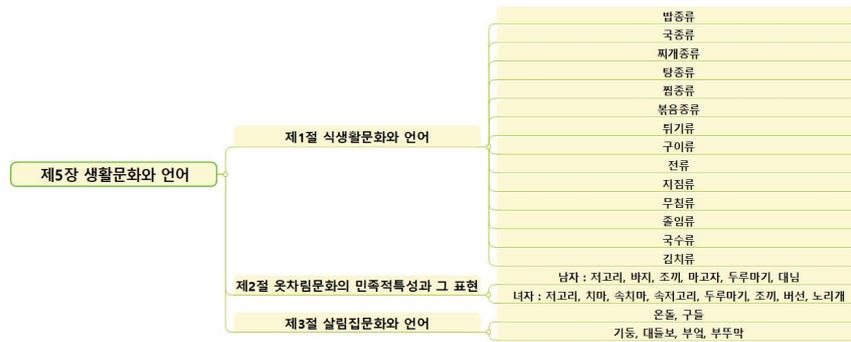
11

3.3. 레절문화의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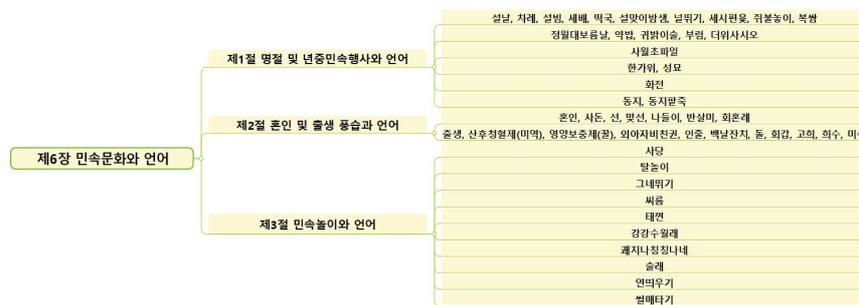
12

3.4. 생활문화의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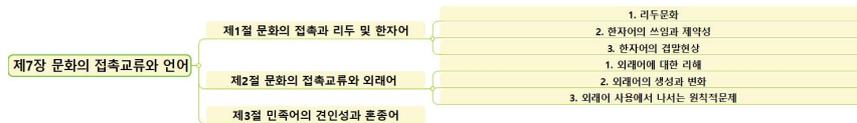
13

3.5. 민속문화의 구성 요소



14

3.6. 문화의 접촉교류의 구성 요소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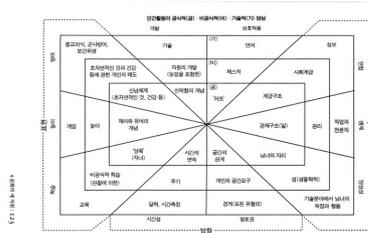
4. 김영황(2013) 문화언어학의 ‘문화’ 특성

- 4.1. ‘전통문화’ 중심의 문화
- 4.2. 문학작품을 적극 활용한 문화언어학
- 4.3. 범시적 관점의 문화언어학

16

4. 김영황(2013) 문화언어학의 ‘문화’ 특성

에드워드 홀, 인간의 10가지 기본 의사전달 체계
(최효선 역, 2013: 123)



김영황(2013)의 ‘문화’ 특성

- 에드워드 홀의 10가지 기본의사전달체계는 다시 ‘공식적, 비공식적, 기술적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 1) 김영황(2013)에서는 비공식적 차원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이는 이남의 일반적인 사회언어학적 결과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띤다. 비공식적 차원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참여관찰이 요구되며,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연구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지, 사회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 2) 김영황(2013)에서는 ‘생계, 영토권, 학습, 방어, 개발’ 관련 의사전달체계와 관련된 문화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는다.
- 3) 김영황(2013)에서는 ‘시간성’ 측면에서 ‘전통’에 한정된 문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4) 김영황(2013)에서는 ‘상호작용’ 기본의사전달체계 측면에서 일상어와 문학어를 구분하지 않고 문학작품을 활용해 문화를 다루

17

4.1. ‘전통문화’ 중심의 문화

- 생활문화에서
 - 식생활 문화는 한식에 기반해 어휘 차원의 단어 형성 원리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옷차림 문화는 전통 복식에 한정해 기술하고 있음.
 - 살림집 문화 역시 온돌을 사용한 전통 가옥에 한정해 기술하고 있음.
- 민속문화에서
 - 혼인은 전통 혼례에 기반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

18

4.2. 문학작품을 적극 활용한 문화언어학

- ‘색채문화’에서 문학작품에서의 색채어 사용 양상 분석을 통해 색채의 정서를 제시하고 있음.
- ‘생활문화’ 중 식생활문화에서 ‘농가월령가’나 ‘두시언해’ 등에 나타난 음식 혹은 식재료명을 다루고 있음.
- ‘민속문화’ 중 명절 및 년중민속행사 문화에서 ‘농가월령가’나 ‘잡가’, ‘동동’ 등에 나타난 민속을 다루고 있음.
- ‘민속문화’ 중 혼인 및 출생 풍습 문화에서 ‘계녀가’에 나타난 ‘시집살이’, ‘사친가’에 나타난 ‘친정부모에 대한 그리움’, ‘로처녀가’에 나타난 ‘로처녀의 안타까운 심정’을 다루고 있음.

19

4.3. 범시적 관점의 문화언어학

- 모든 하위 문화에서 옛 문자, 가사 등을 대상으로 문화 요소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음.
- ‘생활문화’ 중 식생활문화에서 ‘농가월령가’나 ‘두시언해’, ‘박통사언해’ 등에 나타난 음식 혹은 식재료명을 다루고 있음.
- ‘생활문화’ 중 살림집문화에서 ‘훈몽자회’, ‘초간박통사’ 등에 나타난 ‘구들’을 다루고 있음.
- ‘민속문화’ 중 명절 및 년중민속행사 문화에서 ‘월이석보’, ‘박통사언해’, ‘훈몽자회’ 등에 나타난 ‘절’을 다루고 있음.
- ‘민속문화’ 중 혼인 및 출생 풍습 문화에서 ‘훈몽자회’, ‘로걸대언해’ 등에 나타난 ‘사돈’을 다루고 있음.

20

5.
나가며 : 한반도 문화의 현재적 탐색을 꿈꾸며

5.1. '지금, 여기,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5.2. 남북 단절의 시간만큼 달라진 문화적 차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5.3. 남북 소통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문화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해 갈 수 있을 것인가?

21

5.1. '지금, 여기,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div style="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font-size: 12px; font-weight: bold;"> 아재 개그에 대한 언어인류학적 접근 (최진숙, 2021: 203-236)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재 개그의 특징 ▪ 언어 형식: 아재 개그의 무한한 재생산, 반복이 가능하다. ▪ 참여구조 : 중년 남성이라는 특정 젠더 및 연령대 화자와 비대칭적 관계에 놓인 청자. 	<div style="background-color: #808080;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font-size: 12px; font-weight: bold;"> '연합' 측면에서의 비공식적 '계급 구조'로서의 '아재'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어디에서나 이러한 비공식적 '계급 구조'로서의 특정 계층을 구조화해 문화기술 측면에서 다룰 수 있음. ▪ 이러한 새로운 연구 대상의 개척이 필요할 수 있음.
---	--

22

5.2. 남북 단절의 시간만큼 달라진 문화적 차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남북의 의료 문화 차이 (오현아, 2020:160-161)

- (1) 남한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북한에서는 환 단당 의사가 자기 예방이 많은 주민에게 질병이 생기기 전부터 현장을 돌면서 환자를 찾아다니는 시스템이 있다. 따라서 환자 자신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 경험이 적다.
- (2) 검사 이후의 진단과 처방 과정에 대한 이해
북한의 경우 장비를 이용한 검사보다는 촉진, 청진 등의 이학적 검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의사의 문진 위주의 진단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임상진찰을 받지 못했다는 정서적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3) 정확한 약 복용의 중요성
북한 주민은 약을 상당히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간주하며, 비전문가도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종종 의조로 자가 처방을 해 약물 남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한 내용

- (1)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남한 의료 체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문진-검사-진단-처방'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3) 규칙적이고 정확한 약 복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3

5.3. 남북 소통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문화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해 갈 수 있을 것인가?

- 이남의 문화에 대한 언어인류학적 연구 결과에 대한 주목
- 이북의 문화에 대한 서지학적 접근
- 탈북민 문화 적응 연구에 대한 주목 등

24

참고문헌

1. 자료

김영환(2013), 문화언어학, 민족출판사.

2. 논저

최효선 역(2000, 2013), 침묵의 언어, 에드워드 홀(1959), The Silent Language, 한길사.

최진숙(2021), 한국사회 중년 남성의 전형화에 대한 고찰: '아재 개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강윤희 편저(2021), 현대 한국사회의 언어문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미향 외(2020), 한국의 언어문화, 소통.

오현아(2021),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해력 향상을 위한 남북한 질병언어 소통 사례집의 발전 방안 모색 - 비의료인의 관점에서 -, 한말연구 60, 한말연구학회, 145-171.

25

감사합니다.

(haoh@kangwon.ac.kr)

26

▣ 토 론

“오현아(2021), 이북 문화언어학에 나타난 문화 요소 분석 및 탐색: 김영황(2013), 문화언어학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유미향(동양미래대학교)

이 발표는 김영황(2013)을 국내에 소개한 것으로, 문화언어학의 핵심 요소를 미국 인류학자인 Edward T. Hall의 연구에 기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김영황(1930 ~)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조선어문학부 조선어학강좌 교원, 원사 교수 박사입니다. 이 책은 2013년 5월에 <사회언어학>과 함께 민족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자가 사회언어학의 일반이론을 기술하고, 언어와 문화의 불가분성을 간파한 후에 북한어의 문화언어학적 요소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발표자의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문화언어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발표 자료에는 문화언어학의 개념과 범위를 사회언어학,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인류학 등의 간학문적 성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언어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낯설기도 하고, 또 문화언어학과 관련 연구가 최근에서야 국내에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언어학은 국내에서는 주로 외국어문학이나 외국어교육, 언어교육 차원으로 논의되었으며 학자마다 하위 영역을 분류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김성도(2002)에서는 문화언어학을 언어와 제례의식, 언어와 문자, 언어와 정체체계, 언어와 윤리, 언어와 민족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조현용(2017)에서는 언어관과 문자관, 신체언어 연구, 비유와 상징 그리고 금기 연구, 관용표현과 속담 연구, 화용론, 언어 상대주의, 사회언어학, 대조언어학, 문화인류학, 언어교육 등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해외 연구자들은 살펴보면 Langacker(1994), Palmer(1996), Sharifian(2017) 등이 등장합니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문화언어학을 언어학의 한 분과로 일상적인 언어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현상 사이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김영황(2013)의 내용과 구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책에 드러난 문화언어학적 접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문화 분석의 틀로 홀(1959)의 연구를 가져온 이유

홀은 미국 인류학자이며, 주로 나바호족과 호피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을 연구하였으며, 다문화주의자로 불릴 만큼 문화간 의사소통에 관심을 둔 학자입니다. 발표자는 홀의 저서 중 117쪽 그림(최효선 역, 2013:123)을 인용하여, ‘상호작용, 연합, 놀이, 양성

성'에 주목하여 김영황(2013)의 내용 체계를 분석하였습니다. 흠의 연구를 인용한 이유가 있는지, 10가지 문화 용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 색채문화를 문화 용어 중 '상호작용'으로 분류했는데, 북한의 색채어는 이념적 정서와 연결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호작용'보다는 '연합'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분류한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교재 분석을 통한 남북한 문화언어학의 차이

현재 발표문에 따르면 4장은 김영황(2013)의 분석 결과를 요약 기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4.3. 범시적 관점의 문화언어학'이 매우 관심 깊게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국어사 자료가 일부 소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남한과는 어떻게 다른지, 혹은 남한의 국어 교과서에 소개된 작품들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한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함께 공부할 기회를 주신 학회 관계자님, 발표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가 향후 밀도 있게 진행되어, 통일 시대를 대비한 언어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 김성도, 2002, 언어상대성 원칙의 역사 인식론적 토대-문화언어학을 위한 서설, 인문언어 3권, 국제언어인문학회.
- 조현용, 2017, 한국어, 문화를 말하다:한국어 문화언어학 강의, 하우.
- Hall, Edward, T., 1959, *The silent language*, Garden City,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Inc.
- Langacker, R., 1994, Culture, cognition and grammar, in Putz(ed.) *Language Contact and Language Conflict*, John Benjamins.
- Palmer, G. B., 1996, *Toward a Theory of Cultural linguistics*, Austin:University of Texas Press.
- Sharifian, F., 2017, Cultural linguistics, *Ethnolinguistics* 28, 2017.

제2부 <주제발표>

근현대 국어교육 연구 자료 및 주요 쟁점

허재영(단국대)

< 차 례 >

1. 서론
2. 국어교육 개념사 연구의 필요성
3. 근현대 국어교육 관련 문헌의 유형과 분포
4. 근현대 국어교육 관련 문헌 연구의 쟁점 - 결론을 대신하여

1. 서론

이 글은 근현대 국어교육 연구를 위한 대상 문헌의 유형과 특징, 분포를 개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국어교육’은 교육 분야의 전문용어로 “국민에게 국어의 사용, 이해, 표현 따위를 습득시키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국민이란 무엇인가?’ 또는 ‘국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이나 ‘국어’는 근대국가 형성 이후에 개념화된 용어로 ‘국어교육’ 자체도 근대 이후에 출현한 용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교과’의 하나로 ‘국어’를 가르친 것은 1895년 근대식 학제 도입 당시 한성 사범학교의 교과목 ‘국문(國文)’이 있었으나 그 당시 소학교에서는 ‘독서, 작문, 습자’를 교과로 두었으므로, ‘국어’라는 교과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06년의 ‘사범학교 시행규칙’(1906.9.1.)과 ‘보통학교 시행규칙’(1906.9.4.)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교육’의 전제가 되는 ‘국가’, ‘국민’, ‘국어’, ‘교육’ 등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에서 ‘국가’를 검색하면 원문 16,423건이 등장하며, ‘국민’은 원문 208건이 등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근대 이전에도 ‘국어’라는 용어가 쓰인 예는 『훈민정음』의 ‘국지어음(國之語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도 실록 원문에서 356회의 쓰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 사용된 ‘국가’, ‘국민’, ‘국어’, ‘교육’이라는 용어가 ‘국민, 영토, 주권’을 전제로 한 ‘국가’, ‘국가’를 전제로 한 ‘국민’, ‘국가’와 ‘국민’을 전제로 한 ‘국어’, ‘지덕체의 성장과 행동 변화’를 전제로 한 ‘교육’ 등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근현대 국어교육 연구를 위한 문헌 고찰을 위해서는 국어교육의 개념을 확정하고, 그 가운데 근대 이후의 국어교육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국어교육사와 관련된 다수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응백(1975)에서는 문자 학습이나 기초 교재 및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저서에서 다른 주요 교재가 한자 학습을 위한 기초 교재였다는 점에서 국어

교육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박봉배(1987)에서는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 교육상황과 국어과 관련 교재 및 국어교육 관련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전사를 재구하고자 하였다. 이 저서에서는 근대 이후 국어교육과 관련된 시대 개관과 제도, 교육과정, 교재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국어교육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후 개인적인 저술로서의 국어교육사 연구 업적은 찾기 어려운데, 윤여탁 외(2005)의 경우 ‘국어교육 100년사’를 주제로 ‘국어정책과 국어운동’, ‘교육과정과 교재’, ‘북한의 국어교육’,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 등 근대 이후의 국어교육 범위를 넓혀 폭넓게 다루고자 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국어교육사를 비롯한 국어교육 연구의 제반 분야에서 국어교육의 개념과 연구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충분했던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어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광복 직후 이희승(1946)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 교과로서의 ‘국어’와 국민의 일상 언어로서의 ‘국어’ 개념이 혼재된 상태에서, 국어교육의 개념과 연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관심이 체계화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국어’가 교과 명칭으로 쓰인 시점이 1906년 이후이며, ‘국어교육’이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 본격적으로 ‘일본어교육’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였음에도 다수의 민중들에게는 ‘국어’가 ‘조선어’를 의미했으며, 광복 이후에도 ‘국어교육’이 교과 범주를 넘어 ‘국어를 가르치는 것’ 정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국어교육의 개념사’ 연구의 필요성과 근현대 국어교육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관련 문헌의 유형과 특징을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국어교육의 개념사 연구의 필요성

단어 형성의 원리를 고려하면 ‘국어교육’은 ‘국어’와 ‘교육’이 합쳐진 말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국어교육’이 단순히 ‘국어’와 ‘교육’이 합쳐진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국어교육’이라는 용어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개념과 ‘교육’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어’라는 용어는 근대 이전에도 쓰였던 용어이다. 중국 고대의 역사서로 『국어』¹⁾라는 서명이 쓰인 적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국어’를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이 책뿐만 아니라 ‘중국어’ 또는 ‘본국어’라는 표현이 80여회 등장한다. 그러나 역사서로서의 『국어』나 ‘본국어’가 근대적 의미의 ‘국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병기(2015, 2016)에서 검토한 것처럼 한민족의 역사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명칭으로 ‘국가명+어(語)’의 구조를 갖는 표현은 ‘진어(辰語), 가라어(加羅語), 부여속어(扶餘俗語), 고려화(高麗話), 고려어(高麗語)’ 등과 같이 시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중국어와 대립한 개념으로 ‘방언(方言), 이어(俚語), 본국어(本國語)’ 등이 쓰인 예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²⁾ 이와 같은 용어는 본질적으로 특정 국가가 존재할 경우 그 국가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존재하며, 그것을 ‘국어’라고 부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만 서구의

1) 중국 고대의 역사서인 『국어』는 사담집(史談集) 형태의 춘추시대 각국 역사 이야기를 뜻한다. 주나라 목왕 35년(기원전 967년)부터 정정왕(貞定王) 16년(기원전 453년)까지 주나라(3권), 노나라(2권), 제나라(1권), 진나라(9권), 정나라(1권), 초나라(2권), 오나라(1권), 월나라(2권)의 이야기를 서술했으므로, 이때 ‘국어’의 개념은 ‘각국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2) 이병기(2015)에서는 개념사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국어’ 및 ‘국문’과 근대적 민족의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병기(2016)에서는 ‘국어’를 순수한 근대적 개념어로만 규정할 수 없으나, 근대 개념어로서의 국어는 근대 국가를 전제로 함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경우 ‘국어’가 르네상스 이후 민족국가의 발달과 합리주의 정신에 따라 라틴어로부터 독립한 민족어를 지칭할 경우가 많듯이, 한국에서의 ‘국어’가 한국어 또는 우리 민족의 언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1880년대 이후의 일이다.³⁾ 이와 같은 용어 사용의 역사를 고려할 때, ‘국어’라는 개념은 이병기(2016)에서 제안한 것처럼 ‘민주화, 시간화, 이념화, 정치화’의 차원에서 시대별 특성을 반영한 개념이었음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즉 근대 이전의 ‘국어’와 근대 이후의 ‘국어’ 개념에는 시대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국민 또는 민족)의 언어라는 본질은 동일하다. 물론 국가를 전제로 국어 개념을 정립할 경우, ‘국가를 상실하면 국어도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민족어’, ‘모어(모국어)’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논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사에서 국가를 상실했던 일제강점기에도 다수의 한국 민중은 정치적으로 식민 지역어로 전락했는지라도 우리말과 글을 ‘국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음 논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교육과 國語問題, 國語解放, 朝鮮語 虐待 不可]

교육과 國語問題: 教育과 國語問題는 朝鮮의 重要한 懸案이다. 이것이 아즉 問題化하지 아니하였스니 社會的으로 보아 一懸案이라 할 수 업지마는 朝鮮人의 文化的 生命을 爲하여, 그의 當然한 發展을 爲하여 現下 吾人의 當面한 重要 問題이다. 吾人은 自然의 國語로서 自然한 感情의 流露를 表示하고 싶고, 더욱히 發育期에 있는 어린 동무들에게 이 天然의 權利, 幸福을 恢復케 하고 싶다. 아니 꼭 그리하여야 할 일이다. 世界平和의 理想을 爲하여 人類 相互의 理解, 融和를 爲하여 世界 共通語의 獎勵를 보게 되었다. 그는 매우 可하다. 그러나 어느 一個 民族의 特殊한 利益, 그의 優越性을 爲하여 다른 一個 民族으로 그에게 隸屬을 強制하고 兼하여 어느 一個 民族에게 同化, 또는 汲汲됨을 前提로서 다른 一個 民族의 固有한 言語의 使用을 禁止한다는 것은 매우 不合理的 暴舉이오 또 無用한 虐政일 뿐이다. 吾人은 이를 斷然 不可타 主張하는 것이다.

國語解放: 일즉은 戰亂 以前 波蘭 人民에게 잇서 國語問題가 教育上 重大問題가 되었섯다. 알사스 로렌 兩州에 잇서서도 尙今 國語問題가 往往히 紛議거리가 된다. 後者는 아즉도 紛議거리가 되고 잇거니와 波蘭의 그것은 그의 文化運動上 乃至 解放運動上 一 重要한 事件이 되든 것이다. 獨逸語이나 露西亞語를 爲하여 波蘭 國語의 使用을 禁止하는 것은 波蘭 兒童의 順當한 發育 및 그 文化的 向上을 爲하여 그들의 峻烈하게 反對하든 바이다. 그들은 그를 力主하였고 또 血爭하였섯다. 波蘭 兒童의 順當한 教育을 戕害하는 것은 곧 波蘭 人民의 文化的 生命을 戕害하는 것이오 그것은 곧 世界文化의 順當 또 均齊한 發展을 戕害하는 것이다. 이 意味에 잇서서 朝鮮의 教育과 國語問題는 一 同一한 結論에 들어가는 것이다. 吾人은 朝鮮人의 文化 發展을 爲하여 또 世界文化의 發展을 自然대로 開放하기 爲하여 朝鮮의 兒童의 使用 및 自然의 國語로서의 教育을 바들 權利가 잇슴을 力主하는 바이다.⁴⁾

이 시평에서는 일제강점기 국가를 상실한 상태에서도 ‘국어’라는 개념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국가를 상실한 폴란드나 식민지 조선에서도 ‘국어’라는 용어가 의식적으로 식민 지배어를 뜻하는 개념 대신 식민 이전의 국가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제강점기 한국의 경우 식민 지배어로서의 ‘국어’, 즉 ‘일본어’와 구별되는 ‘조선어’, ‘우리말’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문자를 지칭하는 개념어로 ‘국문(國文)’, ‘조선문(朝鮮文)’, ‘한글’ 등을 사용했는데, ‘국어’라는 개념과는 달리 ‘국문’이 일본문자(假名=가나)를 지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⁵⁾ 이와 같은 용어 사용 경향은 특정 개념이나 그 개념을 표현

3) 근대적 국어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이연숙(1987), 조태린(2006), 최경봉(201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4) 『조선일보』 1925.5.11. 시평(時評).

5) 예를 들어 ‘국문소설’, ‘국문 번역’, ‘국문 연구’ 등과 같은 표현에서 ‘국문’은 한글을 지칭한다.

하는 용어가 어느 한 시기 갑자기 형성되거나 변화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개념사 연구자들은 특정 용어의 출현 또는 개념 형성과 변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해당 개념어뿐만 아니라 그 개념어와 관련을 맺는 다양한 언어 표현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다.⁶⁾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어교육’의 전제가 되는 ‘국어’의 개념은 근대 이전의 국어와 근대 이후의 국어를 포괄하되, 시대별 개념 특성을 고려한 용어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⁷⁾

또 하나는 ‘교육’과 관련된 개념사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왕조실록 원문에는 ‘교육’이라는 용어가 356회나 출현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개념에서 ‘교육’이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에듀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한용진 편저(2020)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즉 『맹자』 진심장에 등장하는 ‘천하 영재를 얻어 그를 교육한다.’라는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개념인 데 비해, 오늘날의 교육은 ‘잠재적 능력을 끌어내는 것’, 이를 위해 ‘가르치고[敎], 부여하며[授], 자발적 과업 성취의 관점에서 ‘배우고[學], 익히는[習]’ 것을 체계화한다. 달리 말해 근대적 교육 개념은 근대식 학제와 교육학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전통적인 교육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념사 연구의 관점으로 볼 때, 근대 이전의 교육과 근대 이후의 교육은 그 목적과 내용, 교수 방법이나 평가의 원리 등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 자체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어교육’의 개념사 연구가 필요하다. 개념사 연구가 개념어의 존재로부터 출발함을 고려한다면, 이 용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문헌을 고찰할 때, 이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널리 쓰인 용어이다. 이 시기는 식민 지배어로서 일본어를 ‘국어’라고 지칭했으나, 조선 민중의 잠재의식 속에는 ‘조선어’가 국어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교육’이라는 개념에서도 ‘일본어교육’과 ‘조선어교육’이 혼재될 경우가 많으나, ‘국문’이라는 개념은 일본문이라는 인식보다 조선문(즉 한글)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문’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은 18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88년 박영효는 이른바 ‘건백서(建白書)’에서 “먼저 인민에게 국사 및 국어 국문으로써 가르칠 것(先敎人民以國語國文事)”을 주장하고 있는데⁸⁾, 이 표현에 들어있는 ‘교국어국문(敎國語國文)’이라는 표현은 ‘국어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⁹⁾ 다만 이 표현에 등장하는 ‘교국어국문’은 국어국문에 대한 교육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외국어나 한문 등을 국어국문으로 번역하여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어 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특히 교과교육)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6) 개념사는 특정 개념어의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경향을 일컫는다. 박근갑 외(2015)에 따르면, 개념사 연구는 1997년 독일에서 『역사적 기본 개념-독일 정치·사회언어 역사 사전』을 간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나인호(2011)에서는 개념사의 성격을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개념사 연구의 주요 흐름은 코젤렉의 ‘기본 개념 구조사’, 라이하르트와 ‘사회사적 의미론’,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핵심어 연구’, 페레스의 ‘기본 개념이 아닌 개념 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7) 이 글에서는 재정의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국어사 연구자들이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할 때, 한국어의 계통으로부터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국어를 망라하는 것처럼, 국어교육의 대상으로서 국어 개념도 근대 이후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만을 천명하고자 한다.

8) 국사편찬위원회(2013), 『한국 근대사 기초 자료집』2, 탐구당문화사 인쇄. 번역문은 김경남 외(2019) 참고.

9) 이와 같은 차원에서 최세진의 『훈몽자회』 ‘범례’에 등장하는 “언문을 먼저 배우게 하고 다음에 훈몽자회를 배우게 한즉 거의가 깨우칠 수 있는 이로우이 있고, 문자를 통하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언문을 다 배우고서 글자를 알게 한즉, 비록 선생이 없다 하더라도 역시 장차 문장을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必多不解諺文 故今乃并著諺文字母 使之先學諺文 次學字會 則庶可有曉誨之益矣. 其不通文字者亦皆學諺而知字 則雖無師授亦將得爲通文之人矣).”라는 진술도 국어교육의 역사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국어교육의 개념 문제는 광복 직후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¹⁰⁾ 이 시기 일석 이희승은 『신천지』 제1권 제3호(1946.3.) ‘국어란 무엇인가’, 제1권 제7호(1946.7.) ‘국어의 본질’, 『조선교육』 창간호(1947.4.) ‘국어교육의 당면문제’, 『새교육』 제2권 제2호(1949.3.) ‘국어교육의 몇 가지 문제’ 등을 발표하여, 본격적으로 ‘국어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국어교육의 당면문제’에서는 “국어교육을 문제 삼으려면 국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요, 국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우선 언어의 근본의(根本義)를 잘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언어의 본질과 국어교육의 개념 및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일석이 제시한 국어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언어”라는 것으로, ‘국어는 언어다’, ‘국어는 일종의 구체적 언어다’, ‘국어는 국가를 배경으로 한다’, ‘국어는 표준어라야 한다’라는 네 가지 명제를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¹¹⁾ 그러나 일석은 그 자신이 ‘국어교육’의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어교육의 당면 문제’에서 국어교육의 ‘목적’을 서술하고, 국어교육의 주체와 당면 문제를 서술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그가 제시한 국어교육의 목적의 일부분이다.

[국어교육의 목적]

우리는 日常生活에 있어서 항상 國語 表現力을 陶冶하여 言語 文字로써 생각하는 바를 充分 圓滑하게 發表할 能力을 길러야 한다. 純正하고 洗鍊된 國語를 使用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自己의 表現을 適正 曲盡하게 할 뿐 아니라, 나가서는 他人(古今人을 不問하고)이 表現한 바 言語 文章을 正確하게 理解할 수 있는 힘을 啓發해 주어야 한다. 또 言語는 人格의 表現도 되므로 恒常 高尚하고 品位 있는 말을 使用하는 習慣을 養成하여, 言語生活을 通하여 더욱 高邁한 人格을 涵養하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國語는 國民精神의 表現이므로, 國民文化와 國民道德의 育成에 盡力하여야 할 것이요, 國語教育으로써 어린이나 學生의 理知力 啓導에만 偏重할 것이 아니라, 國語 國文을 通하여 高潔한 情緒를 陶冶하도록 十分 留意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國語教育의 究極 目的은 國民的 體驗 卽 國民文化를 充分히 陶冶 向上시키어 國民으로서의 名譽와 幸福을 누릴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人類文化에의 貢獻을 期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¹²⁾

이 인용문에 나타난 국어교육은 ‘국어 표현력 도야’, ‘언어 문장 이해력 계발’, ‘고매한 인격 함양’, ‘국민문화와 국민도덕 육성’ 등을 목표로 한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일석이 제시한 국어교육의 목적은 광복 이후 교과로 설정된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일치한다. 그러나 일석은 ‘가정’, ‘사회’, ‘학교’가 모두 국어교육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어교육이 교과로서의 ‘국어과 교육(또는 국어 교과교육)’보다 넓은 개념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교과로서의 ‘국어’는 1906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일제강점기 ‘조선어과’를 거쳐 광복 이후 ‘국어과’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김민수 외(1975) 등에서 확인되었듯이¹³⁾, ‘국어과 교육’이라는 용어는 널리 쓰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국어교육’이라는 용어를 ‘교과교육’처럼

10) 근대식 학제가 도입된 이래 유옥겸(1908)의 『간명교육학』을 비롯한 교육학 교과서에서 교과 분류의 하나로 ‘국어’를 설정하고, 그 요지를 설명한 예를 찾을 수 있고,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말교육’ 또는 ‘국어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도 있으나, 이들 자료에서는 국어교육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1) 이희승(1946), 국어란 무엇인가, 『신천지』 제1권 제3호, 서울신문사.

12) 이희승(1947), 국어교육의 당면 문제, 『조선교육』 창간호, 조선교육연구회, 38쪽.

13) 김민수·서병국·이을환·이응백·천시권·황정규(1975), 『국어교육론-기본 이론과 방법-』, 일조각.

럼 사용한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일제강점기 이후 국어교육이 학교라는 제도뿐만 아니라 문자보급운동이나 농민계몽 등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그 중심은 학교의 교과교육에 있다는 의식이 작용한 셈이다.¹⁴⁾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어교육의 개념사는 교과 범주를 넘어서야 하며, 근대 이전 교과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한글을 사용한 교육이나 소학 교육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근현대 국어교육 관련 문헌의 유형과 분포

국어교육사 연구는 본질적으로 문헌 연구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학문 분야이든지 문헌 연구에서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연구 범위를 넓힐 경우 지나치게 많은 문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국어교육사 연구도 마찬가지인데, 국어교육을 교과교육으로 한정할 경우 188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는 문헌 부족을 실감하게 되며, 국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 보급을 위해 국문 또는 국한문으로 출판한 다수의 신문, 잡지, 교과서, 문학류 출판물로 범위를 넓힐 경우 수많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처지에서 몇 가지 근현대 문헌 자료 조사 연구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근현대 문헌 유통과 관련한 대표적인 자료 형태는 시대별 문헌 발행 상황을 조사한 문헌이나 도서 목록 및 해제집을 참고할 수 있다. 시대별 문헌 발행 상황과 관련한 대표적인 저술로는 사쿠라이키치(櫻井義之, 1944)의 『메이지 연대 조선연구문(明治年代 朝鮮研究文獻)』(書物同好會), 스에마쓰야스카즈(末松保和, 1971), 『조선연구문헌목록(朝鮮研究文獻目錄 1868-1945)』(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院)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두 종의 문헌은 메이지 이후 일본에서 조선과 관련한 연구 자료를 정리한 목록류이므로 국어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학 발달 과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선총독부(1919)의 『조선도서해제(朝鮮圖書解題)』, 총독부 도서관(1938)의 『신서부 분류 목록』 등도 한국학 연구의 흐름과 관련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광복 이후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공립 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그와 관련한 해제서를 발행한 바 있으므로¹⁵⁾ 이들 목록도 문헌 유통 상황을 파악하는 데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어사와 국어교육과 관련한 문헌 조사 사례로는 이현희(1999)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개화기의 국어 자료를 ‘잡지류, 신문류, 성경류, 가곡집류, 기독교 관련, 불교 관계, 도교 관계, 국어 독본 관계, 문법 연구서, 사전 및 한자·한문 학습서, 문학 관계, 수신·윤리 관계, 역사 관계, 지리 관계, 교육·심리학 관계, 상업·경제학 관계, 정치·외교학 관계, 법률학 관계, 산술 관계, 생리 위생학 관계, 박물·동물학 관계, 물리·화학 관계, 광물학 관계, 농업학 관계, 축산

14) ‘국어과 교육’ 또는 ‘국어교과교육’이라는 용어가 언제 등장했는지는 좀 더 문헌 고찰이 필요하다. 다만 노명완 외(1988), 김대행(1995) 등을 참고하면,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정에서 이 용어를 중시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15) 이와 관련하여 강순애(1997)에서는 1997년까지 발행된 각 도서관의 고서 목록 76종, 문화재 관리국의 전적 조사목록 9집, 국외 소재 고서 목록 8종을 정리한 바 있다. 현재 연구자가 조사한 것은 2007년 발행분까지 104종이다.

관계, 수산 관계, 삼림학 관계, 의학 관계, 법령집, 병서 관계, 언간독류, 기행문류, 이두집성류, 기타' 등 3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바 있다. 이 자료에는 1880년대부터 1910년초까지 530종의 서명이 등장한다. 또 하나의 사례로 허재영 외(2017)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근현대 학문 형성과 계몽운동의 흐름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근현대 학회보, 일제 강점기 잡지, 근대 교과서, 일제강점기 교과서, 신문 서적 광고에 등장하는 서명, 잡지 소재 광고의 서명 등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근대 계몽기의 학회보(잡지) 55종, 일제강점기 잡지 740종, 근대 교과서 464종, 일제강점기 총독부 편찬 교과서 45종, 검정 교과서 16종, 신문 광고 도서 282종, 잡지 광고 도서 430종 등이 나타난다.

이처럼 1880년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국내에 유통되었던 문헌류는 일본의 서적 발행과 유통 상황에 비해서는 빈약하지만, 실제 연구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문헌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 조사 작업이 모두 국어교육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것은 아니다.

근현대 국어교육 연구 관련 문헌의 경우 연구 의도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개념사의 관점에서 근대 이후의 국어교육은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국어사용 및 국어문화 발달과 관련한 제반 교육을 포함하므로, 관련 문헌 조사 및 분류에서도 이를 고려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박봉배(1987)의 국어교육전사 구성법은 문헌 분류에서도 참고할 만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시대 개관', '정책 및 제도', '교육과정', '교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첫째, 국어교육의 환경을 이루는 시대 개관과 관련한 연구는 역사학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만규(1947)의 『조선교육사』나 손인수(1998), 『한국교육사』를 비롯한 교육사 연구 업적을 토대로, 근현대 한국 교육의 시대사를 검토하는 작업은 국어교육사 재구를 위한 선행 작업이 된다. 역사문헌 자료로 볼 때 1881년 조사시찰단 보고서, 특히 조준영의 『문부성소할목록』¹⁶⁾이나 영선사로 중국에 파견되었던 김윤식의 『음청사』¹⁷⁾ 등은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의 교육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각종 상소문, 원산학사와 옥영공원 관련 자료,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소재하는 교육 관련 자료 등¹⁸⁾도 주목할 자료들이다.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로는 『구한국 관보』, 『조선총독부 관보』 등과 같은 관보 자료¹⁹⁾를 주목할 수 있으며, 근대 이후의 신문과 학회보, 종합잡지 등도 주목해야 할 자료들이다. 신문의 경우 근대식 학제 도입부터 강제 병합 직전까지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협성회 회보』, 『미일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국문판, 국한문판)』, 『제국신문』, 『경향신문』, 『조선그리스도인회보』, 『만세보』, 『기독교 신문』 등의 국문 신문이 발행되었으며, 일본인이 경영한 『조선시보』, 『한성신보』, 『인천경성격주상보』와 해외에서 발행한 『공립신보』, 『히조신문(海朝新聞)』, 『대동공보』 등도 참고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동명』, 『조선중앙일보』를 비롯한 국문 신문도 주목할 연구 자료들임에 틀림없다. 참고로 한국언론재단에서 구축한 빅카인즈 고신문 아카이브에는 80종의 신문 자

16) 조사시찰단 자료는 허동현(2003)에서 영인한 바 있다. 또한 『문부성소할목록』은 현재 3종 이상의 번역본이 존재한다.

17) 국사편찬위원회(1958), 『종정연표·음청사』, 국사편찬위원회. 이 책은 현재 번역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8) 김경남·김세종·허재영·윤지원·김정희(2019), 『지식의 구조와 한중일 지식지형 변화의 탐색』, 경진출판.

19) 이 두 자료는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보급하였다.

료가 구축되어 있는데, 한글 검색과 원문 제공이 가능하므로 연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²⁰⁾ 잡지 아카이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 ‘한국 근현대 잡지 자료’ 83종을 구축하였다. 그 가운데 근대 학회보는 『대한자강회월보』를 비롯한 1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 『개벽』을 비롯한 14종이 구축되었다.²¹⁾

둘째로는 법령이나 교육 제도,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 대상 문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교육 제도와 교육과정은 구분되는 개념이나, 근대식 학제 도입기로부터 일제강점기까지는 ‘학교령’ 또는 ‘교육령’ 속에 학제와 교과 및 교과 요지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의 관련 연구는 대부분 시찰단 보고서, 신문, 개별 학교의 관련 규정이나 절목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관보에 게재했으므로 관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여탁 외(2005)의 『국어교육 100년사』, 허재영(2009, 2010, 2011)에서 기초 자료를 정리한 바 있으며, 일제강점기 교육 법령 변화에 대해서는 김규창(1985)의 연구 성과도 참고할 수 있다.

셋째는 교재 연구 분야이다. 국어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교과에 사용된 ‘교과용 도서’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 이외의 단체에서 사용한 교재류이다. 특히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에는 국어를 전문적으로 교수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교재 연구는 주로 1895년 학제 도입 이후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²²⁾ 그러나 1890년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험버트의 『사밀필지』는 순국문 지리교과서라는 점에서 국어사나 국어교육 연구 차원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교재이다. 이 교과서는 1900년대 이른바 ‘험버트 시리즈 교과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어교육사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³⁾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 교과용 도서에 관한 연구로는 박봉배(1987), 이종국(1991) 등의 기초 연구를 비롯한 다수의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특히 국어과와 관련하여 1895년 학제 도입 직후 『국민소학독본』, 『소학독본』, 『신정심상소학』을 편찬한 이래 1907년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 일제강점기 4차에 걸친 『조선어독본』의 발행이 있었다. 이들 교과서는 대한제국기의 학부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주체로 학교교육용으로 개발한 것들이다. 그러나 국어교육과 관련된 교재류는 학교교육의 미흡, 선교 활동 및 계몽운동 차원에서의 국문 보급, 국권 침탈과 상실 상황에 따른 민족의식의 각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봉배(1987)에서는 학제 도입으로부터 1905년까지의 교과서 편찬이 관주도로 이루어진 데 비해, 1906년부터 1910년까지는 민간의 교과서 개발이 활발했음을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제강점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식민 지배언어로서 일본어 보급에 주력했던 조선총독부가 제한적으로 ‘조선어과’ 교과서를 개발한 데 비해, 각종 문화운동을 비롯한 문자보급운동, 계몽운동 차원에서 다수의 독본류가 편찬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에서도 다수의 조선어독

20)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v2/news/oldNews.do>). 고신문 아카이브에 포함된 신문은 근대 신문 13종, 일제강점기 13종, 광복 이후 54종이다. 근대 신문 가운데 『경향신문』, 『그리스도신문』 등 다수의 종교계 신문이나 일본인 경영 신문이 누락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 『경성일보』, 『동명』, 『기독교신문』 등도 누락되어 있다. 또한 광복 이후 『자유신문』, 『조선중앙일보』 등 다수의 자료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 연구자들은 아카이브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21)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근대 학회보 55종 및 일제강점기 잡지 740종을 고려할 때 잡지 아카이브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이다.

22)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의 학교와 교과서에 대해서는 허재영(2013)을 참고할 수 있다.

23)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20)을 참고할 수 있다.

본류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근대로부터 일제에 이르기까지의 교재 연구는 편찬 주체, 용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정리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교재류는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독본류 30여 종, 국어 및 문법 관련 18종이 확인되며²⁴⁾, 일제강점기 조선어독본의 경우 1910년대 자구정정보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 8책, 1913년 구교육령기의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6책,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4책, 1923년 신교육령기의 『보통학교 조선어독본』6책, 『신편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5책, 『여자고등조선어독본』4책, 1933년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 개편된 『보통학교 조선어독본』6책, 『중등교육 조선어급한문독본』5책(4년제 학교 및 간이학교용은 별도로 편찬됨), 1939년 제7차 교육령(이른바 개정교육령)에 따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2책 등 60여 종이 편찬된 것으로 확인된다.²⁵⁾

주목할 것은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재 연구이다. 예를 들어 1907년 유길준이 편찬한 『노동야학독본』을 비롯하여 성인 강습 자료, 일제강점기의 각종 독본류와 문자보급교재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최남선의 『시문독본』, 이윤재의 『문예독본』과 같이 일제강점기 비교적 널리 알려진 독본류에 대한 연구나 조선농민사의 『농민독본』,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의 문자보급 교재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근현대 작문 교재나 강습용 독본,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에서 발행한 다수의 조선어 농민독본류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최재학(1909)의 『문장지남』, 『실지응용작문법』, 이각종(1911)의 『실용작문법』, 이종린(1913)의 『문장체법』, 영창서관 편집부(1923)의 『학생자작 일선신작문』, 이해조(1922)의 『신찬일선작문법』, 강매(1928)의 『중등조선어작문』, 조한문교원회(1928)의 『중등조선어작문』 등은 작법과 관련된 교재이며, 원영의(1918)의 『근고문선』 등은 고전을 대상으로 한 읽기 교재이다. 또한 1911년 이원규가 편찬한 『노성인 강습용 목민집설』, 황응두(1921)의 『통학경편』, 『한일선 시문신독본』 등은 근대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성인과 아동을 위한 강습용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당진군의 『부인강습회 자료』, 응세농도학원의 『응세농민독본』, 충청북도의 『간이농민독본』, 경기도 『농민독본』, 황해도 『전시농민독본』 등과 같은 자료도 일제강점기 국어 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데 참고해야 할 자료들임에 틀림없다.²⁶⁾

4. 근현대 국어교육 관련 문헌 연구의 쟁점 - 결론을 대신하여

광복 직후 일석이 국어교육의 당면문제를 거론했듯이, 근현대 국어교육사를 기술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국어교육의 목표’, ‘주체’, ‘대상’ 등을 체계화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먼저 국어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에는 명시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없이 ‘지식 보급과 문명화’를 위해 ‘국문을 사용(또는 번역)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목표 문

24) 근대 독본류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연구소(1977) 영인 자료에 18종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경진 출판사에서 ‘개화기 국어교과서’라는 명칭으로 번역·해제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독본류 목록은 허재영 엮음(2017, 105-108)을 참고할 수 있다. 이들 교과서 이외에 고영근·김민수·하동호 편집(1977), 『역대한국어문법대계』에 수록된 자료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리즈에는 1800년대부터 1945년까지 한국어 문법 연구(또는 교육)와 관련된 74종의 문헌이 수록되어 있다.

25) 일제강점기 조선어독본 관련 자료는 강진호·허재영(2013)을 참고할 수 있다.

26) 이와 관련한 연구로 허재영(2016, 2017)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허재영 해제(2012), 『계몽운동 문자보급자료 총서』에도 일부 자료를 영인하였다.

제가 명시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1895년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로 볼 수 있는데, ‘소학교 시행규칙’이나 ‘중학교 시행규칙’ 등에서는 교과와 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일제강점기 조선어 교과와 요지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기는 식민치하에서 일본어(그 당시 국어)에 준한 교육 목표와 교수 방법이 제시된다. 이 점에서 근현대 국어교육의 목표는 혼종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교육의 목표와 성격을 기술하는 데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국어교육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다.

국어교육의 주체와 관련하여 이희승(1947)에서는 ‘가정’, ‘학교’, ‘사회’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사 기술에서 가정에서의 국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술하는 것은 그 범위나 대상 설정이 쉽지 않다. 학교교육의 경우 학제와 교과 운영, 교과서 등을 대상으로 한 명시적 연구가 가능하지만,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의 경우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 국어교육사 재구를 위해서는 다수의 문헌 자료를 계량화하여 시대별 사회 상황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근대의 지식 보급을 통한 문명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계몽적 담론이나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수의 활동, 국권 침탈과 국권 상실기 애국 담론에 등장하는 국어 존중 사상, 민중의 문화운동 차원에서 폭넓게 전개된 문자보급운동 및 노농 야학 등은 사회교육 차원에서 국어교육이 다양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근현대 국어교육 관련 문헌 유형은 주체의 차원에서 국어교육과 관련된 변인이 한국인으로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지방행정기관이나 경찰)이나 금융조합, 농업 관련 단체 등에서 발행한 다수의 독본류는 식민지배의 목적에서 제작된 것일지라도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 교육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한계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활동 차원에서 진행된 조선어교육과 교재 개발 사례도 눈여겨 보아야 할 사례들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어교육의 대상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1990년대 이후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과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²⁷⁾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어교육사에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현대 국어교육의 전개 과정을 고려한다면 근대 이후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나 외교관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과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교육의 전개 과정과 관련된 문제를 소홀히 다루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어교육과 관련된 개념사 연구는 좋은 대안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개념사 연구는 특정 개념의 형성과 변천 과정, 개념어의 등장과 관련어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개념사 연구 차원에서 ‘국어’, ‘국가’, ‘국민’, ‘교육’ 등의 기본 개념어뿐만 아니라 ‘교과’, ‘교재’, ‘독본’, ‘교수’, ‘학습’ 등의 용어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해당 용어가 존재하기 전과 후의 개념 변천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코젤렉의 기본 개념 구조사나 라이하르트의 사회사적 의미론의 주된 연구 방법을 고려할 때, 국어교육의 기반을 이루는 언어관²⁹⁾을 비롯하여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객관적

27) 엄밀히 말하면 대상에 따라 ‘국어교육’이라는 용어와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대상에 따라 용어를 구분하는 대신 한국어를 어떤 차원으로 가르치는가를 기준으로 ‘모국어 교육’,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28) 이 문제는 허재영(2021)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29) 김민수 외(1975)에서는 교육의 기반을 이루는 언어관으로 ‘언어 도구관’, ‘언어사상 일체관’, ‘언어사상 형성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으로 기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 강순애(1997), 한국 고문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전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31-4, 한국문헌정보학회, 83-112.
- 강진호·허재영(2013), 『조선어독본』1-5, 제이앤씨.
- 고영근·김민수·하동호 편(1977), 『역대한국어문법대계』, 탑출판사.
- 김세익(2001), 『도서·인쇄·도서관사』, 아세아문화사.
- 나인호(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 박근갑(2015), "근대"의 의미론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과 한스 블루멘베르크(Hans Blumenberg)-, 『개념과소통』9, 한림과학원, 117-147.
- 박봉배(1987), 『한국어교육전사』상·중·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손인수(1998), 『한국교육사』, 문음사.
- 윤여탁 외(2005), 『국어교육 100년사』1-2, 서울대출판부.
- 이만규(1947), 『조선교육사』, 을유문화사.
- 이병기(2015), 이병기(2015), '국어' 및 '국문'과 근대적 민족의식, 『국어학』75, 국어학회, 165-192.
- 김민수·서병국·이을환·이응백·천시권·황정규(1975), 『국어교육론-기본 이론과 방법-』, 일조각.
- 이병기(2016), '국어'는 근대적 기본 개념어인가?, 『인문논총』7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133-164.
- 노명완 외(1988), 『국어과교육론』, 갑을출판사.
-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 국사편찬위원회(2013), 『한국 근대사 기초 자료집』2, 탐구당문화사 인쇄.
- 이희승(1946), 국어란 무엇인가, 『신천지』 제1권 제3호(1946.7.), 서울신문사.
- 이희승(1946), 국어의 본질, 『신천지』 제1권 제7호(1946.7.), 서울신문사.
- 이희승(1947), 국어교육의 당면문제, 『조선교육』 창간호(1947.4.), 조선교육연구회.
- 이희승(1949), 국어교육의 몇 가지 문제, 『새교육』 제2권 제2호(1949.3.), 새교육연구회.
- 이연숙(1987), 近代日本の「國語」개념의 성립, 『일본학보』19, 한국일본학회, 101-117.
- 조태린(2006), 국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학』48, 국어학회, 363-394.
- 최경봉(2012), 근대적 언어관의 전개와 국어 정립이라는 과제의 인식 양상-한국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동방학지』158, 연세대 국학연구원, 231-269.
- 이응백(1975), 『국어교육사연구』, 신구문화사.
- 이종국(1991), 『한국의 교과서-근대 교과용 도서의 성립과 발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현희(1999), 개화기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4-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원.
- 한국문헌연구소(1977), 『개화기 교과서 총서』1-20, 아세아문화사.
- 허동현(2003), 『조사시찰단 관계 자료』1-14, 국학자료원.
- 허재영 엮음(2017), 『근대계몽기 학술 잡지의 학문 분야별 자료』, 경진출판.
- 허재영 해제(2012), 『계몽운동 문자보급 자료 총서』1-9, 역락.
- 허재영(2009), 『일제강점기 교과서 정책과 조선어과 교과서』, 경진.

허재영(2010), 『통감시대 어문교육과 교과서 침탈의 역사』, 경진.

허재영(2011), 『조선교육령과 교육정책 변화 자료』, 경진.

허재영(2013),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1880-1894)의 학교와 교과서 연구, 『한국언어문학』87, 한국언어문학회, 517-545.

허재영(2016), 일제강점기 농민독본류의 발행 실태와 내용, 『국어교육연구』61, 국어교육학회, 27-56.

허재영(2017), 일제강점기 농민독본의 국어교육사적 의미, 『어문학』137, 한국언어학회, 198.

허재영(2020), 근대 지식 수용 과정에서 헐버트 시리즈 교과서의 의미, 『어문학』147, 한국언어학회, 239-262.

허재영(2021), 개념사 연구 방법과 국어교육 - 국어교육사 연구를 위하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1년 겨울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경남·김세종·허재영·윤지원·김정희(2019), 『지식의 구조와 한중일 지식지형 변화의 탐색』, 경진출판.

櫻井義之(1944), 『明治年代 朝鮮研究文獻誌』, 書物同好會.

末松保和(1971), 『朝鮮研究文獻目錄 1868-1945』,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院.

朝鮮總督府(1919), 『朝鮮圖書解題』,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圖書館(1938), 『新書部 分類目錄』, 朝鮮總督府 圖書館.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v2/news/oldNews.do>).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2. 참고 자료

2.1. 근대 계몽기 학회보(잡지) 목록

순번	발행지	학회보 이름	창간호	종간호	발행 단체	단체 소재
1	국내	대조선독립협회회보 (大朝鮮獨立協會會報)	1896.11.30. (제1호)	1897.08.15. (제18호)	대정동출판사 (大貞洞出版)	정동(貞洞)
2	국내	대한자강회월보(大韓自強會月報)	1906.07.31. (제1호)	1907.07.25. (제13호)	제국신문사(帝國新聞社)인쇄, 대한자강회사무소(大韓自強會事務所)발행	한성 중서하한 동 제국신문 사 내
3	국내	소년한반도(少年韓半島)	1906.11.01. (제1호)	1907.04.01. (제6호)	소년한반도사(少年韓半島社)발행소는 김상만서포, 주한영서포, 대한매일신보사, 보문관등)	임시 사무소 돈화문 보광학교
4	국내	서우(西友)	1906.12.01. (제1호)	1908.01.01.(제14호) [개명]서북학회 월보: 1908.05.01. (제17호)	서우학회(西友學會), 보성사인쇄	한성 남부
5	국내	야뢰(夜雷)	1907.02.05. (제1호)	1907.06.05. (제6호)	야뢰보사	경성
6	국내	한양보(漢陽報)	1907.09.01. (제1호)	1907.10.20. (제2호)	한양보사 (일본인중심)	

순번	발행지	학회보 이름	창간호	종간호	발행 단체	단체 소재
7	국내	대동학회월보 (大東學會月報)	1908.02.25. (제1호)	1909.09.25. (제20호)	경성일보사	한성 남서
8	국내	대한협회회보 (大韓協會會報)	1908.04.25. (제1호)	1909.03.25. (제12호)	홍필주 (대한자강회후신)	일한인쇄 주식회사
9	국내	호남학보(湖南學報)	1908.06.25. (제1호)	1909.03.25. (제9호)	신문관 인쇄국	한성 남부
10	국내	기호흥학회월보 (畿湖興學會月報)	1908.08.25. (제1호)	1909.07.25. (제12호)	우문관	황성 중부 교동
11	국내	소년(少年)	1908.11.01. (제1호)	1911.05.15. (제4권제2호)	신문관	한성 남부
12	국내	교남교육회잡지 (嶠南教育會雜誌)	1909.04.25. (제1호)	1910.05.25. (제12호)	우문관 인쇄	황성 중부
13	국내	보중친목회회보 (普中親睦會會報)	1910.06.10. (제1호)	1910.12.31. (제2호)	보중친목회발행, 보성사(普成社) 인쇄	한성 북부 전동
14	국내	독습일어잡지(獨習日 語雜誌)	1905.04.25. (제1호)	1905.12.05. (제8호)	한국경성학당내일어 잡지사(韓國京城學堂 內日語雜誌社), 동경인쇄주식회사요 코하마분사(東京印刷 株式會社橫濱分社)	일본 요코하마
15	국내	가정잡지(家庭雜誌)	1906.06.26. (제1호)	7호발행/속간호 (미상)	가정잡지사(家庭雜誌 社)	경성 남대문
16	국내	대동보(大同報)	1907.05.01. (제1호)	1908.01.25. (제6호)	대동보사	구장률(20 12)참고
17	국내	교육월보(教育月報)	1908.06.25. (제1호)	1908.12.25. (제7호)	한성교육월보사	이길상· 정순우(19 91)참고
18	국내	자선부인회잡지 (慈善婦人會雜誌)	1908.08.05. (제1호)	미상	자선부인회	구장률 (2012참 고)
19	국내	장학월보(獎學月報)	1908.01.20. (제1호)	1908.05.20. (제5호)	장학월보사	경성
20	국내	공업계(工業界)	1908.01.28. (제1호)	1908.04.28. (제3호)	공업월보사 (박찬익, 최경집)	중부 교동
21	국내	대한구락(大韓俱樂部)	1907.04.20. (제1호)	1907.07.20. (제2호)	대한구락부임시사무 소, 탐인사인쇄	한성 남서 장교
22	국내	법정학계(法政學界)	1907.5.5.	미상	보성전문	보성전문
23	유학생	친목회회보 (親睦會會報)	1896.02.15. (제1호)	1898.04.15. (제18호)	대조선재일유학생친 목회	일본 동경
24	유학생	태극학보(太極學報)	1906.11.24. (제1호)	1908.11.24.(제2 6호)	편집겸발행:장응진,교 문관인쇄	일본 동경
25	유학생	공수학보(共修學報)	1907.01.30. (제1호)	1908.03.20. (제5호)	현집 인강전(姜荃), 발행인 조용은(趙鏞殷), 인쇄인 윤태진(尹台鎭), 명문사(明文舍)	일본 동경
26	유학생	대한유학생회학보 (大韓留學生會學報)	1907.03.03. (제1호)	1907.05.20. (제3호)	대한유학생회(大韓留 學生會), 편집인 최남선(崔南善), 발행인	일본 동경

순번	발행지	학회보 이름	창간호	종간호	발행 단체	단체 소재
					유승흠(柳承欽), 인쇄인 문내옥	
27	유학생	동인학보(同寅學報)	1907.07.01. (창간호)	미상	편집겸 발행인 구자학(具滋鶴), 인쇄인 김진용(金晉庸), 동인학회(同寅學會)	일본 동경
28	유학생	낙동친목회학회보 (洛東親睦會學報)	1907.10.30. (제1호)	1908.01.30. (제4호)	편집겸 발행인 김영기(金永基), 인쇄인 김용근(金容根), 발행소 명문사(明文舍)	일본 동경
29	유학생	대한학회월보 (大韓學會月報)	1908.02.25. (제1호)	1908.11.25. (제9호)	편집인 유승흠(柳承欽), 발행인 강전(姜荃), 인쇄인 고원훈(高元勳)	일본 동경
30	유학생	대한흥학보 (大韓興學報)	1909.03.20. (제1호)	110.05.20. (제13호)	편집인 이승근(李承瑾), 발행인 고원훈(高元勳), 인쇄인 강매(姜邁), 대한흥학회인쇄소	일본 동경
31	유학생	자신보(自新報)	1907.10.20. (제1호)	미상	편집인 박일삼, 발행인 손창희	호놀룰루
32	기타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896.12.	1897.8.	아펜셀러	경성
33	기타	한성월보	1898.7.	1900.1.	지촌작태랑	경성
34	기타	신학월보	1900.7.	1907.4.	조원시	제물포
35	기타	동양교보	1902.4.	미상	학곡성룡	미상
36	기타	한인시보	1905.6.	1906.7.	우병길, 김종한	호놀룰루
37	기타	동아개진교육회보	1905	미상	미상	미상
38	기타	성경강론월보	1906.1.	미상	정동교회	경성
39	기타	식산장려회회지	1906.12.	미상	김명제	경성
40	기타	보감	1906.00.	1910.00.	명동천주교 교회내 카토릭 출판사 (경향신문)	경성
41	기타	친목	1907.3.	미상	주정균	보성전문
42	기타	대동공보	1907.10.	1909.1.	장경, 문양득(대동보국회)	미상
43	기타	권흥협회회보	1908.5.	미상	미상	미상
44	기타	여자치남	1908.5.	미상	리석영, 강윤희(여자보학원)	경성
45	기타	대도	1908.9.	미상	리더, 양주삼(미국 상항 한인감리교회)	미국 (샌프란시 스코)
46	기타	교우회보	1908.9.	미상	농촌학교	수원
47	기타	상학계	1908.10.	미상	대한흥학회	일본 동경
48	기타	교회월보	1908.00.	미상	영국성공회	미상
49	기타	법학협회잡지	1908.00.	미상	장훈	미상
50	기타	조선성공회회보	1908.00.		영국성공회	경성
51	기타	신한국보	1904.4.	미상	박용만, 홍종표	미국 하와이
52	기타	경성 고아원 주보	1909.7.	미상	이우선(경성고아원)	경성
53	기타	금일세계	1909.8.	1910.2.	방화중(로스앤젤레스)	미국

순번	발행지	학회보 이름	창간호	종간호	발행 단체	단체 소재
						로스앤젤 레스
54	기타	상공월보	1909.12.	미상	김진옥, 윤정하(경성상공회의 소)	경성
55	기타	천도교회월보	1910.8.	1921.00.	차상학	경성

(일제강점기 잡지 목록은 포함하지 않았음)

2.2. 근현대 신문 목록

번호	신문명	창간 연도	종간	발행소	언어	지역
1	한성순보(漢城旬報)	1883	1885	박문국	한문	한국
2	한성주보(漢城周報)	1886	1887	박문국	한문(국한문)	한국
3	조선시보(朝鮮時報)	1888		재부산항 상법회의소		한국
4	한성신보(漢城新報)	1895	1905		국한문(일문)	한국
5	인천경성격주 상보	1895				한국
6	조선순보	1894				한국
7	부산상황	1894				한국
8	독립신문(獨立新聞)	1896		독립신문사	국문	한국
9	협성회회보(協成會會報)	1898		배재학당 협성회	국문	한국
10	미일신문(每日新聞)	1898		배재학당 협성회	국문	한국
11	황성신문(皇城新聞)	1898	1910	황성신문사	국한문	한국
12	대국신문(帝國新聞)	1898	1908	제국신문사	국문	한국
13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新報) 국한문판	1904	1910		국한문	한국
14	대한매일신보 국문판	1904	1910		국문	한국
15	조선크리스찬 회보	1900	1902		국문	한국
16	기독교 신문	1902			국문	한국
17	경향신문(京鄕新聞)	1906			국문	한국
18	만세보(萬世報)	1906			국한문	한국
19	신민총보	1902			중문	일본
20	만국공보	1872	1910		중문	중국
21	청의보	1898	1901		중문	일본
22	공립신보(共立新報)	1905		미주 샌프란시스코		미국
23	해조신문(海朝新聞)	1908	1908	블라디보스토크(해삼위) 정순만 중심	국문	러시아
24	대동공보(大東共報)	1908	1910	해삼위 한인거류지	국문	러시아
25	구한국관보	1895	1910		한문(국한문)	한국
26	격치회편				중문	중국
27	중앙일보	1931.11.27.	미상	김찬성(金贊成)	국한문	한국
28	조선중앙일보	1933.03.07.	1937.11.5.	여운형(呂運亨)	국한문	한국
29	중외일보	1926.11.15.	1931.9.2.	이상협	국한문	한국
30	동명	1922.9.3.	1923.6.3.	편집 겸	국한문	한국

				발행 진학문, 최남선 감집		
31	조선의용대	미상	미상	상 입시정부 해	국한문	중국
32	시대일보	1924.03.31.	1926.8.	최남선 주간	국한문	한국
33	(상 해) 독립신문	1919.03.01.	미상	윤익선(尹益 善)	국한문	중국
34	자유민보	1919.04.01.	미상	미상	국한문	한국
35	대한독립신문	미상	미상	大韓國民會	국한문	한국
36	권업신문(勸 業新聞)	1912	1914	러시아 지역 권업회	국문	러시아
37	우리의 편지	미상	미상	한족독립기성 회 (韓族獨立期 成會)	국한문	한국
38	동아일보	1920.04.01.	1940.8.	동아일보사	국한문	한국
39	한인신보(韓 人新報)	1917		고 려 족 중앙총회	국문	러시아
40	조선일보	1920.03.05.	1940.8.	발행인 모종석(芮宗 錫), 편집인 최강(崔岡)	국한문	한국
41	천진대공보(天 津大公報)	1920			중국	중국
42	상해시보(上 海時報)	1920			중국	중국
43	조선의용대통 신(朝鮮義勇 隊通訊)	1939			중국	중국
44	포와한인교보				국문	미주
45	한인교회보				국문	미주
46	한인기독교보				국문	미주
47	K o r e a n Publication	1919			영문	미주
48	K o r e a Review	1919			영문	미주
49	The Korea S t u d e n t Bulletin	1922			영문	미주
50	북미시보	1943	1944		영문	미주
51	독립(Korean independence)				국문	미주
52	선봉(先鋒)	1923	1937		국문	러시아
53	고려시보	1933			국문	한국
54	매일신보	1910.08.29.	1945.8.	매일신보사	국한문	한국
55	대한인경교보	1912	1912	대 한 인 국민회	국문	러시아
56	청구신보(靑 邱新報)	1917	1918	전로한족회	국문	러시아
57	조선총독부 관보	1910	1945	조선총독부	일본문(선역 대역일부)	한국
58	K o r e a Bookman	1920	1925	K o r e a Religious Treat Society	영문	한국
59	The Korea Field	1901	1904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	영문	한국
60	The Korea Magazine	1917	1919		영문	한국
61	The Korea Methodist	1904	1905	Methodist Mission in Korea	영문	한국
62	The Korea Mission Field	1904	1910	F e d e r a 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영문	한국
63	The Korea Review	1901	1906	삼문사(힐버 트)	영문	한국
64	The Korea Repository	1892	1898	삼문사(힐버 트)	영문	한국

65	M o r n i n g C a l m	1890	1936	Churc h of E n g l a n d C o r e a n M i s s i o n	영문	한국
66	R o y a l A s i a t i c S o c i e t y o f G r e a t B r i t i n a n d I r e l a n d. K o r e a n B r a n c h	1900	1940	S e o u l T r a n s a c t i o n s	영문	한국
67	St. N i c o l a s C h r o n i c l e s	1928	1931	Churc h of E n g l a n d C o r e a n M i s s i o n	영문	한국

▣ 토 론

“근현대 국어교육 연구 자료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문

김유범(고려대)

이 발표는 근현대 국어교육 관련 문헌들을 그 유형과 분포에 따라 제시하되, 이에 앞서 국어교육 관련 용어들을 개념사적 관점에서 논의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국어’, ‘국어교육’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국어교육의 출발을 되짚어 본 작업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국어교육에 대해 역사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국어교육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이며, 한편으로는 국어교육의 현재를 재정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그동안 본격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던 방대한 국어교육 연구 자료들을 분류한 것은 앞으로 국어교육 연구가 진행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발표문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내용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1. 국어교육에 대한 개념사적 고찰과 연구 자료 검토의 분리

이 발표에서는 국어교육 관련 용어들에 대한 개념사적 고찰과 국어교육 연구 자료를 함께 다루고 있다. 연구 자료에 대한 선정에 용어의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대한 두 가지 논의를 함께 다루다 보니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천착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후에는 실제로 이 둘을 분리해 각각 별개의 연구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2.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연구 자료의 범위 불일치 문제

국어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그에 대한 연구 자료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광의의 국어교육 개념이 가져올 현실적인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불어 제시된 각각의 기준들이 포함하는 국어교육의 대상과 범위가 동일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발표에서는 근현대 국어교육 연구 관련 문헌을 연구 의도나 목적에 따라 분류 가능하다고 보고 박봉배(1987)에 따라 시대 개관, 정책 및 제도, 교육과정, 교재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이때 정책 및 제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연구 자료의 범위와, 시대 개관이나 교재를 기준으로 선정되는 연구 자료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3. 전통 시대의 국어교육과 근대 이후 시대의 국어교육

근대적 교육 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후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여 준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시대의 국어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근대적 교육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국어교육을 전통 시대의 국어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시대에 대한 잣대는 근대 이후 시대와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시대에는 국어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국어에 대한 관심까지도 국어교육 안에서 다루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야 우리의 국어교육이 지닌 전통과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대 이후 시대의 국어교육도 제도권과 비제도권이라는 서로 구분되는 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권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온 국어교육 역시 우리가 도외시킬 수 없는 국어교육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근현대 일본인이 만든 한국어 학습서 및 주요 쟁점

이강민(한양대)

<차 례>

1. 머리말
2. 근대 한국어 학습서 현황
3. 한국어 연구를 위한 몇몇 사례
4. 맺음말

1. 머리말

본 발표는 근대 일본에서 제작된 한국어 학습서를 대상으로 이들 학습서가 가지고 있는 언어 자료로서의 자료적인 성격을 검토해 보고자 준비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대 일본이란 당시의 일본 연호로 메이지(明治)에서 다이쇼(大正)에 이르는 시기를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는 메이지 중기에 해당하는 1880년부터 다이쇼 말기인 1925년까지의 시기를 범위로 한다. 그 이유는 근대 일본에서 한국어 학습서가 최초로 간행된 시기가 1880년이며 또한 1925년 이후의 쇼와(昭和)기에 접어들면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어 학습이 본격적으로 강요되어 한국어 학습서의 간행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한국어 학습서의 특징으로서는 첫째, 전근대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한글의 자모표와 음운적인 분석을 기술하고 있으며 한국어의 발음을 가타카나(片仮名)로 병기해 놓은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 둘째, 품사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문법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셋째, 기존의 독립적인 단문을 나열하여 한국어 예문을 제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화체의 회화문을 수록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점, 넷째, 전 시대의 한국어 학습서가 쓰시마 출신의 한국어 통역의 손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들어서는 규슈, 오사카, 도쿄 등 제작자의 출신지가 일본 전국으로 확산되어 다양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학습서가 간행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시기는 한일 양국에서 근대어의 형성되어 간 과도기적인 시기라는 점이 주목된다. 즉 이 시기는 일본어에서 도쿄어가 형성된 시점과 겹쳐 있으며 한국어 역시 개화기의 근대 어휘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이들 학습서를 통하여 도쿄어의 성립 과정을 추정해 봄과 동시에 개화기 한국어 연구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2. 근대 한국어 학습서의 현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표에서는 1880년부터 1925년 사이에 발간된 다음과 같은 88종의 한국어 학습서를 조사·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1. 『韓語入門』 호세코 시게카쓰(宝迫繁勝) 저, 1880년
2. 『日韓善隣通話』 호세코 시게카쓰(宝迫繁勝) 저, 1881년
3. 『交隣須知』(外務省) 우리세 히로시(浦瀬裕) 편, 1881년
4. 『訂正隣語大方』(外務省) 우리세 히로시(浦瀬裕) 편, 1882년
5. 『和韓會話獨學』 다케다 진타로(武田甚太郎) 저, 1882년
6. 『再刊交隣須知』(外務省) 우리세 히로시(浦瀬裕) 편, 1883년
7. 『交隣須知(白石本)』 호세코 시게카쓰(宝迫繁勝) 저, 1883년
8. 『日韓英三国對話』 아카미네 세이치로(赤峰瀬一郎) 저, 1892년
9. 『日韓通話』 고쿠부 구니오(国分国男) 저, 1893년
10. 『朝鮮醫語類集』 스즈키 유조(鈴木裕三) 저, 1894년
11. 『朝鮮国海上用語集』 다무라 미야타(田村宮太) 저, 1894년
12. 『朝鮮俗語早学』 마쓰에 다케지로(松栄竹次郎) 발행, 1894년
13. 『兵要朝鮮語』 고노에(近衛)步兵第一旅团 편, 1894년
14. 『実用朝鮮語』 나카지마 겐키치(中島謙吉) 편, 1894년
15. 『速成独学 朝鮮日本會話篇』 하야시 다미지(早矢仕民治) 발행, 1894년
16. 『日韓會話』 참모본부(參謀本部) 편, 1894년
17. 『新撰朝鮮會話』 홍석현(洪奭鉉) 저, 1894년
18. 『日清韓對話便覽』 다구치 분지(田口文治), 1894년
19. 『日清韓三国对照會話篇』 마쓰모토 松本仁吉, 1894년
20. 『独習速成 日韓清會話』 요시노 사노스케(吉野佐之助), 1894년
21. 『日韓清對話自在』 다치가와 太刀川吉次, 1894년
22. 『日清韓三国會話』 사카이 하치고로(坂井鈞五郎) 저, 1894년
23. 『朝鮮通語獨案内』 이케다 간시로(池田勘四郎) 저, 1894년
24. 『日韓對譯 善隣通語』 나카네 히데타로(中根秀太郎) 저, 1894년
25. 『日清韓三國通語』 덴엔(天淵) 저, 1894년
26. 『朝鮮語學獨案内』 마쓰오카 가오루(松岡馨) 저, 1894년
27. 『日清韓語獨稽古』 간가쿠산진(漢學散人) 저, 1895년
28. 『大日本國民必要 三國語大略』 사이토 와헤이(齋藤和平) 편, 1895년
29. 『朝鮮語』 홍석현(洪奭鉉) 저, 1896년
30. 『實地應用 朝鮮語獨學書』 유바 주에이(弓場重栄)·나이토 겐(内藤健) 저, 1896년
31. 『日清韓三國千字文』 아라나미 헤이지로(荒波平治郎) 저, 1900년
32. 『朝鮮語獨修』 마쓰오카 가오루(松岡馨) 저, 1901년
33. 『實用韓語學』 시마이 히로시(島井浩) 저, 1902년
34. 『日韓通話捷徑』 다무라 겐고(田村謙吾) 저, 1903년
35. 『日韓會話』 하타 효이치(秦兵逸) 저, 1904년
36. 『韓語會話』 무라카미 미쓰오(村上三男) 저, 1904년
37. 『校訂交隣須知』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후지나미 요시쓰리(藤波義貫) 저, 1904년
38. 『日露清韓會話自在法』 다케치 에이(武智英) 저, 1904년
39. 『出征必携 日露清韓會話』 아마모토 도미타로(山本富太郎) 저, 1904년
40. 『韓語獨り卒業』 아베 마사타다(阿部正尹) 편, 1904년
41. 『實地應用 日韓會話獨習』 가쓰모토 에이지(勝本永次) 편, 1904년

42. 『日露清韓會話早まなび』 고스가 이치로(小須賀一郎) 편, 1904년
43. 『日露清韓會話自在』 쓰분쇼인(通文書院) 편, 1904년
44. 『日韓會話獨習』 아마모토 하루조(山本治三) 저, 1904년
45. 『いろは引朝鮮語案内』 하야시아마 마쓰키치(林山松吉) 저, 1904년
46. 『最新日韓會話案内』 스잔도(崇山堂)편집국 편, 1904년
47. 『日韓會話三十日間三速成』 가네시마 다이스이(金島苔水)·이진풍(李鎭豐) 저, 1904년
48. 『韓語獨習通信誌』 대한기업조사국통신부(大韓起業調査局通信部) 편, 1904년
49. 『韓語教科書』 가네시마 다이스이(金島苔水)·히로노 간잔(広野韓山) 저, 1905년
50. 『韓語獨習誌』 후지토 게이타(藤戸計太) 저, 1905년
51. 『對譯 日韓新會話』 가네시마 다이스이(金島苔水)·히로노 간잔(広野韓山) 저, 1905년
52. 『實用 日韓會話獨學』 시마이 히로시(島井浩) 저, 1905년
53. 『日清韓會話』 히후미간(一二三館) 편, 1905년
54. 『對譯 日韓會話捷徑』 가네시마 다이스이(金島苔水)·히로노 간잔(広野韓山) 저, 1905년
55. 『獨學 韓語大成』 이토 이키치(伊藤伊吉) 저, 1905년
56. 『日韓·韓日新會話』 시마이 히로시(島井浩) 저, 1906년
57. 『日韓言語舍壁』 가네시마 다이스이(金島苔水) 저, 1906년
58. 『韓語正規』 곤도 신이치(近藤信一) 저, 1906년
59. 『韓語』 안영중(安泳中) 저, 1906년
60. 『六十日間卒業 日韓會話獨修』 다카기 쓰네지로(高木常次郎)·유기영(柳淇英) 저, 1906년
61. 『朝鮮語獨稽古』 가와베 시세키(川辺紫石) 저, 1907년
62. 『韓日英新會話』 선우예(鮮于叡)·정운복(鄭雲復) 저, 1909년
63. 『韓語通』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저, 1909년
64. 『韓語文典』 다카하시 도루(高橋享) 저, 1909년
65. 『獨習日韓尺牘』 정운복(鄭雲復) 저, 1909년
66. 『文法註釋 韓語研究法』 야쿠시지 지로(葉師寺知臈) 저, 1909년
67. 『韓語五十日間獨修』 시마이 히로시(島井浩) 저, 1910년
68. 『韓語學大全』 쓰다 후사키치(津田房吉) 저, 1910년
69. 『新案韓語彙』 사사야마 아키라(笹山章) 저, 1910년
70. 『日韓·韓日言語集』 이다 긴에이(井田勤衛)·조의연(趙義淵) 저, 1910년
71. 『局員須知 日鮮會話』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 편, 1912년
72. 『新選 正則日鮮會話』 사이토 조쇼(齋藤助昇) 저, 1912년
73. 『日鮮語學教範』 마치다 조사쿠(町田長作) 저, 1912년
74. 『日鮮 遞信會話』 조선총독부 체신국 편, 1913년
75. 『國語鮮語 雙舌通解』 오노 쓰나가타(小野綱方) 저, 1913년
76. 『朝鮮語會話獨習』 아마모토 하루조(山本治三) 저, 1913년
77. 『ポケット 朝鮮語學捷徑』 사토 로쿠도(佐藤碌堂) 저, 1915년
78. 『ポケット 朝鮮語獨學』 유바 주에이(弓場重栄) 저, 1915년
79. 『朝鮮語法及會話書』 조선총독부 편, 1917년
80. 『日鮮會話精通』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真太郎) 저, 1917년
81. 『朝鮮語五十日間獨修』 시마이 히로시(島井浩) 저, 1918년
82. 『鮮語階梯』 신조 준테이(新庄順貞) 저, 1918년
83. 『朝鮮語の先生』 최재익(崔在翊) 저, 1918년
84. 『新新朝鮮語會話』 아마모토 마사나리(山本正誠) 저, 1921년
85. 『對譯 朝鮮語會話捷徑』 가네시마 다이스이(金島苔水)·히로노 간잔(広野韓山) 저, 1923년
86. 『日本人之朝鮮語獨學』 박중화(朴重華) 저, 1923년
87. 『日鮮繪畫獨習』 다나가 아즈마(田中東) 저, 1925년
88. 『註釋朝鮮語讀本』 가미사카 다이조(神阪退三) 저, 1925년

이들 학습서는 시기에 따라 메이지 중기(1880-1899), 메이지 후기(1900-1912), 다이쇼(1912-1925)로 3분할 수 있는데 초창기의 학습서가 주로 무역과 상업의 용도로 제작되었다고 한다면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을 거치면서 군사적인 색채가 가미되었는데 특히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습득하도록 고안된 학습서들의 등장이 눈에 띈다. 또한 한일합방이 단행된 1910년을 전후해서는 『韓語通』『韓語文典』『韓語研究法』과 같은 연구서로서의 성격이 짙은 한국어 학습서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다이쇼기에 접어들면 토지조사, 체신, 법률 등 행정적인 실무를 고려한 한국어 학습서가 발간되고 있다는 점 등은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학습서도 방향성을 갖고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문의 표기 형태에 따라 한국어를 한글로 기록한 한글·가나문 학습서와 한국어를 가나로 표기한 가나문 학습서로 나눌 수 있는데 대략 1906년 이후에는 한글을 사용한 학습서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3. 한국어 연구를 위한 몇몇 사례

3.1. 음운

이들 학습서의 한국어 가나표기에 보이는 주목되는 현상으로서 먼저 다음과 같은 이중모음에 대한 표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ㄷ’모음과 관련된 용례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犬 카이 (日韓清對話自在 p.15, 1894)
- 霧 안카이 (日韓清對話自在 p.6, 1894)
- 梨 파이 (日清韓會話 p.19, 1905)
- 烟草 탄바이 (日清韓三國對照會話篇 p.29, 1894)
- 明日 나이일 (日露清韓會話早まなび p.164, 1904)
- 梅 마이실 (日韓清對話自在 p.12, 1894)
- 虹 무치카이 (日韓清對話自在 p.6, 1894)
- 日 하이 (日清韓會話 p.8, 1905)

위의 용례들은 한국어 ‘ㄷ’모음에 대해 일본어 [ai]모음이 대응된 것들이다. 이어서 ‘ㄱ’와 관련된 표기 현상을 아래에 제시해 보기로 한다.

- 車 스레이 (日韓清對話自在 p.10, 1894)
- 昨夜 로체이바움 (日露清韓會話自在法 p.26, 1904)
- 一所 함케이 (日露清韓會話早まなび p.161, 1904)
- 濟州島 첸에-치우드 (日韓清對話自在 p.21, 1894)
- 鯨 메라키 (日韓清對話自在 p.15, 1894)

위의 용례들은 한국어 ‘ㄱ’모음과 관련된 가나 표기가 대부분 일본어의 [e]모음에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다. 한국어에서 이중모음 ‘ㄷ’와 ‘ㄱ’가 단모음화된 것은 18세기 말엽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학습서에 보이는 위와 같은 경향은 ‘ㄷ’는 이중모음의 형태를, ‘ㄱ’는 단모음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ㄷ’모음과 관련해서는 『實用韓語學』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예도 주목할 수 있을 듯하다.

- 겐개말 툽고 왓소 (實用韓語學 p.19, 1902)

위의 용례에 보이는 ‘겐개말’이란 일본의 선박명인 ‘玄海丸(겐카이마루)’를 한글로 옮겨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일본어 ‘카이’가 ‘개’로 표기되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이와 같은 대응은 역

시 한국어 이중모음 ‘ㅝ’가 아직 단모음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1910년 이후로 들어서면 또 다른 표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여기에서는 『新案韓語彙』(1910)의 용례를 중심으로 그 용례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 셋 セツ (p.28) ○ 모레 モレエ (p.71)
- 수레 スウレエ (p.73) ○ 자네 チャネ (p.73)

- 대강 タエカン (p.67) ○ 대단이 タエダニ (p.79)
- 대낮 タエナツ (p.93) ○ 내 ナエ (p.113)

특히 ‘ㅝ’의 경우는 아래에 제시한 ‘ㅜ’의 표기와 거의 일치하여 가나 표기로는 발음의 구별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 힌 ハエ (p.84) ○ 님일 ネイル (p.91)
- 칩상 チャクサン (p.46) ○ 찌 タエ (p.82)
- 싹 シアエ (p.44) ○ 싹 シャエ (p.48)

아울러 다음과 같은 ‘의’의 표기도 실제의 현실음을 옮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 남산의 ナムサンエ (p.79) ○ 우물의 우름르 (p.75)

위와 같은 ‘ㅝ’와 ‘ㅜ’에 관련된 가나 표기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 어휘

이들 학습서들을 활용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한국어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어휘 영역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몇몇 사례를 단편적으로 제시해 두고자 한다.

① ‘가방’

- 큰 가반이요 大キナ革囊(カクノウ)デスカ (韓語教科書, p.60, 1905)
- 가반이요 고리요 革囊(カクノウ)デスカ、行李デスカ (韓語教科書, p.70, 1905)

- 鞆(カバン) 수단 (局員須知 日鮮會話, p.36, 1912)
- 柳行李가二個ト 革鞆(カバン)가一個데스 버들상자가 두기요 가방이 한기요
(局員須知 日鮮會話, p.83, 1912)

- 비누와 슈건은 어디너엇소 シャボント手拭ハ何処ニ入レマシタカ
- 가방 속에 잇습니다 鞆(カバン)ノ中ニアリマス
(國語鮮語 雙舌通解, p.72, 1913)

② ‘유행’

- アノ病ヒハ毎年流行シマスカ(그 병이 히마다 숨상호오) (日韓會話, p.100, 1894)
- 流行スル時モアリ、シナイ時モアリマス
(숨상하는 때도 있고 아니하는 때도 있지요) (日韓會話, p.100, 1894)
- 숨상병이 업나 流行病ハ無イカ (朝鮮語獨修, p.149, 1901)
- 流行病 숨상병(スグサービョン) (最新日韓會話案内, p.184, 1904)
- 此頃ハ大層悪イ病ガ流行スルソウデス。요시는 디단이 흥흥 병이 류형호답디다
(局員須知 日鮮會話, p.134, 1912)
- 숨상호다(崇尙) : To exercise ; to carry on ; to practice (『한영조던』Gale, 1897)

③ ‘도서’

- 투서 치오 捺印ナサイ (日韓通話捷徑, p.74, 1903)
- 일흠쓰고 투서 처라 署名捺印セヨ (日韓通話捷徑, p.114, 1903)
- 투서 니오 印章ヲ出シナサイ (日韓通話捷徑, p.115, 1903)
- 투서 가지지 안소 印ハ持參シマセヌ (日韓通話捷徑, p.115, 1903)
- 도서 s. 圖書 A private seal or stamp —as that bearing one's name.
- 투서 s. 圖書 A seal ; a stamp. (『한영조던』Gale, 1897)

④ ‘갓부다’

- 미우 갓부다 隨分勞レマシタ (p.101)
- 오늘은 미우 고단호오 今日ハ隨分勞レマシタ (p.108)
- 갓부다 s. 德(갓불-비) 갓버;분 To feel oppressed ; to be wearied ; to be uncomfortable.
(『한영조던』 Gale, 1897)

⑤ ‘디위하다’

- 能ク人民ニ知ラセテ置ケ。 인민의게, 잘, 디위하여라 (日露清韓會話自在 pp.70-71)
- 디위호다 [동] 알리다. *人家에 디위호여(省會人家)<老上 44> (『李朝語辭典』劉昌惇,1964)

⑥ ‘한자어’

- 부비가 과허지 안소 費用ガイクラモイリマセン (ポケット朝鮮語獨學 p.166, 1915)
- 사려허시면 직전으로 사시오 買ハウトナサレナラ現金デオ買ヒナサレマセ
(ポケット朝鮮語獨學 p.191, 1915)
- 하로 변리 닷돈식 니오 一日利子五十文ツツ出シマス (ポケット朝鮮語獨學 p.193, 1915)
- 보인이 잇셔야 하깃소 證人ガナケレバイケマセン (ポケット朝鮮語獨學 p.194, 1915)
- 욕심이 과하면 도르혀 견패하기 쉽스되다 欲心ガフカケレバ却ッテ失敗シヤスクアリマス
(ポケット朝鮮語獨學 p.220, 1915)
- 부비(浮費)=費用, 직전(直錢)=現金, 변리(邊利)=利子, 보인(保人)=證人, 견패(見敗)=失敗
- 부비 s. 浮費 Extra expenses ; expenditure over and above.
- 보인 s. 保人 A guarantor ; one who gives bail or goes security for another. A mediator.

⑦ ‘외래어’

- 「ケーブル」ハ始終水ヲ掛ナサイ 「계부루」(구렁이줄)는 일심 물을 축이시오
(日鮮 遞信會話 p.436, 1913)
- 「ウインチ」ヲ廻スノデス 「우인지」를 돌니오 (日鮮 遞信會話 p.424, 1913)
- 「セメント」一升量レ 「세멘토」흔 되 되여라 (日鮮 遞信會話 p.420, 1913)
- 「チェーン」ヲ引張リナサイ 「줄」을 다려오 (日鮮 遞信會話 p.429, 1913)
- 折尺モ「ポケット」ニ入レロ 절척은 「호쥬머니」에 너허라 (日鮮 遞信會話 p.428, 1913)
- 「セメント」デ詰メマシタ 「삼물」먹엿소 (日鮮 遞信會話 p.423, 1913)
- 茶ヲ上リマスカ、珈琲(ユーヒー)ヲ上リマスカ 차를 잡수시오, 갑비차를 잡수시오
(新選 正則日鮮會話 p.31, 1912)

⑧ ‘방언’

- 海苔 치む (韓語獨り卒業, p.13, 1904) ○ 雁 치로ギ (韓語獨り卒業, p.34, 1904)
- 穴 くんきー (韓語獨り卒業, p.8, 1904)
- 京城まで何里ありますか 세ー올 쿠ー치콘 멘너코어 (韓語獨り卒業, p.20, 1904)
- 김=집, 기러기=지러기, 구멍=굴기, 까지=끄정
- 大根 ムシ (朝鮮俗語早學, p.11, 1894) ○ 長 チン (朝鮮俗語早學, p.11, 1894)
- 油 チロム (朝鮮俗語早學, p.21, 1894) ○ 尻 グンテン (朝鮮俗語早學, p.25, 1894)
- 烏賊 ポリキ (朝鮮俗語早學, p.2, 1894)
- 무우=무시, 긴=진, 기름=지름, 엉덩=궁뎅, 오징어=호래기

⑨ ‘김치’

- 침치 チムチ 漬物(沈菜) (朝鮮語獨修, 1901, p.78)
- 침치 내여라 漬物ヲ出セ (朝鮮語獨修, 1901, p.188)
- 漬物 キムチー (日清韓對話自在, p.12, 1894)
- 음식은 쓸디업소. 김치만도 좃소 御馳走ハ入リマセヌ. 漬物丈デヨイデス
(新案韓語彙 p.108, 1910)
- 김치만도 넉넉호오 漬物デ充分デス (新案韓語彙 p.135, 1910)
- 침치 s. 沈菜(좁길)(나물) Solt pickle. See 김치. (『한영조언』 Gale, 1897)
- 김치 s. 沈菜(좁길-침)(나물-치) Cabbage or radish pickle. See 동침이.

4. 맺음말

지금까지 근대 일본에서 제작된 한국어 학습서에 대해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한국어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몇몇 사례들을 제시해 보았다. 종래 이들 학습서는 한국어 문법사 기술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필자는 이들 학습서에 내제된 한일 회화문의 자료적 가치를 주목하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어 어휘사 연구의 측면에서 이들 학습서는 적지 않은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개별 학습서에 대한 자료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해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金敏洙,河東鎬,高永根(1977-1985)『歷代韓國國文法大系』塔出版社
- 김영옥(1999)『日韓 善隣通語』序文의 판독과 해설 『문헌과 해석』 통권7호
- 成玟娥(2007)『近代日本語資料としての『日韓通話』』『日本語学論集』 3호
- (2008)『近代日本語資料としての『日韓韓日新會話』』『日本語学論集』 4호
- (2014)『개화기 경찰용 조선어 회화서 『日韓通話捷徑』에 관한 고찰』 『日語日文學研究』 90집
- (2015)『러일전쟁에 사용된 다국어 회화서에 관한 고찰』 『日本學報』 105집
- 송영빈(2020)『가나시마 다이스이(金島苔水)의 근대 한국어 학습서 5종에 나타난 편찬 방침의 변화에 대하여 -어휘 목록 수록 단어의 변화를 중심으로-』『일본어교육연구』52집
- (2020)『『日韓會話三十日間速成』을 통해 본 가나시마 다이스이(金島苔水)의 인물상』『일본근대학연구』69집
- (2020)『『조선의어유집(朝鮮醫語類集)』에 나타난 의학용어에 대해』『동서인문학』59집
- 이강민(1999)『言語資料로서의『韓語訓蒙』』『日本學報』 43집
- (2003)『1893年刊『日韓通話』의 日本語』『日本語文學』 17집
- (2005)『1892年刊『日韓英三國對話』에 대하여』『日本學報』 63집
- (2005)『1904年刊『韓語會話』에 대하여』『日本語文學』 27집
- (2006)『開化期 日本의 韓國語 學習書』『日本學報』 67집
- (2006)『메이지(明治)期 참모본부의 한국어 학습서』『日本語文學』 31집
- (2007)『島井浩와『實用韓語學』』『日本學報』 71집
- (2007)『1910年刊『日韓言語集』의 일본어와 한국어』『日本學報』 73집
- (2008)『1896年刊『實地應用 朝鮮語獨學書』에 대하여』『日本語文學』 39집
- (2010)『1894年刊『朝鮮語獨學案內』에 대하여』『日本學報』 82집
- (2013)『言語資料로서의『日韓清對話自在』』『日本學報』 94집
- (2015)『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역락
- (2017)『1912年刊『局員須知 日鮮會話』와 近代 日本語』『비교일본학』 41집
- (2018)『『實地應用 日韓會話獨習』의 日本語와 韓國語』『日本語文學』79집
- (2019)『1905年刊『韓語教科書』에 대하여』『비교일본학』47집
- (2020)『한일 근대어 자료로서의『いろは引朝鮮語案內』』『비교일본학』50집
- (2021)『1910年刊『新案韓語彙』에 대하여』『비교일본학』51집
- 이상혁(2020)『일본 근대 초기 조선어 문법서의 두 지향 -일본인 저술서 『한어통(韓語通)』(1909)과 『한어문전(韓語文典)』(1909)을 중심으로-』『비교일본학』50집
- 陳南沢(2010)『『日韓英三國對話』におけるハングル音注と仮名表記について』『大学教育研究紀要』 6호
- (2012)『『日韓通話捷徑』における仮名音注について』『大学教育研究紀要』 8호
- (2013)『『朝鮮語学独案内』における仮名音注について』『大学教育研究紀要』 9호
- (2014)『1894年刊『日韓會話』の韓国語について』『大学教育研究紀要』 10호
- (2018)『메이지(明治)기 한국어 학습서의 연구 현황』『비교일본학』 43집
- 허재영(2011)『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 교육자료(1)-(6)』역락
- 桜井義之(1974)『日本人の朝鮮語学研究』『韓』 Vol 3. No.7
- (1979)『朝鮮研究文獻誌 明治大正編』龍溪書舎

▣ 토 론

“근현대 일본인이 만든 한국어 학습서 및 주요 쟁점”(이강민)에 대한 토론문

이상혁(한성대)

언어 자료로서 근대 일본에서 간행된 한국어(조선어, 한어) 학습서 성격을 검토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몇몇 언어 사례에 대한 특징을 제시한 이강민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어학계에서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언어 자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자극하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에 대한 지식이 짧은 토론자이지만, 토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어 연구 전공자로서 궁금한 몇 가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먼저 발표자 선생님께서 제시한 자료에 대한 성격 규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韓語入門』(호세코 시게카쓰(宝迫繁勝), 1880)부터 1925년의 88. 『註釋朝鮮語讀本』(가미사카 다이조(神阪退三) 1925년)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는 그 제목을 통해서 문헌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간행된 이 책들이 외국어 학습서인지 문법서인지 모호한 경우도 있고, 회화서와 문법서를 겸한 경우도 있으며, 단순히 어휘집에 불과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한국어 학습서’라는 용어로 전체 문헌의 성격을 포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용어 설정 이유와 함께 전체 문헌들의 성격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2. 발표문 3쪽에서는 메이지 중기(1880-1899), 메이지 후기(1900-1912), 다이쇼(1912-1925)에 따라 문헌 성격을 시대별로 나눠 개괄하고 계신데요, 그 흐름을 무역과 상업의 용도의 학습서 → 군사적인 색채가 가미된 문헌 → 연구서의 성격 → 실용 중심의 학습서 등이 간행되면서 학습서도 방향성을 갖고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학습서의 저자가 학자, 외교관, 통역관 등의 개인일 것이고, 그 중에서는 조선인 저자의 이름도 보입니다. 또한 총독부와 같은 기관 명의로 간행된 문헌도 있습니다. 저자와 관련하여 학습서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선생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이 근대 시기에 들어서에는 규슈, 오사카, 도쿄 등 제작자(저자)의 출신지가 일본 전국으로 확산되어 다양화되었다는 점을 들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당시 조선어에 출중한 일본인도 있었겠지만, 학습서를 제작하면서 일본어에 능통했던 조선인 조력자(주로 역관?)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따라서 조선인 조력자의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 조선어 언어 자료의 성격 규명의 실마리도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 “한국어 연구를 위한 몇몇 사례”를 크게 음운, 어휘로 나누어 예를 보이고 계십니다. 당연히 ‘문법’과 관련된 서술 특징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발표자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법적 서술 특징에 대한 사례도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발표자 선생님께서 제시한 한국어(조선어) 학습서들은 한국어학 연구의 관점에서 크게는 근대 한국어사의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일 두 언어 사이의 어휘 접촉 등과 연관된 외래어 유입, 어휘 차용 관련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한국어 어휘사 연구를 위해 적지 않은 잠재적 가치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제간 연구의 차원에서 한일 대조언어학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점에서는 외국어 교육사 및 근현대 언어정책사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하고 뜻깊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어떤 점이 향후에 더 깊이 있는 연구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자의 부족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현대 사전 편찬 자료 및 주요 쟁점

-게일의 『韓英字典』을 중심으로-

이준환(전남대)

<차 례>

1. 들어가며
2. 외부 사전의 참조
3. 사전 편찬의 지향점과 동참한 조선인의 역할
4. 이중어 사전의 활용도
5.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게일(Games Scarth Gale)이 편찬한 『韓英字典(한영사전, Korean-English Dictionary)』를 중심으로 하여 사전 편찬 자료의 형식 및 언어적 양상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사전 편찬 과정, 사전 내용의 선정, 사전의 활용 등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일의 『한영사전』은 1897년에 초판, 1911년에 재판, 1931년에 삼판이 간행되며 표제어의 확대 및 조정, 미시 구조 정보의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현대 사전의 변천사와 관심사를 살펴보는 데에 매력적인 텍스트라 하겠다. 또한 외국인 선교사가 중심이 되고 조선인의 도움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텍스트로 외국인 주도로 전개된 우리의 근현대 사전 편찬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대표성이 있다고 하겠다.

근현대 사전의 종류, 형식상의 특징, 언어적인 양상, 사전 사이의 영향 관계 등에 관한 것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하여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불사전』을 대상으로 한 이은령(2016: 216)에 따르면 『한불사전』 관련 연구 동향은, 총 134건의 연구 사례 가운데에, ① 공시 및 통시적 어휘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 95건으로 70.89퍼센트, ② 사전 구조 연구가 8건으로 5.97퍼센트, ③ 근대 사전의 문화적 함의와 가치가 6건으로 4.47퍼센트, ④ 사전 서지학·인쇄술·디자인 관련 연구가 4건으로 2.98퍼센트, ⑤ 편찬 경위 및 다른 사전과의 영향 관계, 메타 사전학적 특징이 21건으로 15.67퍼센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은 다른 사전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러 사전을 아우르는 연구를 경우에도

1) 비율은 발표자가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①과 ⑤에 초점을 맞춘 이지영(2009), 조남호(2016), ②에 초점을 맞춘 이은령(2010), 정동경(2020), ③에 초점을 맞춘 이병근(2001), ⑤에 초점을 맞춘 이상현(2010), 황호덕(2010)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런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④에 해당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면에 역점을 두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먼저 사전이 표제어를 중심으로 하여 언어적인 정보가 제시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겠다. 특히 개화기 이후의 국어가 이전 시기의 국어와 비교할 때 어휘 면에서의 변화가 가장 컸다는 점에서 어휘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전통적인 사전과는 다르게 서양식 사전의 틀에 맞게 편찬된 사전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등장한 사전의 구조에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서지학인 차원의 연구는 이와 연관성을 갖는 접근이라 할 수 있으며, 사전이 지닌 문화적 가치는 서양어와의 접촉 및 비교에서 불거지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마땅한 연구라 하겠다. 끝으로 연이어서 편찬된 이종어 사전은 이전에 나온 사전을 참고하고 영향을 받아 편찬된 것이라는 점에서 사전 편찬사에서 지극히 필요한 접근이라 하겠다.

이런 흐름에서 근현대 사전 편찬 자료의 현황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윤곽과 세부 내용에 관한 것은 상당히 규명되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사전 사이의 영향 관계에 관해서는 대개 국내에서 편찬된 사전 사이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들 사이의 언어적 관계에 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다른 나라 사전과의 참고 관계가 언어적으로 제시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실제 표제어를 고르고 뜻풀이 등 미시 구조에 들어갈 정보를 어떻게 확정하고 제시할 것인지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은 어떠한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사전 편찬의 목적과 관련지어 사전에서 제시된 정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도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국어사전이 편찬되지 못한 이 단계에서 이종어 사전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기능과 사전사적인 의미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런 점에 역점을 두어 고찰하여 본다.

2. 외부 사전의 참조

조선에서 편찬된 이종어 사전을 포함한 사전을 보면 조선어는 중국어, 일본어와 더불어 언어 간 경계를 뛰어넘는 어휘 등의 공유와 참고 관계가 번역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호덕(2010: 131-132)에서는 이종어 사전 사이의 참조 양상 또는 언어 이동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1) 조선에서 편찬된 사전 사이의 참조 현상 또는 언어 이동 과정

- 『韓佛字典』(파리의방전교회, 1880)
- 『韓英字典』·『英韓字典』(언더우드, 1890) →(『韓英辭典』(스콧, 1891)) →(A Chinese-English dictionary(자일즈, 1892))
- 『韓英字典』(게일, 1897) →『韓英字典』(게일, 1911) →(『英韓字典』(존스, 1914))
- 『朝鮮語辭典』(조선총독부, 1920)·(『井上和英大辭典』(井上十吉, 1920))²⁾ →『韓英字典』(게일, 1931)³⁾ →(『朝

2) 이처럼 황호덕(2010: 131)에서는 1920년에 발행된 것을 참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井上和英大辭典』이 여러 번 개정되었고, 게일의 『韓英字典』 1931년판 서문(1927년 4월 28일 작성)에 연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1)에서 제시된 바는 우리의 검토 대상이 되는 이중어 사전이, 사전의 형성 면에서는 이전 시기에 나온 국내외 사전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고, 사전의 영향 면에서는 이후 시기에 나온 국내외 사전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게일의 『韓英字典』 서문을 보면 실제로 이 사전이 다른 사전 등을 참고하여 형성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⁴⁾

2) 다른 사전 등의 참고와 관련되는 게일의 『韓英字典』(1897)의 서문 일부

- ① 구어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단어를 수집하려 하자마자, 더 노력을 기울여 보려는 어떤 의욕도 사그라지게 된다. 일본인 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 왔고 수년간의 연구와 준비 끝에 완벽한 사전을 지난해(1896년)에 출간하였으나, 일상적인 일본어 단어 상당수가 빠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 ② 사전을 준비하는 작업과정에서, 프랑스 신부들이 편찬한 단어 목록이 작업의 기반이 되었다.
- ③ 사전을 준비하는 6년 동안, 수천 개 이상의 단어를 유용한 자료들에서 뽑아 추가하였다.
- ④ 또 다른 좌절은 구어로 발음되는 소리와 책자 형태의 철자법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구어를 따르는 식으로 사전을 만들자고 말하기는 매우 쉽지만, 이런 방향으로 갈지라도 셀 수 없는 난관들이 존재한다. 옥편이 한자음을 고정시켜 오긴 했으나, 모든 경우에 있어 옥편의 한자음이 구어의 한자음(현실 한자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실제로, 될 수 있는 대로 극단적인 서적 형태들이나 구어를 문자 그대로 옮기는 방식을 지양하기 위해, 양자 사이의 중도를 취하였다.
- ⑥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구어와 한자 표현 사이의 구별에 관한 것이다. 이 어려움의 시각에서, 자일스의 한어사전에서 가져온 의미를 담고 있는 옥편의 한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나 옥편 그 자체를 2장을 더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 역시 가능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 ⑦ 나는 여기서 『한불증언』과 더불어 언더우드 박사(Underwood, H.G.)와 스콧(Scott, J.)씨의 노작들의 도움을 받은 것을 밝힐 수 있어 기쁘다. 자일스(Giles)의 한어사전(Chinese Dictionary)에서 얻은 간결한 정의들은 중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조선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①은 사전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표제어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음을 잘 보여 준다. 특히 문어와 달리 구어는 참고할 만한 사전 또는 책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컸는데, 이런 일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보여 준다. 국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근대화로 말미암아 다양해지는 사회 현실에 맞는 공통어의 수립 등을 포함하는 근대적 언어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 간, 계층 간에 나타나는 언어의 다양한 양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

어떤 판본이 참고 대상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필자의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이 사전은 東京外國語大學 圖書館(<http://www-lib.tufts.ac.jp/opac/recordID/catalog.bib/BN05478541?hit=-1&caller=xc-search>)에 1915년 9월에 東京의 至誠堂出版에서 출판된 사전(서지 번호: BN05478541)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보다 이른 시기에 나온 판본은 검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이 초판으로 보인다. 日本 國立國會圖書館에는 1924년에 나온 제15판이 소장되어 있고(<https://ndlonline.ndl.go.jp/#!/detail/R300000001-I000000855480-00>), 東京大學 附屬圖書館의 工3號館圖書室에는 1924년에 나온 復興版이 소장되어 있다(https://opac.dl.itc.u-tokyo.ac.jp/opac/opac_details/?reqCode=fromlist&lang=0&amode=11&bibid=2003554827&opkey=B164187824568837&start=1&totalnum=1&listnum=0&place=&list_disp=20&list_sort=6&cmode=0&chk_st=0&check=0). 이 사전은 영문명이 Inouye's comprehensive Japanese-English dictionary임에서 볼 수 있듯이 이해용 사전에 초점을 맞추어 편찬된 것이라 하겠다.

- 3) 이 게일(1931)의 서문에는 “이번 제3판에서는 이노우에의 방대한 작업, 조선총독부의 『朝鮮語辭典』, 최근 출판물들로부터 35,000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를 뽑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에서 약 10,000개에 이르는 인명과 지명은 삭제하였다. 인명과 지명의 중요성이 이차적이어서 사전에 담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판에는 기존에 실지 않았던 35,000개 단어를 포함 총 75,000개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와 같이 이노우에의 사전과 총독부의 사전을 참고하였음이 명시되어 있다.
- 4) 이중어 사전의 서문 등의 번역과 주석은 황호덕·이상현 역(2012)를 참고하고 필요시 필자가 번역을 보태는 형태로 제시하였다.

하고 통일하여 하나의 언어를 만들어 가느냐와 관련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일본의 사전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구어가 상당히 누락될 정도의 상황임을 알 정도로 일본 사전을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간행된 일본의 사전에는 3)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게일이 어떤 것을 검토하였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다만 『韓英字典』을 편찬하는데 대략 6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시기상 3)①, ②가 유력한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에서 간행된 일본어사전과 비교하여 게일이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3) 1896년 즈음까지 일본에서 일본인들의 손으로 간행된 일본어 사전은 아래와 같다.

- ① 大槻文彦(1889-1891), 『言海』, 東京: 印刷局.
- ② 山田武太郎(1893), 『日本大辭書』, 東京: 日本大辭書發行所.
- ③ 藤井乙男·草野清民(1896), 『帝國大辭典』, 東京: 三省堂.
- ④ 林甕臣·棚橋一郎(1897), 『日本新辭林』, 東京: 三省堂.

이와 같은 구어의 누락을 막기 위하여 게일은 이미 편찬된 사전 또는 책을 기준으로 하여 표제어를 선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보들을 채워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사전을 편찬하는 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참고 대상이 되었던 것이 2)②에서 보듯이 파리외방전교회의 『韓佛字典』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⑦에서 『한불조언』이 적시되어 있지만 2)②에서 책명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참고 대상은 『韓佛字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일은 이미 1886년 여름부터 불어를 공부하여 상당한 정도로 불어 자료를 읽을 수 있었으므로 프랑스 측에서 수집하고 기술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③에서 보듯이 조선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휘를 고르는 과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존의 책들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다. 2)①에서 볼 수 있듯이 구어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2)④⑤⑥과 같이 구어를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어 자료가 큰 폭으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에 올릴 표제어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표기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큰 과제가 되었다고 하겠다. 다행스럽게도 2)④에서와 같이 조선어에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들의 표기법은 규범의 역할을 해 온 자전인 『全韻玉篇』에 근거를 두고 표기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 또한 반영되어 있는 한자음이 현실음과 거리가 있고, 편찬된 지 1세기가량 지난 옛날 것이었던 탓에 언어 변화의 결과물들과 음상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을 염두에 두고 2)⑤에서 보듯이 규범에 따른 처리와 현실음의 적극적인 표시, 이 둘 사이가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중도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2)⑥에서 보듯이 구어와 한자 표현 사이의 구별에 신경을 썼는데 이것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구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조선어의 어휘에서 한자어가 많다는 점을 게일은 이와 같이 중시하였는데, 이 한자어 가운데에 중국어와 공통되는 것들은 A CHINESE-ENGLISH DICTIONARY([그림 1])의 것을 가져다가 제시를 하였고, 장을 분리하여 부록(ADDENDA)으로 옥편을 제시하였다(4장의 [그림 4] 참고).

이에서 보듯이 게일이 『韓英字典』을 편찬하면서 역점을 두었던 것은 구어의 반영과 한자어의 반영이었다. 이 중 한자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게일은 A CHINESE-ENGLISH DICTIONARY

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A CHINESE-ENGLISH DICTIONARY의 내용과 『韓英字典』의 내용 사이에 일치도 내지 유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면, A CHINESE-ENGLISH DICTIONARY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필자의 과묵한 탓일지 모르겠으나 아직 이에 관하여 실증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기에, 이번 에 이 둘을 간략히 비교하여 보기로 하겠다.

4) ① 『韓英字典』(1897)과 ② A CHINESE-ENGLISH DICTIONARY(1892)의 비교

1. ①의 2부(PART II)의 틀은 ②의 것과 유사하다.
2. 미시 구조
 - ① 음별 일련번호-한자-(한글로 표기된 뜻)-영어 정의문
 - ② 한자-일련번호-한자 포함 단어 또는 표현-영어 정의문
3. 영어 정의문의 유사성

(1) 阿

- ① A bank ; a slope. A prefix to proper names. To assent ; to flatter. An Interjection—of surprise.
아위 s. 阿魏(언덕)(나라) assafoetida.
- ② A prefix to proper name and designations of people. Used to represent the sound a or ah in foreign words. An initial particle. Used with No. 12,810.
阿魏 asafoetida.

(2) 唉

- ① An interjection of regret ; displeasure. A tone of negation.
- ② An interjection of regret ; of displeasure; of repletion. A tone of negation. Also read ai.

(3) 埃

- ① Dust ; dirt. Dead.
애금국 s. 埃及國(씩솔)(밋출) '나라) Egypt. → 埃及國을 埃及國으로 수정
- ② Dust ; dirt. Dead.

(3-1) 挨

- ① 미수룩
- ② Side by side. To lean on ; to trust to. To delay. To force. To strike on the back ; to suffer.
※ 埃及國 Egypt.

(4) 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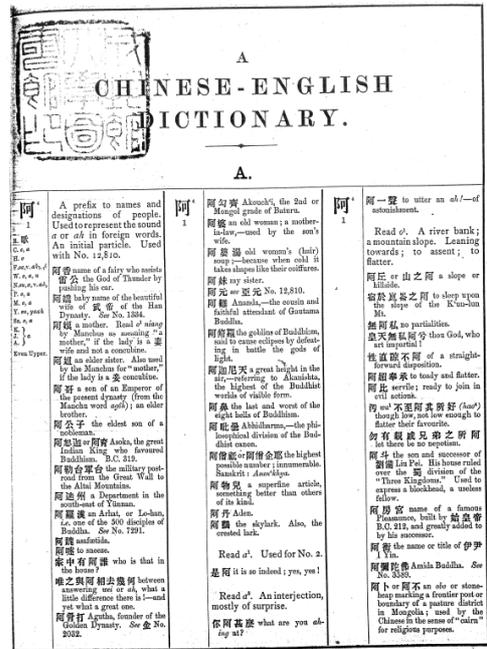
- ① The corner or canthus of the eye. To look askance.
애즈지원 1. 睚眦之怨(눈가)(눈가)(갈)(원망) A look of displeasure; an expression of resentment. See 양양지심.
- ② The corner or canthus of the eye. To stare. See No. 12,328.
睚眦 to glance at angrily
睚眦之怨必報 I will certainly pay him out for his angry looks.

(5) 艾

- ① Mugwort ; artemisia. A young person. Fifty years old. To quiet. To finish.
쇼애 1. 少艾(젊을)(썩) a young person. (M.) 602썩
- ② Mugwort, artemisia, or any plant from which moxa is obtained. A general name for labiate plants, like mint. Fifty years old, from the hair turning grey, like moxa. To quiet. To finish. See No. 1099.
少艾 a beautiful woman.

(6) 藹

- ① Luxuriant vegetation. Shady. Grand ; Beautiful.



[그림 1] A CHINESE-ENGLISH DICTIONARY

② Luxuriant vegetation. Shady. Grand. Beautiful.

(7) 傲

① Proud ; arrogant ; scornful ; rude.

오만하다 1. 傲慢(오만)(거만함) To be proud ; to be overbearing ; to be insolent.

② Proud ; arrogant ; scornful ; rude.

傲慢 to treat with scorn.

(8) 熬

① To boil ; to decoct ; to simmer. To endure ; to watch. To disturb.

② To boil ; to decoct ; to distil ; to simmer. To endure ; to watch. To disturb.

이를 보면 2와 관련하여 일련번호가 ①에서는 음별로 첫 한자에서 마지막 한자의 숫자를 부여하는 순서로 되어 있는 반면에, ②에서는 음별로 나누지 않고 모든 수록자의 번호를 첫 한자에서 마지막 한자까지 부여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즉 ①은 어휘에 따라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반면에 ②에서는 한자에 따라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②의 거시 구조는 한자를 중심으로 한 구조와 하나의 한자를 기준으로 그 아래에 한자어가 제시되는 한자별 거시 구조를 갖는 복층적인 구조로 설계된 것인데 비해서, ①에서는 한자어를 기준으로 하여 거시 구조가 설계된 것을 보인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①에서 한자 중심의 거시 구조를 갖는 2부(PART II)를 따로 구축하여 제시한 것은 ②의 거시 구조가 복층적인 것에서 한자에 해당하는 것만을 따로 떼어 제시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또한 (3) ‘埃’와 (3-1) ‘挨’에서 보듯이 한자의 자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일부 있다.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①과 ②를 비교하여 보면 사전의 미시 구조가 유사할 뿐 아니라 정의문을 보면 ①이 ②를 참조하였음을 느끼게 하거나 ①이 ②와 일치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한자어 또는 한자어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어휘를 뜻풀이하는 데에 A CHINESE-ENGLISH DICTIONARY를 상당히 많이 참고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덕이필패 s. 輕敵而必敗(바보야올)(디덕홀)(말이)(반듯)(패홀) If one despise the enemy one is sure to fail in the fight.”와 같이 한문이 국어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의 어휘처럼 쓰이는 것을 ①에서는 실어 놓고 있으나 ②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국어와 한어의 언어 구조상 국어에서는 어휘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한어에서는 문장이 되는 것이기에 ①에서는 사전에 실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그렇다.

흥미로운 것은 A CHINESE-ENGLISH DICTIONARY에서도 한어를 설명하면서 조선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이 사전의 서문(PREFACE)(29쪽)에서는 한 국어의 음운을 살피는 데에 『全韻玉篇』의 한자음 표시를 근거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어에서 한자음과 한자어 표시에 『全韻玉篇』의 표기가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는 것을 중국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의 사전을 편찬하면서 중국에서 나온 사전을 참고한 것은 사실 언더우드의 『韓英字典』(1890)에서도 보이는 바이다. 언더우드(1890)의 서문을 보면 “단어의 정의 면에서는 지나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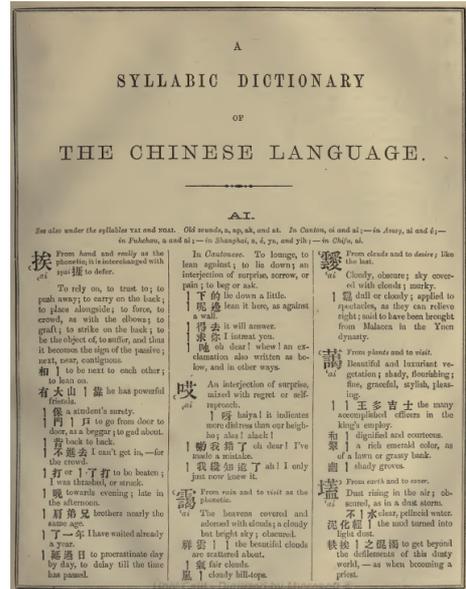
The Portuguese-French missionaries in Annam consider bearded u or u to be the close, and bearded o or o to be the open form of one and the same native French vowel eu,—not as heard alone as in j'ai eu, but as heard in peu, eux, etc. Practically speaking, the u and o of Annam are the eu and e (our i, and o or e) of Korea; and i and o are consistently used by us for both idioms, with the above-described qualification, namely, that e is used for the Korean e when it stands alone, partly because it is Pekingse e in fact, and partly because the leading principle in this scheme of transliteration is to adhere to Sir THOMAS WADE'S system, so far as is practicable, for the convenience of students, most of whom have been trained under that system. As has been shewn, the Korean a plainly was at one time a vowel like the short Pekingse e, that is, like the short Sanskrit a as in pa or pa (jál). Accordingly, we find that the Korean a as well as the Korean e is alternatively used with the Korean i. The French dictionary of Korean, though an excellent work, is not very scientific from a Chinese point of view, and therefore I take the Korean-Chinese dictionary known as the 全韻玉篇 as my basis, and in no case do I depart from the uses of e, eu, a, a (i.e. the e, i, a, a of this scheme,) as there given when these vowels are used alone, and not as diphthongs with other vowels, except, as above described, that on indispensable grounds I write e as o when it is followed by a nasal or a consonant.

[그림 2] 자일스(1892) 서문

포괄적이지 않고 너무 협소하지도 않은 정확함을 달성하기 위해 대단한 주의를 기울였다. 한자에서 파생된 단어는 윌리엄스의 『중국어 음절 사전』에 수록된 해당 용어와 철저히 비교하였고, 순수 한국어 어원을 지닌 단어는 그 대부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시험하는 과정을 거쳐 혹시라도 미묘한 의미나 용법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와 같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단어 의미의 정확한 기술이다. 이것은 게이일(1897)에서 자일즈(1892)를 참고한 동기와 일치하는 것이다. 게이일은 이미 언더우드(1890)에 참여한 바 있으므로 중국 사전 이용의 이점을 충분히 느꼈다 하겠는데, 그가 『韓英字典』(1897)을 편찬할 때에 자일즈의 사전을 참고한 것은 언더우드 사전 편찬 시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겠다.

언더우드(1890)에서 참고한 윌리엄스의 사전은 『漢英韻府(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GAE; ARRANGED ACCORDING TO THE WU-FANG YUEN YIN, WITH THE PRONUNCIATION OF THE CHARACTER AS HEARD IN PEKING, CANTON, AMOY, AND SHANHAI)』(1889), SHAN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였던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스는 ‘Samuel Wells Williams’으로 중국 이름으로는 ‘衛三畏’라 불리는 사람이다. 위 사전의 제목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北京, 廣州, 廈門, 上海의 지역의 발음 실태를 취하되 이것을 『五方元音』에 따라서 다듬어서 정리하였다는 점이다. 즉 중국을 대표하는 지역의 언어사용 실태를 중시하되 『五方元音』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게이일이 지향한 한자음 표기와 관련한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림 3] 윌리엄스(1889) 첫 면

3. 사전 편찬의 지향점과 동참한 조선인의 역할

2)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게이일은 구어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 사전을 편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①과 같이 참고할 만한 것이 마땅하지 않은 터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게이일은 서문에서 이런 심정을 “이와 같은 결함은 편찬자 측의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어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극히 간단한 단어조차도 이를 알려 주는 무언가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2)②와 ③과 같이 사전 편찬 등과 관련한 선행 성과나 어휘 수집에 도움을 줄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전래의 출판물을 뒤지며 표제어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표제어가 되는 것들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는 “‘하나의 뜻풀이’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한양의 신뢰할 만한 화자들이 구사할 법한 양상들이 드러나는 문장들과 비교해 보는 일이었다. 이것이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기준이 되어 왔다.”와 같은 기술에서 볼 수 있듯이 한양에서의 어휘 사용

의미를 기준으로 삼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문의 기술을 보면 구어의 수집 및 반영, 전래의 서책에서 어휘의 선별, 어휘의 뜻풀이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계일의 힘으로 하기에는 벽찬 일이므로 조선인의 도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문을 보면 계일은 “나와 교제해 왔던 조선인들의 이름들을 언급해야겠다. 정동명(鄭東鳴), 양시영(梁時英), 이창직(李昌植), 이득수(李得秀), 이겸래(李謙來), 양의종(梁宜鍾), 조종갑(趙鍾甲), 신면휴(申冕休).”와 같이 조선인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창직의 역할이 아주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창직(1866-1938)은 계일에게 조선어, 한자와 한문을 가르쳐 주었을 뿐 아니라 계일이 조선의 전통과 문화를 알아가는 데에는 필요한 것을 인도하고 가르쳐 준 언어와 문화에서의 스승이었다. 또한 계일의 조선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며 계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조력자였다. 이런 면에서 이창직과 연계된 계일의 행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계일의 주요한 행적

계일은 1888년 12월에 부산으로 조선에 들어왔는데 이후 한양을 거쳐 해주를 거쳐 장연의 소래로 파견되었다. 파견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계일은 3월 17일에 해주에 도착하였고 3월 말에 소래에 가서 서경조와 이창직에게서 조선어와 조선의 풍습을 배웠다. 서경조는 상당히 개화가 된 사람으로 평생 중국이나 중국 접경지대에서 살던 이었다. 이창직은 평생 서당에서 한문을 배운 사람으로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창직에서 석달간 조선어를 배운 계일은 한양에서 언더우드의 사전 편찬을 도울 정도로 조선어 실력이 늘었다. 계일은 1889년 8월에 이창직과 일본인 소년 쿠사바 가쓰타로와 함께 재물포에서 증기선을 타고 부산으로 가서 10개월간 부산에서 머물며 선교 활동을 하며 한양으로 향하였다. 1892년 4월 7일에는 해리엇 기슨(Harriet Gibson)과 혼례를 올리고 6월에 이창직을 동행하고 원산으로 거처를 옮겨 선교 활동을 하였다. 계일은 총무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① 로스(Ross)의 신약성경 번역본이 나왔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다는 점과 ② 매일 아침 두 시간 동안 한자 공부를 하고 孔子를 읽고 있으며, ③ 1년 전부터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현재는 한자로 된 복음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에 달했으며, ④ 한자를 모르고서는 구어를 온전히 알기는 불가능하므로 한자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⑤ 매일 조금씩 『턴로력당(Pilgrim's Progress)』를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1893년 2월 25일에 계일은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콧이나 언더우드가 편찬한 사전이 있지만 ① 프랑스인이 만든 큰 사전을 활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영한사전을 준비할 수 있으며, ②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여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바를 밝혔다. 계일은 이창직과 더불어 경신학교 등의 교재로 쓰기 위한 『膺蒙千字』를 간행하였는데, 계일과 이창직은 공동 번역자로 표시되어 있다.⁵⁾

-이숙(2019: 133-147)을 참고하여 정리-

5)에서 볼 수 있듯이 계일이 조선어를 익히고 사전 편찬, 성경 번역 등의 일에 종사하게 된 데에는 이창직의 공이 아주 컸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창직의 도움과 가르침 덕택에 계일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조선어와 조선 풍습을 조화롭게 이해하고 이로써 조선어에 관한 균형 잡힌 식견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계일이 부산→한양→해주→장연→재물포→부산→원산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 여러 곳을 다녔다는 것이다. 계일이 다닌 곳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대구, 경주, 의주, 만주 봉천, 강계, 후창, 창진, 함흥, 철원 등으로 이어진다(조정경 1985). 이와 같이 조선 각지, 중국과의 접경지대, 만주 등을 다니면서⁶⁾ 계일은 조선어의 지역적인 다양성과 한어와의 유사성, 공통

5) 이처럼 이창직은 성서 번역에서는 계일의 조력자였다. 하지만 나중에 계일과 언더우드가 안식년을 받아 휴가를 떠나 성서 번역에 차질이 생기자, 미국성서공회는 1907년 4월에 이창직과 김정삼을 번역위원으로 임명하여 레이놀즈와 함께 3인 번역자회를 꾸리도록 하는 등 이창직을 중용하였다.(류대영·육성득·이만열 1994, 이숙 2019)

6) 이들 지역에 관한 이해를 하는 데에는 황해도 사람인 이창직의 도움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중국 접경지대에서

요소에 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조선 언중의 언어사용의 실태를 직접 접하면서 언어의 다양성을 충분히 느낀 것이다. 이런 경험을 쌓은 후 그는 원산에 정착하여 본격적인 선교 사업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그의 경험은 구어의 다양성을 비롯하여 표기를 비롯하여 어떤 언어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느끼게 하는 반복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자음의 표기도 편차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全韻玉篇』 등을 기준으로 삼아 한자음 표기를 고정하려 한 노력과 경향이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그로 하여금 『全韻玉篇』과 같은 기준 역할을 하는 사전 편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였고 그가 설계하는 사전이 그 기준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사전 편찬의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계일의 행적을 볼 때 그는 조선 각지에서 접하는 조선어의 다양한 구어의 쓰임을 직접 겪고 이를 고민하였는데, 이런 구어의 특징을 듣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에 늘 옆에 있었던 이창직의 도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한자음 표시에서 기준이 되는 『全韻玉篇』에 관하여 한자와 한문에 능하였던 이창직에게 소개를 받고 이곳의 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학습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문자 언어 생활과 관련하여 그는 이두에 관한 것도 소개를 받고 조선어의 다양한 문장 표현 방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계일의 조선어에 관한 지식의 외연은 『韓英字典』(1897)의 도입부에 제시되어 있는 고유어, 한자어, 한자음, 이두 등에 관한 기술과 표와 예시의 제시를 통하여 충분히 짐작하여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일은 『全韻玉篇』과 같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사전 편찬을 생각하였고, 그 기준이 되는 구어로 수도인 한양의 언어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하나의 뜻풀이’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한양의 민을 만난 화자들이 구사할 법한 양상이 드러나는 문장과 비교하여 이해하고, 이런 방향으로 뜻풀이를 하여 각지의 의미의 차이를 좁히거나 조정하여 공통적인 것을 수립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2)⑤와 같이 극단적인 것을 지양하고 중도를 취하여 합의 될 수 있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기준에 입각한 표기와 실제 음을 드러내는 표기 사이에서 표기법의 모색을 추구하였다. 이런 표기를 결정하는 데에 이창직이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韓英字典』의 한자와 한자의 의미에 관한 정보는 자일즈의 A CHINESE-ENGLISH DICTIONARY를 많이 참고하고 이곳의 정보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수용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 많다. 이와 같이 자일즈 사전을 계일이 참고한 것은 서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구어와 한자 표현 사이의 구별에 관한 것이다. 이 어려움의 시각에서, 자일즈의 한어사전에서 가져온 의미를 담고 있는 옥편의 한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나 옥편 그 자체를 2장을 더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 역시 가능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조치이다.”와 같은 내용이 있다. 계일에게 자일즈의 사전은 한자어의 기준을 잡아 줄 수 있는 원근과 같은 존재였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자일즈 사전의 한자와 한자어의 풀이를 보고 조선어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선별하고 조정하는 일은 계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매우 방대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계일이 체와 같이 걸려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자와 한문을 공부하는 단계에 있

살았던 서경조의 도움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었으므로 아직은 그의 역량이 여기에까지 충분히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이창직의 역할이 컸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1901년에 나온 독본인 『牖蒙千字』가 奇一著 李昌植術로 서문에 역할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著와 術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는 분명히 알기는 어려우나 『韓英字典』이 나온 이후에도 이 둘이 같이 저술을 하였다는 것은 게일이 이창직의 도움이 없이는 조선어를 자유자재로 쓰기에는 난관이 있음을 잘 보여 준다.

그렇다면 이창직은 『韓英字典』의 편찬 시 A CHINESE-ENGLISH DICTIONARY를 수용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였을지에 관하여 『韓英字典』의 「기호, 약자 등의 설명」(EXPLANATION OF MARKS, CONTRACTION ETC)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6) 『韓英字典』(1897)의 「기호, 약자 등의 설명」 관련 정보

- (1) “See”는 동의어나 활용에 있어 관련어를 가리킨다. “Also”는 같은 단어의 이(異)표기를 가리킨다. “Opp.”는 반의어나 대조적인 단어를 가리킨다.
 - ㉠ 목욕감다 s. 沐浴(목욕홀)(목욕홀) 아; 은 To bathe. See 메역감다.
 - ㉡ 너부 l. 內部(안)(마을) The Home Office. Also 너무부.
 - ㉢ 너부대신 l. 內部大臣(안)(마을)(큰)(신하) Home Minister. Also 너무대신.
 - ㉣ 권무 l. 葑(무우-*봉) A speices of mustard plant. See 만청. Also 순무.
 - ㉤ 맛맞고다 s. 相換(서로-*상)(맞골-*환) 아; 곤 To exchange with out boot. Opp. 우돈주다.
 - ㉥ 니과 l. 內科(안)(법) Internal treatment of disease. Opp. 외과.
- (2) (Prov.)은 방언을 나타낸다.
 - ㉦ 우금 s. 山隕(뫼-*산)(모퉁이-*오) A ravine ; a valley. (Prov.)
 - ㉧ 회득이 l. 草笛(풀-*초)(더-*덕) A whistle made from the bark of a tree. (Prov.) See 답장하다.
 - ㉨ 칼치 s. 刀魚(칼-*도)(고기-*어) A long fish with a silvery belly and a sharp back. (Prov.) See 갈치.
- (3) (Comp.)은 오직 작문 혹은 서적형태로 활용되는 단어를 나타낸다.
 - ㉩ 히표초 l. 海鰓蛸(바다)(부레)(버레-*쇼) Cuttle-fish bone.(Comp.)
 (Dim.)은 지소사 또는 작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활용되는 단어를 나타낸다.
 - ㉪ 히죽히죽하다 s. To simper ; to giggle. See. 히히하다. To swing along in walking(Dim.).
- (4) (Respect.)은 단어가 공손한 표현인 것을 나타낸다.
- (5) (Hon.)은 단어가 경어로 활용되는 것을 나타낸다.
 - ㉫ 함즈 s. (-쯔) 屨字(명함)(글즈) The characters of your name ; your name. (Hon.) See 함.
 - ㉬ 진지 l. 進支(나아갈)(지팅) Food ; meals. (Hon.)(잡습다)
- (6) (Low.)은 단어가 아랫사람의 말 혹은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을 나타낸다.
- (7) (Ad.)은 추가(부록)에서 발견되는 말을 나타낸다.
 - ㉭ 결초보은 s. 結草報恩(미줄)(풀)(갑흘)(은혜) Tying the grass as a reward of favor—an expression taken from the legend of 위과. See 각골난망. (Ad.)
- (8) (B.O.)은 『詩傳』(혹은 Book of Odes)에서 인용한 것이다.
 - ㉮ 규구무부 s. 赳赳武夫(긋셀)(긋셀)(호반)(지아비) A mighty warrior. (B.O.)
- (9) (B.H.)은 『書經』(혹은 Book of History)에서 인용한 것이다.
 - ㉯ 일스 s. 一死(홀)(죽을) A present of a dead pheasant made to the Emperor on obtaining rank.(B.H.)
- (10) (A.)은 『論語』(혹은 Analects)에서 인용한 것이다.
- (11) (M.)은 『孟子』(혹은 Mencius)에서 인용한 것이다.
 - ㉺ 알인욕존턴리 s. 遏人欲存天理(막을)(사름)(욕심)(잇술)(하늘)(리치) What prevents the desires of man and leaves free the will of heaven. (M.)
- (12) (C.C.)은 『周易』(혹은 Cannon of Changes)에서 인용한 것이다.
- (13) (D.M.)은 『中庸』(혹은 Doctrine of the Mean)에서 인용한 것이다.

7) 괄호 속의 번호는 실제 원문의 것과는 달리 식별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임의로 부여를 하였다. 그리고 ㉠로 표시된 보기는 필자가 사전 속에서 찾아서 제시한 것이다. 다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나 시간 관계상 다 찾지를 못하여 제시되지 못한 것도 있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에서 볼 수 있는 바는 이들이 당시 조선어가 지닌 다양한 언어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런 복잡한 양상을 지닌 조선어의 특성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서 (2)~(6)에 해당하는 내용은 『韓佛字典』에 존대어를 나타내는 ‘Hon. ou Honor.’, 욕설을 나타내는 ‘Inj.’, 흔히 쓰이는 말임을 나타내는 ‘Popul.’, 지역어임을 나타내는 ‘Provinc.’, 서한체를 나타내는 ‘St. épist.’이 이와 같은 정보를 표시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韓英字典』은 이것을 계승하고 확대한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높임법 등과 관련한 조선어의 다양한 사용 맥락, 지역적인 차이, 구어와 문어 등을 구분하려고 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게일이 서문에서 구어를 비롯한 조선어의 다양성을 언급한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어휘 관련 정보를 사전에 반영하여 두고자 하였다는 것을 위 예들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모어 화자가 아닌 게일이 이런 다양성을 직관적으로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사전에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창직의 직관과 분석이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에 (8)~(13)은 출전과 관련되는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이런 정보 제시는 『韓佛字典』이나 언더우드의 『韓英字典』에서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또한 중국의 사전에서도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게일의 『韓英字典』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국어의 쓰임에 근거하여 선별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시하는 출전 정보가 『論語』, 『孟子』, 『中庸』, 『詩傳』, 『書經』, 『周易』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四書三經에 해당하는 것들이다.⁸⁾ 이처럼 사서삼경에서 온 것들의 출전을 제시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접근을 돕고 있는데, 이것은 앞의 5)에서 보았듯이, 게일이孔子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이창직에게서 게일이 四書三經을 접하고 읽으면서 한자와 한문 공부를 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가 이창직과 더불어 국한문으로 된 『牖蒙千字』를 편찬한 것과 연결 지어 볼 때, 사서삼경을 읽고 이와 관련되는 『論語諺解』 등의 사서삼경 언해서를 읽으며 전통적인 언해 방식을 학습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⁹⁾

그리고 실제 사전을 살펴보면 “환퇴인심하다 s. 幻退人生(환롱)(물너갈)(사름)(날) To return in the form of man after death.(Buddhism)”와 같이 ‘(Buddhism)’이란 표지를 통하여 불교 관련 어휘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의 풍습, 문화,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불교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¹⁰⁾ 또한 조선어를 이해하는 데에 불경 언해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제시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만 6)과 같은 형태로 별도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사서삼경과의 차이라고 하겠다.

8) 四書三經 중 유일하게 『大學』은 누락되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아마도 다른 것에 비하여 『大學』의 분량이 많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9) 이는 스콧(1891)의 사전의 「도입(Introduction)」에서 “교육은 중국 고전에 대한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고, 공직에 오르고 명예를 얻으려면 한문으로 글월을 작성하는 공식 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관리와 학자들은 말은 한국어로 하지만 서신 교환과 업무에 있어서는 오직 한문만을 사용한다.”와 같은 기술과도 연관지어, 조선의 문화와 언어 사용의 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려고 한 동기가 작동한 것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10) 이는 훗날 게일이 『九雲夢』을 영어로 번역하여 바깥세상에 소개한 것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만한 것인지 궁금증이 드는 바라 하겠다.

4. 이중어 사전의 활용도

게일은 『韓英字典』(1897)을 편찬하면서 조선어와 영어 사이의 대응 관계만 보여 주는 것은 아니고 한자어의 경우 한자, 한자음, 훈을 제시하는 방식의 미시 구조를 고안하였다. 이런 구조 덕분에 이 사전은 표기, 어원, 한자음, 한자의 훈과 관련하여 조선인들이 쉽게 참고하고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한자어 또는 한자어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복합어의 경우 표제어 앞에 ‘*약효 s. 藥效(약)(효험)’, ‘*야기부리다 1. 惹氣(자아낼)(기운) 부러 : 린’과 같은 정보를 제시하여 *을 표시하여 어종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도 있다. 이는 『韓佛字典』에서 도입된 방법을 그대로 따른 조치이다. 이것이 언더우드(1890)에서는 채용되지 않았는데 이 사전에서는 다시 도입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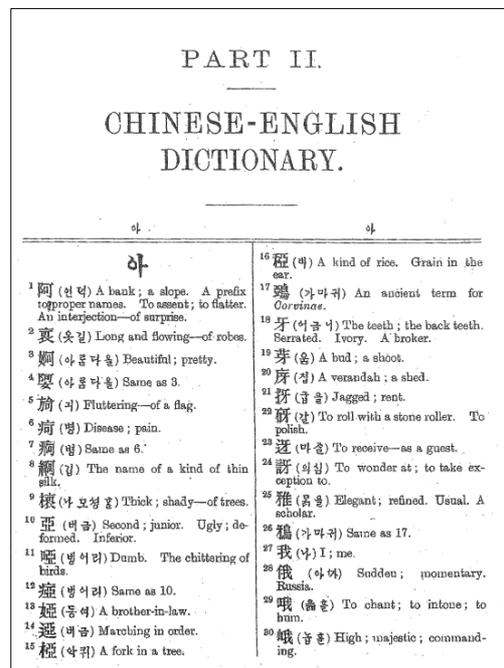
그리고 한자 자전을 [그림 4]와 같이 2부에 별도로 제시하여 음을 기준으로 한자를 제시하고 훈을 병기함으로써 한자의 形音義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 옥편을 만들어 사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사전 활용의 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규모는 비록 『全韻玉篇』에 미칠 수준은 아니지만 음을 기준으로 하고 한글로 표시된 훈을 볼 수 있는 검색용 옥편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뜻이 한문으로 표시된 『全韻玉篇』과는 차별화되는 눈에 띄는 성과라 하겠다.

이를 이용함으로써 사전 이용자는 한자에 관한 정보를 익힐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글로 표시된 음과 훈의 표기를 참고하여 문자 언어생활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표기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글을 가지고 훈을 표시한 최초의 옥편이 鄭益魯의 『國漢文新玉篇』(1908)이고 이어서 池錫永의 『字典釋要』(1909)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에 앞

서 이미 10년 이전에 이런 옥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게일의 『韓英字典』(1897)이 단순히 이중어 사전에 머무르지 않고 이중어 사전을 기본으로 하는 복합 사전으로 보기에 충분한 바라 하겠다. 이와 같은 옥편의 제작과 편성에 이창직이 큰 역할을 하였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게일은 서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동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저자의 바람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와 같이 자신이 발행하는 사전이 교육적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립신문』의 기사가 중요하게 참고될 필요가 있다. 1897년 4월 24일자 『독립신문』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게일의 사전에 관한 일을 다루고 있다.

7) 게일의 『韓英字典』(1897)에 관한 『독립신문』의 기사

미국 교사 게일 씨가 몇 해를 두고 조선말과 영어 옥편을 만들었는데, 그 옥편이 일전에야 출판이 되어 일본서 박사 서울로 보내었는데, 책 장 수는 일천 삼백여 장인데 조선말 밑에 한문과 영어로 주를 내고 또 책 끝에는 각색 긴요한



[그림 4] 게일(1897)의 제2부 옥편

일들을 기재하였다.

이 옥편은 조선에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것이 생겼고 이 책 만든 이는 다만 조선 사람에게뿐이 아니라 세계 사람에게 큰 칭찬과 감사한 말을 들어야 마땅한 것이 이 책이 매우 학문 있게 만들었고 긴요하기가 조선 사람에게와 외국 사람에게도 이만큼 긴요한 것이 없고 영어와 한문은 고사하고 조선 사람들이 이 책을 가졌으면 조선말들을 똑똑이 배울 터이요 조선 글자를 어떻게 쓰는 지도 알 터이니 어찌 조선에 큰 사업이 아니리오. 조선 사람은 천 년을 살면서 자기 나라 말도 규모 있게 배우지 못하였는데 이 미국 교사가 이 책을 만들었은즉 어찌 고맙지 아니 하리오. 조선 사람은 누구든지 조선말도 배우고 싶고 영어와 한문도 배우고 싶거든 이 책을 사서 첫째 조선 글자들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기 바라노라.

여기에서 보듯이 『독립신문』에서는 게일의 사전은 ① 조선 사람의 조선말 학습, ② 조선 사람의 영어 학습, ③ 조선 사람의 한문 학습에 유용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글을 가지고서 조선어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유용한 학습서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참고서라기보다는 학습서로 이 사전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성격을 지닌 것으로 호평을 받은 『韓英字典』을 게일은 이창직과 더불어 경신학교과 정신여학교의 교재로 만든 독본인 『牖蒙千字』를 편찬하는 데에 두루 활용하고 있다.

<표 1> 『韓英字典』, 『牖蒙千字』, 『言文』의 한자 정보 관련 비교

	韓英字典			유몽천자 (1901~)	언문(1909)
	1897년	1911년 #는 변화한 것	1931년 #는 변화한 것		
가	邊(가-*변)	邊(가-*변)	邊(가-변)	邊 가 변	邊 갖 변
*가야고	伽伽槲(가야)(가야)(거문고- *금)	伽伽槲(가야)(가야)(거문고- *금)	伽伽槲(#절)(# 절)(거문고- *금)	伽 절 가, 伽 절 야, 琴 거문고 금	伽 절 가, 伽 산일홈 야, 琴 검은고 금 ※伽伽槲 가야금
*가양	家釀(집)(비줄)	家釀(집)(비질)	家釀(집)(#술비 질)	家 집 가, 釀 비질 양	家 집 가, 釀 술비줄 양
*가업	家業(집)(업)	家業(집)(업)	家業(집)(업)	家 집 가, 業 업 업	家 집 가, 業 업 업
*가역	家役(집)(역스)	家役(집)(역스)	家役(집)(역스)	家 집 가, 役 역사 역	家 집 가, 役 부릴 역
*가의대부	嘉義大夫(아름 다울)(울홀)(큰 (지아버)	嘉義大夫(아름 다울)(울홀)(큰 (지아버)	嘉義大夫(아름 다울)(울홀)(큰 (지아버)	嘉 아름답다울 가, 義 울홀 의, 大 큰 대, 夫 지아버 부	-, 義 울울 의, 大 큰 대, 夫 지아버 부 ※가의 嘉義 ※大夫 대*부
가음	資料(즈로- *즈)(헤아릴- *료)	資料(즈로- *즈)(헤아릴- *료)	資料(지목- 지)(#가음- 료)	資 자로 자, 料 거리 료	資 즈로할 즈, 料 헤아릴 료
가감승제	加減升除(더 홀)(덜)(오를)(제 홀)	加減#乘除(더 홀)(덜)(틀)(제 홀)	加減乘除(더 홀)(덜)(틀)(제 홀)	加 더홀 가, 減 덜 감, 乘 탈 승, 除 제할 제	加 더할 가, 減 감할 감, 乘 탈 승, 除 제할 제 ※加減乘除 가감승제
각영각스	各營各司(각) (영문)(각)(마을)	各營各司(각) (영문)(각)(#맞 홀)	各營各司(각) (영문)(각)(#마 울)	各 각 각, 營 영문 영, 司 맞홀 스	各 각각 각, 營 영문 영, 司 주장할 스 ※各營各司 각영각스
가결	加結(더홀)(믹 줄)	加結(더홀)(# 믹질)	加結(더홀)(믹 질)	加 더홀 가, 結 매질 결	加 더할 가, 結 믹 줄 ※加結 가결
가괘	家儉(집)(줍 -*괘)	家儉(집)(줍 -*괘)	家儉(집)(줍 -#괘)	家 집 가, -	家 집 가, - ※家儉 가괘
*감보ㅎ다	勘報(마감홀)(갑홀)	勘報(마감홀)(갑홀)	勘報(마감홀)(# 보홀)	勘 마감홀 감, 報 갑홀 보	勘 마감할 감, 報 갑홀 보
*감툃신토	甘吞辛吐(들)(甘吞辛吐(들)(甘吞#苦吐(들)(甘 달 감, 吞	甘 달 감, 吞 삼킬 탄,

	삼켈(미울)(비 앗홀)	삼켈(미울)(비 앗홀)	삼켈)#(쓸)(비 앗홀)	삼킬 탄, 辛 매울 신/苦 고로울 고, 吐 비앗홀 토	辛 매울 신/苦 괴로울 고, 吐 토할 토 ※甘呑苦吐 감呑고토°
*간능하다	幹能(줄기)(능 홀)	幹能(줄기)(능 홀)	幹能(#보습힐)(능홀)	幹 간섭홀 간, 能 능할 능	幹 간•능할 간, 能 능할 능 ※幹能 간°능
*강목슈싱	乾木水生(只물 -*간)(나모)(물)(날)	乾木水生(只물 -*간)(나모)(물)(날)	乾木水生(只물- *간)(#나무-목) (물)(날)	乾 마를 간, 木 나모 목, 水 물 수, 生 날 생	乾 마를 간, 木 나무 목, 水 물 수, 生 날 싱
*강분환	薑粉丸(싱강)(분)(탄즈)	薑粉丸(싱강)(분)(탄즈)	薑粉丸(싱강)(# 가로)(탄즈)	-, 粉 가루 분, 丸 탄자 환	薑 싱강 강, 粉 가루 분, 丸 탄즈 환 ※ 薑粉丸 강분환
*강습	江蓼(물)(습)	江蓼(물)(습)	江蓼(물)(#인습)	江 물 강, -	江 강 강, 蓼 인습 습 ※江蓼 강습
*강직하다	降職(느릴)(직 업)	降職(느릴)(직 업)	降職(느릴)(#벼 슬)	降 나릴 강, 職 직업 직	降 나릴 강, 職 직품 직
*갑족	甲族(갑)(겨레)	甲族(갑)(겨레)	甲族(#웃듬)(겨 레)	甲 갑옷 갑, 族 일가 족	甲 갑옷 갑, 族 일가 족 ※甲族 갑족

<표 1>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韓英字典』에서 제시한 정보들이 『牖蒙千字』와 대체로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韓英字典』이 참고 자료 및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은 『韓英字典』의 재판, 삼판에서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어 현실의 반영을 위한 정비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게일의 『韓英字典』은 이중어 사전은 물론이고 옥편의 관점에서도 적극적인 연구 대상으로 검토되고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제1부에 제시된 한자어들은 옥편의 성격을 가미한 한자어 학습서로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全韻玉篇』은 한자의 의미, 한자어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은 물론, 한문을 모르는 조선의 독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재판인 『韓英字典』(1911)은 다음과 같이 초판과는 달리 어휘의 배열 순서를 바꾸었다.

8) 『韓英字典』(1911, 재판)의 어휘 배열 순서의 변화

본 제2판 사전에서 수록된 단어의 배열 순서는 초판의 순서와 다르다. 초판은 영어 알파벳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번 판에서는 한글 자모순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했다.

① 자음: ㄱ ㅋ ㆁ ㄷ ㄱ ㅁ ㅂ ㅅ | ㅇ ㅈ ㅊ ㅋ ㅌ ㅍ ㅎ

②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 ㆍ ㅜ ㅞ

이것은 서양인에 의해 소개된 방식이 아닌 전통적으로 조선에서 유통되던 방식에 따라서 자모의 배열 순서를 바꾼 것으로 조선인의 사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며

결론은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추후에 작성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류대영·옥성득·이만열(1994), 『대한성서교회사 II-번역·반포와 권서사업』, 대한성서공회.
- 오용섭(2016), 『『턴로력당』의 간행방식』, 『서지학연구』 67, 한국서지학회, 147-176.
- 이병근(2001), 「서양인 편찬의 開化期 韓國語 對譯辭典과 近代化-한국 근대 사회와 문화의 형성과정에 관련하여-」, 『한국문화』 2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31.
- 이상현(2010), 「언더우드 이중어사전 간행과 한국어의 재편과정」, 『東方學志』 151, 연세대 국학연구원, 223-278.
- 이 숙(2019), 「[초기 선교사의 한국어 교사 10] 게일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공동 번역자로 활동한 이창직」, 『기독교사상』 729, 대한기독교서회, 133-147.
- 이 숙(2020),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교사』, 보고서.
- 이영희(2001), 「게일의 한영사전 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 논문.
- 이은령(2010), 「19세기 이중어 사전 『한불사전(1880)』과 『한영사전(1911)』 비교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72, 한국프랑스학회, 63-88.
- 이은령(2016), 「한불사전과 현대 한국어문학」, 『반교어문연구』 42, 반교어문학회, 197-229.
- 이은령·강이연·윤애선·이상현·조현범·채완·허재영·홍윤표(2013), 『한불사전 연구』, 소명출판.
- 이지영(2009), 「사전편찬사의 관점에서 본 『韓佛字典』의 특징-근대 국어의 유희류 및 19세기의 『國漢會語』, 『韓英字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4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73-92.
- 정동경(2020), 「한국어 대역사전 비교 연구-19세기 말~20세기 초에 간행된 한영사전의 거시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9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1-96.
- 정동경(2021), 「개화기 영한대역사전 연구-J. W. Hodge, 『Corean Words and Phrases』(1902)를 중심으로-」, 『한국학』 162, 한국학중앙연구원, 324-364.
- 조 광(2016), 「『한불사전』의 새로운 탄생-우리나라 연구번역 상의 큰 업적」, 『코기토』 79,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463-470.
- 조남호(2016), 「서양인 편찬의 개화기 대역사전에 대한 종합적 검토-어휘 연구 자료의 관점에서-」, 『국어사 연구』 22, 국어사학회, 47-80.
- 조정경(1985), 「J. S. Gale의 韓國認識과 在韓活動에 關한 一研究」, 『한성사학』 3, 한성사학회, 61-115.
- 황호덕(2010), 「번역가의 원손, 이중어사전의 통국가적 생산과 유통-언어정리 사업으로 본 근대 한국(어문)학의 생성-」, 『상허학보』 28, 상허학회, 93-145.
- 황호덕·이상현 역(2012),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2(번역편), 박문사.
- 제임스 S 게일(1891-1900) 지음/김인수 역(2009), 『게일 목사의 선교 편지』, 쿤란출판사.
- J. S. 게일(1909) 지음/신복룡 역주(1999),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 토 론

“근현대 사전 편찬 자료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문

황용주(국립국어원)

이 논문은 게일(J. S. Gale)이 1897년 편찬한 『韓英字典』(한영사전, A KOREAN-ENGLISH DICTIONARY)의 서문과 일러두기(Introduction)를 중심으로 사전 편찬의 전개 과정에 대해 서술한 논문으로 사전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서문과 일러두기를 꼼꼼하게 살피고 이를 통해 사전의 편찬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는 점은 다른 사전의 편찬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자는 논문 내용 중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언급하고, 논문 기술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논문 필자는 발표 논문 2쪽에서 게일이 1931년판 『韓英大字典』을 만들면서 참고한 자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특히 황호덕(2010:131)을 인용하며 이노우에 주키치(井上十吉)의 사전 중에서 1920년에 발행된 것을 참고한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어떤 판본이 참고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토론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노우에 주키치가 편찬한 사전 중 게일의 『韓英大字典』의 서문을 작성하기 전(1927.4.28.)에 초판이 간행된 사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¹¹⁾

(1)

『新譯和英辭典』(Inouye's Japanese-English dictionary) 1909. 3. 三省堂書店(ii, 1872, 12쪽)

『井上英和大辭典』(Inouye's English-Japanese dictionary) 至誠堂書店, 1915. 9. (4쪽, 2326쪽, 25쪽)

『井上英和中辭典』(Inouye's smaller English=Japanese dictionary) 至誠堂書店, 1916. 9. (xii,1322,89쪽) 12)

『井上和英大辭典』(Inouye's comprehensive Japanese-English dictionary) 至誠堂書店, 1921. 1. (8. 2913, 22쪽)

『井上和英中辭典』(Inouye's smaller Japanese=English dictionary) 至誠堂, 1926년(926,26쪽) 13)

위의 책들이 모두 『韓英大字典』을 만들 때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다만 향후 논문 필

11) 자료 검색에는 일본 대학 도서관 통합 검색 사이트(<https://ci.nii.ac.jp/books/>)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실제 도서를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12) <https://ci.nii.ac.jp/ncid/BA48673354>

13) <https://iss.ndl.go.jp/books/R100000001-I096462469-00>

자가 언급한 것처럼 면밀한 대조를 통해 어떤 사전이 주로 참고되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井上和英大辭典』(정상화영대사전)의 출판 연대를 발표 논문 각주 2)에 언급처럼 1915년까지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각주2)에서 1915년에 간행된 것으로 언급한 동경 외국어대학도서관(東京外國語大學圖書館) 소장본에 대한 링크는 『井上和英大辭典』(Inouye's English-Japanese dictionary)으로 서명이 다르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된 1924년 자료와 동경대학 부속도서관 공3호 도서관실(東京大學 附屬圖書館의 工3號館圖書室) 자료는 『井上和英大辭典』(Inouye's comprehensive Japanese-English dictionary)이다.

2.

게일의 『韓英字典』 1897년판 서문에 구어의 수집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일본인(혹은 일본어?, 일본) 학자들의 사전 편찬 관련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다.

(2)

“구어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단어를 수집하려 하자마자, 더 노력을 기울여 보려는 어떤 의욕도 사그라지게 된다. **일본인 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 왔고 수년간의 연구와 준비 끝에 **완벽한 사전을 지난해(1896년)에 출간(밑줄 강조: 토론자)**하였으나, 일상적인 일본어 단어 상당수가 빠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¹⁴⁾

(2)밑줄의 원문에는 ‘autumn’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896년 가을에 일본에서 완벽한(혹은 원문 그대로인, 요약하지 않은) 사전이 출판된 것인데, 그렇다면 1896년 가을에 출판된 사전은 어떤 것일까? 『日本辭書辭典』(1996:369)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3)이 1896년에 출간된 사전의 목록이다.¹⁵⁾

(3)

『日本大字典』¹⁶⁾ (大和田建樹)

『帝国大辞典』¹⁷⁾ (草野清民ら)

14) There being no written record of colloquial the labor of finding words to begin with quenches any desire for further effort. **Japanese scholars** have had similar difficulties to contend with, and how great these are is proven by the fact, that notwithstanding so many years of study and preparation, **an unabridged dictionary published in the autumn of last year (1896)**, is found to lack many of the common words of the language. This defect is certainly not due to insufficient scholarship on the part of the compilers, but to the impossibility of finding words, even simple ones, without something to suggest them.(『韓英字典』(1897년), Preface 1쪽)

15) 이 목록이 1896년에 간행된 사전의 전체 목록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하는 것은 토론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다.

16) 『日本辭書辭典』(1996:369) 원문에 『日本大字典』이라 되어 있으나 도서관 자료 검색을 통해서 보면 『日本大辭典』의 오자라고 생각된다. 이 사전은 10월에 간행되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17) 이 사전의 10월 경에 간행된 일본의 국어사전이다.

- 『古事類苑』刊。〈 ~1913〉
- 『和英大辞典』¹⁸⁾ (ブリנקリーら)
- 『獨逸語他国語完全熟語集』(大熊春吉 関・伴治 編輯)
- 『袖珍独和新辞林』(ドクトル高木甚平・保志虎 吉)
- 『袖珍独和辞彙』(谷口秀太郎・近藤重石-渡邊 醇之介)
- 『露和袖珍字彙』(高須治輔)

위 (2)의 내용은 논문 필자가 언급한 것처럼 게일이 일본에서 간행된 사전을 참고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발표자는 일본에서 간행된 사전 중에서 ‘일본어’ 사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문 필자는 『韓英字典』 편찬의 준비 기간(6년)을 고려하여 “①大槻文彦(1889-1891), 言海, 東京: 印刷局. ②山田武太郎(1893), 日本大辭書, 東京: 日本大辭書發行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서문의 문맥상 논문 필자가 언급한 ‘일본어 사전’이 아니라 ‘이중언어 사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전 편찬자인 게일이 사전 편찬 과정에서 구어 단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점과 자국어어를 사용하는 ‘일본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구어에 대해서 외국인보다는 단어를 쉽게 찾아 모을 수 있어 구어 수집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3.

사전 편찬의 조력자 이창직(李昌植)에 대해 언급하면서 1901년에 나온 『牖蒙千字』에 “奇一著 李昌植術”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1909년에 나온 3판의 판권지에 “著述者 奇一, 校閱者 李昌植”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창직은 교열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8) 이 사전은 일본어-영어 사전으로 일본어는 로마자로 표현되었는데 간행 시기는 10월이다.

제3부 <제4 분과 현대국어>

활용형 모음조화 양상과 변이: 메신저 말뭉치를 중심으로

하영우(전주대)

< 차례 >

1. 서론
2. 연구 자료: 메신저 말뭉치
3.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과 변이
4. 결론

1. 서론

이 연구는 구어적 문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과 변이를 논의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모두의 말뭉치’에서 마련한 ‘메신저 말뭉치’를 대상으로 양성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 현상을 계량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활용형의 모음조화 변이에 관여하는 주요 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언어 내적 변수와 언어 외적 변수를 함께 검토하였다.

모음조화 현상은 한국어의 주요한 음운 현상 중 하나이자 후기 중세국어 이래 점진적인 규칙의 약화 과정을 보이고 있는 음운 현상이기도 하다.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양분되는 모음 체계에 따라 형태소 내부와 곡용형, 활용형에 적용되던 모음 조화는 이미 후기 중세국어 시기부터 예외 사례들이 관찰되었다. 이후 근대국어를 지나 현대국어로 접어들면서 /·/의 소실과 비어두 위치의 ‘ㄴ > ㄷ’ 변화, 하향 이중모음의 음성모음으로의 단모음화 등 모음 혹은 모음 체계의 변화와 함께 긴 시간에 걸쳐 규칙의 약화 내지 붕괴가 지속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곽창구 1999). 이로 인해 모음조화 현상은 고대국어 이래 중세국어, 근대국어를 지나 현대국어로 이르기까지 공시적 접근이든 통시적 접근이든 늘 ‘약화’ 내지 ‘붕괴’라는 해시태그를 동반하게 되었다.

모음조화의 약화 과정은 모음과 모음 체계의 변화 속에서 전반적인 양상을 관망하기도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하위 유형이에 따라 변화의 시작 시기와 속도,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 형태소 내부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 쇠퇴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관찰되었으며, 곡용형은 조사의 ‘· > —’에 의한 이형태 단일화와 관계된다. 이와 달리 활용형의 모음조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가장 늦은 시기에 쇠퇴가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활용형의 모음조화 약화는 /ㄴ/형 어간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며, 대개 양성모음인 /ㅏ/형 어간에 집중되는 편향적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모음조화 현상은 형태소 내부, 곡용형, 활용형에 따라 규칙 약화의 시기와 기제가 다르므로 유형별로 논의되는 방식과 시기가 달랐다. 이 중 활용형의 모음 조화 약화는 상대적으로 가장 늦은 시기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 통시적 변화 과정뿐만 아니라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활용형의 모음조화 현상은 ‘놀--+아라 ~ 놀--+어라’처럼 /ㄴ/형 어간에서도 일부 관찰되기는 하지만(최전승 1998, 유필재 2001, 강희숙 2002a, 강희숙 2002b), 일반적으로는 ‘막--+아 ~ 막--+어’처럼 /ㅍ/형 어간이 음성모음 어미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하다.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양성모음 어간 활용형의 모음조화 약화에 대한 논의는 구어 내지 구어를 상정할 수 있는 자료 조사나 방언 연구 등을 통해 모음조화 약화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이나 지역적 편차성 등을 기술하기도 했다. 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부 논의는 기술적 논의가 아닌 계량적 접근을 통해 ‘허용 가능 사례’를 넘어서 실제적 사용 양상에 관한 증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양성모음 어간 활용형이 음성모음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범위나 조건, 기제, 그리고 지역 변수의 영향 등에 관한 거시적 차원의 논의는 정리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활용형의 모음조화 약화에 관한 앞으로의 과제는 기왕의 논의를 다양한 사용역과 계량화된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하고, 주요 변수에 대한 검증/수정 과정을 거쳐 모음조화 현상을 정밀화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어적 문어로 분류되는 메신저 말뭉치를 대상으로 양성모음 어간의 모음조화 양상과 변이를 계량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양성모음 어간의 모음조화에 작용하는 변수는 크게 외적 변수인 성별, 연령, 지역과 언어 내적 변수인 어간의 음운론적 구조, 후행하는 어미의 유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2. 연구 자료 : 메신저 말뭉치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메신저 말뭉치이다. 이 말뭉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메신저상에서 자유롭게 나눈 대화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메신저 말뭉치는 원자료와 배포용의 규모가 다른데, 본고에서는 배포용으로 제공 받은 자료를 사용했다. 해당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에서 운영 중인 ‘모두의 말뭉치’ 누리집에서 신청하였으며(<https://corpus.korean.go.kr>), 자료 사용 승인 후 해당 누리집에서 2020년 9월 2일에 다운받았다.

배포용으로 제공 받은 메신저 말뭉치는 총 4,203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화 참여자는 8,592명이었다. 대화 참여자의 연령은 10~80대까지 다양하나 메신저의 사용자 특성상 약 80%가 20~30대의 젊은 층이었다. 성별은 여성 비율이 약 75%로 남성에 비해 훨씬 많다. 대화 참여자의 방언권은 총인구 실제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권이 약 57%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¹⁾

배포용 메신저 말뭉치는 ‘jsonlite’ 패키지(Ooms 2014)의 ‘fromJSON()’ 함수를 이용하여 연구

1)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는 이향원·하영우(2021)에서 사용한 자료와 동일하며, 2장의 관련 기술도 이에 준한다. 메신저 말뭉치의 주요 구성과 처리 방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향원·하영우(2021)에 제시되어 있다.

에 필요한 ‘발화 내용, 연령, 성별, 지역 정보’ 등만을 재정리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2,180,253 개의 행을 추출했다. 이후 원자료 구축 오류로 인한 잘못된 정보나 특수 문자, 문장 부호, 온전한 음절 구성(단일 자모 구성)이 아닌 유형 등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발화는 1,960,757개였다.

재가공한 메신저 말뭉치를 대상으로 양성모음 어간의 모음조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37개의 용언을 선정했다. 본고는 계량적 차원에서 모음조화의 변이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용 빈도와 음성모음 어미의 허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상 용언을 추렸다. 음성모음 어미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리스트는 선행 연구를 참조했으며, 사용 빈도는 세종 말뭉치를 재정리하여 사용역별 빈도를 제시한 배진영 외(2013)을 참고했다. 또한 대상 용언은 양성모음 어간의 모음조화 변화가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간 종성 자음을 장애음과 공명음, 자음군 조건 등을 고려해 설정하였으며, 이 외 음운론적 조건과 불규칙 교체 등에 따른 특성도 살펴보기 위해 ‘어간 말 종성 /ㅎ/ 탈락, 어간 말 /ㅡ/ 탈락, ‘르’ 불규칙 어간’도 포함하였다.²⁾ 아래 [표 1]은 이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설정한 용언 목록이다.

[표 1] 대상 용언 목록과 유형 분류(예비 조사용)

유형	단어
장애음	평음 막다, 맞다, 박다, 받다, 잡다, 찾다
	격음 같다, 갇다
	경음 깎다, 낚다, 댕다
공명음	비음 감다, 담다
	유음 말다, 빨다, 알다, 팔다
자음군	ㄹ 닳다, 삶다
	ㄹ 맑다, 밝다
	ㄹㅁ 밟다, 얹다
	ㄹㅎ 앓다
	ㄹㅎ X잡다, 괜찮다, 많다, 앓다
	ㄹㅅ 앓다
/ㅎ/ 탈락형	날다, 달다
/ㅡ/ 탈락형	나쁘다, 바쁘다, 아프다
‘르’ 불규칙 어간	다르다, 빠르다, 자르다(짜르다)

대상 용언은 후행하는 어미를 양성모음형과 음성모음형으로 나누어 메신저 말뭉치에서 검색하

2) 목록의 선정은 /ㅏ/형 어간의 모음조화 현상을 전반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예비 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단어는 임의적으로 선택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X잡다’는 ‘-지 않-’에서 발달한 ‘X잡-’형 어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과는 성격이 다르다.

였다. 어간에 후행하는 어미는 ‘-아/어X’형을 기본으로 설정하였으나, 후행하는 어미의 유형에 따른 차이도 살펴보기 위해 선어말어미 ‘-았/었-’도 검색 조건에 포함하였다. 두 조건으로 검색하여 추출한 자료는 수동 검수를 통해 예외적인 유형들을 모두 제거했다.

- (1) ㄱ. 근데 사실 지금 별로 땡기진 **날아**
- ㄴ. 솔직히 **싸잡아** 뭐라한거아녀
- ㄷ. **찾아보니까** 온양온천 있던데
- ㄹ. 나 군대 전역하기 직전에 **알아뜰**

(1)은 1차 추출 목록에서 제외된 예를 제시한 것이다. (1ㄱ)은 맥락상 ‘날--아’가 아닌 ‘않아’를 잘못 입력한 것인데, 오타로 인해 잘못 입력된 예들은 모두 제거했다. 또한 (1ㄴ)이나 (1ㄷ)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파생어나 합성어 등은 동일한 유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했다. (1ㄹ)의 ‘알아뜰’은 ‘알았다’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이므로 ‘알--았--다’로 보아 어미를 ‘-았-’으로 처리했다. 이 외 기타 맞춤법 실수, 맥락상 파악이 어려운 사례 등 판정이 모호한 유형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전체 토큰은 73,139개였다.

3.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과 변이

3.1. 언어 외적 변수에 따른 양상

모음조화를 기준으로 양성모음 어간에 음성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유형은 규칙 위배형이자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인 일종의 개신형이다. 언어적 개신은 언어 내적 체계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지만 언어 외적 변수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언어적 개신형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성별, 연령,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과 변이를 살펴보겠다.

먼저 성별은 한국어의 공시적 음운론적 변이에 있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활용형의 모음조화 변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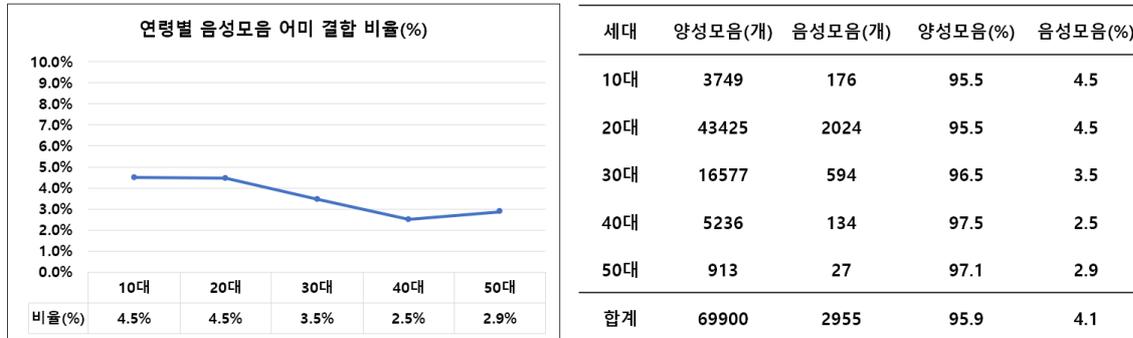
[표 2] 성별에 따른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

성별	양성모음(개)	음성모음(개)	양성모음(%)	음성모음(%)
남성	9273	395	95.9%	4.1%
여성	60900	2571	95.9%	4.1%
합계	70173	2966	95.9%	4.1%

[표 2]는 성별에 따른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메신저 말뭉치를 구성하고 있는 성별 비율상 남녀의 전체 토큰 수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 양상은 차이가 없었다. 남성은 활용형에서 어간이 음성모음 어미와 결합하는 위배형 비율이 4.1%였는데, 여성 역시 위배형 비율이 동일하게 4.1%였다. 성별에 따라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hi^2(1) = 0.018154, p >$

0.05). 이는 활용형의 모음조화 변이가 성별 변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 준다.

성별과 달리 연령은 활용형의 모음조화 변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토큰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60대와 70대를 제외한 10~50대의 활용형 모음조화 양상을 제시해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령에 따른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

활용형에서 양성모음 어간이 음성모음 어미와 결합하는 모음조화 위배형의 비율은 10대와 20대가 4.5%로 가장 높았다. 30대는 위배형의 비율이 3.5%로 10~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40대와 50대는 개신형 비율이 각각 2.5%, 2.9%로 30대에 비해 낮았다. 연령에 따라 모음조화의 변이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4) = 72.991, p < 0.001$). 사후검정 결과 10대와 20대는 차이가 없는 한 그룹으로 묶였으며, 30대와 40대는 차이가 있었으나 50대는 30, 40대와 차이가 없었다. 즉, 20대 이하와 30대 이상을 중심으로 모음조화 변이가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젊은 세대가 활용형 모음조화 개신형을 보다 주도적으로 이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가 활용형의 모음조화 변이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 보았다. 메신저 말뭉치는 지역을 총 17곳으로 분류하였으나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을 ‘강원’, ‘경상’(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제주’, ‘충청’(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광주, 전남, 전북)으로 재편성하였다.

[표 3] 지역에 따른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

지역	양성모음(개)	음성모음(개)	양성모음(%)	음성모음(%)
호남	7030	409	94.5	5.5
충청	6840	351	95.1	4.9
경상	12916	514	96.2	3.8
수도권	40200	1604	96.2	3.8
강원	2261	68	97.1	2.9
제주	926	20	97.9	2.1
합계	70173	2966	95.9%	4.1%

[표 3]은 지역에 따른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활용형의 모음조화 위배형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호남’(5.5%)이었으며, 동일 서부 방언에 속하는 ‘충청’(4.9%)이 두 번째로 높았다. ‘경상’과 ‘수도권’은 위배형 비율이 3.8%로 같았으며, ‘강원’과 ‘제주’는 위배형 비율이 각각 2.9%, 2.1%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5) = 76.199, p < 0.001$). 이어 사후검정 결과에 나타난 유의성을 기반으로 지역을 그룹핑해 본 결과 ‘호남 & 충청’, ‘경상 & 수도권’, ‘강원 & 제주’로 분류되었다.

지역 변수가 활용형의 모음조화 변이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실증으로서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방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모음조화 논의를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보다는 지역이 모음변화의 변이에 변수로 작용하는 데 있어 변수가 되는 이유를 논의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고의 연구 방법론으로는 이를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무엇보다 본고의 연구 자료는 구어성이 높기는 하지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어라는 점에서 방언의 영향 관계를 단정적으로 기술하기도 어렵다. 이에 관한 심층적 논의는 지역별 연구와 지역 간 비교가 후속되어야 명료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 & 제주’ 그룹은 타 지역에 비해 토큰 수가 적어 자료의 양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정리해 보면, 활용형의 모음조화 변이는 언어 외적 변수인 연령과 지역에 영향을 받지만 성별은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일수록 양성모음 어간에 음성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모음조화 위배형의 비율이 높다. 또한 활용형의 모음조화 변이는 지역적 편차성을 보이는데 호남과 충청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음조화 위배형이 빈번히 관찰되었다.

3.2. 언어 내적 변수에 따른 양상

활용형의 모음조화 현상이 언어 내적 요인에 따라 변이의 속도나 방향성이 다를 수 있음은 지적되었으나 명시적인 변수의 목록과 기제가 제시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활용형의 모음조화 변이가 언어 내적 변수를 바탕으로 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일방향적이고 단선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계량적 접근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절에서는 메신저 말뭉치로 검토 가능한 몇몇 언어 내적 변수를 중심으로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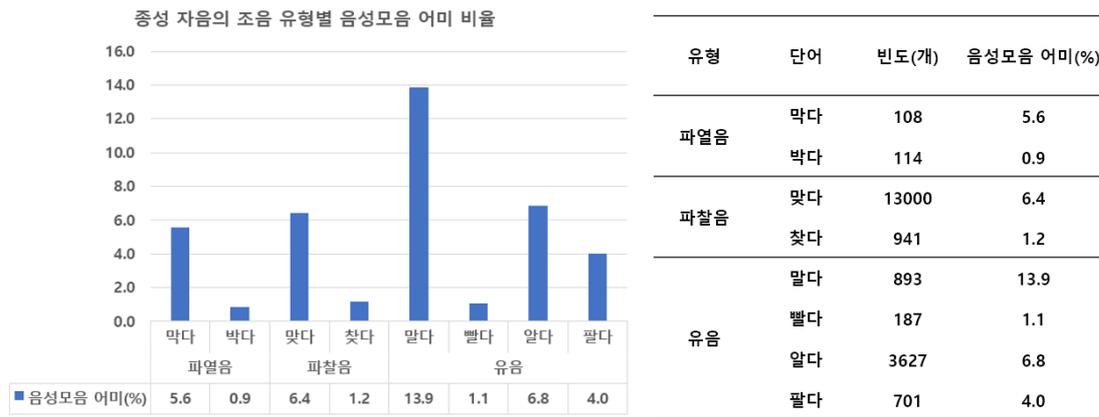
활용형의 모음조화는 어간과 어미 간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음운 현상이므로 먼저 어간의 음운 조건에 따른 모음조화 위배 양상을 검토해 보겠다. 모음조화에 관한 어간의 음운론적 조건은 1차적으로 종성 자음을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종성 자음은 자음 체계에 따라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발성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성이 단일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간에 한정하여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발성 유형에 따라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조음위치와 조음 방법, 발성 유형에 따른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

유형		양성모음(개)	음성모음(개)	양성모음(%)	음성모음(%)	
조음 위치	경구개	13093	848	93.9	6.1	
	양순	1547	27	98.3	1.7	
	연구개	483	14	97.2	2.8	
	치조	21593	994	95.6	4.4	
	합계	36716	1883	95.1	4.9	
조음 방법	공명음	5456	409	93.0	7.0	
	장애음	파열음	18167	626	96.7	3.3
		파찰음	13093	848	93.9	6.1
	합계	36716	1883	95.1	4.9	
발성 유형	평음	17520	954	94.8	5.2	
	격음	13472	513	96.3	3.7	
	경음	268	7	97.5	2.5	
	합계	31260	1474	95.5	4.5	

어간 종성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른 모음조화 위배율은 ‘경구개(6.1%) > 치조(4.4%) > 연구개(2.8%) > 양순(1.7%)’의 순서를 보였다.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유음과 비음으로 구성된 공명음일 때가 7.0%로 장애음에 비해 높았다. 다만 장애음 중 파열음은 모음조화 위배형 비율이 6.1%로 공명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 비해 파열음의 위배형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3.3%를 보였다. 양성모음 어간은 종성 자음의 발성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평음이 5.2%로 모음조화 위배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격음과 경음이 각각 3.7%, 2.5%로 뒤를 이었다.

어간의 종성 자음을 조음 방법, 조음 위치, 발성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볼 경우 유형에 따라 모음조화 위배형의 비율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각이 활용형의 모음조화 변이에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대개 언어의 변화는 복수의 변수에 복합적 작용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조음과 관련된 각 변수 모두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만큼 세부적인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 2>를 통해 보다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동일 자음 유형 어간의 음성모음 어미 비율

<그림 2>는 어간 종성이 동일하더라도 단어에 따라 음성모음 어미와 결합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막다}와 {박다}는 어간 종성 자음이 동일하게 파열음 /ㄱ/이지만 후행하는 어미가 음성모음인 비율은 각각 5.6%와 0.9%로 약 6.2배 차이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어간 종성 자음이 동일하게 파찰음 /ㅈ/인 {맞다}와 {찾다}는 음성모음 어미와 결합하는 비율이 각각 6.4%, 1.2%로 편차가 크다. 종성 자음이 유음인 {말다}, {빨다}, {알다}, {팔다} 또한 음성모음 어미의 결합 비율이 13.9%에서부터 1.1%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어간 종성이 단일 자음인 경우 활용형의 모음조화 변이는 음운론적 조건보다는 개별 단어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활용형은 어간 종성 자음의 음운론적 조건보다는 개별 단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든 유형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어간 종성이 단일 자음이 아닌 자음군인 경우는 일부 자음군 유형과 음운론적 조건이 모음조화의 변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 5] 어간 종성이 자음군인 단어의 모음조화 실현 양상

자음군 유형	단어	양성모음(개)	음성모음(개)	양성모음(%)	음성모음(%)
ㄴㅇ	X잡다	8699	393	95.7	4.3
	괜찮다	1481	36	97.6	2.4
	않다	2887	162	94.7	5.3
	많다	4281	145	96.7	3.3
ㄹㅇ	답다	136	2	98.6	1.4
	삶다	117	0	100.0	0.0
ㄹㅇ	맑다	40	0	100.0	0.0
	밝다	48	0	100.0	0.0
ㄹㅇ	얹다	84	3	96.6	3.4

	뵤다	48	0	100.0	0.0
ㄴㅅ	앓다	1234	8	99.4	0.6
ㄹㅎ	알다	15	0	100.0	0.0
합계		19070	749	96.2	3.8

[표 5]는 어간 종성이 자음군인 단어의 모음조화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단일 종성 자음 어간형과 동일하게 어간 종성이 자음군인 경우도 단어에 따라 모음조화 위배율에 차이를 보인다. 다만 어간 종성이 단일 자음인 유형과 달리 어간 종성이 자음군일 때는 자음군 유형에 따라 모음조화 변이에 관한 경향성이 나타난다. 어간 종성이 자음군인 유형 중 /ㄴㅎ/형은 음성모음 어미와 결합률이 평균 4.1%인 데 비해 어간 종성이 /ㄹ, ㄹ, ㄹ, ㄴㅅ, ㄹㅎ/인 어간은 음성모음 어미와 결합률이 평균 0.7%로 두드러지게 낮다. 어간 종성 자음군이 /ㄴㅎ/인 경우와 그 외 유형에 따라 후행하는 음성모음 어미와의 결합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 = 56.095, p < 0.001$).

어간 종성 자음이 /ㄴㅎ/일 때 음성모음 어미와 결합률이 증가하는 것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음운론적 조건이 활용형의 모음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여타의 종성 자음군과 달리 /ㄴ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후행할 경우 /ㅎ/가 탈락하게 되고 /ㄴ/가 연음이 되면서 어간 종성은 사라지게 된다. 이와 달리 /ㄹㅎ/을 제외한 종성 자음군은 두번째 자음이 어미 초성으로 연음이 되고 어간 종성에는 첫번째 자음이 존재하게 된다. 즉, /ㄴㅎ/과 그 외 자음군은 출력형에 있어 어간 종성 자음 여부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단일 종성 자음 어간은 단어에 따라 모음조화의 양상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평균적으로 4.5%의 모음조화 위배율을 보인다. 이는 자음군이지만 출력형이 동일한 구조를 보이는 /ㄴㅎ/형의 모음조화 위배율인 4.1%에 근사한다. 반대로 출력형이 어간 종성과 어미 초성에 모두 자음을 가지는 그 외 자음군은 모음조화 위배율이 평균 0.7%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활용형의 모음조화 위배 현상이 어간의 음절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활용형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한다. 물론 /ㄴㅎ/형은 그 외 자음군 유형과 달리 출현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동일 조건 내 비교는 아니므로 일단은 추정 수준에 머무른다.

양성모음 어간의 모음조화는 종성 자음이 연음이 되는 환경뿐만 아니라 ‘낱--+아 → 나아’ 같은 /ㅎ/ 탈락형, ‘다르--+아 → 달라’와 같은 ‘ㄹ’ 불규칙 어간, ‘나쁘--+아 → 나빠’와 같은 /ㅡ/ 탈락형에서도 일어난다.

[표 6] /ㅎ/ 탈락, /ㄹ/ 불규칙, /ㅡ/ 탈락 어간의 모음조화 양상

유형	단어	양성모음(개)	음성모음(개)	양성모음(%)	음성모음(%)
/ㅎ/ 탈락형	낱다	113	0	100	0
	달다	33	0	100	0
	합계	146	0	100	0
/ㄹ/ 불규칙	다르다	1008	23	97.8	2.2
	빠르다	392	14	96.6	3.4

	자르다/짜르다	354	2	99.4	0.6
	합계	1754	39	97.8	2.2
/ ㅡ / 탈락형	나쁘다	242	8	96.8	3.2
	바쁘다	956	108	89.8	10.2
	아프다	1822	147	92.5	7.5
	합계	3020	263	92.0	8.0

[표 6]은 /ㅎ/ 탈락 어간, /르/ 불규칙 어간, /ㅡ/ 탈락 어간의 모음조화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어간 종성 /ㅎ/가 탈락하는 {낱다}, {닿다}는 모음조화를 위배한 사례가 없었으며, /르/ 불규칙 어간은 어휘적 편차를 보이며 평균 2.2%의 위배형 비율을 보였다. 어간 말 모음 /ㅡ/가 탈락하는 {나쁘다}, {바쁘다}, {아프다} 역시 /르/ 불규칙 어간과 동일하게 단어에 따라 모음조화 위배형 비율이 3.2~10.2%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모음조화 위배율은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8.0%였다.

/ㅎ/ 탈락 어간, /르/ 불규칙 어간, /ㅡ/ 탈락 어간의 모음 조화 변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어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ㅎ/ 탈락 어간은 모음조화 위배형이 나타나지 않는 데 비해 /ㅡ/ 탈락형은 8.0%의 위배율을 보여 유형 간 차이가 존재함은 확인할 수 있다. /ㅎ/ 탈락 어간과 /ㅡ/ 탈락 어간은 모두 탈락 현상을 적용 받는 어간이나 모음조화의 위배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출력형의 음운론적 구조와 관계된 것으로 생각된다. 두 유형의 출력형은 어간 종성에 자음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후행하는 어미는 초성 자음 여부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활용형의 출력형에서 어미에 초성 자음이 존재하는 /ㅡ/ 탈락형이 어미에 초성 자음이 없는 /ㅎ/ 탈락형보다 모음조화 위배율이 높다. 이는 활용형의 어미 초성 여부가 모음조화 위배율과 관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사례로 어미에 초성 자음이 존재하는 /르/ 불규칙 어간은 /ㅎ/ 탈락 어간과 달리 평균 2.2%의 모음조화 위배율을 보인다. 다만 /르/ 불규칙 어간은 종성에 자음이 존재하므로 /ㅡ/ 탈락 어간과 모음조화 위배율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리해 보면, 활용형 어간의 모음조화는 음운론적 구조보다는 단어라는 변수가 보다 주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출력형을 기준으로 음절 구조는 모음조화의 위배에 있어 일부 경향이 관찰된다. 활용형의 모음조화는 출력형의 어간이 종성이 있는 구조보다는 없을 때, 그리고 어미는 초성 자음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모음조화 위배가 더 빈번히 일어난다.

한편 활용형의 모음조화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므로 어간 외에 어미의 유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활용형의 모음조화에서 양성모음 어간에 결합하는 어미는 1차적으로 ‘공을 막--+아/어(X)’와 같은 종결어미와 ‘경찰이 길을 막--+아(X)/어(X) 못 지나갔다’와 같은 연결어미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어미 ‘-아/어X’형과 동일하게 모음조화가 적용될 수 있는 유형으로 선어말어미 ‘-았/었-’이 있다. 이와 같은 어미는 유형에 따라 어간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의 변이 경향과 정도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어미 유형에 따른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

어미 유형	형식	양성모음(개)	음성모음(개)	양성모음(%)	음성모음(%)
연결/종결어미	-아X/어X	60706	2934	95.4	4.6
선어말어미	-았/였-	9467	32	99.7	0.3
합계	합계	70173	2966	95.9	4.1

[표 7]은 ‘-아X/어X’형 어미와 선어말어미 ‘-았/였-’에 따른 모음조화 실현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아X/어X’형 어미는 선행하는 양성모음 어간과 결합할 때 음성모음이 선택되는 비율이 4.6%인 데 비해 선어말어미 ‘-았/였-’은 모음조화 위배형 비율이 0.3%에 그쳤다. 교차검정에서도 두 유형의 어미에 따라 모음 조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 = 386.85, p < 0.001$). 이는 활용형의 모음조화가 후행하는 어미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시제 표시 선어말어미보다는 연결/종결어미에서 모음조화 변이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미의 유형에 따른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은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난다. 메신저 말뭉치에 나타난 활용형에서 모음조화 위배형은 선어말어미를 제외하고 총 2,966개였는데, 이 중 종결어미의 비율이 97%(2,877개)로 연결어미(3%, 89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음성모음 연결어미는 ‘그러기위해선 아는단어도 **많어야해**’나 ‘스텐레스 통에 **담어놔**’처럼 발화 종결 상황에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어미이거나 ‘식욕이 **달리서**’처럼 연결어미이나 발화 맥락상 종결어미로 기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의 개신형이 대개 문장(발화)이 끝나는 지점에서 선택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어미의 유형에 따라 모음조화 위배 양상이 달라지는 결과는 활용형의 모음조화 변이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제공한다. 어미에서 나타나는 활용형의 모음조화 특성은 ‘발화말’로 정리될 수 있다.³⁾ 즉, 어미를 기준으로 보면 모음조화의 변이는 발화말 위치에서 더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이를 보여주듯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중 모음조화 위배는 종결어미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모음조화 위배가 나타난 연결어미 역시 실제로는 발화말에 위치해 있거나 본용언+보조용언 구성처럼 발화말에 위치한 어간과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어말어미가 어말어미에 비해 모음조화 위배율이 낮은 것 역시 기능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 어말어미와의 분포상 차이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발화말 위치에서 어말어미 ‘-아X’형의 모음조화 위배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구어에서 나타나는 ‘ㅏ → ㅓ’의 음운 감쇄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음운 감쇄는 시간/공간 영역 같은 음성적 차원에서부터 음소, 음절 같은 음운론적 단위 등에 이르는 형식의 점진적인 삭감 과정 전반을 가리킨다(하영우 2018). 이 중 주로 발화말 위치에서 나타나는 ‘-아X’형 어미는 고모음화로 인해 ‘ㅏ → ㅓ’의 음소 감쇄를 거친 유형이다. ‘-아X’형 어미에서 나타나는 음운론적 감쇄의 기제는 구조적 위치와 기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구어 자료를 기반으로 어미 ‘-아’의 고모음화 양상을 살핀 이향원(2015)를 참조할 수 있다. 이향원(2015)는 어미 ‘-아’의 고모음화 현상이 ‘역양구 경계(26.8%) > 음운구 내부(5.6%) > 음운구 경계(5.1%)’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즉, ‘-아’의 고모음화 현상은 발화 구조적으로 기능적 중요도가 낮은 발화 끝에서 주로 일어

3) 메신저 말뭉치는 텍스트로 구성된 문어이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문장 끝이다. 다만 구어성이 강한 측면을 지니고 있고,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편의상 구어를 상정한 ‘발화말’로 지칭하겠다.

난다. 일반적으로 음운론적 약화는 해당 요소의 기능이 더 문법적인 유형으로 변화하거나 기능 부담량이 낮은 무표적 요소에 주로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에 따르면 메신저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활용형의 모음조화 위배가 유독 ‘-아X’형 어미가 발화 끝에 위치해 있을 때 빈번히 발생하는 것 역시 이에 준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음조화 활용형의 ‘-아X’형 어미에 적용되는 음운 감쇄(고모음화)와 관련하여, 앞서 기술한 어미의 음절 구조에 따른 모음조화 위배형 비율의 차이도 어느 정도 추정적 설명은 가능해 보인다. ‘-아X’형 어미는 선행하는 어간의 종성 자음 여부에 의해 어미의 출력형이 CV인 것과 V인 것으로 나뉘는데, CV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모음조화 위배형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어간 종성 자음의 연음으로 인해 출력형이 CV 구조가 된 어미가 V 구조인 어미에 비해 음운론적 감쇄가 더 자주 일어난다. 이는 ‘-아X’형 어미의 음운론적 삭감 과정이 모음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형태소가 단일 모음 구조를 지닌 V 구조 어미보다는 모음이 감쇄되어도 형태소의 음운론적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 있는 CV 구조형 어미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감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리해 보면, 활용형의 모음조화 위배 현상은 양성모음 어미 ‘-아X’형이 음성모음 어미 ‘-어X’형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X’형 어미가 구조적/기능적 분포에 기인하여 ‘ㅏ → ㅑ’의 음운 감쇄가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주장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앞서 다루었던 계량화된 결과와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방언적 영향 관계, 모음조화 위배형에 관련된 어간, 어미, 활용에 관한 통시적인 정보를 재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활용형의 모음조화 위배 현상은 단어 특정적 성격이 두드러지는바, 어미의 음운 감쇄가 단어 특정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며 보완하도록 하겠다.

4. 결론

-생략-

<참고 문헌>

- 강희숙. 1996. 장흥 방언의 모음 조화. 언어학 4.
강희숙. 2002a. 《천변풍경》의 음운론. 국어학 40.
강희숙. 2002b. 현대 서울말의 모음조화 : 부동사형어미 ‘-아/어’의 교체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26.
강희조. 2016. 한국어 용언활용에서 보이는 모음조화의 변이와 변화. 언어학 76.
곽충구. 1999.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새국어생활 9-4
국립국어원. 2019. 메신저 대화 자료 수집 및 말뭉치 구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20. 모두의 말뭉치: 메신저 말뭉치(<https://corpus.korean.go.kr/>).
김선희·남성현. 2019.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 재고 말뭉치 기반 계량적 접근. 언어연구 35-3.
김아름. 2011. 모음조화의 변화 양상 연구: 활용·곡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겸. 2020. 강원도 지역의 모음조화 변화의 진행과 방향에 대하여. 한국문화 89.
- 김주원. 1992.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학 22.
- 박선우. 2016. 한국어 모음조화의 약화 현상에 대한 정보이론 기반 분석.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22-3.
- 박선우. 2019. 중세한국어 모음조화의 양상에 대하여. 25-1.
- 배진영·최정도·김민국. 2013. 구어 문어 통합 문법 기술 1. 서울: 박이정.
- 유필재. 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필재. 2014.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민요 녹음 자료와 19세기말 국어의 모음 및 모음조화
- 이향원. 2015. 현대 국어 어말 어미의 모음 상승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향원·하영우. 2021. 구어적 문어의 구어성에 관하여: 음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42.
- 최전승. 1998. 용언 활용의 비생성적 성격과 부사형어미. 국어문학 33.
- 하영우. 2018. 한국어의 음운 감쇄 현상에 대한 연구. 언어와 정보 사회 33.
- 한영균. 2002. 모음조화의 붕괴와 모음체계 재정립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30-3.
- Ooms, J. 2014. The jsonlite Package: A Practical and Consistent Mapping Between JSON Data and R Objects. arXiv:1403.2805 [stat.CO]. <https://arxiv.org/abs/1403.2805>.

▣ 토 론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과 변이: 메신저 말뭉치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송인성(상명대)

이 연구는 구어적 문어 말뭉치를 사용하여 활용형에 나타나는 모음조화 양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모음조화 현상은 음운론, 방언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요 논의 중의 하나입니다. 앞선 연구와 다르게 구어적 문어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메신저 말뭉치를 이용한 점과 언어 내외적인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모음조화의 분석을 시도한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연구가 좋은 결과를 맺기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토론자의 소임에 임하고자 합니다.

1. 연구 자료: 메신저 말뭉치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메신저 말뭉치를 사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국어의 모음조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말뭉치를 사용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 말뭉치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의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메신저 말뭉치에 실현된 언어는 희곡, 시나리오 대본 등과 같은 구어의 특징을 지닌 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철성(2017: 14)에서 카톡 대화는 문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소통의 속성상 문어보다는 구어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구현정(2016)에서도 이를 제3의 구어성 또는 디지털 구어성이라고 하며 구어에 바탕을 둔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구어적 문어의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이 메신저 언어에는 다양한 언어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말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문장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가 많고, 음절 및 음소 단위에서 축약형과 탈락형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또한 구현정(2019, 2020)에서는 메신저 언어에 나타나는 ‘-음’ 명사형 종결문과 ‘dot’, ‘줄’ 의존명사 종결문을 분석하여, 문법의 변화 양상과 쓰임의 확장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메신저 언어에는 새롭게 나타난 어휘들이 빠르게 확산하고 유행되다가 소멸하기도 하고 기존의 문법과는 다른 새로운 문법적 특성이 실현되기도 합니다(구현정 2020: 6).

이 연구에서도 특징적으로 메신저 말뭉치를 사용하였기에 메신저 언어에 드러나는 언어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실제 구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서 메신저 언어의 구어성에 대한 확장된 논의가 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2. 분석 결과 및 논의

이 연구는 언어 내외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모음조화의 실현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대규모 말뭉치를 이용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한 장점이 있지만, 분석 결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연령’에 따른 분석 결과나 ‘지역’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 실현 비율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짧은

세대일수록 모음조화 위배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거나 특정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음조화 위배형이 빈번하게 관찰된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한 이유 및 해석이 궁금합니다.

시정곤·장성우(2017: 36)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메시지에 나타난 세대 간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20대가 60대에 비해 메시지 언어를 더 구어로 인식하고 사용한다고 제시하였고, 이정복(2011)에서는 인터넷 통신 언어의 실태와 세대 간 사용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나이 많은 누리꾼이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비규범적인 언어를 적게 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앞선 논의를 참고하여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메시지 언어의 특징, 특정 지역에서 유의미하게 발생하는 원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 기타

- 분석에 이용한 말뭉치가 대용량 말뭉치이기는 하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사적/공적, 격식/비격식)과 대화 상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지역 방언 연구에서 특정 단어를 대상으로 모음조화 실현 양상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특정 단어에서 모음조화 변이 양상이 유의미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분석 결과나 논의에 대한 실제 발화 내용을 예문으로 제시해 주면, 글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 구현정(2016), 디지털 매체 언어와 소통, 새국어생활 26-3, 국립국어원, 27-44.
구현정(2019), '-음' 명사형 종결문의 확장에 반영된 문법 의식 연구, 한글 326, 한글학회, 863-890.
구현정(2020), 의존명사 종결 구성에 반영된 잠정 문법의 양상, 한말연구 58, 한말연구학회, 5-34.
시정곤·장성우(2017), 실시간 모바일 메시지에 나타난 세대 간 언어 사용 양상 연구 -20대와 60대 이용자의 카카오톡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76, 한국어학회, 1-54.
이정복(2011), 인터넷 통신 언어 실태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 배달말 49, 배달말학회, 29-69.
임철성(2017), 디지털 소통과 국어교육, 한글 317, 한글학회 5-39.

비윤리적 문장의 의미 양상 고찰

-부사어와 서술어 구성을 중심으로-

정유남(중앙대)

<차 례 >

1. 머리말
2. 연구 자료의 성격
3. 비윤리 문장의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인간들의 언어도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문어와 구어로 소통하던 시대에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웹 언어가 일상화된 시대로 오면서 문장 길이가 짧아지고 줄임말, 두자어, 이모지 등 언어의 표현 방식이 변모하게 되었다. 언어 표현이 담아내는 의미에서도 소통의 대상이 누구인지, 소통 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언어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변화로 비윤리 의미를 지닌 표현들이 빈번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거나 AI와 대화하면서 나타나는 비윤리적 의미는 더 이상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AI 윤리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공개한 채팅봇 ‘테이(Tay)’가 일부 사용자들과의 대화에서 욕설, 인종차별, 성차별, 자극적인 정치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18시간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2021년에도 AI 챗봇 ‘이루다’가 성희롱, 혐오 발언을 한 사건으로 AI 학습 데이터의 윤리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처럼 AI 챗봇이 더 이상 비윤리적인 언어 표현을 무분별하게 학습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문제는 자연언어처리 분야뿐만 아니라 AI 학습, 판단, 선택, 추론, 결정의 과정에서도 AI 윤리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 자연언어처리를 위하여 AI 대화형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비적인 논의이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윤리적 표현을 탐지하여 이를 걸러내야 한다. 그렇다면 비윤리적인 표현은 무엇이고 그러한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문제가 되는 비윤리 표현들을 제거해 낼 수 있다. 대화형 AI의 윤리적 언어 표현을 위하여 조태린 외(2018)는 단어 단위에서 비윤리적 언어 표현의 개념과 유형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Moon & Cho & Lee(2020)에서도 온라인 뉴스 악성 댓글에서 편견, 혐오 표현, 모욕 발언을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BERT 기반 모델에서 성능이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화형 AI 학습 데이터에서 비윤리적 대화를 탐지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비윤리 문장의 의미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온라인 대화에서 비윤리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 단위의 하나로 부사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고 의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연구 자료의 성격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구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고 논의의 전제가 되는 연구 방법론 제시하고자 한다.

2.1. 연구 대상

1) 의미적 정보 단위로서 부사어와 서술어

언어의 의미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의 의미에서부터 단어, 어절, 구절, 문장, 그리고 최대 단위인 담문(text)에 이르기까지 계층적으로 의미가 결합한다. 언어의 형태적 결합과 의미적 결합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데 이는 언어 구성단위의 형태가 갖는 의미 외에 언어 외적 상황인 화맥(context)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구성단위들 사이의 언어 내적 관계인 문맥(co-text)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 구성단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언어 내적인 문맥에 의해 실현되고 부가적으로 언어 외적인 화맥에 의해서 실현된다(최호철 2022).

비윤리적 의미는 초분절음소인 억양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언어 단위로는 형태소, 단어, 구절, 문장, 담문에 걸쳐 다양하게 실현될 수도 있다.

- (1) ㄱ. 년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겠다.
- ㄴ. 난 맘충들 개싫어.
- ㄷ. 틀딱들은 나이 처먹고 혀가 마비됐나?
- ㄹ. 년 눈이 빠였냐.
- ㅁ. 머리가 장식품이다.

예문 (1ㄱ)은 언뜻 보면 윤리적인 문장이지만 상황 맥락에서 억양에 따라 비윤리적인 의미가 드러날 수도 있게 된다. (1ㄴ-ㄷ)에서는 접사 ‘개-’, ‘처-’의 형태소 단위에서도 드러난다. 단어 단위인 ‘맘충’, ‘틀딱’에서도 비윤리적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1ㄹ)의 ‘눈이 빠다’와 같이 관용구로도 실현된다. (1ㅁ)은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 ‘머리’, ‘가’, ‘장식품’, ‘이다’만으로는 비윤리적으로 규정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문장이 어떠한 상황 맥락에서 실현되는 담문에서는 비윤리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 이상의 언어 단위인 ‘구절, 문장, 담문’에 실현되는 문맥적, 화맥적 의미를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편의상 ‘구절, 문장, 담문’을 화자의 의도가 담기는 의미적 정보 단위로 보고 ‘문장’이라 명명하고 언어 내적인 문맥적 의미와 언어 외적인 화맥적 의미

를 구분하여 비윤리적 의미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사어와 서술어 구성’을 중심으로 비윤리적 의미가 실현되는 문장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부사어’의 사전적 의미는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 성분. 부사와 부사의 구실을 하는 단어, 어절, 관용어, 그리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 형용사가 어미 ‘-게’ 따위로 활용한 말, 부사성 의존 명사구 따위가 있다(우리말샘)’라고 하였다. 이처럼 부사어는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후행하는 서술어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는 한정 기능을 갖는다.¹⁾

2) 대상 자료의 구축 절차와 방법

앞서 기술한 ‘테이’나 ‘이루다’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AI의 비윤리적 대화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용인 불가한 비윤리적 표현에 대한 거름망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화형 AI 비윤리 말뭉치를 구축하고 명세함으로써 AI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대화 AI의 모델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의 증가로 대화형 AI 윤리 검증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진행되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심심이’ 컨소시엄에서 구축한 비윤리 문장과 비윤리 문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²⁾ AI 학습데이터셋으로 비윤리 문장이 45만이 구축되었고 2~3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대화세트로 구축되었다. 학습 단위로서의 대화세트는 비윤리성을 학습할 때, 문장 하나만으로는 모든 비윤리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문장이라도 앞뒤 문장의 맥락에 따라서 비윤리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3개의 문장 가운데 비윤리 문장이 1개 이상 생성되도록 구축하였다. 주관사 ‘심심이’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셋의 일부와 SNS 등을 참조하여 작업자들이 비윤리 문장을 구축하도록 하였다.³⁾

(2) ㄱ. 동남아애들 왜 자꾸 길거리에 보이냐 더럽게.

ㄴ. 맨날 아이돌만 쳐다보니까 지잡대도 떨어지지.

ㄷ. 너 같은 놈은 맞아야 정신차리지.

ㄹ. 동성애는 나라를 망칩니다.

ㅁ. 이거 완전 썸비니 아니야?

ㅂ. 그 밑에 개돼지들은 저렇게 해도 말은 오질나게 잘 듣더라.

1) ‘부사’는 단어의 갈래로 인식되며 ‘부사어’는 ‘부사’를 포함하여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기능적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의미에 관여하는 성분으로써 ‘부사어’를 살피는 데에 초점이 있으므로 ‘부사’를 포함하여 ‘부사어’라 지칭한다. ‘서술어’도 품사로서의 ‘동사’와 ‘형용사’를 포괄하며 일부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극형이다’, ‘노답이다’ 등도 의미적으로 하나의 ‘서술어’로 보고 설명하고자 한다.

2) 데이터는 2021 NI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주관사 ‘심심이’ 컨소시엄에서 구축한 것이다. 비윤리 문장, 문형, 어휘 속성으로 명세화되며 구축 작업에는 필자가 속해 있는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의 연구팀이 함께 참여하였다. 사업의 데이터 명세와 품질기준서 내용을 일부 가져온 것임을 밝힌다.

3) 예문은 심심이 컨소시엄 데이터의 일부이며 비표준어, 띄어쓰기, 맞춤법 등은 수정하지 않고 원 자료 그대로를 제시하였다. 이는 발화자의 의도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웹 언어, 비윤리 문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목적에 따른 데이터 정제 및 가공에 관하여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예문 (2ㄱ)은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 단위 ‘동남아애들’, ‘길거리’, ‘왜’, ‘자꾸’, ‘보이다’, ‘더럽게’는 비윤리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표현은 없으나 문장의 의미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의 의미를 드러낸다. (2ㄴ)은 ‘지잡대’라는 표현 자체에서 ‘비하’ 또는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2ㄷ)은 ‘선정’의 비윤리적 의미를 나타내며 (2ㄹ)도 ‘혐오’의 비윤리적 의미를 드러낸다. (2ㅁ)은 직접적인 ‘욕설’이 두자어로 드러난 경우로 명백한 욕설은 비윤리 문장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2ㄴ)과 같이 ‘개돼지’가 비유적으로 나타난 경우도 비윤리적 의미를 실현한다고 보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웹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줄임말(폐미, 지잡대), 신조어(틀딱, 맘충, 군무새)가 나타나는데 비윤리 문장의 어휘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전에 미등재어 ‘오질나게’나 비표준어인 ‘처다보니까’와 같은 표현의 실현도 비윤리 문장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자료 구축과 분석에서 비표준어, 맞춤법, 띄어쓰기는 작업자가 구축한 원문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모지(ㅠㅠ, ;P)와 두자어(ㅅㅂ, 스기) 등은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화세트로 구축된 자료 451,110개 중에서 비윤리 문장에 해당하는 250,307을 대상으로 하여 ‘부사어 + 서술어’ 구성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⁴⁾ 본 연구가 ‘부사어 + 서술어’ 구성에 주목한 이유는 첫째, 비윤리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부사어와 서술어의 구성이 하나의 의미적 정보 단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어휘가 아닌 ‘부사어 + 서술어’ 구성에서 나타나는 비윤리적 의미는 자칫하면 기계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어 문장을 구성하는 주요한 항목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요구되는데 비윤리 문장에서는 ‘부사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을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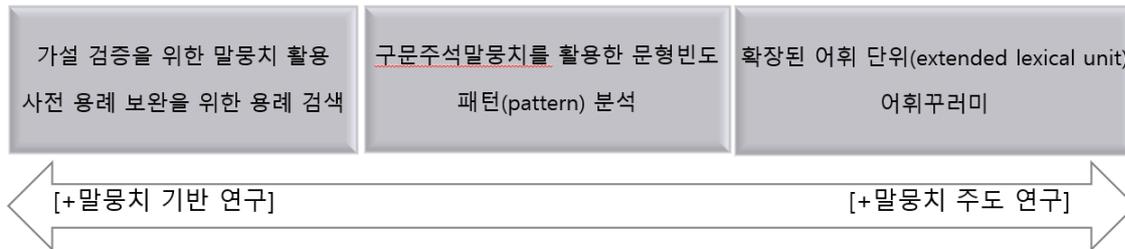
2.2. 연구 방법

이 절에서는 본 논의의 전제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문장 의미 생성과 해석과 관련하여 구조주의, 생성주의, 인지주의 및 사건 의미론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있어 왔다. 여기에서는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방법론에서 접근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도 기존의 이론적 배경이 녹아들어 있다. 본 연구 대상과 목적에 맞는 방법론에 한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화형 AI 학습 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비윤리 문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말뭉치 언어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윤리 문장의 의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비윤리 문장의 의미 양상 분석에는 분포의미론적 접근 방법에서 착안하여 의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1) 말뭉치 언어학

4) 2021 NIA 텍스트 윤리 검증 데이터셋은 AI Hub에 공개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비윤리 문장 구축 데이터 중에서 연구자가 주목하려는 ‘부사어 + 서술어’ 구성을 엑셀로 정리하여 일일이 검토한 것이다. AI Hub에 공개될 ‘심심이’ 컨소시엄에서 구축한 데이터셋은 문장(sentence), 대화세트(talkset), 문형(ethic-frames), 어휘단위(lexical-units)로 명세화되는데 문형과 어휘단위는 명사형(N)과 동사형(V)으로만 명세화되어 부사어는 주요 데이터 명세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말뭉치를 한국어 연구에 이용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이다. 초창기에는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필요로 인해 말뭉치를 바탕으로 정보를 추출하려는 연구가 많았다. 공학 연구자들이 형태소 분석기, 맞춤법 검사기, 용례 검색기, 기계 번역기 등 개발을 목적으로 말뭉치를 이용했다. 이후 한국어 교육을 위한 말뭉치 기반 연구나 사전 편찬과 같은 응용 국어학 분야에 관련되어 말뭉치가 활용되었다.⁵⁾



[그림 1] 말뭉치 기반 연구와 말뭉치 주도 연구: 연구방법론의 경향성(남길임 2011:78)

[그림1]에서 보듯이, 말뭉치 기반 연구는 연구자의 정성적 연구에 말뭉치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말뭉치 주도 연구는 말뭉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말뭉치에 근거하여 분포와 빈도를 포함하여 언어수행의 결과를 기술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방법이다.⁶⁾ 남길임(2011)에서는 말뭉치 주도 연구(corpus-driven research)에서 논의되는 의미 단위의 기술에 관해 설명하면서 패턴(pattern), 확장된 어휘 단위(extended lexical unit), n-gram을 활용한 어휘 꾸러미(lexical bundles), 의미적 운율(semantic prosody) 등의 연구 대상을 언급하였다. 말뭉치 주도 연구의 특성으로는 ①텍스트 그대로의 원칙(plain text policy) ②빈도와 분포의 중요성 ③ 반범주성 ④사용역과 장르 중심의 기술을 들어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 기반 접근과 말뭉치 주도 접근의 특성을 절충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비윤리 문장의 의미에 관여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실제 말뭉치 구축 사례에서 ‘부사어’와 ‘서술어’의 구성이 나타내는 의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⁷⁾ 이러한 절충적 접근 방식은 한국어 비윤리 문장에 적용하기에 타당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이론 문법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서술어’를 들었고 필수 성분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부사어’는 서술어를 한정하거나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여 수의 성분으로 두었다. 이것은 문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문장이 하나의 의미 정보를 나타낸다고 보는 의미 화용적 관점에서는 부사어의 정보성이 중요하다.⁸⁾ 의미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부사어’가 ‘서술어’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

5) 신서인(2019)에서는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및 어휘 연구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말뭉치 주도적인 한국어 문형 및 어휘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6) 말뭉치 주도 연구는 영어 말뭉치를 중심으로 패턴(pattern), 어휘꾸러미(lexical bundle), 의미적 운율(semantic prosody)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구 단위의 분포와 빈도를 밝힘으로써 인간 의사소통의 의미 단위를 세밀하게 나타내는 데에 특징적이다. 이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과 한국어 적용 예시는 남길임(2011)을 참고하길 바란다.

7) Francis, et al.(1996:1998), Hunston & Francis(2000) 등의 패턴 분석은 말뭉치 용례를 기반으로 동사, 형용사의 패턴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말뭉치 주도 연구의 특성을 가지나 기존 문법 범주 품사 체계를 인정하고 그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일부 말뭉치 기반 연구의 특성도 띤다(남길임 2011:78).

8) 김태인(2019)에서는 부사어가 정보 구조 측면에서 유의미하며 부사어의 정보 지위를 초점, 화제, 대조로 설명

면서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말뭉치 예시를 들어 비유리 문장의 의미 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2) 분포의미론

본 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 분포의미론(distribution semantics)이 있다. 분포의미론은 말뭉치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적용되어 자연언어처리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는 이론이다. 분포 가설의 핵심은 표현된 문맥으로부터 의미 정보를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미’는 곧 ‘맥락 내에서의 기능’이며 특정한 맥락과 언어 형식의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는 경험적 자료로써 설명된다(Firth 1957, 최준·남길임 2021:49 재인용). 기본 가정은 어휘 의미는 그것이 표현된 문맥 정보로부터 도출되며 문맥 의존성(context dependency)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 체계는 미국 구조주의(Harris, 1954), 영국 사전학(Firth 1951:1957)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재는 단어임베딩과 같은 언어 모델로 실현되어 의미를 벡터값으로 표상할 수 있게 발전하였다(Emerson, 2020).⁹⁾

분포의미론은 딥러닝 단어임베딩 방법인 워드투벡(Word2Vec)이나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방법론은 자연언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에 유용하며 단어를 2차원 공간에 표시함으로써 개념적 거리가 가깝고 먼 정도를 표현하였는데, 어휘 의미의 표현은 우리의 머릿속의 개념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Bowman 2016). 이처럼 단어의 의미가 포함된 문장, 문맥을 포함한 말뭉치에서 분포를 고려하여 공간적으로 표현할 때 이를 ‘임베딩(embedding)’ 또는 ‘분포 표상(distributed representation)’이라고 하며 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분포의미론(distributional semantics)’에 기반한 연구라 한다(조은경 2019:422-423). 분포의미론은 의미 변화(semantic change), 다의성(polysemy), 합성성(composition), 그리고 의미와 문법의 접점(grammar-semantics interface) 과 관련성이 깊고 전산언어학 및 인지과학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Bolea 2020). 분포의미론을 기반으로 하는 단어임베딩 알고리즘은 Mikolov et al.(2013)이 제안하였다. 최신 연구에서는 같은 표기라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단어임베딩을 하는 문맥적 임베딩(contextualized embeddings, Peters et al. 2018; Devlin et al. 2019)이나 말뭉치를 비지도 방식으로 학습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정리하면 분포의미론의 핵심은 언어 텍스트에서 특정 어휘와 공기하는 문맥 정보를 통하여 어휘, 통사, 의미, 화용 정보가 모두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포의미론적 접근 방법에서 어휘 의미는 서로 연쇄된 단어들과의 의미와 긴밀하게 관련된다고 본다. 연쇄된 단어들과의 의미 관계와 이에 대한 정보적 해석은 구조주의 접근의 ‘결합적 의미 관계’와도 관련성이 깊다. 특정 단어들이 연쇄하거나 공기하는 결합 관계에 주목하면 ‘결합적 의미 관계’로 본다.¹⁰⁾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의미적으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연어나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구문을 포함하는데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의미적으로 일련

하며 부사어와 ‘-은/는’ 결합형을 통해 부사어의 정보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9) Firth(1957)에서 언급한 ‘단어의 뜻을 알려면 같이 쓰인 단어를 알면 된다’는 주장은 실제 분포의미론이나 단어임베딩 같은 언어 모델의 근간이 되었다(조은경 2019:227).

10) 이동혁(2011)에서는 ‘결합적 어휘 의미관계’가 독립적으로 저장되는 단위임을 밝히고 성립 조건과 유형을 제시하였다. ‘언어(collocation)’, ‘구문(construction)’ 등의 예를 들면서 결합적 어휘 의미관계가 성립하려면 어휘 간에는 의미적 유사성이 있다고 하였다.

의 결합적 의미 관계를 보이는 구조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파악된다. 이렇듯 둘 이상의 단어의 의미적 연관성이 문맥 정보에 의하여 그 의미가 결정된다고 하면 문맥 기반의 분포의미론적 접근이 된다. 분포의미론에서는 말뭉치를 통해 계량화하고 시각화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데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모델에 적합하다. 특정 문맥에서 공기하여 나타나는 단어들의 연쇄는 분포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특정한 사용역에서 자주 사용된다면 정보 단위로서 긴밀한 의미 단위로 볼 수 있다. 특정 단어나 구문의 의미는 문맥으로부터 추출된 의미로 언어 내적 요인과 언어 외적 요인이 모두 관여할 수 있다. 언어 내적 요인은 문맥적 의미 환경에 한해 의미를 분석하고 언어 외적 요인은 문맥에서 실현되지 않는 외부 상황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파악할 것이다.¹¹⁾ 전자를 문맥적 의미 후자를 화맥적 의미로 구분하며 의미 실현 양상을 살필 것이다. 의미 실현 양상에 따른 의미 해석은 말뭉치 자료를 토대로 귀납적(bottom-up)으로 언어 표현의 의미를 도출해 낼 것이다.

3. 비윤리 문장의 의미

이 절에서는 비윤리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비윤리 문장의 의미가 문맥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와 화맥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구분하기로 한다.¹²⁾ 대화형 AI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것이므로 문장 자체로는 비윤리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지만 상황 맥락에서는 해당 문장이 비윤리적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맥적 의미에서 구성 요소의 어휘 의미로 비윤리적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와 특정 구성 요소의 결합으로 비윤리적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를 구분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부사어’와 ‘서술어’의 어휘 의미 속성에서 비윤리적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부사어의 의미 속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서술어의 의미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따져볼 것이다. 이에 비해서 각각의 어휘 의미로는 비윤리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지만 ‘부사어’와 ‘서술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이 비윤리적 의미를 생성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화맥적인 의미 해석이 요구되는 비윤리 문장의 의미에 대해 어떠한 상황 맥락에서 비윤리 의미가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비윤리 문장의 문맥적 의미

1) ‘부사어’의 의미 속성과 비윤리 문장

부사어가 문장의 의미 해석에서 중요한 정보를 지닌다는 비교적 최근 연구로는 김태인(2016), 박재희(2016), 김푸른솔(2016), 김태인(2019), 김혜영(2019) 등에서 논의되어 왔다. 부사어가 통사 구조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며 후행 요소를 수식하는 기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의미 구성에 중요한 정보적 지위를 갖는 의미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11) 도재학(2018:136-140)에서 발화 문장의 의미 유형을 ①언표 문장이 화맥적으로 드러난 경우, ②언표 문장의 구성 요소의 화맥적인 비유적 의미가 문장 의미로 사상되는 경우, ③비언표적 발화 문장의 의미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해석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문장의 의미를 실현하는 화맥적 변인을 화시, 정보구조, 화자의 태도, 청자의 태도, 발화 장면,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으로 상세히 구분하였다.

12) 문맥과 화맥의 구분은 최호철(2011), 김혜령(2015), 도재학(2018)에서 논의된 바 있다.

박재희(2016)에서는 부사어가 통사부의 단위인 문장, 동사구,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부의 단위인 명제(proposition), 동사구라는 통사 단위의 의미 해석 단위인 사건성(eventuality), 용언이라는 통사 단위의 의미 해석 단위에 해당되는 어휘(lexeme)를 각각 수식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3) 부사어가 의미 단위 해석에 관여하는 실현 양상(2016:23-24)

- 가. 부사어+명제 → 명제에 대한 화자/청자의 심리·판단 : 분명히 [범인이 현장에 있다.]
- 나. 부사어+사건성 → 사건성의 변환 : 냉장고에 참치를 신선하게 보관했어.
- 다. 부사어+용언 → 앞서 가던 철수가 갑자기 느리게 뛰기 시작했다.

(4) ㄱ. 화연이가 시집을 잘 갔다.

ㄴ. ?화연이가 시집을 갔다.

예문 김푸른솔(2016:17)

김푸른솔(2016)에서는 부사어의 정보성 실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예문 (4ㄴ)와 같이 문장 자체는 성립하지만 전달하려는 의미가 달라지며 ‘잘’은 서술 대상에 관한 서술 내용으로서의 초점(focus)이나 관계적 신정보(relational new information)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다. 특정 명제가 이미 화제로서 화자와 청자 간에 공유되는 사실이라면 그리하여 그 화제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정보성’을 지닌다면 부사어의 생략이 어렵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사어가 문장의 의미 해석에 유효한 정보를 지니는 의미기능을 지닌다고 볼 것이다. 비윤리 문장의 의미 해석에 부사어의 의미 속성이 관여하는 예들을 통해 비윤리 문장의 의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5) ㄱ. 당연하지 땅딸막하게 태어났으면 헬스해도 땅딸보임.

ㄴ. 어디서 인성질하면서 뻥뻥하게 시청자 협박을 하나.

ㄷ. 그렇게 박수칠때 떠나야지 꾸역꾸역 버티는 거 너무 추한데.

ㄹ. 작작 좀 해라 무슨 조선시대냐.

ㅁ. 아들바들 기어 들어오는 거 너무 개갈아.

ㅂ. 심지어 코로난데도 마스크 쳐 내리고 담배 뻑뻑 피워댐.

예문 (5)는 구축된 비윤리 문장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5ㄱ)-(5ㄴ)과 같이 형용사 ‘땅딸막하다’, ‘뻥뻥하다’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부사어는 형용사의 어휘 의미에서 비윤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¹³⁾ (5ㄷ)-(5ㄴ)은 양태 부사(manner adverbs)로 문장에서 서술어가 드러내는 상태 또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¹⁴⁾ 이러한 양태 부사는 비윤리 문장의 의미 구성에 역할

13) <우리말샘> 땅딸막하다: 키가 작고 몸집이 옆으로 딱 바라지다, 뻥뻥하다: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없이 태연하다.

14) 임채훈(2008:135)에서는 ‘방식(manner)’의 의미역할과 문장 의미 구성에 대해 살폈는데 방식(manner)은 1) 행위에 대한 정상적 측면의 부연으로 서술어가 표상하는 행위의 모습을 표현하며 2) 행위에 대한 명세적 측면의 부연으로 서술어가 표상하는 행위보다 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식(manner)의 의미 실현 성분으로 방식(manner) 부사가 대표적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에서 좀 더 일반적인 양태 부사(manner adverb)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을 더하며 문장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5ㄷ)은 ‘꾸역꾸역’ 버티는 행위, (5ㄹ)은 ‘작작’이 쓰여 적당하게 하라는 행위, (5ㅁ)은 ‘아득바득’이 쓰여 고집을 부리며 애를 쓰는 행위, (5ㄴ)은 ‘뻑뻑’이 쓰여 담배를 세계 빠는 행위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양태 부사어는 서술성을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¹⁵⁾ 이는 동사 ‘꾸역꾸역하다’, ‘작작하다’, ‘아득바득하다’, ‘뻑뻑대다’처럼 실현될 수 있다. 서술성을 지니는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 문장에서 서술어가 생략되어도 비유리 문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6) ㄱ. 역시 중국은… 절레절레
 ㄴ. 시대에 못 따라가는 틀니 딱딱
 ㄷ. 야 그럼 나랑 띠동갑이 몇바퀴나 신내 풀풀

예문 (6)은 서술어가 없이 실현된 문장이지만 양태 부사의 서술성이 반영되어 ‘절레절레하다’, ‘딱딱거리다’, ‘풀풀 나다’처럼 해석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부사어’의 의미 속성이 비유리 의미를 드러내며 ‘양태 부사’는 서술어가 없이도 비유리 의미를 실현하는 특성이 있다.

2) ‘서술어’의 의미 속성과 비유리 문장

서술어는 문장 구성에서 통사적으로 필수적 성분이자 의미적으로도 문장 의미의 핵을 담당한다. 비유리 문장에서 서술어의 특성은 ‘처-’, ‘개-’와 같은 접사가 실현되거나 ‘쓸어버리다’, ‘따라가다’와 같은 합성동사, ‘-아/어 버리다’, ‘-을까 보다’와 같은 보조동사 구성으로 실현된다. ‘부사어’와 ‘서술어’가 함께 나타나는 구성에서 ‘서술어’의 의미 속성으로 인해 비유리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 (7) ㄱ. 캣망구들 나이 좀 곱게 쳐먹지.
 ㄴ. 가난한 거지들 좀 타면 불질러서 씩다 죽이게.
 ㄷ. 졸업하면 씩다 한강 가서 빠져죽으면 됨.
 ㄹ. 얼굴도 팍 삭아서 요새는 요정 소리 못 듣고 말이야.
 ㅁ. 한 번 군에서 다시 엎어버려서, 저 쪽을 씩다 쓸어버려야 한다.
 ㅂ. 근데 이게 왜이렇게 인기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또 너도나도 우루루 따라가는 듯하기도하고.
 ㅅ. 그냥 콧 머리를 들이 받아버릴까보다.
 ㅇ. 뭔가 업소녀같이 엄청 저렴해 보였다.
 ㅈ. 지고 있는데, 진짜 쥘패고 싶게 생겼네.

예문 (7)을 보면 부사어 ‘곱게’, ‘씩’, ‘다’, ‘팍’, ‘우루루’, ‘콧’, ‘엄청’, ‘진짜’에서는 비유리적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예시에서는 서술어의 의미 속성에 기인하여 비유리 의

15) 양태 부사(상징 부사)의 서술성에 관해서는 목정수·연재훈(2000)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다.

미가 나타난다. (7ㄱ)과 같이 ‘마구’, ‘많이’의 의미를 더하는 접사 ‘처-’가 붙은 ‘처먹다’의 서술어에서 비윤리성이 드러난다. (7ㄴ)과 (7ㄷ)에서는 부사어 ‘짜’와 ‘다’가 함께 나타나 ‘전부’, ‘모조리’의 의미를 드러낸다.¹⁶⁾ 부사어 ‘짜다’에는 비윤리성을 지니지 않지만 서술어 ‘죽이다’, ‘빠져 죽다’를 강조하게 된다. 비윤리 문장에 관여하는 서술어는 [제거], [폭력]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폭력]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는 ‘죽이다’, ‘쥐어패다’, ‘들어받다’와 같이 나타나며 [제거]의 의미는 ‘쓸어 버리다’, ‘빠져 죽다’와 같이 드러난다. 또한 (7ㅇ)과 (7ㅈ)에서와 같이 ‘저렴하다’, ‘생기다’ 등과 같이 [형상]의 의미가 나타나는 서술어도 나타나는데 부사어와 결합하여 외모에 관한 차별이나 비난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처럼 서술어의 의미 속성에 기인하여 부사어와 함께 결합하여 비윤리적 의미가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

3) ‘부사어 + 서술어’ 구성과 결합 관계에 따른 비윤리 문장

본 논의에서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구성이 비윤리 문장에서 정보적 단위로서 비윤리 문장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본다. ‘부사어 + 서술어’가 하나의 의미적 정보 단위로서 비윤리성을 드러내는데 문맥에서 선행어와 후행어의 결합 관계에 따라서 그 의미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관용구’처럼 ‘부사어+서술어’ 구성이 하나의 비윤리 의미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문장에서 다른 성분인 주어, 목적어, 또 다른 부사어 등과 결합하여 비윤리 문장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 (8) ㄱ. 말하는거 봤는데, 멍청함이 줄줄 흘러나오더라.
 ㄴ. 내 말이. 갠 외모에서부터 빈티가 줄줄 나잖아.
 ㄷ. 월급 짚끔 받아서 맨날 반복되는 일만 하니까.
 ㄹ. 국립가사 들어보면 진짜 한국 래퍼들은 뇌가 텅텅 빈 것 같어.
 ㄴ. 진짜 저 방송은 조개 냄새 풀풀 나냐.
 ㅁ. 인기 좀 있으면 이야기를 질질 끌더라.
 ㅂ. 허세만 잔뜩 들어갔잖아.
 ㅅ. 그러면서 돈독은 또 잔뜩 올라 있지.
 ㅈ. 벌써부터 애가 이 모양이니 한남 유충 티 팍팍 내네.
 ㅊ. 처음엔 뻑뻑거리다가 나중엔 살려달라고 설설 기겠지?

(8)의 예문에서는 ‘부사어 + 서술어’의 구성이 하나의 의미적 정보 단위로 쓰여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결합하며 비윤리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ㄱ)의 ‘줄줄 흘러나오다’, (8ㄴ)의 ‘줄줄 나다’는 결합 관계에 있는 선행 명사 ‘멍청함’과 ‘빈티’에서 비윤리적 의미가 실현되는 것을

16) 비윤리 문장에서는 ‘짜’, ‘다’가 홀로 나타나기보다는 ‘짜다’의 조합으로 띄어쓰기를 무시한 채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단음절어 부사어에서 좀 더 강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조합하여 사용하는데 구축 작업자의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7) 서술어의 어휘 속성은 ‘먹다’, ‘자다’, ‘팔다’ 등과 같이 기본 의미와는 달리 비윤리 문장에서는 [선정]과 관련된 의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가해/피해’를 포함한 [폭력]과 관련된 의미, ‘외모/신체’에 관한 [형상]과 관련된 어휘가 고빈도로 나타났다. 어휘 속성에 관련한 논의는 다른 지면을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알 수 있다. (8ㄷ)의 ‘찹쌀 받다’와 (8ㄹ)의 ‘텅텅 비다’의 경우에는 선행 명사가 ‘월급’과 ‘뇌’로 실현되었는데 각각은 그 자체로는 비유리적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다. ‘(월급)-[찹쌀 받다]’와 ‘(뇌)-[텅텅 비다]’의 결합 관계에 의하여 비유리적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리적 의미의 해석은 언어공동체가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3.2절의 화맥적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¹⁸⁾ (8ㄱ)의 ‘풀풀 나다’, (8ㄴ)의 ‘질질 끌다’의 경우는 ‘부사어 + 서술어’ 구성이 의미적으로 관련성을 맺는 의미 원소가 공유된다.¹⁹⁾ 다시 말해, (8ㄱ)의 ‘풀풀 나다’에는 ‘말을 수 있는 냄새 따위가 심하게 자꾸 나는 대상’이 요구된다. 이에 ‘(조개) 냄새’가 결합함으로써 의미적 관련성이 공유된다. (8ㄴ)의 ‘질질 끌다’에서도 ‘이야기 따위를 지루하게 자꾸 늘어뜨리며 시간을 끄는 대상’이 의미적으로 요구되며 ‘이야기’가 실현됨으로써 의미적 관련성을 맺게 된다. 이러한 패턴을 통한 해석은 분포의미론적 접근으로 유용하게 적용된다. 실제로 ‘나다’, ‘끌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기본 동사 ‘먹다’, ‘자다’, ‘팔다’ 등은 선행어가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다양하게 실현된다. 단어의 공기어 정보를 활용하여 다의어 의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어휘 의미에 초점을 둔 방법이며 문맥에서 지니는 암시적 의미(connotation)를 포착하여 ‘의미 운율(semantic prosody)’을 파악하려는 것은 문장 의미에 초점을 둔 방법이라 할 수 있다.²⁰⁾ 본 연구에서는 문장 의미에 초점을 두고 ‘부사어 + 서술어’ 구성이 가지는 의미 정보와 결합하는 성분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정보 단위로서 ‘부사어 + 서술어’ 구성이 결합하는 성분에 의미적 관련성(의미적 제약 정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맥을 기반으로 의미를 추출하는 분포의미론이 활용될 수 있다. (8ㄷ)의 ‘잔뜩 들어가다’, (8ㄹ)의 ‘잔뜩 올라 있다’의 경우도 ‘잔뜩’은 ‘가득’, ‘한껏’의 의미이고 ‘들어가다’, ‘오르다’도 독립적인 의미이다.²¹⁾ 비유리 문장에서는 ‘잔뜩 들어가다’, ‘잔뜩 올라 있다’가 선행 명사로 ‘허세’, ‘돈독’과 같이 ‘부정적인 기세나 경향’을 나타내는 의미적 연관어와 결합하면 비유리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8ㄱ)-(8ㄴ)과 다른 것은 ‘허세’, ‘돈독’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가 직접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충실한) 이미지’, ‘힘’과 같은 긍정적이거나 독립적인 의미의 어휘도 나타난다. 다시 말해, 어휘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 관계에서 의미적 관련성을 공유하면서 비유리 문장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부사어 + 서술어 구성’은 명시적으로 비유리 의미가 드러나지 않지만 문맥에서 선행어와 결합 관계에 따라 비유리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부사어 + 서술어’의 구성이 의미적으로 선행어와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 가령, (냄새) - [풀풀 나다], (머리/뇌) - [텅텅 비다], (부정적 기세) - [잔뜩 들어가다]처럼 일정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미적 관련성 정보를 데이터 구축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8) 비유리 문장의 의미 해석은 문맥적 환경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어휘 속성이 관여하고 이차적으로는 이러한 어휘가 결합하는 구성과 그 구성이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결합하는 관계로 발생한다. 다만, 비유리 문장이라는 의미 해석에 관여하는 요인으로는 언어 내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언어공동체가 가지는 가치 판단과도 연결 지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내적으로 분석 가능한 언어 단위가 가지는 비유리적 의미를 문맥적 의미로 구분하였고 언어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즉 언어 단위가 가지는 의미가 아닌 상황 맥락에서 발생하는 비유리적 의미는 화맥적 환경으로 비유리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19) 이동혁(2011)에서는 의미 원소를 공유하는 구성요소의 단어가 같은 의미 관계에 대해 결합적 의미관계로 보고 대등, 종속으로 구분하고 대등으로는 계열적 어휘 의미관계(사과-배, 주머니 받거니)와 종속으로 의미역 조합 패턴(대상-행위/밥-먹다), 틀 구조 조합 패턴(상거래-물품/팔다-표)을 제시하였다.

20) 의미 운율(semantic prosody) 연구에 대해서는 김일환(2021)을 참고하기 바란다.

21) 예) ㄱ. 가정에 충실한 이미지 잔뜩 팔아먹었어.

ㄴ. 지들이 뭐라도 된 줄 알고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가 있음.

3.2. 비윤리 문장의 화맥적 의미

이 절에서는 비윤리 문장의 화맥적 의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화형 AI 학습데이터는 2~3개의 대화쌍으로 구축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AI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문장을 넘어서 담문(text)에서의 주제, 사용역, 상황 맥락까지를 파악하여 올바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AI 학습데이터 구축에서도 발화의 의미 차원에서 의미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발화는 ‘언어 단위 전체를 총괄하여 화맥이 결부된 언어 표현’을 의미하며 언어 단위에 따라 ‘단어 발화, 구절 발화, 문장 발화, 단락 발화, 담문 발화’로 규정지을 수 있다. 발화의 의미 해석에 고려되는 의미로는 언어와 언어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미인 ‘결속적 의미’, 언어와 언어 외적 세계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화행적 의미’, 언표의 독자적 의미와 결속적 의미로 ‘언표의 의미’, 언표의 의미와 화행적 의미로 ‘발화의 의미’로 구분하였다(최호철 2018:8-9).

화맥적 의미는 언어 표현과 발화 상황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로 대화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 화청자의 태도, 관계, 이를 둘러싼 상황 맥락, 언어공동체의 공통된 배경지식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나타난다.²²⁾ 문장 자체만 보았을 때는 비윤리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겠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에서는 비윤리적인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비윤리성은 언어공동체에서 인간 행위의 규범, 선악, 가치 판단 등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9) ㄱ. 오 쓰레기 잘 치웠네.

ㄴ. 이제는 훨씬 적극적이어야 겨우 만날까 말까임.

ㄷ. 그래도 종일 꽃밭에서 사니 좋겠네.

ㄹ.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그랬나보다 하고 그냥 순응하고 사세요.

ㅁ. 동네에서 큰 건물은 다 교회야.

ㅂ. 한국사 점수 도대체 몇 점인지 성적표 공개 안 하나?

위의 예문 (9)는 문맥적으로 해석되는 문장만으로는 비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예문 (9)의 비윤리적 의미는 언어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지식을 고려한 화맥적 의미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지식은 언어공동체를 뛰어넘어 언어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상식(common sense)이나 규범(norm)일 수도 있고 특정 언어사회가 가지는 개별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은 시대를 초월해 지속되기도 하며 시대적 흐름과 상황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대화형 AI 학습 데이터에도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할 것이다.

예문 (9ㄱ)에서 ‘쓰레기’는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리는 물건’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사상적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하여 쓰지 못할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우리말샘)’을 나타낸다. 공기

22) 최호철(2011:2018)에서는 발화 의미 분석을 위하여 ‘축자, 결속, 태도, 관계, 장면, 화시’의 형식화를 통해 담문 발화를 분석하였고 도재학(2018:211)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되 구성 요소의 화맥적인 비유적 의미와 정보구조적 특성(주제, 초점),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을 제시하였다.

하는 단어가 ‘인간’ 관련어가 나온다면 예측할 수 있지만 웹 언어의 특성상 생략이 빈번하기 때문에 (9ㄱ)의 문장만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미로 실현되는지 알 수가 없다. ‘부사어 + 서술어’ 구성도 ‘잘 치우다’가 나타나므로 이와 결합하는 선행어가 ‘대상’인지 ‘인간’인지 판별할 근거가 없다. 이러한 문장이 비윤리 의미로 해석되기에는 선행행 맥락의 의미를 파악하여 비윤리 의미로 해석되는 화맥적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9ㄴ)과 (9ㄷ)은 언어공동체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비윤리 의미로 해석되게 되는 예문이다. 언어사회에서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편견, 혐오, 차별 담론이 이루어지는 주제에 대하여 비윤리 의미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남녀 차별에 관한 내용이 된다. 예문 (9ㄴ)²³⁾은 ‘훨씬 적극적이다’, ‘겨우 만날까 말까이다’는 부사어 ‘훨씬’과 ‘겨우’가 대립적으로 나타나 의미 해석이 극대화되고 있다. (9ㄷ)에서 ‘종일 꽃밭에서 살다’가 여성 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으므로 비윤리 의미로 해석된다. (9ㄹ)의 예는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와 ‘그냥 순응하고 사세요’로 나타나는데 ‘불교’에서 인과응보의 배경지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문장이 나타나기 이전의 발화 상황이 차별적 의미를 지니므로 이에 대하여 (9ㄹ)이 비윤리적인 문장으로 해석된다.²⁴⁾ 우리나라의 언어사회에는 ‘불교’나 ‘유교’와 관련된 표현이 깃들여 있고 개화기 이후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표현이 영향을 주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이슬람’ 종교 관련된 비윤리적 표현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에 관한 인식도 시대와 상황 맥락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예문 (9ㅁ)에서는 ‘큰 건물이 다 교회야’가 실현되어 비윤리적 의미로 해석된다.²⁵⁾ 종교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큰 건물을 세우며 부를 축적하고 세금도 내지 않는 등의 일종의 풍자적인 해석이 들어있다. (9ㄴ)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정치인으로 국민 정서를 잘 파악하고 역사의식에 부합하는 말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발언을 통해 이에 대하여 비꼬는 비윤리 문장이 드러났다.

이처럼 (9)와 같은 비윤리 문장의 의미는 문맥적 의미 정보만으로는 비윤리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화맥적 의미 정보까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앞뒤 대화의 상황 맥락, 시대나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비윤리적 의미로 해석되는데 AI 학습 데이터가 이러한 비윤리성을 제대로 탐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화맥적 변인을 고려하여 정보를 기술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인간과 AI가 윤리적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으며 AI 학습 데이터로도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인간과 AI가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의 한 방편으로 대화형 AI 학습 데이터 가운데 비윤리 문장의 의미 양상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AI가

23) 대화형 AI 학습 말뭉치로 구축된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남자는 몰라도 여자들은 30대 지나면 퇴물이지. 20대 때는 남자한테 눈만 마주쳐줘도 될 수 있었겠지만. 30대는 남자도 이성이 생기거든. 이제는 훨씬 적극적이어야 겨우 만날까 말까임. 그리고 결혼은 남자가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거고. 연애는 여자가 선택해도 결혼은 남자가 선택하는 거지. 여자가 안 맞춰주면 안 만나버리면 그만인 거거든.

24) 대화 구축 예시 : 저 사람은 얼굴은 잘생겼는데 장애가 있어서 이생망 불쌍.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순응하고 사세요.

25) 대화 구축 예시 : 교회 부지 팔고 차액이 2000억, 근데 세금 한 푼 안내. 복부인의 스케일은 이런 거지. 동네에서 큰 건물은 다 교회야.

윤리적으로 올바른 텍스트만을 오롯이 학습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간과 AI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소통하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의미를 지니는 언어 표현을 탐지하여 제거하는 필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비윤리적 표현을 제거하는 필터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 연구로 비윤리 문장의 의미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심심이 컨소시엄’에서 구축한 대화형 AI 학습 데이터로부터 ‘부사어 + 서술어’ 구성이 의미적 정보 단위로서 작용하여 비윤리적 의미를 지님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비윤리적 의미는 구성 요소의 어휘 속성에서 비롯되거나 구성의 합에서 도출되는 경우, 나아가 문맥을 넘어서 화맥적 의미에서 비롯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비윤리 문장에서 ‘부사어 + 서술어’ 구성이 비윤리적 표현을 탐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라벨링해야 하는지 비윤리 표현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언어공학 분야에서 비윤리 문장 의미의 문맥, 화맥 정보가 AI 모델 개발에 얼마만큼 유용한지까지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비윤리적 의미가 대화형 AI 학습 데이터 문장들에서 어떠한 구조로 실현되는지, 부사어와 서술어의 구성을 중심으로 의미 정보를 고찰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예비적 고찰은 실제로 비윤리적인 표현을 탐지하는 데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고 다양한 대화, 텍스트에서 윤리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AI 개발과 관련된 산업계에서도 비윤리성이 나타나는 언어 표현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올바르게 자연스러운 AI 대화형 챗봇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일환(2021), 「한국어 명사의 의미운율 연구: 의미운율의 변화를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39, 143-170쪽.
- 김태인(2016), 「문장의 의미 범주와 부사어 분류」, 『한국어 의미학』 51, 57-83쪽.
- 김태인(2019), 「‘-은/는’이 결합하는 일부 한국어 부사어의 정보 구조에 대하여」, 『한글』 80-3, 465-500쪽.
- 김푸른솔(2016), 「중간구문에서 요구되는 부사어」, 『개신어문학회』 제41집, 5-34쪽.
- 도재학(2018), 『국어의 문장 의미와 어휘 의미』, 역락.
- 박다솔·차정원(2018), 「퍼지 범주 표현과 준지도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트위터 혐오 발언 문장 탐지」, 『정보과학회논문지』 45권 11호, 1185-1192쪽.
- 박재희(2016), 「국어 부사어의 실현 양상: ‘형용사+게’ 부사어와 ‘형용사 +이/히’ 부사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99집, 7-31쪽.
- 이동혁(2011), 「결합적 어휘 의미관계의 독립성과 특성에 대하여」, 『어문학교육』 제43집, 147-176쪽.
- 임채훈(2008), 「방식(manner)의 의미역할과 문장 의미 구성: ‘놀다’가 실현된 문장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25, 127-155쪽.
- 조은경(2019), 「언어 정보의 계량화와 시각화: 감정 어휘의 분포 의미 표현」, 『언어와 정보사회』, 413-436쪽.

- 조태린·김신각·유희재·김예지·이주희(2018), 「대화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언어 표현을 위한 기초 연구」, 『語文學』 140호, pp. 65-96쪽.
- 최경봉(2019), 「구문과 어휘의미의 상관성 고찰」, 『국어학』 89, 255-283쪽.
- 최준·남길임(2021),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학 이론의 기반: Firth(1957)의 이론과 21세기 언어학의 창조적 수용 양상」, 『동서인문』 15, 43-92쪽.
- 최호철(2022), 「현대 한국어 어휘의 의미 기술에 대하여」, upcoming
- Boleda, Gemma(2020), Distributional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Annual Review of Linguistics* 6 : 213-234.
- Emerson, guy(2020), What are the Goals of Distributional Semantics? published in Proceedings of the 58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CL) arXiv:2005.02982v1.
- Firth, J.R.(1957), *Papers in Linguistics 1934-1951*, London:Oxford University Press.
- Francis, G., Huston, S., & Manning, E. (Eds.)(1996), *Collins COBUILD Grammar Patterns 1: Verbs*, London: HarperCollins.
- Francis, G., Huston, S., & Manning, E. (Eds.)(1998), *Collins COBUILD Grammar Patterns 2: Nouns and Adjectives*, London: HarperCollins.
- Huston, S. & Francis, G.(2000), *Pattern Grammar: A Corpus-Driven Approach to the lexical Grammar of Englis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Levy, Omer and Yoav Goldberg, Ido Dagan(2015), Improving Distributional Similarity with Lessons Learned from Word Embedding, *Transaction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3: 211-225.
- Mikolov, T., Chen, K., Corrado, G., & Dean, J. (2013), Efficient estimation of word representations in vector space. arXiv preprint arXiv:1301.3781.
- Mikolov, T., Sutskever, I., Chen, K., Corrado, G. S.& Dean, J.(2013). Distributed representations of words and phrases and their compositionality. *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pp. 3111-3119).
- Moon, J., Cho, W. I., & Lee, J. (2020). Beep! korean corpus of online news comments for toxic speech detection. arXiv preprint arXiv:2005.12503.

▣ 토 론

“비윤리 문장의 의미 양상 고찰: 부사어와 서술어 구성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도재학(경기대)

이 발표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윤리성, 정치적 올바름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비윤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의 유형과 특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에 공감하며, 기구축된 다량의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존경을 표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겠습니다.

1. ‘비윤리’라는 용어의 포괄성에 대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다루는 입장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들을 낱낱이 구별하고 따로 처리하는 것이 수고롭고 들이는 비용에 대비해 효용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전반적인 수준 제고, 즉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일단 이것저것 많이 모아 놓는 것이 더 긴급하고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른바 ‘비윤리 문장(문형)’이라는 이름아래 수십만의 데이터를 모은 것일 텐데요.

이러한 실제적이고 당면한 일에 대한 요구가 간과될 수는 없겠으나, 학술적인 면에서는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발표에서 ‘윤리’와 ‘비윤리’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설명이 추가되고, 비윤리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를 나열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논의들에서 혐오, 차별, 비하, 폭력, 멸시 등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써 온 여러 용어들이 비윤리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 규정이 본 논의의 주요 목표가 아니기는 하지만, 비윤리의 범위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설명이 선행되고 이후의 논의가 이어져야 혼란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8)에서 다루어진 ‘월급을 찢끔 받다’, ‘이야기를 질질 끌다’, ‘허세가 잔뜩 들어가다’가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데에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데, 이는 결국 ‘비윤리’의 개념 문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술어의 의미 속성과 비윤리 문장’을 다룬 부분에서는 비윤리 문장에 관여하는 서술어로 [제거], [폭력] 등의 의미 속성을 가진 것들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의미 속성을 가진 서술어라고 해서 모두 비윤리 문장에 쓰이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예. 해충은 싹 다 잡아 죽여야지), 서술어의 의미 속성과 비윤리 문장 사이의 사상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밀한 기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화맥의 차원에서 비윤리적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에 대해

(9)의 예문을 설명하면서, “문맥적 의미 정보만으로는 비윤리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화맥적 의미 정보까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앞뒤 대화의 상황 맥락, 시대나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비윤리적으로 해석되는데 AI 학습 데이터가 이러한 비윤리성을 제대로 탐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화맥적 변인을 고려하여 정보를 기술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화맥적 변인’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너무 여러 가지여서 구체화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의 범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특정한 상황과 관습적으로 맺어져 있는 낱말의 문화적 규약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즉, 일종의 여집합과 같은 개념으로 특성화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화자(필자)의 ‘의도’에 의해 비윤리적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라면, 글쓴이의 심리 상태까지도 언어 정보의 기술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편견이 먼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나라 경제 잘 돌아간다.”, “니가 최고로 잘 생겼다.”, “이번 대선 후보 중에는 000이 최고다.”와 같은 표현에서, 비아냥대기/빈정거리기와 같은 반어적 의도를 담아서 표현한 경우, 그 비윤리적 의미를 기계가 간취해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 표현을 비윤리 문장으로 식별해 내기에 충분한 만큼의 맥락을 학습 데이터로 구축하면 된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맥락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한계는 노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컨대, 화맥의 차원에서 비윤리적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를 기술할 수 있는, 조금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표준어화 현상 연구: 문법 형태소를 중심으로

신우봉(제주대)

< 차례 >

1. 서론
2. 연구 방법
3. 제주 방언 20대 화자의 방언 사용 양상
4. 결론

1. 서론

이 연구는 제주방언 20대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문법 형태소는 어떠한 형태소들이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또한 이 문법 형태소가 표준어의 영향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의 대화 자료에서의 문법 형태소의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표준어란 지역 방언 화자나 사회 방언 화자에게 대개 문화적 중심언어 혹은 지켜야 할 규범언어로 의식되고 있다. 그래서 표준어화는 학교 교육 또는 최근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대중 방송 매체가 기존의 방언에 영향을 주어서 여러 가지 방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변화 방향을 보면 공통어화(표준어화)로의 경향성이 강하다(김덕호, 2018: 202). 현재 한국어 방언들은 표준어의 접촉 결과로 나타나는 표준어화(standardization)의 양상이 음운, 문법, 어휘 등 다양한 층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주방언 음운의 변화 양상과 관련해서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경우 /ㄱ/와 /ㄲ/가 합류하고, /·/가 소멸되어서 현재 표준어 20대 화자와 동일한 7개의 모음 체계를 보인다는 것은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졌다.

제주방언 어휘의 변화 양상과 관련해서는 강영봉(2008), 강영봉(2010)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강영봉(2008)은 제주방언에 대한 세대별 생태지수 조사를 목적으로 20대, 40대, 60대를 대상으로 '농사 관련 어휘'와 '제주 문화 관련 분야별 제주방언 어휘'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40개의 제주 문화 관련 분야별 제주방언 어휘 가운데 70% 이상이 뜻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다고 답한 문항은 7개 뿐이었다. 강영봉(2010)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휘로 제주문화와 지역어 특징을 반영한 어휘 120개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20개 어휘 중 45개 어휘는 응답자의 90%가 모른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어휘의 측면에서 제주방언의 표준어화는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 층위에서의 변화 양상을 살핀 연구로는 김보향·정승철(2013), 김보향(2017), 김미진(2018) 등이 있다. 제주방언의 의문문은 어미의 대립에 의해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이 구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표준어의 영향으로 젊은층으로 갈수록 어미의 의한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의 구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김보향·정승철(2013)에서는 세대에 따른 의문 어미의 대립 및 중화 현상을 조사하였다. 20대부터 80대까지 각각 피험자 1명에게 판정/설명 의문의 어미 대립을 확인할 수 있는 예문들을 주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어미의 중화 현상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그 빈도가 높아져서 제주방언의 전통적 모습이 사라져 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보향(2017)에서는 표준어와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 제주방언 조사를 중심으로 세대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방언 조사의 방언형과 표준어형을 제시하여 선택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제주방언 조사의 세대별 표준어화 정도를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대로 올수록 방언형이 단순화되고 있으며, 일부 방언형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사의 경우 종합적으로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방언형을 27%, 표준어형을 73%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주방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설문조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방언의 사용도보다 인지도의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담화를 녹음하여 제주방언의 사용 양상을 파악한 연구로는 김미진(2018)이 있다. 김미진(2018)에서는 제주방언의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을 사회적 변인과 형태적 분류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대 화자는 80대 화자에 비해 담화표지의 사용에 있어 표준어형과 축약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표준어형과 방언형이 혼합된 형태도 사용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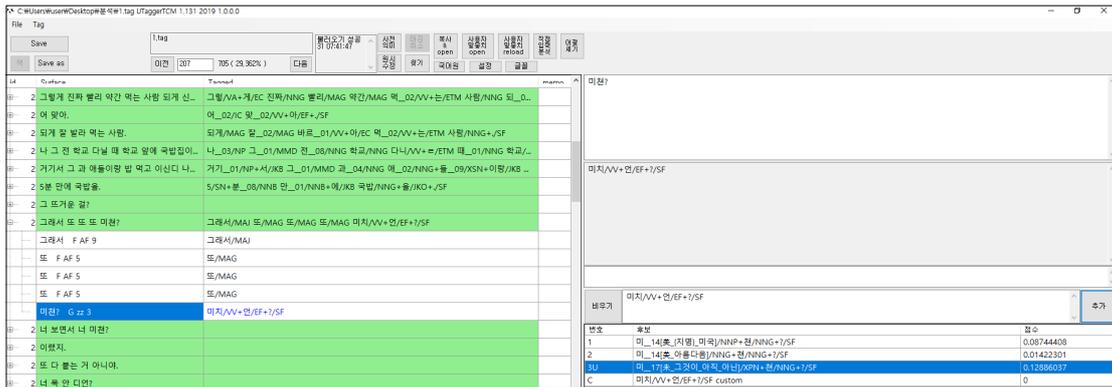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의 경우 음운, 문법, 어휘의 모든 측면에서 표준어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법 층위에서 조사와 담화표지 그리고 의문형 어미를 제외한 문법 형태소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대화 자료를 구축하고 문법 형태소의 실현 양상을 표준어형과 방언형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방언 접촉의 유형이 제주방언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모두 제주도가 고향이며, 제주에서 태어나고 현재까지 제주에 살고 있는 제주방언 20대 초반 화자 남녀 화자 각 6명 총 12명을 선정하여 녹음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화 자료에서의 제주방언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피험자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추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사자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스포츠, 여행, 계절, 먹거리’ 등과 관련한 대화 주제들을 제시한 후에 일정한 시간 내의 대화를 진행하게 하였다. 각 대화 그룹은 2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상호 간에 반말체를 사용하였다.

2인 대화 녹음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내에 있는 방음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녹음에 사용한 기기는 Sony PCM D-10이다. 음성 파일은 표본추출률 44,100Hz, 양자화 16bit로 디지털화하고 전사를 실시하였다. 전사를 완료한 자료는 울산대학교에서 개발한 유태거(Utagger) 반자동 태깅 툴을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태거 반자동 태깅 툴에서는 어절마다 분석 결과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즉,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킨 부분을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상세히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유태거 반자동 태깅 툴을 활용한 형태소 분석

제주방언 20대 남녀 12명에게서 얻은 음성자료는 모두 259분 분량이며, 전체 26,345 어절에서 4,525 발화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성별에 따른 전체 대화자료 정보를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제주방언 20대 대화 자료 정보

성별	시간	어절	발화 수	형태소
여성	132분	14,206	2,186	26,525
남성	127분	12,139	2,339	23,273
합계	259분	26,345	4,525	49,798

3.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방언 사용 양상

본고에서는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대화 자료에서 나타나는 방언 사용의 변화 양상을 문법형태소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문법형태소를 구성하는 큰 범주인 조사와 어미로 나누어 표준어형과 방언형을 비교하면서 제주방언 20대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방언 접촉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¹⁾

3.1. 조사의 변화 양상

1) 정승철(2010)에 따르면 방언 접촉의 유형은 ‘병존, 편입, 융합(형태의 변경: 병렬, 절단, 대체, 혼효, 변형 / 의미 변경)’이 있다고 하였다.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대화 자료에서 나타나는 조사의 사용 빈도를 보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조사의 사용 빈도

	조사 유형	출현 빈도
격조사	주격조사	1280
	보격조사	104
	관형격조사	118
	목적격조사	415
	부사격조사	1238
	호격조사	4
	인용격조사	7
보조사	보조사	2054

제주방언 조사의 경우 형태가 표준어와 동일한 것과 다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의 대화 자료에서 나타나는 표준어화 현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표준어와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에서 제시한 조사들 중에서 표준어와 제주방언의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조사는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이다. 김보향(2016: 12)에 따르면 표준어의 관형격 조사는 제주방언에서 ‘네’로, 부사격조사는 ‘이/디/레, 더레/레, 신디/안티/ㄱ라, 광/영’으로, 보조사는 ‘랑/라근에, 추록/처록/츄록, ㄱ장/꺼지, 아울라, 냥으로, 베끼’로 접속조사는 ‘ㅎ곡, 광, 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들의 표준어화 현상을 살펴보겠다.

강근보(1976: 11)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속격의 표시는 ‘의’가 전담하고 있는데 제주방언에서는 ‘의’와 더불어 ‘네’가 분담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에 따르면 제주방언의 조사 ‘네’는 표준어의 ‘의’에 대응하는 것으로 “체언에 붙어서, 뒤에 오는 체언의 관형어임을 보이는 조사(예: 이건 그 사름네 개여(이건 그 사람의 개다.))”로 보고 있다. 김보향(2016: 22)에서는 ‘네’가 1인칭을 제외한 인칭대명사나 인명, 직명, 친족명을 선행어로 소유의 의미 자질을 갖는 체언 뒤에 결합하여 실현된다고 보았다. 본고의 자료에서는 관형격조사는 122번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의’는 116번(98%), ‘네’는 2번(3%)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관형격조사 ‘네’가 실현된 모든 예는 2인칭 대명사 ‘너’와 결합한 형태인 ‘너네’로 나타났다.

- (1) ㄱ. 너네 집 말고 술집. 대단하다이. 비 오던 날 추천하는 제주도 관광지는?
- ㄴ. 너네 집 한 타임에 10명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인력 인력 낭비.

김보향(2016)에서도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이 ‘네’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너네’의 형태로만 실현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대화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2인칭 대명사 ‘너’와 관형격조사 ‘의, 네’의 결합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너네’는 2번 사용하였으며, ‘너의’는 3번 사용하여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이 표준어와 동일한 형태인 관형격조사 ‘의’와 ‘네’를 유사한 비율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방언에는 표준어의 그것과 형태를 달리하는 다양한 부사격조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처

소를 타나내는 부사격조사에는 ‘이, 디, 레’가 있으며,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로는 ‘더레, 레’가 있으며 여격조사로는 ‘신디, 안티, ㄱ라’가 있다. 김보향(2016)에서는 부사격조사 중에서 처소를 나타내는 조사인 경우에 다음 <표 3>과 같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표 3>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부사격조사의 사용양상

	조사목록	실현율(김보향(2016))	실현율(대화 자료)
처소	이/에	9%/91%	0%/100%
	디/에	5%/95%	0%/100%
	레/에	0%/100%	0%/100%
방향	더레/(으)로/에	0%/34%/66%	0%/25%/75%
여격	신디/안티/고라/안테/ 한테/에게	14%/14%/0%/18%/ 41%/9%	0%/0%/0%/0%/ 97%/3%
	공동격	광/(이)영/와·과/(이)랑	0%/44%/21%/35%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대화 자료에서 부사격조사는 총 1,238개가 실현되었는데 이 중에서 표준어와 형태가 다른 제주방언 부사격조사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보향(2016)에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이, 디, 신디/안티/안테, (이)영’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보향(2016)은 제보자들과 면담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선택한 자료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본고의 자료는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의 대화를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문순덕(2005)에서는 표준어와 형태가 다른 제주방언 보조사로 ‘라근에/라근, (이)랑(은/는), ㄱ치/ㄱ찌(같이, 처럼), 처록/츄록/처름/추룩/ㄱ추룩(처럼, 같이), ㄱ장/ㄱ지(까지), 알라/아올라(마저, 조차), 냥(대로), 만이(만큼), 바껏/바껏(밖에)’ 등이 있다고 하였다. 김보향(2016)에서는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추룩(55%), 냥으로(18%), 베끼(18%)’를 사용하고 있으며, ‘라근에/라근, 처록/츄록/처름/추룩, ㄱ장/ㄱ지, 알라/아올라, 냥, 만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본 대화 자료에서 제주방언형 보조사는 ‘추룩(1번 실현)³⁾만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방언에 종결보조사들은 존대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마쌈, 양, 예’와 평대에서 사용되는 ‘게, 기, 이’가 있다. 본고의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상호 간에 반말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존대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종결보조사 ‘마쌈, 양, 예’가 나타날 수 없는 환경이다. 평대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종결보조사 ‘게, 이, 기’ 중에서 ‘게’는 46번, ‘이’는 57번, ‘기’는 0번 나타났다.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에서 ‘게’와 ‘이’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게² 서술어 뒤에 연결되어서, **강조·확인·촉구·친절·반어**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보조사. ㉠ 그디 오래 쉴지 말앙 재기 와뽀서**게**.(거기 오래 있지 말고 재우 와버립시오.)

이² 서술어 뒤에 연결되어서, **동의·확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보조사. ㉡ 늦이 가도 하영 먹어 서**인**.(늦게 가도 많이 먹었어.)

2) 김보향(2016)에서는 공동격조사 ‘하고’를 포함하여 조사하지 않았는데, ‘하고’의 실현을 ‘와·과, (이)랑’과 함께 비교하면 ‘와·과(5%), (이)랑(85%), 하고(10%)’의 비율로 실현되었다.

3) 예) 오리탕인디 거기. 백숙**추룩**?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문순덕(2003), 강정희(2015)에 따르면 제주방언 ‘게’는 단어, 구, 절, 문장 등 다양한 문장 단위에 첨가되며 분포가 자유롭다고 하였다. 하지만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고의 대화 자료에서 ‘게’는 46번 모두 제주방언 종결어미 ‘-주’와만 결합하여 나타나는 분포를 보였다.

- (2)
 - ㄱ. 제주시 제주시는 뭐 내가 꼭 잡고 있주게. (강조·확인)
 - ㄴ. 그거 뭐냐 그거 나는 김밥 김밥 좋아하주게. (강조·확인)
 - ㄷ. 서귀포에 저 어디냐 영도폭포 영도폭포 맞나? 영떡폭포 맞주게. (확인)
 - ㄹ. 옛날에 나 운동할 때는. 한 번에 열다섯 줄도 먹어봤주게. (강조)

- (3)
 - ㄱ. 근데 과연 아빠들이 애를 더 돌보는 문화가 활발했다면 노키즈존이 생겼을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교이 솔직히 얘기보다 진상인 그 중장년층이 더 많아. (확인)
 - ㄴ. 특히 아저씨들이 진짜 많아 진상은 근데이 왜 노아재존은 없지. (확인)
 - ㄷ. 근데 우리가이 편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했어서이. (확인·동의)
 - ㄹ. 근데 요새이 진짜 문제야. 9시 지각 먹었잖아 어제. (확인)

그리고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방언 종결보조사 ‘이’는 ‘게’에 비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격조사, 보조사의 경우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대부분 표준어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종결보조사 ‘게, 이’는 이에 대응하는 표준어형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어미의 변화 양상

3.2.1. 선어말 어미의 사용 양상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대화 자료에서 선어말어미는 총 1,180번 출현하였다. 10개 유형의 선어말어미의 사용 빈도와 누적비율을 보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선어말어미의 어휘 사용 빈도 표

	형태	빈도	누적비율
1	었	462	39.2%
2	았	248	60.2%
3	였	194	76.6%
4	겠	155	89.7%
5	(으)시	62	95.0%
6	(으)크	29	97.5%
7	였였	17	98.9%
8	았어	11	99.8%
9	엄	1	99.9%
10	랬	1	100.0%

선어말어미 중에서 ‘-느-, -더-, -리-’ 등의 선어말어미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들 선어말어미들이 주로 종결어미 혹은 연결어미와 융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어미의 일부로 모두 분

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방언에서 청자에 대한 존대를 표시하는 선어말어미 ‘-수-/-우-’는 다른 어미와의 융합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제주방언 과거형 선어말어미 ‘-엇-/-앗-/-랏-’도 나타나지 않았다. 누적 빈도 비율 95%까지의 선어말어미의 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였-, -았-, -였-, -겠-, -시-’ 5개의 선어말어미가 전체 사용 빈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개의 선어말어미 중에서 제주방언 선어말어미는 ‘-(으)크-, -엄-’은 30번 출현하여 2.5%의 비율로 나타나서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이 선어말어미 사용에서 표준어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방언 선어말어미 ‘-(으)크’는 표준어 선어말어미 ‘-겠-’과 유사한 의도와 추측 그리고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실현된다. 따라서 제주방언 ‘-(으)크’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경우에는 ‘-겠-’을 사용한다. 두 문법 형태소의 실제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표준어화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방언 선어말어미 ‘-(으)크-’는 29번 나타났으며, 표준어 선어말어미 ‘-겠-’은 155번 나타났다. 즉,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표준어형 ‘-겠-’을 84.2% 사용하고 있으며, 방언형 ‘-(으)크-’는 15.8%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방언 ‘-엄스/암스-’는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표준어의 ‘-고 있-’에 대응한다. 대화 자료에서 제주방언 선어말어미 ‘-엄스/암스-’는 1번⁴⁾ 나타났으며, 표준어 ‘-고 있-’은 56번 나타났다. 즉,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경우에 방언형보다 표준어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경우 선어말어미에서 ‘-(으)크-’의 형태를 ‘-겠-’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방언 접촉의 유형 중에서 ‘병존’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선어말어미들은 대부분 표준어형을 사용하고 있어서 ‘편입’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3.2.2. 연결 어미의 사용 양상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대화 자료에서 연결어미는 총 4,959번 출현하였다. 상위 17개의 연결어미가 전체 연결어미 사용 빈도의 90.5%를 차지하는 것은 폐쇄 범주로서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4) A: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B: 뭐런 **햐나?**(하고 있니?) A: 나 줄일 거. 나 진짜 방학 때 줄일 거.

<표 5> 연결어미의 어휘 사용 빈도 표(누적 비율 90%)

	형태	빈도	누적비율
1	고	862	17.4%
2	어	490	27.3%
3	아	446	36.3%
4	으면	425	44.8%
5	지	347	51.8%
6	는데	343	58.7%
7	게	314	65.1%
8	는데	254	70.2%
9	어야	209	74.4%
10	으니까	206	78.6%
11	다	140	81.4%
12	아서	91	83.2%
13	으면서	76	84.8%
14	서	76	86.3%
15	는데	74	87.8%
16	다고	68	89.2%
17	여서	67	90.5%

이 절에서는 <표 5>의 연결어미 중에서 표준어와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제주방언형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결어미 중에서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것은 ‘-고’이다. 연결어미 ‘-고’는 제주방언에서 ‘-곡’으로 실현된다. 하지만 대화 자료에서 제주방언형 연결어미 ‘-곡’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표준어형인 ‘-고’는 862번 나타났다.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은 제주방언에서는 ‘-으면/-으면’으로 실현된다. 대화 자료에서 제주방언형 연결어미 ‘-으면’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으면’은 1번 나타났다. 반면, 표준어형인 ‘-(으)면’은 425번 나타났다.

(4) 내일 만나기 전에 총대 정도 갈 수 **이시문(있으면)** 가고 못 가면 또 안 가고.

선행절의 일이 후행절 일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야’는 제주방언에서는 ‘-어사’로 실현된다. 대화 자료에서 제주방언형 연결어미 ‘-어사’는 3번 나타났으며, 표준어 연결어미 ‘-어야’는 57번 나타났다. 즉,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표준어형 ‘-어야’를 95% 사용하고 있으며, 방언형 ‘-어사’는 3%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과 이유의 의미 기능을 지니는 연결어미 ‘-으니까’는 제주방언에서는 ‘-으난’으로 실현된다. 대화 자료에서 제주방언 연결어미 ‘-으난’은 19번 나타났으며, 표준어 연결어미 ‘-으니까’는 206번 나타났다. 즉,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표준어형 ‘-으니까’를 91.6% 사용하고 있으며, 방언형 ‘-으난’은 8.4%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난’은 주로 제주방언 보조동사 ‘불-’과 결합하여 나타났다(16번). 이 형태에 대응하는 표준어형인 ‘버리니까’가 총 4번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보조동사 ‘불-/버리-’와의 결합에서는 방언형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동시(同時)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는 제주방언에서는 ‘-으멍’으로 실현된다. 대화 자료에서 제주방언 연결어미 ‘-으멍’은 2번 나타났으며, 표준어 연결어미 ‘-으면서’는 90번 나타났다. 즉,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표준어형인 ‘-으면서’를 97.8% 사용하고 있으며, 방언형 ‘-

으멍'은 2.2%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ㄱ. 조용한 게 좋지 솔직히. 카공하는 분위기. 솔직히 나는 근데 노래 들으멍(들으면 서) 해 가지고.

ㄴ. 방학 동안 이제 거기 가 가지고 출근하멍(출근하면서) 알바 하는 거지.

<표 4>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표준어형 연결어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형태적으로만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으레'가 있다.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러'는 제주방언에서 '-으레'로 실현된다. 대화 자료에서 제주방언형 연결어미 '-으레'는 2번 나타났으며, 표준어형 '-으러'는 17번 나타났다. 즉,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표준어형인 '-으러'를 89.5% 사용하고 있으며, 방언형 '-으레'는 10.5%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의 연결어미 중에서 제주방언형은 유일하게 '-디'만 나타났으며, 이 연결어미는 대화 자료에서 제주방언형과 표준어형이 한 발화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표준어 '-는데'는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인데 제주방언에서는 '-디/인디'로 실현된다.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에서 '-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디³ ㉠ -는데.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무엇을 ~는데'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나도 훈디 느 무사 못ㅎ커니?(나도 하였는데 너 왜 못하겠니?)

대화 자료에서 제주방언 연결어미 '-디/인디'는 74번 나타났으며, 표준어 연결어미 '-는데'는 254번 나타났다. 즉,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방언형인 '-디'를 22.6% 사용하고 있으며, 표준어형인 '-는데'를 77.4%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ㄱ. 거기서 카페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옆질렀인디 옆에 남자 회사원이 엄청 화를 내는 거야.

ㄴ. 국제 경영이니까 막 언어 영어랑 중국어 배웠인디 영어 수업이 있었는데 진짜 온더 테이블 이런 거 배우는 거야.

ㄷ. 아니 서귀포에도 이서. 서귀포에도 있는데 서귀포에도 이신디 우도나 서귀포나 거기서 거.

ㄹ. 이번에 축제 때 살짝 봐신디 봤는데 괜찮아 보이던데.

(6ㄱ~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방언 연결어미 '-디/인디'와 표준어형 연결어미 '-는데'를 한 발화 안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대부분의 연결어미들을 표준어형으로 사용하여 방언 접촉의 유형⁵⁾ 중에서 '편입'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는데, -디/인디'는

5) 정승철(2010)에서는 방언 접촉의 유형 중 '편입'은 '해당 지역에서 신형의 자극을 전격적으로 수용, 자신의 언어 특징을 버리고 다른 핵방언의 언어 특징을 도입하는 유형'이며, '병존'은 '접촉 지역에서 인근의 핵방언들이 가진 언어 특징들이 수의적으로 함께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 발화 안에서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존’의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2.3. 종결 어미의 사용 양상

종결어미의 경우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경어법에 따라 다양한 제주방언 종결어미들이 있다.⁶⁾

<표 6> 제주방언 종결어미의 목록(정승철, 2013: 179)

상대경어법	평서	의문	명령	칭유
‘흡서’체(존대)	-다 -괘~-게	파~까~팍~깡~과~가~광~ 강	-읍서	-읍주~- 쥬
‘햅여’체(평대)	-어/라, -주 -은게	엔, 순, 어/라 은고(설명)/은가(판정)		-주~-쥬
‘햅라’체(하대)	-다/저/여/라 -나/은다 -으네	고(설명)/가(판정), 으니(설명)/으냐(판정), 으이(설명)/으야(판정), 디(설명)/디아(판정)	-으라	-게 -자

‘햅여’체와 ‘햅라’체의 종결어미 중에서 ‘-어, -아, -다, -여’와 같은 종결어미는 표준어형과 방언형이 형태와 기능이 동일하여 표준어화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제주방언에서만 나타나는 종결어미들을 중심으로 종결어미의 표준어화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대화 자료에서 종결어미는 총 2,382번 출현하였다. 상위 누적비율 90%의 종결어미 목록을 살펴보면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개의 종결어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종결어미의 어휘 사용 빈도 표(누적 비율 90%)

	형태	빈도	누적비율		형태	빈도	누적비율
1	아	360	15.1%	10	는데	74	71.7%
2	어	283	27.0%	11	게	70	74.6%
3	지	235	36.9%	12	니까	70	77.6%
4	언	213	45.8%	13	여	68	80.4%
5	잡아	139	51.6%	14	나	67	83.2%
6	다가	121	56.7%	15	ㄴ	49	85.3%
7	거든	100	60.9%	16	주	45	87.2%
8	네	97	65.0%	17	ㄴ데	45	89.1%
9	야	86	68.6%	18	ㄴ가	40	90.8%

<표 7>에서의 18개의 종결어미 중에서 제주방언형으로 ‘-언/안, -ㄴ, -주’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6) 제주방언의 상대경어법은 뒷사람에게 쓰는 ‘흡서’체(존대), 친구에게 쓰는 ‘햅여’체(평대), 아랫사람에게 쓰는 ‘햅라’체(하대)로 삼분된다(강근보 외 1974). 본고에서 살펴본 대화 자료는 동급생 사이의 대화 자료로 ‘햅여’체와 ‘햅라’체를 사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흡서’체(존대)의 어미들은 나타날 수 없는 환경이다.

살펴본 조사와 선어말어미 그리고 연결어미들에 비해 종결어미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제주방언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주방언에서만 사용되는 ‘-은게, -으네, -순, -은고/-은가, -으이/으야, -디/디아’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제주방언의 문법 형태소 중 20대 화자에게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을 종결어미 ‘-언’이다. 정승철(1997: 82)에 따르면 제주방언에서의 ‘-언/안’은 의문의 종결어미뿐 아니라 평서의 종결어미로도 사용되며, 항상 완료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⁷⁾ 제주방언 ‘-언/안’에 정확히 대응하는 표준어 종결어미는 없다. 하지만 ‘-언/안’이 항상 완료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준어로 대역하는 경우에 대체로 ‘-었어/았어’의 형태로 실현된다. 따라서 이들의 사용 빈도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대화 자료에서 ‘-언/안’은 213번⁸⁾ 나타났으며, ‘-었어/았어’의 형태는 33번 나타났다. 즉,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방언형인 ‘-언/안’을 86.6% 사용하고 있으며, 표준어형인 ‘-었어/았어’를 13.4%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 자료에서 ‘-었어/았어’의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중심으로 제주방언과 표준어형의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8> ‘-언/안’과 ‘-었어/았어’ 결합 형태의 사용 양상

표준어형			제주방언형		
형태	사용빈도	비율	형태	사용빈도	비율
했어	23	43.4%	했(하+안)	30	56.6%
봤어	12	30.8%	봤(보+안)	27	69.2%
갔어	3	18.8%	갔(가+안)	13	81.3%
먹었어	2	13.3%	먹(먹+안)	13	86.7%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경우 표준어형인 ‘-었어/았어’ 보다 ‘-언/안’의 형태를 보다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던 연결어미 ‘-는데, -디/인디’에서와 유사하게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의 경우 ‘-언/안’과 ‘-었어/았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방언 접촉의 유형 중에서 ‘병존’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결어미는 ‘-ㄴ’이다. 대화 자료에서 ‘-ㄴ’은 49번 나타났는데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 (7) 가. 근데 스우파 이제 스걸파거든. 그것도 진짜 **재민**. 요번에 봤거든?
 나. 자연별곡 **맛인**. 옛날에 갔을 때 그거 있어신디 마늘보쌈.
 다. 결혼 이제 아직은 **모르겐**. 이제 22살이네.
 라. 난 요번에 신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겐**. 세탁 세탁소에 맡겨야 될 거.

(7가)에서는 표준어형인 ‘재미있어’ 대신에 ‘재민(재미있+-ㄴ)’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맛있어’ 대신에 ‘맛인(맛있+-ㄴ)’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 라)에서는 ‘모르겠어’ 대신에 ‘모르겐(모르+-겠+-ㄴ)’, ‘보겠어?’ 대신에 ‘보겐(보+-겠+-ㄴ)’을 사용하고 있다. 즉,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표준어형인 ‘-있어’ 대신에 ‘-인’의 형태를, ‘-겠어’ 대신에 ‘-겐’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7)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에는 ‘-언³/안³’의 경우 표준어 ‘-었어/았어, -었니/았니’에 대응하는 것으로, ‘용언 어간에 붙어서 ‘ㅎ여’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종결어미.’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어미는 평서의 종결어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전의 뜻풀이에 ‘평서의 종결어미’에 대한 뜻풀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 대화 자료에서 ‘-언/안’은 평서의 종결어미로 153번 출현하였으며, 의문의 종결어미로는 60번 출현하였다.

다. 이는 표준어 형태에서 ‘-ㅂ어’이 나타나는 표현을 ‘-ㄴ’으로 대체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승철(2013: 230)에 따르면 방언 접촉의 유형 중에 ‘혼효’는 공존하는 방언형의 일부 형태를 잘라 접속하여 새로운 어형을 만드는 것으로, 혼효를 경험한 형태는 한 어형의 앞쪽 요소와 다른 어형의 뒤쪽 요소가 순차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였다. ‘모르겐’의 경우 표준어형인 ‘모르-’와 ‘-겠-’의 결합형에 제주방언 종결어미 ‘-언/안’에서 ‘-어/아’가 탈락한 ‘-ㄴ’이 결합한 것으로 ‘혼효’의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⁹⁾

‘ㅎ여’체의 종결어미 ‘-주’는 표준어의 ‘-지’에 대응하는 어미이다. 대화 자료에서 제주방언 평서형 종결어미 ‘-주’는 49번 나타났으며, 표준어 평서형 종결어미 ‘-지’는 198번 나타났다. 즉,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은 방언형인 ‘-주’를 19.8% 사용하고 있으며, 표준어형인 ‘-지’를 80.2%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는 총 49번 출현하였는데 이중에서 46번은 종결보조사 ‘-게’와 결합하여 나타났다. 강영봉(2008)에서는 제주방언 어미 중에 20대들이 ‘가키여, 가주’의 ‘-키여, -주’가 20대에서도 각각 48.8%, 50.0%로 조사된 것이 특이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대화 자료에서 ‘-키여’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주’의 사용이 2008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음은 제주방언 화자들이 해당 어미들을 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제주방언 20대를 대상으로 제주방언 문법 형태소의 표준어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의 경우 표준어와 제주방언의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조사는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보조사’를 중심으로 표준어화의 진행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20대에서도 ‘-네, -추록’과 같은 방언형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대화 자료에서는 이들 조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에서 표준어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종결보조사 ‘게, 이’는 이에 대응하는 표준어형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어말어미의 경우 표준어 ‘-겠-’에 대응하는 제주방언형 ‘-(으)크-’가 15.8%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암ㅅ/엄ㅅ-’의 경우 1번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어말어미들은 표준어형을 사용하고 있어 방언 접촉의 유형 중에서 ‘편입’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으)크-’에 한하여 ‘병존’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결어미의 경우 대등접속의 연결어미 ‘-곡’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다른 연결어미들의 경우 제주방언형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ㄴ디/인디’를 제외하고는 모두 10% 미만의 사용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준어 연결어미 ‘-는데’에 대응하는 제주방언 ‘-ㄴ디/인디’의 경우에는 22.6%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 발화 안에서 표준어형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종결어미의 경우 다른 어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언/안, -ㄴ, -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언/안’의 경우 표준어형에 비해 방언형이 더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동급생의 대화 자료에서 나타나는 문법 형태소의 표준어화를 관찰하였다. 보다 면밀하게 문법 형태소의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흡서’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대

9) 대화 자료에서 표준어형인 ‘모르겠어’는 2번, 제주방언형인 ‘모르크라’는 1번, 두 방언형의 융합형인 ‘모르겐’은 10번 나타났다.

를 조절하여 대화 자료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휘 형태소의 표준어화도 보다 면밀하게 살펴 이 연구에서 제시한 문법 형태소의 표준어화와 연관지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강근보 외(1974), 「제주도 방언의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 『논문집 6』, 제주대학, 15-48.
- 강근보(1976), 「속격 {-네}의 연구: 제주도방언의 {-네}를 중심으로」, 『논문집 8』, 제주대학, 11-27.
- 강영봉(2008), 『제주지역어 생태지수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강영봉(2010), 『제주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강정희(2015), 「제주방언 종결어미 ‘-게’의 양태성에 대하여」, 『영주어문 29』, 영주어문학회, 13-44.
- 김덕호(2018), 「방언 분포의 변화에 대한 사회방언학적 연구」, 『방언학 27』, 한국방언학회, 181~209.
- 김미진(2018), 「제주도 방언의 담화표지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방언학 27』, 한국방언학회, 155-180.
- 김보향·정승철(2013), 「제주방언의 설명의문과 판정의문: 어미의 중화 현상을 중심으로」, 『방언학 17』, 한국방언학회, 79-103.
- 김보향(2017), 「제주방언 문법 형태의 세대별 변화 연구」, 『한국언어문학 101』, 한국언어학회, 7-35.
- 문순덕(2003), 「제주방언 반말체 첨사의 담화 기능」, 『영주어문 5』, 영주어문학회, 71-86.
- 정승철(2007),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인용어미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20』, 애산학회, 67-107.
- 정승철(2010), 「방언접촉과 언어 변화」, 『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369-387.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현평효·강영봉(2011),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토 론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표준어화 현상 연구: 문법 형태소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최영미(경동대학교)

이 연구는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문법 형태소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언어접촉의 관점에서 표준어화 진행에 따른 문법 형태소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의 조사나 어미 사용에서 표준어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주방언 20대 화자의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의 사용에서 표준어형을 선호형으로 선택하고, 종결어미의 사용에서는 ‘-안/언, -ㄴ, -주’는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높다고 설명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토론자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논문을 읽어가면서 궁금한 점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구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사회방언을 연구함에 있어서 변인을 연령으로 하고, 제주방언의 표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20대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언어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언어변이 또는 진행 중인 변화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20대 화자의 언어사용만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언어공동체의 언어변이(표준화)를 설명하기에는 설명력이 약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조사의 사용 실태(<표3>)에서는 제주방언형과 표준어형의 사용빈도와 실현율을 보여주었으나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사용 실태(표4, 표5, 표7)에서는 어형별 실현율이 아니라 누적비율을 제시하여, 어형별 언어사용 실태를 파악이 어려운 듯합니다. 또한,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사용 실태(표4, 표5, 표7)에서 대표 형태와 변이 형태를 각각 사용빈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문법기능에 따라 형태를 정리하는 것이 표준화 정도나 언어변이 정도를 설명하는 데 설명력이 있을 듯합니다.

둘째, 언어접촉의 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안’이 어간에 결합할 때, 접촉의 유형을 “혼효”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표를 보면, 이러한 해석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1) 20대 화자의 언어사용에서 ‘X_{어간}+ -언/안’ 환경에서 ‘-언/안’이 모두 절단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어휘에서 적용되는 언어변이(변종)인데 이형태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왜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i’일 때 절단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표-1> 20대와 50대 '-언/안'의 언어 사용

제주방언형		
형태	20대	50대 ¹⁰⁾
하- + -안	헨	헨
보- + -안	봔	봔
가- + -안	간	간
먹- + -언	먹언	먹언
재미잇- + -언	재민	재미이선
맛잇- + -언	맛인	맛이선
모르- + -겠-(표준어형) + 언	모르겐	몰란

(2) '모르겐'도 제주방언의 '-(으)크-'를 대체하여 '-겠-'을 사용하고, 그리고 '-언/안'이 결합되어 절단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효보다는 대체가 먼저 일어난 형태로 보입니다.

셋째, p6.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이 격조사와 보조사 사용에서는 표준어형을 선호하나, 종결보조사 '게, 이'는 표준어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는 제주방언 20대 화자들이 '게, 이'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은 대체할 형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언어태도와 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논문을 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 제주방언 토박이화자에게 조사함.

제3부 <제4 분과 국어사>

『韓語通』의 통시적 기술에 대하여

허인영(고려대)

< 차 례 >

1. 머리말
2. 『韓語通』에 대하여
3. 본문에 보이는 통시적 기술
4. 어휘 목록에 보이는 통시적 기술
5.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마에마 교사쿠가 지은 한국어 학습서인 『韓語通』(1909)의 내용 가운데 한국어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그 통시적 기술을 정리하고, 그것의 한국어사학사적 의의를 찾아보는 것이다.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68~1942)는 쓰시마(對馬) 이즈하라(嚴原) 출신으로, 1879년 중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어를 배웠다. 1888년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예과에 입학, 1891년 졸업한 뒤 같은 해 연말에 외무성 유학생으로 한국에 건너왔다. 이후 영사관 서기생을 시작으로 1894년 인천, 1897년 경성 공사관, 1900년 호주 시드니 영사관 등을 거치고 1902년 다시 경성으로 돌아와 통역관으로 근무하였다. 본격적인 일제 강점기 시작된 이후인 1911년, 마에마는 사직하고 도쿄(東京)로 돌아가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1924년에는 많은 장서를 도쿄문고(東洋文庫)에 기증하였다. 건강이 나빠진 1930년 이후로는 후쿠오카(福岡)에서 은거하다가 1942년 세상을 떠났다.¹⁾

이렇게 알려진 경력만 보면 마에마는 한국어를 배우는 유학생이었고, 통역관으로 일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전직 공무원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도 고서를 수집하며 한국의 언어와 역사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1903년에는 경성에 있었던 일본인들과 조선회를 결성하였고, 1909년에는 한어연구회(조선어연구회)를 결성하였다. 당시의 한국어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연구회조직 한국인 류시경 미국인 쉐일 범국인 안신부 일본인 고교 제씨가 칙작일 오후 칠시에 동양협회에 회동하여 한어연구회를 조직하였더라 <1909.12.12. 대한매일신보>

1) 마에마의 삶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末松保一(1957), 白井順(2015)를 참고. 한국어로 된 글 가운데 가장 자세한 것은 한재영 외(2015: 11-27)이다.

●한어연구회 한국인 주시경 미국인 세르 법국인 안신부 일본인 고교형 제씨가 동양협회에서 한국말연구회를 조직하였다더라 <1909.12.29. 황성신문>²⁾

‘세일(세르)’은 『韓英字典』의 편찬자로 유명한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이고, ‘안신부’는 한국 이름이 ‘安世華’인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신부 플로리안 드망즈(Florian Demange, 1875~1938)이다. ‘고교(형)’은 훗날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되는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1878~1967)이다. 그런데 『朝鮮』 4권 6호(1910년 2월)에는 보다 자세한 기사가 나온다.³⁾

통감부 통역관 마에마 교사쿠 씨 및 농학사 시미즈 겐타로(清水元太郎) 씨의 발기로 지난 겨울 조직된 조선어연구회는, 경성 내 외국인⁴⁾ 명사를 회원으로 삼아 제1회를 작년 12월 27일 동양전문학교에서 열었는데, 제2회는 지난달 25일 아유카이 씨 집에서 개최하여 講話 및 토론 등(韓語로)이 있어 꽤나 趣味 있고 유익한 모임으로, 매월 1회 개최하고 방청은 隨意이다. 다음 회의 주제는 ‘韓語 자음의 성질에 대하여’. 또 회원은 마에마 통역관, 기요미즈 농학사, 미국인 게일 박사, 프랑스인 드망즈,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문학사 다카하시 도오루, 同 가와이(河合)전문학교 학감 들이다.

마에마와 시미즈가 발기한 ‘한어/한국말/조선어 연구회’는 1909년 12월에 조직되어 매달 모임을 개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중심의 모임인데도 발표나 토론을 한국어로 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마에마는 제2회의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시미즈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일단 주시경에게도 상담해 주십시오”(一應周時經にも御相談致し被下)라고 되어 있어(白井順 2015: 27) 이 연구회에서 주시경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 마에마는 이처럼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인 연구자들과도 교류하면서 한국어와 한국어의 역사에 대한 지식도 얻었을 것이다.⁶⁾

이처럼 마에마는 한국어 학습자로 시작하여 통역관으로 일하는 한편, 재야에서 한국어사와 서지학 연구에 힘을 쏟았다. 한국어사 연구의 첫 결실은 1909년에 간행된 『韓語通』인데, 문법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전적으로 역사적 연구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본에 돌아간 뒤에는 『龍飛御天歌』를 주석한 『龍歌古語箋』(1924), 『鷄林類事』의 고려어를 복원하고자 한 『(鷄林類事)麗言攷』(1925), 『訓讀吏文』(1942, 歿後), 『校註歌曲集』(1951, 歿後) 등 빛나는 저작을 남겼다. 또한 한국에 있을 때나 일본에 돌아간 뒤에도 끊임없이 수집한⁷⁾ 한국의 고서를 바탕으로 『鮮冊名題』

2) 황호덕(2010: 94)에서는 『신한민보』 1910년 2월 2일자 기사가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를 받아쓴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황성신문』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3) 이하 일본어의 한국어 번역과 번역문의 밑줄은 모두 필자의 것이다.

4) 원문에는 ‘外人’이라고 되어 있다. 일본어에서 ‘外人’의 사전적 의미는 ‘외국인’이지만 서구의 전형적인 백인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시경의 1909년 행적을 다루면서 게일·안신부·다카하시 등과 한어연구회를 조직했다고만 기술하고 있으나, 사실은 일본인과 서양인들이 중심이었던 것이다. 주시경이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경과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6) 『龍歌古語箋』의 서문에는 故 주시경이 『月印釋譜』 一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언급도 있다(前間恭作 1924: 5). 이제까지는 마에마와 한국인 연구자 간에 이루어진 교류가 손진태를 제외하면(시라이 준 2011)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시경을 비롯하여 방종현, 양주동 등 한국인 연구자들도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시라이 준(白井順)은 시라이 준(2011), 白井順(2013, 2015) 등에서 남아 있는 서간 등을 통하여 마에마의 삶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어학계의 동향이 일본인 학자들과 관련되는 양상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7) 일본에 돌아간 마에마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기에 경성의 한남서림(翰南書林) 등과 거래하며 꾸준히 고서를

(1927), 『朝鮮の板本』(1937), 『古鮮冊譜』(1944, 1956, 1957, 歿後) 등 서지학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마에마는 그야말로 “외국인으로서 평생 한국학 연구로서 일관하여 생애를 마친 최초의 한국학 전문학자”(陳泰夏 1992: 134-135)였던 것이다.

특히 불후의 업적인 『古鮮冊譜』는 그를 ‘韓國 書誌學의 先鞭’(한재영 외 2015)으로 자리매김하며 서지학자로서 인식되게 하였다. 그러나 그에 비해 마에마의 한국어학, 특히 한국어사 연구 성과는 널리 알려졌다고 하기 어렵다. 陳泰夏(1992)에서 『(鷄林類事)麗言攷』, 李賢熙(1993), 杉山豊(2011)에서 『龍歌古語箋』을 다룬 것이 전부이며, 『韓語通』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언급밖에 찾아보기 어렵다.⁸⁾ 그런데 최근 정경재·스기야마 유타카(2021)에서는 『校註歌曲集』의 ‘原歌’ 재구에 의문을 품고, 『韓語通』과 『龍歌古語箋』의 내용에서 마에마의 시대구분을 발견하여 『校註歌曲集』의 언어적 특징이 近古/近代에 속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저자의 기술로부터 통시적 인식을 발견해내는 방법은 『韓語通』 전반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韓語通』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뒤, 본문과 어휘 목록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서 발견되는 마에마의 통시적 기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한국어사학사상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韓語通』에 대하여

『韓語通』에 대한 평가는 小倉進平(1940)과 李賢熙(1993)의 다음 설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진편을 聲音·語辭·會話例의 3부로 나누고, 현대조선어의 음운·어법뿐만 아니라 오래된 조선어로부터의 변천 흔적을 학문적으로 설명하였다. 同氏의 저술 중에 이러한 아래의 두 책[『龍歌古語箋』·『(鷄林類事)麗言攷』를 가리킴(인용자)]과 같은 것도 조선어의 역사적 연구로서 정말로 귀한 것이며, 후진을 이익되게 하는 바가 극히 많다. (小倉進平 1940: 67)

1890년 이후 1910년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 편찬된 한국어 학습용 문법서들인 『韓語入門』이나 『韓語文典』류들이 꽤 많이 출판되어 나왔지만 『韓語通』만큼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서술된 것은 없다. 물론 『韓語通』만큼 우리의 古語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책도 없다. (李賢熙 1993: 108, 각주 1)

『韓語通』은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역사적’인 측면을 더하여 한국어를 ‘학문적’으로 서술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한편 마에마는 『韓語通』의 서언(緒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구입할 수 있었다(시라이 준 2011: 410-411).

8) 선행연구 가운데 『韓語通』의 통시적 기술을 다룬 것은 ‘ㄷ’, ‘ㄹ’ 관련 내용을 언급한 齊藤明美(2006: 193-195), 하성금(2011: 248-249) 정도이다.

9) 『韓語通』의 서술 목적이 초학자를 위한 학습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어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한국어 문법서를 편찬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선행연구에서도 “日本人을 위한 韓語學習書로서 古語와 關聯시키고 語根을 説明한 點이 注目된다”(김민수 1977), “회화에 주안을 둔 한국어 학습서와는 달리 본격적인 연구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이강민 2015: 188), “외국어로써 조선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서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학술적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읽고 이해하기엔 내용이 다소 난해하다. 오히려 이 책은 어느 정도 조선어를 익힌 일본인 지식인층에서 학술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이해될 성질의 텍스트로 판단된다”(이상혁 2020: 251)라고 하였듯이, 역사적인 내용까지 다룬 것은 한국어 학습서로서 결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조선어가 외국인에 의해 연구된 세월이 이미 오래이고, 그 述作 또한 적다고 하기 어려운 데, 『韓佛字典』 및 그 문법서가 다대한 노력과 潛心으로 된 귀중한 산물임은 다시 말하지 않겠고, 내려와서 언더우드, 게일 諸氏의 저술이 前人の 연구를 이어받아 더욱 그 精緻를 더하였으니, 많은 가운데 우리들 후진이 의지하여 지도자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유럽의 국어는 조선어에서 혈연이 극히 멀어서, 선배의 노고는 결코 심상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건 그렇지만 조선어에 近似한 국어를 가진 우리들로서 그 [외국인의] 述作을 보면¹⁰⁾ 설명이 간간이 迂遠하고 해석이 왕왕 투철하지 않은 감이 있다. 우리들이 선배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발 딛고 선 곳으로부터 곧바로 연구의 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면, 단지 조선어의 진상을 세상에 소개하기에 편리할 뿐이겠는가. 선배의 탐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을 광명으로 이끄는 일 또한 자못 많을 것임이 분명하다. 메이지(明治) 35년 내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홀로 스스로 재지 않고 이 책의 원고를 시작하여 그 뒤 2년 만에 전편이 이루어져 반복하여 통람하면서 조금 刪正을 해 보고, 끝내 마음에 차지 않아 붓을 던지고 원고 또한 상자 밑바닥에 묻어 두었다. 다시 지나기를 2년, 가쿠슈인(學習院) 교수인 시라토리(白鳥) 박사가 韓京에 와서 내가 장동(長洞)¹¹⁾의 있는 곳을 방문하였는데, 이야기가 우연히 이 원고에 이르러 박사가 자꾸 上梓를 중용하기에 뒤집어 생각하니, 이 책을 한번은 나에게서 멀리하였지만 그러나 지금 그 舊稿가 세상에 보여서 조선어의 연구가 어찌면 一進運을 여는 계기를 이루는 일이 없기를 기약해서는 안 되겠기에, 마침내 원고를 書賈에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이 책이 태어난 사정은 이와 같고, 全篇의 說述은 자신의 創意를 멋대로 한 데다가 鍛鍊을 결여하였고, 篇中の 의논이 때때로 中正을 잃고 기교로 치우쳐 해설이 어찌면 온건을 결여하고 방만으로 흐른다는 비난을 나는 물론 달게 받아들이겠으나, 다만 조선어 연구의 한 방면에 길을 내는 도끼[劈路斧]를 내린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나의 願望은 족할 것이다.

明治 42年 3月 著者 識

서언에 따르면 마에마가 『韓語通』을 집필한 동기는 『韓佛字典』, 언더우드나 게일 등 서양인 ‘선배’들의 업적에서 자극을 받아, 서양인 연구자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일본어를 사용하는 일본어 화자의 감각에 기반하여 새로운 한국어 문법을 기술하려는 것이었다. 초고는 1902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2년 만에 완성하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덮어 두고 있다가 1906년 서울에서 만난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의 권유로 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간행은 1909년이지만 이 책에 기술된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한국어를 습득한 188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의 한국어의 양상이라고 하겠다.

『韓語通』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緒論

10) 원문은 “夫れ然り、然と雖も朝鮮語に近似せる國語を有する予等を以て、其述作を見る”인데, 이상혁(2020: 235)에서는 “하지만 조선어와 매우 가깝다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우리들의 저술을 보면”이라고 번역하였다. 이 강민(2015: 188)에서도 “서양인의 한국어 연구에 비하여 일본인의 연구가 치밀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서를 저술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여 모두 ‘其’가 일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予等を以て、其述作を見る’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저 외국인들의 저술을 보면’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 뒤에 나오는 ‘先輩の蹤を追はず、自家の立脚地より直に研究の一新路を開鑿する’라는 부분과도 맥락이 닿게 된다.

11) 지금의 충무로 1가와 회현동 1가.

第一篇 聲音

第二篇 語辭

語辭の分類(어사의 분류)

語原

第一 名詞

第二 數詞

名詞數詞語彙

第三 ㄹ爾乎波(조사)¹²⁾

第四 代名詞

代名詞語彙

第五 動詞

動詞語彙

第六 形容詞

動詞と形容詞との中間にある詞(동사와 형용사의 중간에 있는 말[존재사])

名詞を説明語に用ゐる法(명사를 설명어로 쓰는 법[계사])

形容詞語彙

第七 副詞

第八 接續詞

副詞接續詞語彙

感動詞語彙

第三篇 會話例

제1편은 문자와 음운, 제2편은 품사, 제3편은 회화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사는 명사·수사·대명사·동사·형용사·부사·접속사·감동사·조사·조동사로 나누고 조동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다루는 절에서 함께 설명하였다. 예문과 중간제목·소제목은 큰 활자로, 본문은 중간 활자로, 주석에 해당할 만한 설명은 작은 활자로 인쇄하였다. 이 설명은 고어에 대한 기술인 경우가 많다. 예문은 일본어 표현을 먼저 보이고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을 아래에 썼다. 본문에서도 일본어의 요소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들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사·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접속사, 감동사에 대해서는 각 장이 끝난 뒤에 ‘○○語彙’라는 제목으로 품사별 어휘 목록을 실었다.

『韓語通』은 기본적으로 당시 한국어의 학습서이므로 본문에 제시한 예문은 대부분 출전이 따로 기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역사적인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는 맥락에서는 옛 문헌의 예를 제시하거나, 괄호 안에 출전을 기입하기도 하였다. 본문이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¹³⁾

『訓民正音』(1446): 해례본 발견(1940) 이전이므로 마에마가 참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한문으

12) ㄹ爾乎波(teniwoha)는 ㄹ爾波(teniha)라고도 한다. (이상혁(2020: 246, 각주 23)에서는 ‘ㄹ爾波’를 誤植으로 보았으나 그렇지 않다.) 본래 한문을 훈독할 때 사용하는 오코토점(オコト点)에서 한자의 네 모서리에 점을 찍어 주요한 조사 ‘て’, ‘に’, ‘を’, ‘は’를 나타내는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네 조사를 이어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이다. 부속어로서 활용하지 않는 조사를 가리키는 데 쓰는 것은 오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의 용법이다(『日本国語大辞典』).

13) 李賢熙(1993: 108)에서 『韓語通』에 인용된 고문헌을 일부 언급하였으나 전부는 아니다.

로 된 어제서문과 예의뿐이었을 것이다.

『龍飛御天歌』(1447): 순치본(1659)을 본 것으로 생각된다(李賢熙 1993: 111).¹⁴⁾

『奎章全韻』·『全韻玉篇』(1796)

『眞言集』

玉篇: 『全韻玉篇』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歌曲: 『歌曲源流』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⁵⁾

林傳: 『林慶業傳』 또는 『林將軍傳』의 약칭으로 보인다(李賢熙 1993: 108, 각주 2).

五倫: 『五倫行實圖』(1797)

大諺: 『大學諺解』(1590): 후대본일 가능성이 높다.

論語: 『論語諺解』(1590): 후대본일 가능성이 높다.

孟諺: 『孟子諺解』(1590): 후대본일 가능성이 높다.

3. 본문에 보이는 통시적 기술

이 절에서는 『韓語通』의 본문에 나타나는 통시적 기술을 검토하기로 한다.

1) 계통

조선어의 種別을 논할 때는 소위 粘加語族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어와 같은 어족에 있는 만주, 몽골, 통구스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연구가 아직 심히 깊지 못하다. 따라서 그 語法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서 어떻게 類別을 구획해야 할 것인지 따를 만한 정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본어와의 비교에서 문법상 가장 현저한 類似를 지니는 것은 명백하므로 粘加語族 중에 類別을 짓는다고 하면 조선어와 한국어는 동일한 類目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다룰 필요가 없다. (1쪽)

마에마는 서론에서 한국어가 ‘점가어족’에 속한다고 하며 같은 어족에 속하는 언어로 만주어·몽골어·통구스어를 들고 있다. 내부적인 구별을 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일본어와는 같은 무리로 묶인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마에마는 당시 유행하던 학설에 따라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점가어족은 교착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착어는 계통이 아닌 언어의 유형에 의한 분류이므로 엄밀한 역사비교언어학적 용어로서는 틀린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가 이른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가설의 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 표기와 음운

‘·’는 [...] 現今의 口語의 성음으로서는 조사 및 조동사에서 약간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에 거의 廢音에 속하여 다만 철자상에 ‘ㅏ’와 동음으로 보존된다. [‘너는, 오는, 가읍느니

14) 『林慶業傳』을 비롯한 고소설류는 18세기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무렵부터 쓰시마 등지에서 한국어 학습서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20세기 초까지도 이러한 전통은 이어졌다(정병설 2005).

15) 173쪽에 출처 없이 ‘빈 비만 미엿느고’라는 예문이 있다. 『松江歌辭』의 ‘빈 비만 걸렛느니’(성주본)/‘빈 비만 걸렛느고’(이선본)과 유사하지만 조금 달라 정확한 출전을 알기 어렵다.

다' 등 조사·어미에 쓰이는 ‘·’의 예] 이 예로 든 말도 現今 한국인들이 이것을 적을 때에 그 음이 보통 ‘·’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 ‘卜’음과 달리 오히려 ‘一’음에 近似한 점으로부터 ‘一’음으로 적는 것이 적지 않다.

조선 세종조 처음 언문을 제작할 때에는 ‘·’ 음은 ‘一’, ‘丨’와 함께 아음 종류에 속하는 모음에 넣고, ‘卜’음은 개구음의 종류에 넣어 판연한 구별을 이룬다. (4쪽)

이 기술은 /·/ 자체는 비음운화되어 /卜/에 합류했지만 철자상으로는 남아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조사와 어미에서 약간 /卜/ 발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가 환경에 따라 /卜/와 /一/로 합류하였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音字’, ‘綴字’ 등의 ‘字’와 ‘聲音’, ‘廢音’ 등의 ‘音’을 통하여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당시의 많은 문법서에서 표기와 발음을 혼동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근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언문으로 적힌 가장 오래된 문장은 『龍飛御天歌』 10권으로 그 철자법은 現今의 것과 심히 다르다. 훈민정음을 그 당시에 응용한 것인데 이에 의하면 [...] ‘ㄱ’, ‘ㄷ’, ‘ㅍ’, ‘ㅈ’, ‘ㅊ’ 등의 자모가 ‘밭침’으로 쓰여 ‘ㄷ’은 ‘t’ 음의 종성에, ‘ㅈ’은 ‘s’ 음의 종성에 구별하여 쓰이고 있다. 또한 ‘된시옷’에 이르러 ‘ㅈ’은 ‘M’로 적혀 일종의 자모 ‘M’라는 형태로 쓰이며 ‘hissing s’의 자음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등 심히 주의 깊은 점이 있음과 함께 ‘ㅈ’, ‘ㅊ’, ‘ㅅ’, ‘ㅆ’, ‘ㅈ’, ‘ㅊ’, ‘ㅅ’ 등 詰音[경음]의 자모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혼잡을 일으킨 흔적까지 歷然히 보여 어학자로서는 실로 흥미를 느끼는 것이 있다. (25쪽)

이 당시는 7종성법이 완전히 굳어진 상황으로, 『韓語通』 본문에서도 종성의 ‘ㅈ’은 ‘t’를 나타낸다는 언급이 있는데(11쪽), 『龍飛御天歌』에는 7종성 이외의 자모도 종성에 쓰인 예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된시옷’을 ‘hissing s’(쉴쉴하는 s) 자음이라고 한 것도 흥미로운데 자세한 기술이 없어 아쉽다. 당대의 표기법에서는 ‘ㅈ’이 경음 표시 역할을 하는데 『龍飛御天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각자병서가 혼잡을 일으켰다고 생각한 듯하다.¹⁶⁾

[△] 이것은 ‘日’자의 중국음 초성과 같이 ‘r’에 가까운 ‘j’음이다. 『眞言集』은 이것을 半齒全清音이라 하고, 훈민정음에서는 반설음으로 되어 있다. 지금은 이 음이 완전히 사라져 이것을 사용한 곳은 자음이 없는 것과 같이 발음하거나 ‘ㅈ’음으로 변화하였다. [...]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方今 경어의 조동사에 쓰이는 ‘읍’(즉 ‘흐읍느이다’ 등에 쓰이는 ‘읍’)으로, 이것은 사실 ‘습’인 것이다. 훈민정음 시대의 語法에서는 자음에 접하는 지금의 ‘습’은 ‘줍’으로, 모음에 접하는 ‘읍’은 ‘습’으로 정해져 있었다. [...] 또 한자음에서 ‘日’, ‘仁’, ‘人’의 음도 처음에는 이 나라에서 중국음대로 ‘실’, ‘신’, ‘인’으로 발음한 것이 그 음의 폐멸과 함께 ‘一’, ‘印’, ‘因’과 같이 ‘일’, ‘인’, ‘인’으로 발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5-26쪽)

‘△’의 음가를 현대 중국어의 마찰음이나 접근음 [z~ʃ]와 유사한 [dʒ]로 파악하였다.¹⁷⁾ 훈민정

16) 『龍歌古語箋』에서는 鮮初에는 된시옷의 음이 없고 당시에는 자음군의 소리가 모두 낮았다고 설명하였다(4쪽). 그러나 『龍歌古語箋』은 10여년 후의 저작이므로 『韓語通』 저술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17) 한국어의 자음을 다룬 부분(12-13쪽)에서는 /ㅈ/이 /ㅍ/, /ㄴ/, /ㅇ/ 뒤에 오거나 모음 사이에서 ‘j’ 음처럼 발음된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j’는 [dʒ]를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에서는 반치음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반설음이라고 한 것은 오류이다. 상대높임에 쓰이는 ‘읍’이 ‘습’에서 기원하였다는 관찰은 좋았지만 이형태 분포에 대해서는 ‘습’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한 듯하다.¹⁸⁾ 그러나 고유어와 한자음에서 /ɾ/이 소실된 사실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정확하다.

[빙] 이것은 훈민정음의 28자모에 없는 것을 당시의 音字 사용자가 國音을 적기 위해 사용한 자모로, 『倭語類解』에서는 우리의 ‘바 비 브 베푼 보’의 자음이 이 글자에 의해 표기되고 있지만 조선 聲音의 성질 때문에 그 국어 중에 순수한 ‘b’ 음이 존재한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國音을 적는 데 사용한 ‘빙’은 『倭語類解』의 용법과 다른 것일 테고, 나는 ‘w’, ‘f’ 또는 ‘v’와 유사한 일종의 자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추단한다. 現今에도 ‘덥고’(暑), ‘덥고’(覆)의 두 단어에서 후자는 ‘top-ko’라고 말하지만 전자는 ‘tow-ko’와 같이 발음된다. 이 ‘w’와 비슷한 ‘ㅂ’이야말로 일찍이 ‘빙’자에 의해 표기된 자음이 남은 것으로 ‘눅고’(馱) ‘nuw-ko’ 등도 그 한 예인 것은 이들 단어가 실로 『龍飛御天歌』에서 ‘빙’자로써 표기되고 또 이 음으로 끝나는 어근의 동사가 어미 첨가에서 ‘와’(wa), ‘워’(wo)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써 분명하다. ‘빙’ 자는 지금은 많이 ‘ㅂ’음으로 적히지만 또한 ‘ㄱ’, ‘ㄷ’의 모음으로 변한다. [...] 또 조동사에서는 경어의 ‘읍’, ‘습’의 ‘ㅂ’은 본래 이 음이다. (26-27쪽)

『倭語類解』에서는 일본어의 /b/를 나타내기 위해 ‘ㅃ’과 같은 자모 조합을 사용하였으므로 ‘빙’이 쓰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빙’의 음가를 [w], [f], [v]에 가까운 일종의 자음으로 파악한 것은 지금의 관점으로도 정곡을 얻은, 대단히 훌륭한 견해라고 하겠다. ㅂ 불규칙 용언의 ㅂ과 어미 ‘-습-’, ‘-소오-’ 등이 ‘-술-’으로 소급된다는 관찰도 상당히 이른 시기의 것이다. 자음 앞에서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종성 /ㅂ/이 [w]처럼 발음되었다는 기술은 일부 방언에서 나타나는 ‘더웁다’와 같은 어형을 고려한 것인지도 모른다.

[ㅇ] 現今 ‘ㅇ’자를 종성에서 ‘ng’을 표시하고 초성에서 無聲의 표시로 사용하지만 본래 無聲의 표시는 ‘ㅇ’을 사용하고 ‘ng’에는 반드시 ‘ㅇ’이라는 자모를 사용한 것이다. [...] 단 ‘ng’은 現今 초성으로 쓰이는 예가 없지만 본래 초성으로도 쓰인 예가 심히 많다.

지금은 ‘ng’ 초성은 목음이 되었다. 가장 심한 예는 조동사인 ‘이다’, ‘잇가’, ‘잇고’가 모두 ‘ng’으로 시작한 것이다.

‘ㅇ’과 ‘ㅇ’이 15세기에 자음이 없음과 [ŋ]을 나타내다가 ‘ㅇ’으로 통일되면서 음절 내 위치에 따라 기능이 달라졌다는 것을 잘 파악하였다. /ㄱ/ 약화 등 ‘ㅇ’이 음가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환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이-’가 상대높임법과 관련되는 요소라는 것을 포착하지 못하였으나 당시의 연구 수준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ㄷ] 훈민정음의 자모 중에 수록된 것이지만 그 解義가 심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실제로 쓰인 것은 詰音[경음]을 나타내는 경우에 ‘ㄷ’ 앞에 사용된 근소한 예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 이를 보면 이것으로 나타내야 하는 특종의 자음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8쪽)

18) 『龍飛御天歌』에는 ‘듭스븐니’와 같이 ‘습’도 나타나므로 /ㅅ/이 초성인 이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 단지 ‘습’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을 뿐일지도 모른다.

‘ㅎ’은 특정한 발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ㄹ/의 변이음 또는 후행 자음의 경음화와 연결 짓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한국어사의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기술이다.

[ㄷ] 『玉篇』에 ‘ㄷ’이라는 자모를 사용한 한자의 原音은 ‘ts’이므로 ‘ㄷ’는 ‘ts’ 자음을 표시하는 것을 本則으로 하는데, ‘자주’는 ‘tsa’tsu’를 나타내고 ‘자쥬’야말로 ‘cha’chu’를 나타내는 것은 『訓民正音』에서 ‘ㄷ’ 자모의 正當한 解義인 듯하다. 그러므로 『玉篇』에 의하면 ‘壯’은 음 ‘장’이고 ‘張’은 ‘장’이다.¹⁹⁾ 그러나 한국어에 일찍이 ‘ts’음이 있었던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ㅅ] 음의 요음 ‘샤’, ‘셔’, ‘쇼’, ‘슈’는 지금 ‘사’, ‘서’, ‘소’, ‘수’와 같이 어느 것이나 ‘sa’, ‘so’, ‘so’, ‘su’로 발음하고 ‘sh’ 음은 現今의 한국어에 이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한자음을 적을 때에는 그 구별을 하고, 또 近古의 文獻의 文書를 보아도 한국의 국어 중에 그것이 각별히 쓰인 형적이 明瞭하므로 ‘sh’음은 어쩌면 가까운 시기까지 존재한 廢音인 걸까.

‘ㄷ’, ‘ㅅ’은 사라진 문자라기보다는 발음, 즉 치경파찰음 [ts]와 치경마찰음 [ç]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ㄷ’에 대해서는 해당 글자를 갖는 한자가 原音, 즉 중국어에서는 치경파찰음이고 『訓民正音』에서도 ‘자’와 ‘쟈’가 구별되고 있으나 일찍이 [ts]음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당시에는 파찰음이 모든 환경에서 [tç]로 구개음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렇게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리고 ‘ㅅ’에 대해서는 ‘샤’, ‘셔’, ‘쇼’, ‘슈’와 ‘사’, ‘서’, ‘소’, ‘수’의 혼기가 일어나는 것은 19 세기가 되어서의 일이므로, 그 이전 즉 近古의 표기를 근거로 가까운 시기까지 [ç]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한자에서 자국의 음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은 신라 왕조 무렵의 일일 텐데 지금은 이것을 천착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다. 그러나 現今의 한자음은 우리나라와 달리 吳音·漢音 등의 종류가 없고 한자음이라고 하면 단 한 종류뿐인데 이것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고증할 길이 부족하고, 또 한자의 수입 및 자국의 한자음이 정해진 시대 경과를 알기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現今에는 그 원음, 즉 漢唐 시기에 대륙의 실제 발음은 어떠했는지도 또한 분명하지 않으므로 일본음 및 韓音과 대륙음 간의 비교 연구는 후일 학자의 탐구를 기다릴 밖에 없다. 또한 現今의 韓音은 『全韻玉篇』, 『奎章全韻』에 의하여 바로 明瞭하므로 이 책에서는 그것을 들지 않을 것이다. (30-31쪽)

마에마는 현재 학계의 통설처럼 한국한자음의 형성이 신라 무렵, 즉 당나라 때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다만 한국한자음이 정착하게 된 과정은 물론이고 중국 한자음도 재구하기 어렵다고 하여 후일의 과제로 돌렸다. 처음으로 중국어의 中古音을 재구한 베른하르트 칼그렌 (Bernhard Karlgren, 1889~1978)의 박사논문인 『É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가 나온 것이 1915년이므로 시대적인 한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체언과 조사

19) 이 『玉篇』은 『全韻玉篇』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全韻玉篇』에는 ‘壯’은 ‘장’, ‘張’은 ‘장’으로 되어 있다.

[ㅎ 말음 체언] 어근 ‘ㅎ’음으로 끝나는 명사가 옛날에는 그 수가 심히 많아 지금 언문창작 시대의 通語를 보면 ‘자ㅎ로’, ‘드르헤’, ‘뒤헤’, ‘내히’와 같은 ‘음홀’, ‘안해’, ‘열회’, ‘갈해’, ‘하 늘히’ 등이 있다.²⁰⁾ 그 대부분은 지금 子音[ㅎ]을 잃었지만 위에 든 現今 ‘ㅎ’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취급되는 명사는 지금도 여전히 당시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다. (38쪽)

[△ 말음 체언] 이 종류의 말은 옛날 ‘△’ 자음으로 끝난 것인데 △ 음은 廢滅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조사는 자음으로 끝난 것처럼 옛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龍飛御天歌』 ‘ㄱ시’, ‘ㄱ새’ 등이 그 예이다. (39쪽)

이 시기까지도 ㅎ 말음 체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본문에서 ‘나라, 바다, 짜, 우, 터, 나’와 같은 명사는 조사가 없으면 그대로 발음하고 조사 ‘이’가 붙으면 ‘ㅎ’으로 끝난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²¹⁾ 이는 ㅎ 말음 체언이 예전에는 점차 사라지면서 주격 환경에서만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 소멸과 관련해서도 자음이 소실되어도 ‘강ㄱ을’과 같이 그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조사 ‘-가’] ‘가’라는 조사는 극히 근래에 사용되었으며 언해류의 시대 이전의 것에서는 볼 수 없다. 그 이전은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에도 ‘ㅣ’음을 붙이고 그것으로 말하여 나타낸 듯하다. 단 명사가 ‘ㅣ’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쓸모가 없으므로 조사를 붙이지 않는다. 이 용법은 지금도 한문을 읽을 때의 토로 여전히 쓰인다. (90-91쪽)

[조사 ‘-을’] ‘을’, ‘를’의 조사는 古法에 따르면 ‘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행모음이 어떠한 지에 따라 ‘을’, ‘을’의 두 가지로 나뉘어 쓰이고 ‘를’의 경우는 ‘를’, ‘를’로 나뉘어 쓰인 듯한데, 즉 선행모음이 ‘ㄱ’, ‘ㄴ’, ‘ㅇ’, ‘ㅇ’, ‘ㅇ’이면 ‘을’, ‘를’을 사용하[고...] 선행모음이 ‘ㄱ’, ‘ㄴ’, ‘ㄷ’, ‘ㅌ’, ‘ㅍ’, ‘ㅍ’, ‘ㅍ’이면 ‘을’, ‘를’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실로 언문 창작시대에도 ‘ㅇ’음은 항상 명확한 발음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철자상에 혼잡을 일으켰는데 『龍飛御天歌』 중에도 [...] 드물게 앞의 규칙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 있다.

또 명사가 短聲인 모음으로 끝날 때에 ‘ㄱ’을 더하지 않고 다만 한 개의 ‘ㄱ’만을 붙여 이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의 古法이 있다. (92-93쪽)

[조사 ‘-의’] ‘의’ 조사는 [...] ‘에’ 즉 ‘-에’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동일한 것임은 말의 변천으로부터도 분명하다. 즉 ‘-에’의 의미인 ‘에’를 소속의 뜻으로도 빌려 사용하는 것이 틀림 없다. 경서의 구두 및 언해에서 ‘-의’의 경우에 ‘의’를 사용하고 ‘-에’의 경우에 ‘에’를 사용하였으므로 現今에도 이 용법에 따라 말을 적는 것이 많지만 사실은 現今의 구어에서는 어느 것이나 ‘에’로 발음하는 것을 상례로 한다. 또 『龍飛御天歌』에는 통틀어 ‘에’의 조사를 사용하였다. 드물게 ‘의’도 쌍방에 혼용된다. 요컨대 언해류의 구별법은 의의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구분한 것일 듯하다. (94쪽)

[조사 ‘-ㅅ’] 『龍飛御天歌』에서 ‘ㅅ’ 조사는 ㅅ△ 등 여러 자음으로 적혀 있으나 그 발음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 ‘의’ 조사를 붙인 뒤 ‘ㅅ’을 더 붙인 형태는 지금도 여전히 한문 등을 풀 때에도 쓰인다. 이것도 『龍飛御天歌』에는 곳곳에 쓰인다. (95쪽)

20) 이 예들이 모두 등장하는 문헌은 『龍飛御天歌』뿐이다. 특히 ‘음홀’은 『龍飛御天歌』에만 2번 나타난다. 이는 마에마의 ‘언문 창작시대의 通語’가 『龍飛御天歌』에 기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1) 구어에서 ‘ㅎ’은 목음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마에마는 당시 한국어에서 이 단어들의 ‘ㅎ’은 표기상으로는 나타났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격 조사를 다루면서는 주격조사 ‘-가’가 언해류의 시대, 즉 16세기 후반 이전에는 쓰이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대격조사에 대해서는 모음조화와 그 예외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조건에 대한 기술만 있을 뿐 이것들을 묶어서 그 환경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지는 못하였다. 속격조사에서는 ‘-의’와 ‘-에’의 구분이 표기상의 일이라고 추정하고 ‘-에’가 기원적인 것으로 보았다. ‘-의’와 ‘-스’는 “‘의’는 특히 명료하게 소속의 관계를 나타내려고 할 때에는 항상 쓰이지만 보통은 ‘스’ 음의 첨가에 의해 ‘-의’의 뜻을 나타낸다”(94쪽)라고 하여 교체 조건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조사 ‘-로’] 요즘의 철자법에서는 ‘ㄹ’ 음에 상접할 때는 뒤에 오는 것을 ‘ㄴ’으로 적는 것을 상례로 삼는다. 그러나 이것은 언해시대부터 이후의 것으로 언문 창작시대에는 쌍방 모두 ‘ㄹ’음으로 적었다.

‘으로’ 조사는 古法에 따르면 ‘을’의 경우와 같이 ‘으로’, ‘으로’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쓰여 선행모음이 ‘ㅏ’, ‘ㅑ’, ‘ㅓ’, ‘ㅕ’, ‘ㅗ’, ‘ㅛ’이면 ‘으로’를 쓰고 ‘ㄱ’, ‘ㅋ’, ‘ㅌ’, ‘ㅍ’, ‘ㅓ’, ‘ㅗ’, ‘ㅛ’이면 ‘으로’를 쓴 듯하다.

또 ‘으’와 ‘으’를 혼잡시킨 예는 이 경우에도 또 있다. (96-97쪽)

[조사 ‘-와’] 언해시대 이상의 通語에서는 ‘로’의 경우와 같이 ‘ㄹ’ 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모음으로 끝나는 것과 같이 취급하여 ‘와’를 사용한 것과 같다. (98쪽)

[조사 ‘-에’] 언문 창작 무렵의 通語에서 ‘에’ 조사는 선행음의 여하에 따라 ‘에’, ‘애’ 또는 ‘익’, ‘예’의 세 가지로 나뉘어 쓰이고 ‘애’ 또는 ‘익’는 선행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일 때에 쓰이고 [...] ‘예’는 명사 ‘ㅣ’로 끝나는 것에 쓰인다.

또한 [...] ‘-의’의 뜻을 나타내는 ‘의’도 ‘-에’의 뜻을 나타낸다. 이 조사도 당시의 通語에서는 그 형태에 차이가 없이 ‘에’, ‘애’, ‘익’, ‘예’는 어느 것에나 쓰였다. 게다가 동시에 또 ‘의’라는 조사로서 쌍방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정된 극히 현저한 物名에만 그 흔적을 인정하므로 혹은 이것이 즉 ‘애’, ‘애’, ‘익’, ‘예’보다도 한층 上代의 용법일지도 모른다. (99-100쪽)

부사격조사의 사용에서 ‘-로’는 표기상 ‘ㄹㄹ’이 ‘ㄹㄴ’으로 바뀐 것과 ‘으로’의 제1음절 모음이 모음조화에 따라 ‘ㅇ’과 ‘ㅣ’로 나뉘어 쓰이되 혼기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와’는 ‘ㄹ’ 뒤에서 ‘와’가 쓰이는 것을 언급하였으나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에’ 또한 모음조화에 의해 나뉘어 쓰이는 것과 함께 특이처격조사 ‘-의’를 언급하면서 특이처격이 더 오래된 용법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조사 ‘-은’] ‘은’은 『龍飛御天歌』에 따르면 당시 ‘은’, ‘은’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쓰여 ‘ㅏ’, ‘ㅑ’, ‘ㅓ’, ‘ㅕ’, ‘ㅗ’, ‘ㅛ’ 모음이 선행하는 말에 붙으면 ‘은’, ‘ㄱ’, ‘ㅋ’, ‘ㅌ’, ‘ㅍ’, ‘ㅓ’, ‘ㅗ’, ‘ㅛ’ 음이 선행하는 것에는 ‘은’을 사용한 것과 같다. [...] ‘ㄴ’도 ‘은’과 같이 古法에서는 이것을 붙이는 말의 모음이 ‘ㅏ’, ‘ㅑ’, ‘ㅓ’, ‘ㅕ’, ‘ㅗ’, ‘ㅛ’이면 ‘ㄴ’, ‘ㄱ’, ‘ㅋ’, ‘ㅌ’, ‘ㅍ’, ‘ㅓ’, ‘ㅗ’, ‘ㅛ’이면 ‘ㄴ’으로 나뉘어 쓰였다. (108-109쪽)

보조사 ‘-은/는’도 모음조화에 따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인대명사 '나'] 古法에서는 '나'에 'ㅣ'를 붙여 '내'로 한 것뿐이고 '내가'의 뜻을 나타낸다. 또한 이것에 '가'를 붙이는 것에 이른 것은 극히 近世의 일이다. (122쪽)

[인대명사 '너'] '네가'는 古法에서는 '네'만으로 '네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와 같다. (123쪽)

[지시대명사 '그'] 古語에는 '그'를 反語의 '불러냄'에 사용하여 'ㅣ' 조사를 붙이는 것이 있다. 지금의 話語에서는 들을 수 없다. (128쪽)

[의문대명사 '누'] '누가'는 극히 近世의 용어에 속하며 古法에 의하면 '누가'의 뜻은 '뉘'로 나타낸다. 또한 '누'에 '를'을 붙여 '누구를'의 뜻에 쓰인 것은 古法에서 보통이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 (131쪽)

중세어에서 '내', '네', '그', '뉘', '누를'과 같은 표현이 존재하였고 이것들이 '내가', '네가', '누가', '누구를' 등으로 바뀐 것은 상당히 가까운 과거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내', '네' 등의 성조에 따른 의미 차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4) 용언과 어미

[Xㅎ 동사의 격음화] 'ㅎ' 동사를 붙이는 경우에 그 종류의 동사는 어미를 취할 때 'ㄱ', 'ㄷ', 'ㅂ', 'ㅈ'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면 자음을 氣音[격음]으로 변화시키고 'ㅎ'를 생략하는 일 이 있다. [...] 단 古語에는 이 법이 널리 쓰였으나 現今의 口語에서는 부정어의 조동사 '지'를 받는 경우에 주로 쓰일 뿐이다. (143쪽)

'Xㅎ' 뒤에 자음 어미가 올 때 /·/가 탈락하고 격음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예전부터 있었고 당시에는 주로 '-지' 앞에서 일어났음을 지적하였다.

[현재시제] (167) 近古의 어법에서 모음에 접할 때도 자음에 접할 때와 같이 'ㄴ다'라는 어미를 사용한 예가 많다. [...] 또 직설법으로서 동사에 'ㄴ'이라는 조동사를 더하여 때를 나타내지 않고 바로 '다'라는 어미를 붙인 것이 近古에는 드물지 않다.

마에마는 모음 뒤 현재시제 '-ㄴ다'의 예로 시조에 나타나는 '모로ㄴ다'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의문형 종결어미이므로 오류이다. 또한 아무 시제 요소 없이 동사 뒤에 '-다'가 붙은 예를 현재시제로 파악하고 있는데, 동사 뒤 영형태는 과거 완망상을 나타내므로 이 또한 오류이다.

[약속형 '-마']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마'를 첨가하는 법이 있다. '마'는 부정법 'ㅁ'에 'ㅏ'(불러내는 뜻이 있다)를 더한 것으로 이 경우에 직설법의 상례인 '다'라는 어미는 붙이지 않는다. (169쪽)

['-더라'의 '라'] 직설법에 '다' 대신 '라'라는 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은 드물게 사용되지만 古語에는 극히 보통이었던 듯하고, '라'는 '다'보다는 언명의 의미가 강한 듯하다. 언해시대의 常語로서는 직설법의 현재를 'ㄴ니라', 과거를 '니라', 미래를 '리라' 또는 'ㄴ지라'로 맺는 형태가 심히 많다.

미래의 첨가에 사용되는 '마'는 古語에도 보이지만 미래는 많이 '리라'를 사용하였다. 지금

‘리라’는 廢語에 속하지만 경어로서 ‘리다’, ‘리이다’라는 어미는 곧 그 일부가 생존한 것이다. (170-171쪽)

[의문형 ‘느냐’] 동사의 의문법은 ‘느냐’(‘느’는 움직임의 나타내고 ‘야’는 부름을 의미한다)를 첨가하여 맺는다. (171쪽)

‘느냐’(느냐)라는 어미는 近古의 話語에서는 ‘야’를 ‘요’로 대신한 ‘느냐’라는 어미와 병용되었다. ‘느냐’는 지금 廢語가 되었다. [...] 또 이 ‘요’라는 의문어미는 ‘허리라’에 대한 ‘허리요’라는 형태로 동시에 쓰였다. [...] 지금 구어에서 ‘헛갯느냐’라는 의문은 近古의 어법에서 ‘르소냐’라는 어미를 사용하였다. [...] 또 ‘는가’라는 의문어미는 옛날에 왕성히 사용된 듯하다. 지금에도 지방에서는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서울말에서도 때때로 사용하는 것을 본다. [...] 또 古語로서 ‘가’가 변한 ‘고’라는 어미도 ‘가’와 마찬가지로 쓰인 것이다. (172-173쪽)

[명령형 ‘-어라’] 단순한 명령법은 ‘어라’(과거를 나타내는 어미로부터 ‘스’를 제거한 것과 ‘라’)를 첨가한다. (173쪽)

近古의 어법에서는 연용법에 ‘디라’를 붙여 명령법으로 사용한 것이 있다. (174쪽)

종결어미에서는 먼저 어미의 기원적 분석에서 약속형 ‘-마’를 ‘-ㅁ’과 ‘-아’로, 의문형 ‘-느냐’를 ‘-느-’과 ‘-야’로, 명령형을 ‘-어(<엇)-’과 ‘-라’로 분석한 것이 재미있는데, 이는 마에마의 분석적 경향을 보여준다.

평서형에서는 ‘-라’와 ‘-다’의 교체 조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언명의 의미가 강”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라’에 주로 선행하는 어미(구조체)가 ‘-니-’, ‘-리-’, ‘-노-’ 등 [원칙], [의지], [의도] 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과 연결하면 이해할 수 있다. 직설법의 시제 체계를 분석한 것은 정확하다. 과거에 쓰이던 미래시제의 ‘-리라’와 ‘-리(이)다’ 간의 관계를 포착한 것도 훌륭한 관찰이다. 의문형에서는 ‘-느냐’와 ‘-뇨’, ‘-가’와 ‘-고’의 관계를 판정의문과 설명의문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新舊 관계로 보았는데,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방언까지 관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부터 언어 감각의 예민함을 짐작할 수 있다.

[연용형+셔] 연용법에 ‘셔’를 붙이지 않고서 이 의미로 쓰였던 것은 古語에 심히 많고 現今에도 口語에 드물게 사용된다. (179쪽)

[나열의 ‘며’] 위와 같은 의미로 ‘며’라는 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옛날에는 심히 보통이었던 듯하나 지금의 口語에서는 극히 드물게 사용된다. (180쪽)

연결어미에서는 ‘~하고 나서’의 의미로 ‘-셔’ 없이 ‘-어’만 사용하거나, ‘-며’를 사용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고 당시에는 드물게 쓰인다고 지적하였다. 이 또한 문헌 자료와 현실 언어를 아울러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얻기 어려운 감각이다.

[‘-노라’] 인용의 담화가 일인칭일 때는 직설법어미인 ‘다’ 대신에 ‘노라’로써 하는 경우가 많다. [...] ‘노라’라는 조동사는 古語에 있어서는 삽입법뿐만 아니라 보통 직접법의 1인칭으로도 쓰인 것이다. (193-194쪽)

[‘-려’] 古語에 ‘려’, ‘랴’와 함께 쓰인 ‘고져’, ‘고쟈’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의향보다는 오히려 희망의 뜻을 지닌다. 現今의 口語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또 마찬가지로 뜻으로 ‘고’로 삽입어구를 맺고 아래에 [...] ‘십’(십)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

는 법이 古文에는 심히 많다. 이것은 지금 廢語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쓰임이 심히 제한된다. (200-201쪽)

‘-노라’에서 1인칭의 의미를 看取해 낸 것은 매우 선구적이다. 한편 ‘-고져’, ‘-고자’가 구어에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고 십(싶)-’의 쓰임이 제한된다는 것은 의외이다. ‘-고 싶-’ 구문은 18세기 후반 이후에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명사형어미] 古法에는 어근에 ‘ㄱ’을 붙여(자음에는 ‘으’를 끼움)서 부정법을 만드는 것을 널리 사용한 듯하다. 지금의 話語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또한 ‘애’라는 조사를 붙여 ‘기에’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다. (202쪽)

당시에는 명사형어미 ‘-ㄱ’이 잘 쓰이지 않고, 명사형어미로 같이 언급한 ‘-기’가 많이 쓰인다는 것은 ‘-기’의 분포가 압도적이 된 당시 상황을 반영한다. ‘-매’로 표기되는 요소를 ‘-ㄱ+-애’로 파악한 것은 마에마의 분석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

[-습너다] 古法에서는 단순한 직설법에서 ‘ㅎ니라’, ‘ㅎ니라’, ‘ㅎ리라’의 ‘라’를 떼고 본문의 ‘이다’로 대신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경어로 삼은 것이다. [...] 또 1인칭 직설법에 쓰인 ‘노라’의 어미도 ‘라’를 ‘이다’로 대신함으로써 경어로 삼았다. (210쪽)

[-닛가] 의문법 경어의 古法에도 직설법과 같이 ‘ㅎ니라’, ‘ㅎ니라’, ‘ㅎ리라’의 ‘라’를 떼 형태에 ‘잇가’, 또는 ‘잇고’(‘가’의 變)를 바로 첨가한 예가 많다. (211쪽)

[-쇼셔] 古語에서 명령의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경우는 ‘쇼셔’라는 조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읍’, ‘습’을 더하여 ‘쇼셔’로써 맺은 형태도 널리 사용하였다. (213쪽)

[-더이다] 古法에는 앞에 다룬 것과 같이 ‘ㅎ더라’의 ‘다[라]’를 ‘이다’로 바꿀 뿐이고 ‘읍’, ‘습’을 붙이지 않고 경어에 사용한 것이 매우 많다. (215쪽)

청자대우법에서는 ‘-니-’, ‘-리-’, ‘-노-’ 뒤에서 ㅎ야체의 ‘-라’가 ㅎ쇼셔체의 평서형 ‘-이다’, 의문형 ‘-잇가/잇고’와 교체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ㅎ더이다’ 또한 ‘ㅎ더라’에서 ‘-라’만 ‘-이다’로 바꾸었다고 파악하였다. 당시에는 ‘읍’, ‘습’이 청자대우 요소로 쓰였기 때문에 ‘읍’, ‘습’ 없이 ‘-이다’로 경어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청자높임 ‘-이-’의 존재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5) 부사

[부사의 부정법] ‘히’, ‘이’는 現今 존재하는 부사의 대부분을 만든 古法의 조동사로서 [...] 시대적으로 ‘히’, ‘이’라는 조동사보다 하나는 오래됐다고 믿어지는 ‘오’라는 조동사는 자동사로부터 타동사를 만드는 데 쓰여 ‘새’에 대한 ‘새오’, ‘셔’에 대한 ‘셔오’(今세우)의 예와 같이 되는데, 이 조동사는 또한 동사로부터 부사를 만드는 데 쓰였다. (321쪽)

‘-이’, ‘-히’가 옛날에는 어미였는데 이로부터 현존하는 부사들이 대부분 만들어졌다는 견해는

상당히 정확하고, ‘-오’가 ‘-히’, ‘-이’보다 오래되었다는 기술도 흥미롭다. 또한 형태적으로 드러나는 부사 파생과 타동사 파생의 공통점을 잘 포착하고 있다.

이상으로 『韓語通』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통시적 기술을 살펴보았다. 『韓語通』의 통시적 기술은 전반적으로 15세기를 기준으로 명사부터 부사까지 다양한 품사에서 ‘古語·古法’과 ‘現今’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聲音과 체언·조사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표기와 이형태 교체와 같은 형태음운적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용언·부사 부분에서는 문법형태소와 관련된 좀 더 문법적인 문제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古語·古法’의 예를 현대어와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이전의 형태를 추정하거나, ‘近古’ 자료의 어형이나 현실 언어의 방언까지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책 전체에서 통시적 기술의 양은 많지 않지만 한국어사 연구의 첫 출발로서는 상당한 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대구분과 관련하여 덧붙이면, ‘古語·古法’과 ‘現今’은 이분법적인 구별로, ‘古語·古法’은 단순히 ‘現今 이전’의 뜻으로 쓰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언해창작시대’, ‘언해시대’, ‘近古’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 어렵듯하나 시대구분을 보여준다(정경재·스기야마 유타카 2021: 37-43).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앞은 (스아우눈) 앞이 中古아이 (스아우가)”와 같이 ‘中古’라는 용어가 쓰인 것이다. 마에마의 머릿속에서 ‘아이’는 ‘近古’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에마는 ‘언해창작시대-언해시대(=中古?)-近古-現今’과 같은 4분법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²²⁾

4. 어휘 목록에 보이는 통시적 기술

『韓語通』의 제2편 ‘語辭’에서는 각 장의 본문이 끝나면 ‘○○語彙’라는 제목으로 각 품사에 해당하는 어휘 목록을 나열하였다. 각 단어는 로마자로 표기한 발음, 한글 표기, 일본어 뜻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1)

ㄱ. A-bo-ji	아버지(古아바님)	おとっさん
ㄴ. A-hui	으희(原으희)	子供
ㄷ. Nyon-o	년어(鱧魚)(音련어)	鮠
ㄹ. Chom	덤(點)	點 ^{點を打つ} 덤친나[다] ²³⁾
ㅁ. I-ri	이리	こんなに、こちらへ
ㅂ. Chim-jak...ha	짐작(斟酌)...ㅎ	想像す
ㅅ. Kit(kit')	깃	遺(のこ)る
ㅇ. Kit(kit)	깃	汲む
ㅈ. Chong-dap(daw)	정답	情深し

22) 이는 현대의 일본(어)사의 시대구분에서 ‘上代-中古-近世-近代(現代)’와 같은 4분법이 쓰이는 것을 연상시킨다.

23) 『韓語通』에는 종결어미 ‘다’가 ‘나’로 잘못 인쇄된 곳이 많다.

로마자 표기는 먼저 단독형 또는 자음 앞 형태를 들고 괄호 안에 모음 앞에서의 형태를 제시하였다.²⁴⁾ 이것은 한국어 발음을 가나로 표기하는 것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이상혁 2020: 247).²⁵⁾ 『韓語通』의 품사별 어휘 목록에서 흥미로운 것은 한국어 표제어 옆 괄호 안에 (1ㄱ-ㄷ)과 같이 ‘原’, ‘古’, ‘音’으로 시작하는 참고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으나,²⁶⁾ 이 참고어는 마에마의 통시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韓語通』의 전체 어휘 목록에서 ‘原’은 136개, ‘古’는 129개, ‘音’은 47개가 보인다. 품사별로 통계를 내면 다음과 같다.

참고어	명사·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접속사	감동사	합계
原	78	0	26	12	20	0	136
古	114	12	0	0	3	0	129
音	28	0	13	6	0	0	47
기타	0	0	6	0	3	0	9
없음	881	49	920	286	243	10	2389
합계	1086	61	965	304	269	10	2695

[표 1] 『韓語通』 어휘 목록의 참고어 통계

1) ‘音’ 참고어

가장 파악하기 쉬운 ‘音’ 참고어부터 생각해 보자. ‘音’ 참고어는 두음법칙의 적용으로 ‘ㄴ’으로 표기하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이다(47개 중 38개). (< > 안의 숫자는 『韓語通』의 쪽수를 나타낸다.)

(3)

- ㄱ. 니일(來日)(音리일) 明日 <68>, 낙상(音락상)(落傷)…ㅎ 怪我す <238>
- ㄴ. 작난(作亂)(音작란)…ㅎ いたづらす <224>
- ㄷ. 시월(音십월) 十月 <80>, 조용(音종용)(從容)…ㅎ 静なり <311>
- ㄹ. 쌍(雙)(音상) 對 <81>

(3ㄴ-ㄷ)의 예는 두음법칙이 아니라 각각 비음화(5개), 자음 탈락(3개), 경음화(1개)에 해당한다. 모두 한자어라는 점에서 ‘音’ 참고어는 해당 한자어에 음운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24) 李賢熙(1993: 116, 각주 19)에서는 “형태음소적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그 異音 표기도 괄호 안에 넣어서 제시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반대에 가깝다.
 25) 이상혁(2020: 247, 각주 27)에서는 마에마의 로마자 및 영어 지식을 시드니 근무와 연결짓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한국에 건너오기 전에 게이오기주쿠를 비롯한 여러 학교와 모임에서 영어를 배웠다(白井順 2015: 11-16). 『朝鮮』 3권 3호(1909년)에 실린 ‘人物評判記’에서는 마에마에 대해 “그는 영어에 숙달했을 뿐 아니라 또한 자못 韓語에 숙달하여”라고 평하였다.
 26) 이상혁(2020: 247)에서는 “월어와 고어의 경계가 다소 모호한 점은 있으나, 저자가 이미 조선어 고어 문헌을 살펴보고 그것을 당시 조선어에 대응”한 예라고만 설명하였다.

2) ‘古’ 참고어

‘古’ 참고어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표제어에 대응하는 옛말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그 유형은 크게 ① 모음 변화, ② 자음 변화, ③ 표기 변화, ④ 어형 변화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예들 중에는 『韓語通』의 본문에서 ‘語根’과 ‘조사가 없이 말하는 경우’로 다루어진 것들이 있다. 그러한 예들에는 밑줄로 표시하기로 한다.)

(4) 모음 변화

- ㄱ. ㆍ > ㅡ: 아들 > 으들, 하늘 > 하늘, 말쌈 > 말숨, 노릇 > 노릇, 오늘 > 오늘
바늘 > 바늘, 사슴 > 사슴
- ㄴ. ㅡ > ㅜ: 허물 > 허물, 물 > 물, 불 > 불, 허물며 > 허물며
- ㄷ. 기타: 가마괴 > 가마귀, 바올 > 방울, 선비 > 선비, 도죽 > 도적, 멧 > 멧, 어디 > 어데
허물며 > 허물며, 부얌 > 비얌

모음에서는 /ㆍ/의 비음운화를 반영한 ‘ㆍ > ㅡ’의 변화가 가장 많고, 원순모음화를 반영한 ‘ㅡ > ㅜ’의 변화가 그 다음으로 많다. ‘ㄴ > ㅜ’나 ‘ㄷ > ㅜ’, ‘ㆍ > ㅜ’, ‘ㅋ > ㅋ’, ‘ㄴ > ㅋ’, ‘ㅎ > ㅎ’와 같은 변화도 조금씩 반영되어 있다.

(5) 자음 변화

- ㄱ. ㅅ: 앞 > 아우, 처삼 > 처음, ㅅ > ㅅ, 막숨 > 막음
- ㄴ. ㅍ: 셔블 > 셔울
- ㄷ. 기타: 말쌈 > 말숨, ㅍ > ㅍ, 밧 > 밧

제1편 聲音에서 지적한 /ㅅ/과 /ㅍ/의 변화를 반영한 표기의 예가 가장 많다. 그 밖에는 ‘ㅅ > ㅅ’, ‘ㅍ > ㅍ’ 등의 변화를 나타내는 예가 있다. ‘밧 > 밧’은 본문(32쪽)에서 명사의 어근이 복자음으로 끝나는 예로 다루어졌으므로 ‘ㅅ > ㅅ’의 예가 아닌 표기의 문제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6) 표기 변화

- ㄱ. 모음: 아래 > 아리, 저자 > 저즈, 아들 > 으들
- ㄴ. 자음: 곶 > 곶, ㅍ > ㅍ
곶 > 곶, 밑 > 밑, 곶 > 곶, 밧 > 밧, 니표 > 님
- ㄷ. 기타: 즘싱 > 즘싱, 썩 > 썩, 바올 > 방울

모음 표기에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문헌들에서 흔히 보이는 ‘ㅅ~ㅅ’, ‘ㅍ~ㅍ’의 혼기가 보인다. 자음 표기에서는 15세기에 ‘ㄷ, ㅌ, ㅈ, ㅊ’ 등 다양한 자음으로 표기되던 것들이 근세 이후 7종성을 반영한 ‘ㅅ’, 과도분철을 반영한 ‘ㅅ\$ㅎ’, ‘ㅍ\$ㅎ’ 등으로 표기되는 모습을 보여준

다. 이 예들 중 일부는 명사의 어근이 ‘ㄷ’이나 ‘ㅈ, ㅉ’을 갖는 예로 본문(33-36쪽)에서 다루어졌다. 나머지 예들은 문자 ‘ㅇ’의 소실을 의식한 예들이다.

(7) 어형 변화

- ㄱ. ㅎ 말음: 안ㅎ > 안, 장 > 자, 칼ㅎ > 칼, 나라ㅎ > 나라, 뒤ㅎ > 뒤, 드르ㅎ > 들
우ㅎ > 우, 열ㅎ > 열
- ㄴ. 특수어간교체: 남ㄱ > 남
- ㄷ. 아바님 > 아버지, 어마님 > 어머니, 앞 > 압, 일흠 > 일흠, 갖 > 가지, 마손 > 마흔
마리 > 머리, 늪물 > 눈물, 바를 > 바다, 불휘 > 뿌리, 산힉 > 산양, ㅎㅅㅅㅅ > 혼자
썩 > 썩
- ㄹ. 님금 > 인군, 예 > 왜인, 현 > 멧, 현날 > 멧출

어형 변화에서는 ㅎ 말음이 사라진 예가 가장 많이 보인다. ‘남ㄱ > 남’은 본문(33쪽)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남게 올라갓소’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²⁷⁾ (7ㄷ)에 제시된 예들은 다양한 이유로 어형이 변화한 단어들로, ‘아바님~아버지’, ‘바를~바다’와 같이 직접적인 선후 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운 예도 있다. (7ㄹ)의 예는 고유어가 한자어나 다른 고유어로 대체된 예들이다. (7ㄷ-ㄹ)의 예를 동일한 종류의 변화로 판단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8)

- ㄱ. 쥐(古쥐) <56>, 활(古활) <58>, 아모(古아모) <140>, 엇더(古엇더) <142>
- ㄴ. 강(古가름あり) <61>, 님즈(古님あり) <69>, 도야지(古돌あり) <85>
열미(古여름あり), 아비(古어비あり) <51>, 짱(古짜あり) <85>
- ㄷ. 그름 > 구름(雲), 늦 > 늦(晝), 시?불 > 시굴(田舎), 여 > 하(あんまり)

‘古’ 참고어에서 특이한 것은 (8ㄱ)과 같이 표제어와 참고어의 어형이 완전히 동일한 예가 절반 가까이(58개)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에마가 접한 중세어 자료에서 나타난 어형이 당시의 한국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참고어는 표제어와 다른 것이 상식적이지만, 학문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때에는 옛말과 현대어가 다르지 않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²⁸⁾ 그리고 (8ㄴ)과 같이 ‘있음’을 뜻하는 ‘あり’를 동반하는 참고어가 있다(6개). 이것들은 ‘가름 > 강’과 같이 한자어가 고유어를 대체했거나, ‘님 > 님즈’, ‘돌 > 도야지’, ‘여름 > 열미’과 같이 별도의 단어형성 과정을 상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²⁹⁾ ‘아비-어비’, ‘짱-짜’는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여 ‘あり’를 붙였을 수도 있다. (8ㄷ)은 오류로 생각되는 것들이다. ‘그름’이나 ‘늦’

27) 당시 한국어에서도 ‘남’, ‘눔’ 등이 모음 조사 앞에서 ‘ㄱ’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남ㄱ’을 古 참고어로 넣은 이유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龍飛御天歌』에서는 ‘남근’, ‘남기’, ‘남지’, ‘남굴’과 같이 다양한 모음 조사 앞에서 /ㄱ/이 나타나는 반면, 당시 한국어에서는 ‘-에’ 앞에서만 /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어휘 목록(69쪽)에는 ‘남’과 ‘나무’가 (환경에 따른 이형태 기술은 없지만) 둘 다 실려 있다.

28) 이것은 마치 많은 옛말사전에서 표제어와 현대어의 어형이 같은 경우 뜻풀이에 동일한 단어만 실는 것을 연상케 한다. 물론 현대어 표제어의 참고어로 옛말을 실는 것이 아니라 옛말 표제어의 뜻풀이로 동일한 현대어 어형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옛말과 현대어의 어형이 동일하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이라는 어형은 중세어에서 보이지 않으며, ‘시궤’는 분명 『龍飛御天歌』의 ‘스궤’ 軍馬를’을 의식한 것이지만 ‘시궤’로 적은 이유를 알기 어렵다. ‘あんまり’는 ‘너무’의 뜻이므로 ‘하’는 이해가 되지만 참고어인 ‘여’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바, ‘古’ 참고어는 기본적으로 15세기의 어형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7ㄷ)의 ‘흐궤사’, ‘늬믈’와 (8ㄴ)의 ‘쌍-짜’를 들 수 있다. ‘흐궤사’, ‘늬믈’은 주지하다시피 한국어사 문헌자료 가운데 『龍飛御天歌』에만 등장하는 어형이며, ‘안-안ㅎ’ 등과 달리 ‘쌍-짜’를 사용한 것은 공교롭게도 『龍飛御天歌』에 ‘짜ㅎ’이라는 어형이 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⁰⁾ 물론 ‘처음-처삼’(『翻譯小學』), ‘즈싱-즈싱’(『杜詩諺解』)과 같은 예가 있으므로 『龍飛御天歌』만이 유일한 출처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³¹⁾

3) ‘原’ 참고어

‘原’ 참고어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음성모음을 갖는 단어의 ‘原’ 참고어로 양성모음을 할당하는 강한 경향이 보인다. 136개 가운데 (9ㄱ)의 ‘ㄴ > ㄱ’가 39번, (9ㄴ)의 ‘ㄷ > ㄴ’가 26번 나타난다. 다음으로 (9ㄷ)에는 ‘ㄷ’와 관련한 변화인 ‘ㄷ > ㄴ/ㄴ’, ‘ㄷ > ㅌ’를 반영하는 예가 다양하게 보인다. 그 밖의 모음의 변화로는 ‘ㄴ > ㄴ’, ‘ㄴ > ㄴ’, ‘ㄴ > ㄴ’ 등이 있다.

(9)

- ㄱ. 자루(原자루), 나중(原나중), 지우(原지우), 아주(原아주), 오죽(原오죽)
- ㄴ. 앓춤(原앓춤), 가슴(原가슴), 거스리(原거스리), 무르(原무르), 맛춤(原맛춤)
- ㄷ. 으희(原으희), 마디(原마디), 선비(原선비); 가운데(原가운데), 데(原디)
- ㄹ. 글피(原글피), 깃부(原깃부).
- ㅁ. 가을(原가을), 어름(原어름), 베(原베)

이 가운데 ‘ㄴ > ㄴ’의 예는 사실 앞서 (4ㄴ)에서 본 ‘블 > 불’의 예와 유사한 원순모음화의 예이다. 따라서 ‘블’은 ‘古’ 참고어에 두고 ‘깃부-’는 ‘原’ 참고어에 둔 것이 비일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어에서도 ‘블’은 ‘불’인 반면 ‘깃부-’는 ‘기쁘-’로 표기하는 것을 보면 중앙어에서 원순모음화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어휘 목록에 제시된 단어 가운데 ‘原’과 ‘古’를 동시에 지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들

쥐 [기] (옛) 쥐. 田마은 사슴의 등과 도즈기 입과 눈
 과 遮陽기 세 쥐 네도 잇더신가(慶尙四十 兎賊口 遮陽三
 鼠 其在于昔) <용가 9:40. 88.> 鼠는 쥐라... 한 새와 한
 쥐는 荒險 微이오 <능엄 8:119> 쥐 간과 머리엿 골

한글학회 편(1992), 『우리말 큰사전 4』, 어문각. 5344쪽.

29) 사실 (ㄴ)의 ‘가름 > 강’은 (ㄹ)의 ‘예 > 왜인’과도 같은 것이어서 ‘あり’ 사용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30) 본문(37쪽)에서 조사 없이 말할 때 ‘나라’, 조사 ‘이’를 붙였을 때 ‘나라히’가 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말로 ‘바다, 짜, 우, 터, 나’를 언급하였으면서도, 자신이 본 문헌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古짜ㅎ’로 처리하지 않고 ‘古짜’로 둔 것은 마에마의 신중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31) 마에마가 『韓語通』 집필 당시에 『翻譯小學』이나 『杜詩諺解』와 같은 중세어 자료를 보았다면 분명히 인용했을 것이므로 이들 자료를 보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龍歌古語箋』에서는 『杜詩諺解』가 빈번하게 인용된다.

을 비교해 보면 ‘原’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10)

- ㄱ. 古ㅁㅅ 原ㅁㅅ ㅁㅅ음; 古말ㅅ 原말ㅅ 말ㅅ음; 古시ㅁㅅ 原시ㅁㅅ 시ㅁㅅ
古일ㅎ 原일ㅎ 일ㅎ음; 古노ㅅ 原노ㅅ 노ㅅ
古앞 原앞 앞; 古아ㅅ 原ㅇㅅ ㅇㅅ
- ㄴ. 古어ㅅ 原어ㅅ 어ㅅ음; 古벼ㅅ 原벼ㅅ 벼ㅅ
- ㄷ. 古가ㅁㅅ 原가ㅁㅅ 가ㅁㅅ귀; 古오ㅅ 原오ㅅ 오ㅅ음; 古님ㅅ 原님ㅅ 님ㅅ
古하ㅅ 原하ㅅ 하ㅅ음; 古바ㅅ 原바ㅅ 바ㅅ음; 古션ㅅ 原션ㅅ 션ㅅ

(10ㄱ)은 ‘ABC’형으로, 현대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통시적 변화 과정에 해당하는 ‘ㅁㅅ-ㅁㅅ-ㅁㅅ음’ 같은 것과 표기의 변화(‘앞-앞’, ‘아ㅅ-ㅇㅅ’)가 섞여 있다.³²⁾ 그러나 통시적 변화를 상정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10ㄴ)은 ‘ABA’형으로, 마에마가 확인한 문헌상의 옛말과 당시 한국어의 어형은 일치하지만 ‘原’에서는 다른 것이다. ‘벼ㅅ’은 ‘一’와 ‘、’의 流動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어ㅅ음’은 문헌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10ㄷ)은 ‘古’와 ‘原’ 참고어가 동일한 ‘AAC’형이다. 앞서 ‘쥐(古쥐)’와 같이 ‘古’ 참고어와 당시의 한국어 어형과 동일한 예가 있었는데, 층위의 차이만 있을 뿐 과거의 어형과 그 이후의 어형이 동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4) 기타

[표 1]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1)

- ㄱ. 廢語: ㄷㄷ르; ㅁㅅ, 비야흐로, 반ㄷ시
- ㄴ. 점이(俗제미), 도도(俗도두)
- ㄷ. 춤네(춤의轉), 노늑(노호의轉)
- ㄹ. 외오(今외)

(11ㄱ)은 주로 당시에 잘 쓰이지 않는 단어를 제시한 것으로 동사에 1개, 부사에 3개가 있다. 지금도 드물게 쓰이므로 여기에서 ‘廢語’는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구어에서는 거의 안 쓰인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11ㄴ)은 특이하게 ‘俗’ 관련어를 포함하는 예로, ‘저미다’가 ‘제미다’처럼 움라우트형으로 실현되거나, ‘돋오다’가 ‘돋우다’처럼 음성모음형으로 실현되는 것을 속어에 가깝다고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11ㄷ)은 ‘~의 轉’이라는 참고 정보를 넣은 것인데, ‘轉’은 ‘轉訛’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에 ‘原’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알기 어렵다. (11ㄹ)은 드물게 보이는 ‘今’ 참고어인데, 당시에 ‘외오다’와 ‘외다’가 둘 다 쓰이는 어형이고 ‘외오다’가 폐어이거나 ‘외다’가 속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32) ‘아ㅅ > ㅇㅅ’은 /ㅁㅅ/의 비음운화로 표기상 ‘ㅁ’와 ‘、’가 변별되지 않는 것이 혼기의 원인이므로 통시적 변화를 반영한 표기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이상의 예들을 통하여 『韓語通』 어휘 목록에 사용된 참고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古: 주로 『龍飛御天歌』를 중심으로 한 중세어 문헌에서 확인되는 어형
- 音: 한자어에서 일어난 음운 변화(주로 두음법칙) 이전의 어형
- 原: ‘古’와 現今(20세기 초) 사이의 어형

‘古’ 참고어는 ‘언문창작시대’의 어형, ‘原’ 참고어는 마에마가 상정한 ‘現今’ 이전의 어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³³⁾ 現今 이전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은, ‘原’ 참고어가 문헌 자료에서 뽑아낸 어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헌자료에서 17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는 ‘노릇’과 19세기 중엽에나 나타나는 ‘시골’, 문헌상에서 보이지 않는 ‘어름’이 모두 ‘原’ 참고어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原’ 참고어가 15~19세기의 어형과 일치하더라도 그것은 우연인 것이다. 다만 ‘原’이라는 것은 마에마가 한국어 학습과 문헌 자료를 통해서 體得한 감각인 만큼, 실제 언어상으로도 일정 시기보다 이전의 어형을 지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原 : 現’에서 ‘· : 一’의 관계가 자주 보이는 것은 정경재·스기야마 유타카(2021: 56, 각주 116)에서 『校註歌曲集』의 ‘므슴~므슴’에 대해 前集에는 ‘므슴’이 많고 後集에는 ‘므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³⁴⁾

5. 맺음말

이제까지 우리는 마에마 교사쿠가 편찬한 한국어학서인 『韓語通』의 개요를 살펴보고, 본문과 어휘 목록에서 나타나는 통시적 기술을 검토하면서 한국어사학사의 관점에서 의의를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본문에서 나타나는 통시적 기술은 주로 표기와 형태음운상의 문제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지만 문법적인 문제도 적지 않게 다루어 현대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어사 연구의 쟁점들을 거의 다 포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짙막한 해석 중에서도 정곡을 찌르는 것이 많은데, 이는 제한된 자료를 사용하면서도 문헌 자료와 중앙어-방언을 아우르는 현실 언어를 함께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이다.³⁵⁾ 이는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이전에 한국어사를 연구한 일본인들 중에서 마에마가 가장 먼저, 그리고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마에마는 시대구분에 있어서 전근대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이었던 ‘古-今’의 이분법이 아니라 ‘언문창작시대-언해시대(=中古?)-近古’ 등 4단계 정도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정경

33) 정경재·스기야마 유타카(2021: 38-43)는 『韓語通』의 기술에서 키워드를 뽑아낸 결과 훈민정음 창제로부터 16세기 중엽까지를 ‘諺文創作時代’,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후반 정도까지를 ‘諺解時代’,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를 ‘近古/近代’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34) 『校註歌曲集』에는 ‘앞’을 ‘앞ㅎ’으로 적는 식의 과도분철이 예가 보이는데(정경재·스기야마 유타카 2021: 57, 각주 117), 이는 『韓語通』의 ‘原앞 압’을 연상시킨다.

35) 『韓語通』의 통시적 기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헌은 『龍飛御天歌』이다. 마에마가 중요시한 중세어 문헌이 『龍飛御天歌』라는 것은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韓語通』의 통시적 기술은 현재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데(河野六郎 1942: 10; 정경재·스기야마 유타카 2021: 31, 각주 76), 여기에는 그의 뛰어난 관찰력과 신중함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나 그가 중요시한 『龍飛御天歌』가 15세기의 언어 질서를 잘 보존한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문헌이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재·스기야마 유타카 2021). 어휘 목록에서 중세어를 의미하는 ‘古’ 참고어나, 20세기 초 이전 ‘원래의’ 어형을 보여주는 ‘原’ 참고어를 넣은 것 또한 이러한 통시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현대의 사전에서 참고어로 옛말을 보여주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韓語通』은 실로 근대 한국어사 연구의 기원이자 한 획을 그은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구적인 저작이다.

『韓語通』은 “외국인, 특히 일본 조선어학자의 조선어 연구의 깊이를 재평가할 만한 문헌”이며 “한국어교육의 교재사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어학사에서도 이 문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이상혁 2020: 252). 이 글은 같은 입장에서 『韓語通』의 통시적 기술을 초기 한국어사 연구의 하나로서 검토해 본 것이다. 한 한국어학자가 “이제라도 민족감정을 초월해서 前間恭作의 韓國語學 연구에 대한 업적과 공헌을 새로이 인식하”(陳泰夏 1992: 135)자고 주장한 지도 30년 가까이 되었다. 앞으로는 한국어학계에서도 前間恭作을 비롯한 근대 초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金敏洙(1977). 「前間恭作 『韓語通』 解説」. 金敏洙·河東鎬·高永根 編, 『歷代韓國文法大系 2-13』. 탑출판사.
- 김병문(2012). 「주시경의 근대적 언어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완(2021). 「하버드옌칭(Harvard-Yenching) 도서관 소장본 『韓語教程』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 93. 한국어학회. 237-271.
- 杉山豊(2011). 「前間恭作의 通時態觀과 共時態觀: 『龍歌古語箋』의 ‘轉訛’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편, 『국어학논집 7』. 역락. 265-284.
- 시라이 준(2011). 『마에마 교사쿠와 손진태: 규슈대학 소장 자이산로문고 자료를 중심으로』. 『근대서지』 4. 근대서지학회. 405-431.
- 유정란(2021).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편찬 『歌曲大全』에 대하여」.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학한문학회. 339-357.
- 이강민(2015).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역락.
- 이상혁(2020). 「일본 근대 초기 조선어 문법서의 두 지향: 일본인 저술의 『한어통(韓語通)』(1909)과 『한어문전(韓語文典)』(1909)을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50.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33-255.
- 李賢熙(1993). 「前間恭作(1924), 『龍歌故語箋』」. 『周時經學報』 11. 周時經研究所. 107-119.
- 정경재·스기야마 유타카(2021). 「『校註歌曲集』을 통해 살핀 前間恭作의 한국어사 연구의 일단면」. 『민족어문학회 2021년 추계 학술대회: 타자(他者)의 시선에 비친 한국어문학』 발표집. 민족어문학회. 31-58.
- 정병설(2005). 「18·19세기 일본인의 조선소설 공부와 조선관: <최충전>과 <임경업전>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3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7-55.
- 齊藤明美(2006). 「1909년 刊 『韓語通』의 일본어와 한국어」. 『인문학연구』 12.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73-196.
- 陳泰夏(1992). 「前間恭作(1925), 『鷄林類事 麗言攷』」. 『周時經學報』 9. 周時經研究所. 133-148.

- 하성금(2011). 「前間恭作의 <韓語通>(1909)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편, 『국어학논집 7』. 역락. 241-264.
- 한재영·이현희·가와사키 케이고(2015). 『韓國 書誌學의 先鞭: 마에마 교사쿠의 작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자료총서 2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황호덕(2010). 「번역가의 왼손, 이중어사전의 통국가적 생산과 유통: 언어정리 사업으로 본 근대 한국(어문)학의 생성」. 『상허학보』 28. 상허학회. 93-145.
- 小倉進平(1920). 『朝鮮語學史』. 大阪屋號書店.
- 小倉進平(1940). 『(增訂)朝鮮語學史』. 刀江書院.
- 河野六郎(1942). 「前間先生と朝鮮語學」. 『書物同好會會報』 15. 書物同好會. 9-11[河野六郎(1980). 『河野六郎著作集 第3卷』. 平凡社. 327-330 所收].
- 河野六郎(1974). 「故前間恭作先生の朝鮮語研究」.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 『前間恭作著作集 下卷』. 京都大學國文學會. 5-8[河野六郎(1980). 『河野六郎著作集 第3卷』. 平凡社. 423-426 所收].
- 白井順(2013). 「書簡を通して見た前間恭作と小倉進平の交流: 『郷歌及び吏読の研究』刊行の昭和四年を中心に」. 『東洋文化研究』 15. 学習院大学. 1-31.
- 白井順(2015). 『前間恭作の學問と生涯: 日韓協約の通訳官、朝鮮書誌學の開拓者』. 風響社.
- 末松保一(1957). 「前間先生小傳」. 前間恭作, 『古鮮冊譜 第三冊』(東洋文庫叢刊第十一). 東洋文庫. 1-16.

■ 토 론

“『韓語通』의 통시적 기술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최대희(제주대)

이 연구는 마에마 교사쿠가 지은 한국어 학습서인 『韓語通』(1909)의 내용 가운데 한국어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그 통시적 기술을 정리하고, 그것의 의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다른 한국어의 통시적 기술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글은 일본인 학자인 마에다 교사쿠의 한국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韓語通』의 기술을 통해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입니다.

아주 흥미롭게 잘 읽었는데, 선생님의 본질적인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1) 1900년대 초에는 『韓語通』 이외에도 ‘한국어학’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한국어 학습용 교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한국어사’와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당시의 문헌이 있다면, 1~2개 정도를 소개해 주시고, 이들 문헌들과 비교하여, 『韓語通』이 가지는 당대의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시대 구분과 관련하여 ‘古語.古法’과 ‘現今’으로 이분법적 구별인데, 중간중간 사용된 ‘언어창작시대’, ‘언해시대’ 등의 용어들로 인해, 마에마는 시대 구분을 ‘언해창작시대-언해시대(=中古?)-近古-現今’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는데, 만약 이렇게 구분한다면, 각 시기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주33의 논문에서의 시대 구분과 동일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3) 어휘목록에 사용된 참고어의 유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古’와 ‘音’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형인데, ‘原’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변천 과정으로 이해하면, 발표자가 제시한 古 이후, 現今 이전의 어휘로, 마에마가 상정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古’와 ‘原’을 둘 다 갖는 어휘가 있어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4) 『韓語通』이 한국어 교육용 학습서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자는 한국어학 차원이 아닌, 한국어 교육의 차원에서 본다면, 어떠한 위상이나 가치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논문을 읽을 기회를 주신 허인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9-20세기 전환기의 한글 자료

-모범이 없는 글쓰기의 자료적 가치-

김현주(공주교대)

<차 례>

1. 서론
2. 본론
3. 결론

PDF 참조

19-20세기 전환기의 한글 자료 : 모범이 없는 글쓰기의 자료적 가치

김현주 / 공주교육대학교

1

서론: 모범이 없는 글쓰기의 개신성 가설의 상정

- 학위 논문에서 중세국어의 대우법 어미들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추적하면서 텍스트의 장르와 관련하여 제법 선명한 어떤 경향성이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됨
- 이에 대해 학위 논문을 포함해 이런저런 논저의 각주에서 언급해 놓기는 하였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 별도의 주제로 언급해 놓는 일이 국어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그것은 바로 언어 자료에 언어 변화가 반영되는 정도는 장르의 형성 정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임
- 이 가설이 이후 가부 간에 검증되기를 바라며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2

18세기 이전 등장 초기형과 그 초기 텍스트 예시

- 청자대우의 {-ㅁㅂ-} → “순천김씨언간”, “현풍곽씨언간” 등 초기의 한글 편지
 - 말ㅁ 업ㅁ외 <현풍>
- ‘잡숫다’의 기원형 → “병자일기” 등 초기의 한글 일기
 - 약쥬 잡ㅁ다 <병자>
- ‘-습니다’의 ‘습니’의 기원형 → “순천김씨언간” 등 초기 한글 편지
 - ‘-네’, ‘-데’ ... 등의 절단형도 마찬가지로
 - 그ㅁ 날 가디 말라 ㅁ더니 그 올ㅁ 마리로데 <순천>

3

가설: 모범이 없는 글쓰기에 개신형 출현 경향

- 새로운 문자로 글쓰기
 - 신문자, 초급학습자
- 새로운 장르의 글쓰기
 - 한글 창제 직후의 한글 편지, 한글 일기, 한글 소설
- 모범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 형태 및 구문이 특히 생생하게...

4

가설: 모범이 없는 글쓰기에 개신형 출현 경향

- 인간의 모방 본능, 타고난 사회성
- 모범이 없는 행위에 틀이 생기면서 모범이 창발하며 점차 개신형 출현 경향이 낮아짐
 - 예: 18세기 이후의 한글 편지
 - 전체가 10행이라면 6행은 틀에 박힌 인사말
 - 내용에 포함되는 4행의 표현도 형태나 구문의 측면에서 틀에 박혀 있음
 - 한글 편지라는 장르(혹은 담화나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좋지만 당대의 생생한 언어를 보는 데는 좋지 않음

5

19-20세기 전환기의 한글 자료

1. 판소리계 소설 등 고전 장르의 필사본이나 딱지본
 - 19C 말 ~ 20C 초의 자료이지만 20세기 초반의 언어를 잘 보여주는 자료일 수는 없음
2. 초기의 성경 번역, 초기의 신문 기사
 - 신소설과 문체가 유사하다는 인상을 줌
3. 서양 소설들의 번역, 변안이 주를 이루는 신소설
 - 고전 소설과는 소설 속 인물의 세계관도 갈등의 양상도 연변도 다름
 - 1920년부터 본격화한 현대 소설과도 다른데 특히 규범성에서 차이가 남
4. 현대소설
 - 전문적 소설가의 본격적인 작문으로 한글로 작성되는 것은 새로운 시도임
 -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한국어와 언어와 매우 가까움

6

19-20세기 전환기의 기존 장르들의 모습

- 표현상 당대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오랜 표현이 어색하게 끼어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어려서 부모를 여럿이니 가친명_ㅁ를 모로도소이다 <소대성전(구활자본)>
 - 참고로 현대국어에는 '도' 계열은 사라지고 '로' 계열만 전해짐
 -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로세
 - 장르 특수 표현으로 향유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함

7

19-20세기 전환기의 기존 장르들의 모습

- 반대로 당시보다 과거의 표현에 당대적 표현이 어색하게 끼어 있기도 함
 - 영남 말 가라타니 우세도 장_ㅁ시고 <일동장유가(가사, 필사본)>
 - '-을시고'는 19세기 말의 계몽 가사에서 등장하는 표현
 - 필사 과정에서 당시 언어로 교정한 것으로 보는 방안 vs. 18C 개신형으로 보는 방안

8

초기 성경 번역, 신소설, 초기 신문

- 띄어쓰기, 구두점, 철자법 등이 생경함
 - 기존의 장르들에서 채용되던 방식도 아니고, 1920년대부터 본격화한 현대소설에서 보이는, 현대인에게 비교적 친숙한, 방식도 아님
 - 다오, 부부, 오날날일괴조흠을, 다이여기여, 유모, 오익군와여관계집인람을, 다리고, 점심후부터, 이곳세와서, 참동안을산나물을, 다다가 ... 펼석쥬져안다 <불여귀>
 - 오, 오날, 괴, 이곳세: 발음은 어땠을지
 - 계집: 개신적/현실적 발음을 나타내는 듯함
 - -다: '-나라' 대신 '-는다'가 쓰인 것은 개신적/현실적

9

초기 성경 번역, 신소설, 초기 신문

- 모음 뒤 '-오잇가'
 - 이것이 혹 상공의 필적이 안이시오잇가 <소운전, 딱지본>
 - 지도 못시고 왜 파흔 말로부터 첫단 말이오잇가 <금강문>
- '-습니다', '-닙니다', '-습니까', '-닙니까', '-닙디다', '-습디다', '-닙디까', '-습디까'
 - 이를 엇지닛가 마님 <목단화>
 - 그러면 경괴의를 입엇습딿가 <비행선>

10

초기 성경 번역, 신소설, 초기 신문

- -ㅂ시다
 - 그 전에는 '-ㅁ새'가 쓰였고 '다'가 결합한 형태가 없었음
 - 일들 좀 ㅁ | ㅂ세다 <매일신문>
 - 외국이 옛보고 침노ㅁㅁ 거슬 막아 볼 도리를 ㅁ야 ㅂ시다 <매일신문>
 - 경무청에서 잠간 물어볼 일 잇다고 불으시기 갑시다 <빈상설>
- -읍시다 : 초기 신문, 성경 번역에서는 안 보이다가 신소설에서부터 나타남
 - 엇의 가 술이나 한 잔 식 먹읍시다 <화세계>

11

초기 성경 번역, 신소설, 초기 신문

- 보조사 '요'
 - 왜 써요? 다 명예 잇서든 병을 약 써서 곳치기로니 몇철 살겟소? <매일신문>
- 명령형 종결어미 '-(으)오'
 - 천년세월 허송말고 ... 동심합력 부ㅁ | ㅁ오 <독립신문>
 - 부강세계 주야빌세 공평명직 힘을쓰오 <매일신문>

12

현대 소설

- 의문형 '-니?'
 - 평서형 '-네'가 의문형 '-네?'로 용법을 확장한 후 '-니?'로 유착하는데 현대소설 자료에서 부터 나타난다.
 - 저녁을 인제야 먹니? <옛날 꿈은 창백하더이다>
- '-기에'에서 발달한 '-게'
 - 「네 양국이오」○○ 형식의 대답을 니어 우선이가 ○○ 우스며 /「저 코가 이러케 크고 눈이 움속 드러간 사○○들 사○○ 나라에요」○○다 두사○○은 웃고 한 사○○은 놀○○○○다 /「아 양국이 얼 마나 멀게요?」 <1917.4.21. 매일신보, 무정 85>

13

결론

-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룬 형태들과 본인이 참여한 연구의 형태들 위주로 그 초기 문례가 확인되는 텍스트를 살펴보았다.
 - 그러면 이러한 표현들이 19-20세기 전환기에 갑자기 생겨났다고 해야할까?
 - 그럴 가능성은 낮고 텍스트에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 그러면 왜 이들 텍스트일까?
 - 본고의 가설은 모범이 없거나 일반화되지 않은 글쓰기 과정에서 일상에서 쓰던 언어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들 텍스트에 개신형이 더 잘 반영된다는 것이다.

14

결론

- 언어의 통시적 변천을 연구하는 여러 연구자들이 이 가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듯
 - 여러 연구자들의 여러 연구에서 이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 그렇더라도 이 가설을 어떻게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할 수 있을지는 문제로 남음
 - 결국 경향성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있을 때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해야 함

15

참고문헌

- 김현주. 2010. 국어 대우법 어미의 형태화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정연주 2021. 해체 종결어미 ‘-게’의 두 가지 기원. *영주어문* 54

16

▣ 토 론

“19-20세기 전환기의 한글 자료: 모범이 없는 글쓰기의 자료적 가치”에 대한 토론문

이규범(강원대학교)

본 발표문은 19-20세기 전환기에 나타난 모범이 없는 글쓰기, 즉 새로운 장르가 지닌 자료적 가치를 모색한 결과물입니다. 발표문에서 가정하신 가설, “모범이 없거나 일반화되지 않은 글쓰기에 개신형(당대의 언어)이 더 잘 반영되어 있다.”에 동의하면서 질의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교수님께서 새로 출현한 유형의 글쓰기에 개신형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로, 모범이라 할 수 있는 틀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의 언어가 적극 채용되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편지나 일기 등 특정 유형의 글쓰기가 고착되면서 흔히 상투적 표현이라 불리는 요소가 만들어지고, 흔히 예스러운 표현이라고 해서 상투적 표현의 특징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형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새로운 장르에 당대의 언어가 적극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문에 언급하신 형태들이 구어와 관련된 요소로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장르로 언급하셨거나 예문을 가지고 오신 문헌이 대개 일기나 편지 등으로 구어가 적극 반영된 장르이고, 판소리계 소설이나 신소설 등 역시 서술자의 발화가 구어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소설의 예문 역시 등장인물의 발화인 구어로 보입니다. 즉 당대의 한글 자료가 구어를 많이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18세기 이전에 나타난 개신형 역시 편지나 일기 등 구어가 적극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2. 그렇다면 19-20세기 전환기에 모범이 있는 한글 자료의 대표적 유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토론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불경이나 유경 언해 자료 등이 있을 듯한데 일종의 번역으로, 문어가 주를 이루는 텍스트로 판단됩니다. 중간 과정에서 개역이 되더라도 저본의 영향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면 위 질문과 동일하게 특정 유형의 글쓰기가 담을 수 있는 구어의 정도성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발표문에서는 18세기 이후의 한글 편지를 모범이 있는 글쓰기의 한 예로 제시하셨는데, 기술하신 전형성은 언어 요소보다는 구조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물론 19-20세기 한글 편지에 개신형보다는 19세기 이전의 언어 형식이 더 많이 쓰였다면 모범이 생기면서 점차 개신형이 준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구어가 적극 반영되면서 개신형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9-20세기에 새롭게 나타난 장르의 언어 형식을 주목하시고 개별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 전

체의 양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나무만 보려고 했던 저의 습관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부가 부족하여 교수님의 발표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점도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문현수(인하대)

< 차 례 >

1. 머리말
2.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점도의 검토
3.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점도 발달 과정 고찰
4. 맺음말

논문 초록

이 글은 고려시대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 사용된 점도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 자료는 크게 『유가사지론』 계통의 자료와 『화엄경』 계통의 자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화엄경 계통의 자료는 주본 『화엄경』 자료와 진본 『화엄경』 자료로 다시 세분된다.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는 학계에서 초조대장경보다 앞선 10세기 이전에 간행된 목판본이며 구결점의 기입 시기도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구결점 기입 시기보다 앞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점도는 초기의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점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점도와 진본 『화엄경』의 점도, 주본 『화엄경』의 점도를 비교해 보면, 화엄경 점도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본 논문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점도는 가장 단순한 조사와 어미만을 나타내었다. 진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서는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점도를 바탕으로 좀 더 복잡한 조사와 어미 및 단어의 형태를 표기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구결점 기입 위치의 세분화와 구결점의 형태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구되었다. 그러나 구결점이 늘어나면서 기억의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억의 편의를 위해 체계적으로 구결점을 배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다. 이때 고려할 만한 방법은 구결점의 문법 형태소의 대응 관계를 점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의 최종 결과물이 바로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점도 배치이다. 여기에서는 점도의 위치 및 형태가 그 해독에 있어서 대칭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다.

본 논문은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이 초기 형태의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점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다만 이 자료는 한국의 석독구결자료인지 혹은 일본의 훈점자료인지 아직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논의 과정이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향후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핵심어(keyword): 점토석독구결, 화엄경, 점도, 발달 과정, 조사, 어미, 고대국어

1. 머리말

- 이 글은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 사용된 점도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석독구결은 한문 문장 사이에 조사와 어미에 해당하는 구결토와 어순 지시 부호 등을 달아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춰 풀어 읽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한문 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한문 독법의 결과를 통해 구결토가 달렸던 시기의 한국어 문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석독구결은 한자의 자형을 단순화하여 만든 구결자를 이용해 토를 달았는지, 혹은 점이나 선 모양의 구결점을 이용해 토를 달았는지에 따라 자토석독구결과 점토석독구결로 나뉜다.
- 점토석독구결은 구결점이 어떠한 언어음에 대응되는지 해독해야만 언어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결점은 한자를 가상의 사각형으로 가정했을 때 한자 내외부의 위치에 형태를 달리하여 기입된다. 구결점이 현토된 위치나 모양에 따라 어떤 언어음을 나타내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가상의 네모난 한자를 상정하여 표시한 것을 점도라고 하는데, 점토석독구결의 해독은 바로 이 점도에 존재하는 구결점들이 어떤 언어음과 대응되는지 밝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해당 점토석독구결이 어떤 유형의 자료인지에 따라 점도의 모양은 달라진다. 가령, 고려시대 점토석독구결의 구결점은 『유가사지론』 계통의 자료인지 혹은 『화엄경』 계통의 자료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해독 결과가 다르다.

支, 丁	丁		乃, 刀	糸	口
ノ, ㄷ	ㄴ	ㄹ	ㄷ (ㄴ) ㄹ	ㄷ	ㄷ
人	(ㄴ)	(ㄹ)	ㄷ ㄹ	乙	ㄷ
去	七	ㄴ	火	十	ㄷ
ㄷ	(ㄴ)	ㄴ	下	ㄷ	ㄷ

『유가사지론』 계통
단점의 점도(장경준 2008L)

ㄷ	ㄴ ㄹ	ㄴ	ㄴ ㄹ	ㄴ ㄹ
ㄷ	ㄷ	白 口	支/冬	ㄷ
	ㄷ ㄹ	ㄷ	ㄷ	ㄷ
乙	(ㄴ) ㄹ	ㄷ	ㄹ	ㄴ
ㄷ	ㄷ ㄹ	ㄷ	ㄷ ㄹ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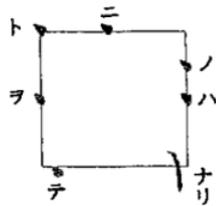
주본 『화엄경』 계통
단점의 점도(문현수 2017)

- 이 가운데 『화엄경』 계통의 자료는 또 진본 『화엄경』 자료와 주본 『화엄경』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10세기 이전의 자료로, 후자는 11세기 이후의 자료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이라는 자료도 존재하는데, 이는 통일신라시대의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로 추정되고 있다.
- 이들은 점도의 모양이 대체로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점도와 진본 『화엄경』의 점도, 그리고 주본 『화엄경』의 점도를 비교해 보면, 『화엄경』 계통 점토석독구결에서 이루어진 점도 발달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점도의 구성 방식의 분석을 통해 구결점을 달았던 당시의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법 요소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져 고대 한국어의 연구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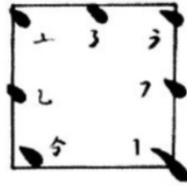
2.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점도의 검토

2.1.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점도

-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은 일본의 학계에서 일본의 초기 훈독 자료로 간주되어 왔지만, 최근에 한국의 학계에서 이 자료가 한국의 초기 점토석독구결자료임을 주장하는 연구자도 등장하였다(김영옥 2003; 金星周 2009ㄱ; 박용식 2010; 안대현 2013). 그리고 한국의 점토 체계를 이해한 일본인 가점자(加點者)가 이를 차용하여 일본어를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ジョン·ホイットマン 2009; 小林芳規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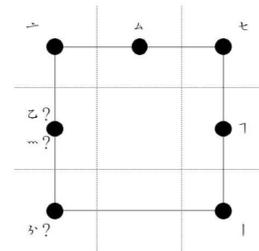
小林芳規(2004)



김영옥(2003)

11 • 명사구 접속 기능 또는 연결 기능 ~ / ~ 또는 ~	12 • 처격 기능 ~ (나 또는 ~+)	13 • 속격 기능 ~ 또는 ~
21-23 또는 21 • 연결 기능 ~ ?		23 • 주제 기능 또는 문명사 기능 ~
		33 1 또는 • (명사형) 종결 기능 ~

金星周(2009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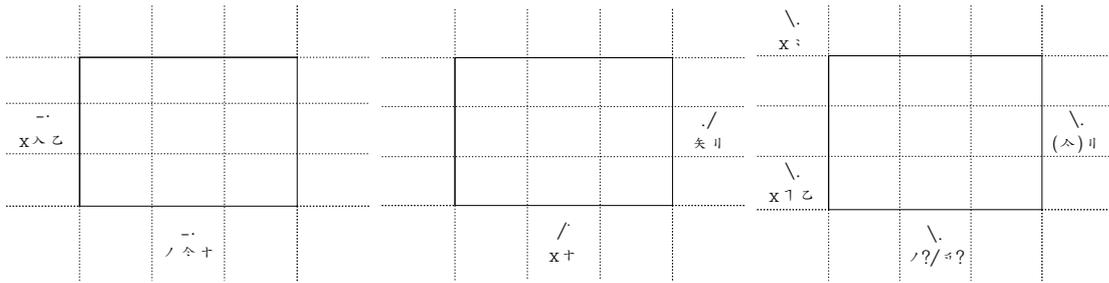


안대현(2013)

-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은 위와 같이 단점 위주의 단순한 점토만이 쓰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행 연구의 해독은 일본의 가나 또는 한국의 구결자로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점토가 일본의 가나로도 해독되고 한국의 구결자로도 해독이 가능한 것은 점도가 단순하다는 점, 각 단점이 주로 조사나 어미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로 해독된다는 점,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사나 어미는 동일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이다.
- 예를 들어 ト는 ~와, ニ는 ~나 ~와, ノ는 ~나 ~와, ク는 ~과, ハ는 ~과, テ는 ~와, ナリ는 ~와 대응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이다. 따라서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이 한국의 석독구결자료인지 아니면 일본의 한문 훈독자료인지는 단순히 점도의 해독만으로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ト와 ~	나열의 접속조사
ニ와 ~ / ~	처격 조사
ノ와 ~ / ~	속격 조사
ク와 ~	목적격 조사
ハ와 ~	주제 보조사
テ와 ~	연결어미
ナ리와 ~	종결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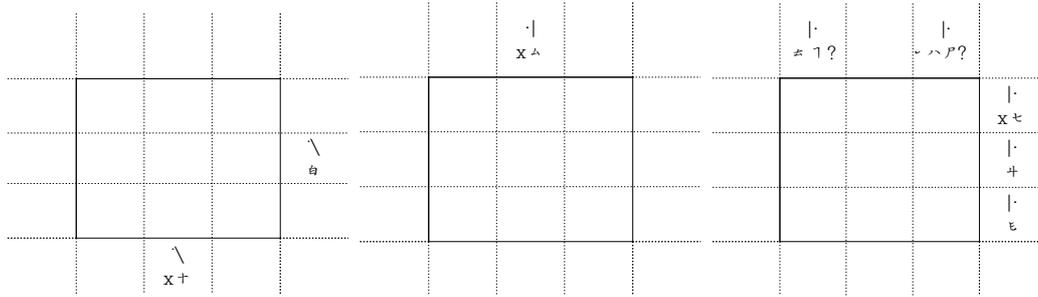
-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점도 해독 결과가 뒤에서 살펴볼 고려시대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단점의 점도 해독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이 적어도 신라의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점도를 차용하여 일본어를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큰 자료임을 말해주는 것이다(ジョン·ホイットマン 2009; 小林芳規 2010).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초기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점도의 양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수평 느낌표의 해독(2)

사선 느낌표의 해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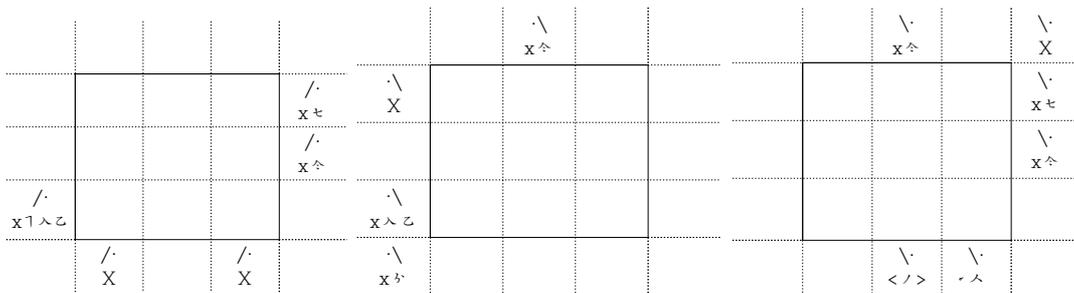
역사선 느낌표의 해독(1)



역사선 느낌표의 해독(2)

·' 눈썹의 해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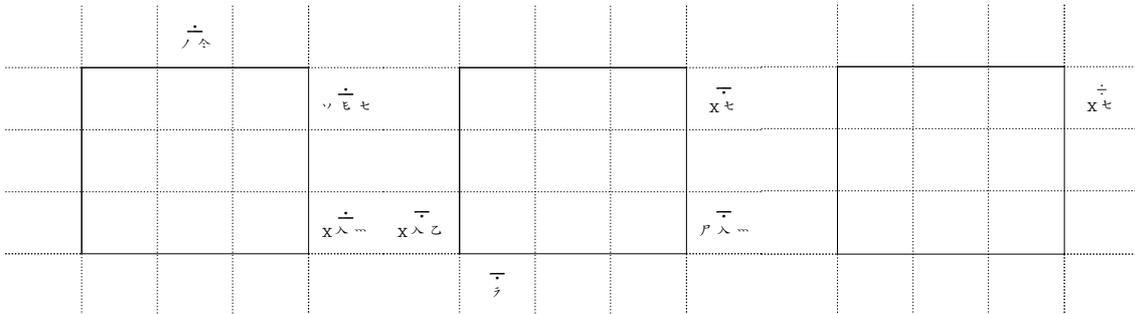
।' 눈썹의 해독



사선 `.' 눈썹의 해독

역사선 `.' 눈썹의 해독

역사선 `।' 눈썹의 해독



·' 눈썹의 해독

ㄱ' 눈썹의 해독

ㄴ' 눈썹의 해독

- 위의 구결점 분포에서 단점을 제외하면 한자의 기준사각형 내부에 현토되는 구결점은 현저히 적다. 그마저도 선과 쌍점의 형태를 지닌 구결점만이 기준사각형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 진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쓰인 모든 구결점을 대상으로 구결점의 형태와 그 사용 빈도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형태		빈도	전체 구결점 백분율	빈 도	전체 구결점 백분율	전체 구결점 누적 백분율
선	54(\) (3)ホ	232	6.84%	115	3.39%	3.39%
	35(/) 川			81	2.39%	5.78%
	42(-) 心			31	0.91%	6.69%
	43(\) 木			4	0.12%	6.81%
	35(\) 木			1	0.03%	6.84%
눈썹	52(ㄷ) ㄷ	125	3.69%	53	1.56%	8.40%
	45(ㄱ) ㄱ			4	0.12%	8.52%
	35(ㄱ) 斗			3	0.09%	8.61%
	53(\.) <ノ>			2	0.06%	8.67%
느낌 표	35(\.) (人) 川	89	2.63%	63	1.86%	10.53%
	53(\.) ノ?/ㄱ?			9	0.27%	10.80%
	54(i) 人			7	0.21%	11.01%
	35(\) 白			6	0.18%	11.19%
	54(ㄷ) ノ?/ㄱ?			3	0.09%	11.28%
	55(!) 子			1	0.03%	11.31%
쌍점	35(ㄷ) 刀	82	2.42%	48	1.42%	12.73%
	22(ㄷ) 斗			23	0.68%	13.41%
	42(ㄷ) 虚			9	0.27%	13.68%
	52(ㄷ) ㄷ			2	0.06%	13.74%

진본 『화엄경』에서 단음절 구결자와 대응 관계를 보이는, 단점 이외 구결점의 사용 빈도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음절 구결자와 대응 관계를 보이는, 단점 이외의 구결점은 전체 구결점 가운데 대략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단점의 현토 비율인 55%와 더하면 총 69%가 된다. 이를 종합하면, 진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점토 중 약 70%는 단음절과 대응관계를 이루며, 약 30%는 다음절과 대응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3. 주본 『화엄경』의 점도

- 주본 『화엄경』은 진본 화엄경에 비해 자료의 양도 많고 그 해독에 대해 비교적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의 연구인 문현수(2017)의 해독 결과를 바탕으로 주본 『화엄경』의 점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1	12	13	14	15	ㄷ	ノ ㄱ	ㄷ	ノ 尸	人 ㄱ
21	22	23	24	25	ㄷ	ㄷ	白 口	支/冬	ㄷ
31	32	33	34	35		口 ㄱ	ㄱ	口	ㄷ
41	42	43	44	45	ㄷ	(人) 川	ㄷ	尸	ㄷ
51	52	53	54	55	ㄷ	ㄷ ㄱ	斗	ㄷ ㄱ	ㄷ

위치 분할 표시 모형

단점의 해독

	 ㄷ	 ㄹ	 ㄴ	 ㄷ	- ㄷ	- ㄹ	- ㄴ	/	/	/	
ㄷ	 ㄷ	 ㄹ	 ㄴ	 ㄷ	- ㄷ	- ㄹ	- ㄴ	/	/	/	/
X	X	ㄹ	ㄴ	ㄷ	- ㄷ	- ㄹ	- ㄴ	/	/	/	/
ㄷ	 ㄷ	 ㄹ	 ㄴ	 ㄷ	- ㄷ	- ㄹ	- ㄴ	/	/	/	/
X	X	ㄹ	ㄴ	ㄷ	- ㄷ	- ㄹ	- ㄴ	/	/	/	/
ㄷ	 ㄷ	 ㄹ	 ㄴ	 ㄷ	- ㄷ	- ㄹ	- ㄴ	/	/	/	/
X	X	ㄹ	ㄴ	ㄷ	- ㄷ	- ㄹ	- ㄴ	/	/	/	/

수직선의 해독

수평선의 해독

사선의 해독

\	\			\	:	:	: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X	X	ㄹ	ㄴ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X	X	ㄹ	ㄴ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X	X	ㄹ	ㄴ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역사선의 해독

수직 쌍점의 해독

수평 쌍점의 해독

·	·	·	·	·	·	·	·	·	!	!	!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X	X	ㄹ	ㄴ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X	X	ㄹ	ㄴ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X	X	ㄹ	ㄴ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사향 쌍점의 해독

역사향 쌍점의 해독

수직 느낌표의 해독(1)

		i			-	-					
		ㄷ			ㄷ	ㄷ					
		X			ㄷ	ㄷ					
		ㄷ			ㄷ	ㄷ					
		X			ㄷ	ㄷ					
		ㄷ			ㄷ	ㄷ					
		X			ㄷ	ㄷ					

수직 느낌표의 해독(2)

수평 느낌표의 해독(1)

수평 느낌표의 해독(2)

		$\begin{matrix} / \\ X \end{matrix}$	$\begin{matrix} / \\ X \end{matrix}$					

사전 느낌표의 해독

역사전 느낌표의 해독(1)

역사전 느낌표의 해독(2)

‘|’눈썹의 해독

‘|’눈썹의 해독

사전 ‘|’ 눈썹의 해독

사전 ‘|’눈썹의 해독

역사전 ‘|’ 눈썹의 해독

역사전 ‘|’눈썹의 해독

‘ㄴ’ 눈썹의 해독

‘ㄴ’ 눈썹의 해독

‘ㄴ’ 눈썹의 해독

- 위의 점도에서 단점과 선은 기준사각형 내외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쌍점은 대체로 기준사각형 외부에 분포하지만 내부에 분포하는 예도 드물지 않게 존재한다. 반면 눈썹이나 느낌표는 거의 대부분 기준사각형 외부에 분포하고 있다.
- 주본 『화염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쓰인 모든 구결점을 대상으로 구결점의 형태와 그 사용 빈도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형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누적 백분율
단점	·	13639	58.23%	13639	58.23%	58.23%
선		6194	26.44%	3556	15.18%	73.41%
	-			1013	4.32%	77.73%
	\			878	3.75%	81.48%
	/			747	3.19%	84.67%
쌍점	:	2478	10.58%	799	3.41%	88.08%
	..			759	3.24%	91.32%
	∴			513	2.19%	93.51%
	∴			407	1.74%	95.25%
눈썹	·	784	3.35%	196	0.84%	96.09%
	·-			154	0.66%	96.74%
	· ·			123	0.53%	97.27%
	·/·			112	0.48%	97.75%
	·/			73	0.31%	98.06%
	·-			64	0.27%	98.33%
	·\			56	0.24%	98.57%
	·÷			5	0.02%	98.59%
	·\			1	0.00%	98.60%
느낌표	!	329	1.40%	206	0.88%	99.47%
	i			62	0.26%	99.74%
	!-			23	0.10%	99.84%
	/			16	0.07%	99.91%
	!..			14	0.06%	99.97%
	\			4	0.02%	99.98%
	\.			4	0.02%	100.00%
	./			0	0.00%	100.00%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쓰인 구결점의 형태와 사용 빈도

-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서는 ‘단점(58.23%) > 선(26.44%) > 쌍점(10.58%) > 눈썹(3.35%) > 느낌표(1.40%)’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점과 선, 쌍점이 전체 구결점의 약 95%를 차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점의 해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본 『화엄경』에서 단음절 구결자와 대응 관계를 보이는, 단점 이외 구결점(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본 『화엄경』에서 단음절 구결자와 대응 관계를 보이는, 단점 이외 구결점(2)

- 단점은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단음절 구결자로 해독된다. 또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음절 구결자는 단점 이외에도 선, 느낌표, 쌍점, 눈썹 등 다양한 형태의 구결점들과도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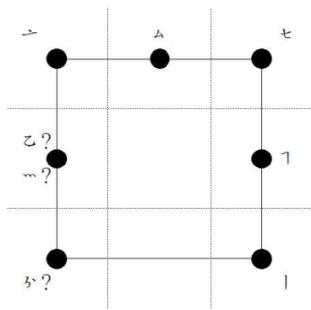
준사각형 내부에 주로 위치한다.

형태		빈도	전체 구결점 백분율	빈 도	전체 구결점 백분율	전체 구결점 누적 백분율	
선		24() /이	3606	15.39%	1084	4.63%	4.63%
		34() 3 /아			679	2.90%	7.53%
		43() ㅁ /곰			552	2.36%	9.88%
		42() ㅍ /ㅁ			113	0.48%	10.37%
		33() ㅑ /지?			10	0.04%	10.41%
	\	24(\) ㅍ /오			390	1.66%	12.07%
		23(\) ㅑ /히			120	0.51%	12.59%
		42(\) ㅍ /도			103	0.44%	13.03%
		43(\) ㅑ /마			102	0.44%	13.46%
		33(\) ㅑ /더			55	0.23%	13.70%
	-	34(-) ㅍ /습			104	0.44%	14.14%
		53(-) ㅑ /나			73	0.31%	14.45%
		22(-) <ㅑ>/모?			44	0.19%	14.64%
		42(-) ㅍ /시			18	0.08%	14.72%
		24(-) ㅑ /곧?			17	0.07%	14.79%
		24(-) ㅑ /곧?			17	0.07%	14.79%
/	24(/) ㅑ /겨	90	0.38%	15.17%			
	33(/) ㅑ /두	52	0.22%	15.39%			
쌍점	:	23(:) ㅑ /ㄱ	77	0.33%	62	0.26%	15.66%
		32(:) ㅑ /우			1	0.00%	15.66%
	53(:) ㅑ /하	1			0.00%	15.67%	
	33(·) ㅑ /겨	13			0.06%	15.72%	
눈썹	· 21(·) ㅑ /라	70	0.30%	45	0.19%	15.92%	
	· 21(·) ㅑ /뵤			25	0.11%	16.02%	
느낌 표	!	13(!) ㅑ /리	32	0.14%	32	0.14%	16.16%

주본 『화엄경』에서 단음절 구결자와 대응 관계를 보이는, 단점 이외 구결점의 사용 빈도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음절 구결자와 대응 관계를 보이는, 단점 이외의 구결점은 전체 구결점 가운데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단점의 현토 비율인 58%와 더하면 총 74%가 된다. 이를 종합하면,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점토 중 약 70%는 단음절과 대응관계를 이루며, 약 30%는 다음절과 대응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3.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점토 발달 과정 고찰



안대현(2013)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단점

ㅏ	ㅓ	ㅑ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진본 『화엄경』의 단점

주본 『화엄경』의 단점

- 위 점도들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 진본 『화엄경』, 주본 『화엄경』의 단점은 매우 큰 유사성을 보인다.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단점 가운데 주제 보조사 내지 동명사어미로 쓰이는 ‘ㅓ/ㅓ’만이 진본과 주본에서 그 위치가 가운데로 옮겨진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단점들은 거의 그대로 위치를 보존하고 있다.

구결자	주요 문법 기능	사용빈도 (자토 5종 기준)	사용빈도 순위 (자토 5종 기준)
ㅓ	주제 보조사;동명사어미	2864회	2위
ㅓ	목적격조사	2301회	3위
ㅓ	속격조사;말음첨기	1605회	5위
ㅓ/ㅓ	보조사	1028회	9위
ㅓ	연결어미	993회	10위
ㅣ	종결어미	715회	13위
ㅓ	처격조사	139회	35위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단점의 해독 결과와 특성

-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단점들은 모두 한국어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조사나 어미로 해독되는 것들로, 이들은 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5종에 쓰인 구결자 80여종을 기준으로 최상위의 사용빈도를 보이는 것들이다. 이들은 점도의 정중앙으로 이동한 ‘ㅓ’을 제외하고 진본과 주본에서 모두 주로 기준사각형 바깥쪽에 위치하게 된다.

구결자	주요 문법 기능	사용빈도 (자토 5종 기준)	사용빈도 순위 (자토 5종 기준)
ㅓ	처격조사	966회	11위
ㅓ	도구격조사	513회	14위
ㅓ	의존명사+조사	231회	29위
ㅓ	의존명사+보조사	141회	34위

진본·주본 『화엄경』에서 기준사각형 외부에 추가된
주요 단점의 해독 결과와 특성

- 이때 가로세로 3단계의 위치 구분이 가로세로 5단계의 위치구분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처격조사 ‘ㅓ’와 도구격조사 ‘ㅓ’가 추가되고 의존명사 ‘ㅓ’와 조사 ‘-이’ 내지 계사 ‘-이-’의 결합형인 ‘ㅓ’가 바깥쪽 단점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ㅓ, ㅓ, ㅓ, ㅓ, ㅓ’,

ㄷ과 같이 매우 빈번하게 쓰이는 2자로 된 조사나 어미 구성도 주로 ‘:’와 ‘ㅅ’ 사이, ‘ㅈ’와 ‘+’ 사이, ‘+’와 ‘ㅣ’ 사이 등에 위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결자	주요 문법 기능	사용빈도 (자토 5종 기준)	사용빈도 순위 (자토 5종 기준)
ㅅ	연결어미/선어말어미	1814회	4위
ㅈ	동명사어미/속격조사	1254회	8위
ㅊ	종결어미/연결어미	387회	21위
ㅊ	연결어미/선어말어미	304회	25위
ㅊ	말음첨기?	301회	26위
ㅊ	보조사/말음첨기	281회	28위
ㅊ	동사	56회	45위

진본·주본 『화엄경』에서 기준사각형 내부에 추가된
주요 단점의 해독 결과와 특성

- 반면에 기준사각형 내부에 위치하는 단점들은 기준사각형 외부에 위치하는 단점들보다 사용빈도가 대체로 떨어지는 조사나 어미로 해독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쓰임의 차이 때문에 이들은 기준사각형 외부에 위치하는 주요 단점보다는 점도에 늦게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결자	주요 문법 기능	사용 빈도	사용 빈도 순위	구 결 자	주요 문법 기능	사용 빈도	사용 빈도 순위
ㅅ	조사, 접사, 의존명사	1572회	6위	ㅅ	용언 어간	93회	39위
ㅈ	동사 ‘ㅎ-’+ ‘-오(-)’	1281회	7위	ㅅ	연결어미	78회	41위
ㅊ	선어말어미	488회	15위	ㅅ	선어말어미	77회	42위
ㅊ	선어말어미/의존명사	465회	16위	ㅅ	부사파생접사	74회	44위
ㅊ	보조사	417회	18위	ㅅ	용언어간	56회	46위
ㅊ	강세첨사	391회	19위	ㅅ	연결어미	40회	47위
ㅊ	동명사어미 ‘-르’+의존명사 ‘이’	383회	22위	ㅅ	명사	30회	49위
ㅊ	선어말어미/연결어미	335회	23위	ㅅ	말음첨기	26회	50위
ㅊ	속격조사	334회	24위	ㅅ	연결어미	14회	51위
ㅊ	접속조사/연결어미	286회	27위	ㅅ	보조사	10회	54위
ㅊ	말음첨기	219회	30위	ㅅ	용언어간	8회	56위
ㅊ	연결어미	155회	33위	< / >	말음첨기	8회	56위
ㅊ	선어말어미	177회	32위	ㅅ	의존명사	6회	58위
ㅊ	보조사	107회	37위	ㅅ	연결어미	5회	61위
ㅊ	선어말어미	94회	38위	ㅅ	명사	4회	63위

진본·주본 『화엄경』에서 위치와 형태를 달리하며 단음절 구결자로 해독되는 구결점의 특성

- 단음절 구결자로 해독되는 구결점 중에 단점 이외의 형태를 지닌 것들은 진본과 주본에서 그 위치와 형태가 다르다. 이들은 단점과 대응하는 구결자보다 사용빈도가 더욱 떨어지는 구결자들이 대부분이며, 그 기능도 말음첨기, 강세첨사, 선어말어미, 파생접사 등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구결자	주요 문법 기능	사용 빈도	사용 빈도 순위
ㅅ	조사/접사/의존명사	1572회	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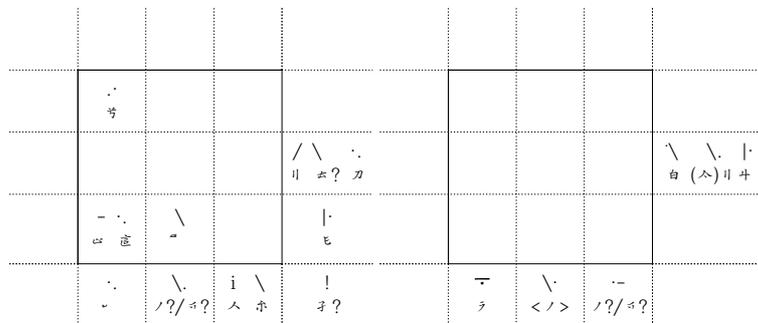
구결자	주요 문법 기능	사용 빈도	사용 빈도

ノ	동사 ‘ㅎ-’+ ‘-오(-)’	1281회	7위
ㅈ	선어말어미/의존명사	465회	16위
ㅊ	보조사	417회	18위
ㅊ	선어말어미/연결어미	335회	23위
ㅊ	속격조사	334회	24위
ㅊ	접속조사/연결어미	286회	27위
ㅊ	선어말어미	177회	32위
ㄷ	보조사	107회	37위
ㅍ	선어말어미	94회	38위
ㅍ	용언 어간	93회	39위
ㅍ	용언어간	56회	46위
ㅍ	보조사	10회	54위
< / >	말음첨기	8회	56위
ㅍ	의존명사	6회	58위

			순위
ㅍ	말음첨기	219회	30위
ㅍ	부사파생접사	74회	44위
ㅍ	말음첨기	26회	50위

진본 『화엄경』에서 기준사각형 내부에
위치하며 단음절 구결자로 해독되는
구결점의 특성

진본 『화엄경』에서 기준사각형 외부에 위치하며
단음절 구결자로 해독되는 구결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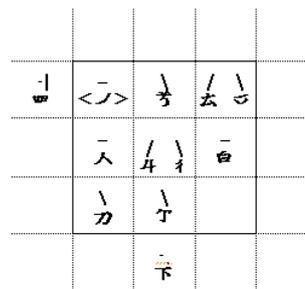


진본 『화엄경』에서 단음절 구결자와 대응
관계를 보이는
단점 이외 구결점(1)

진본 『화엄경』에서 단음절 구결자와 대응
관계를 보이는
단점 이외 구결점(2)



주본 『화엄경』에서 단음절 구결자와
대응 관계를 보이는, 단점 이외
구결점(1)



주본 『화엄경』에서 단음절 구결자와
대응 관계를 보이는, 단점 이외
구결점(2)

- 흥미로운 점은 진본 『화엄경』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주요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구결자와 대응하는 구결점들이 기준 사각형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준사각형 외부의 구결점에 먼저 주요 기능을 배치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반면에 주본 『화엄경』에서는 이러한 내외부의 구분이 사실상 사라졌으며, 단음절 구결자는 주로 기준사각형 내부에 위치하게 되었다.
- 이러한 구결점의 재배치가 일어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주본 『화엄경』의 점도 배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서는 기준사각형 외부에 위치하는 구결점들이 그 위치와 형태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해독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안대현 2008ㄱ; 문현수2017). 이러한 체계성은 동명사어미인 ‘-ㄱ’과 ‘-ㅍ’의 문법적 대립, 그리고 어말어미인 ‘-ㅂ’와 ‘-ㅣ’의 문법적인 대립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기억의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구결점	해독 결과	구결점	해독 결과	구결점	해독 결과	구결점	해독 결과
12(·)	ㄴ ㄱ / 혼	14(·)	ㄴ ㅍ / 흘	51(·)	ㅂ / 며	55(·)	ㅣ / 다
12(·)	ㅁ ㄱ / 신	14(·)	ㅁ ㅍ / 실	51(·)	ㅁ ㅂ / 시며	55(·)	ㅁ ㅣ / 시다
12(:)	ㅇ ㄱ / 혼	14(:)	ㅇ ㅍ / 흘	51(·)	ㅌ ㅂ / 겨며	55(·)	ㅌ ㅣ / 겨다
12(·)	ㅇ ㄱ / 온	14(·)	ㅇ ㅍ / 올	51(·)	ㅇ ㅂ / 앓며	55(\·)	ㅇ ㅂ ㅣ / 앓다
12(-)	ㅌ ㄱ / 견	14(-)	ㅌ ㅍ / 결	51(\·)	ㅁ ㅇ ㅂ / 시오며	55(·)	ㅁ ㅇ ㅣ / 시오다
12(l)	ㅁ ㅇ ㄱ / 시온	14(l)	ㅁ ㅇ ㅍ / 시울	51(/)	x ㅁ x ㅂ / x시x며	55(\)	x ㅁ x ㅣ / x시x다
12(·l)	ㅇ ㄱ / 논	14(·l)	ㅇ ㅍ / 눌				

구결점	해독 결과	구결점	해독 결과
11(·)	ㅁ ㄱ : / 신여	25(·l)	ㅁ ㅇ ㄱ ㅇ ㅂ / 시온듯
11(·)	ㅁ ㅍ : / 실여	25(l·)	ㅁ ㅇ ㅂ ㅇ ㅂ / 시오릿
11(\)	ㅌ ㄱ : / 견여	25(ㄷ)	ㅌ ㅂ ㅇ ㅂ / 겨듯
11(/)	ㅌ ㅇ : / 겨리여	25(ㅌ)	ㅌ ㅇ ㅂ / 겨릿
11(\·)	ㅌ ㄱ ㅇ : / 견이여	35(·)	ㅁ ㄱ ㅂ / 신디
11(\·)	ㅌ ㅍ : / 겨리여	35(:)	ㅁ ㅍ ㅂ / 실디
13(-)	ㅁ ㅇ ㄱ ㅇ ㅂ / 시온디	35(-)	ㅇ ㄱ ㅂ / 혼디
13(l)	ㅁ ㅇ ㅍ ㅇ ㅂ / 시울디	35(-)	ㅇ ㅍ ㅂ / 흘디
13(·)	ㅇ ㄱ ㅇ ㅂ / 온디	41(-)	ㅁ ㅇ ㄱ ㅇ ㅂ / 시온들
13(·)	ㅇ ㅍ ㅇ ㅂ / 올디	41(l)	ㅁ ㅇ ㅍ ㅇ ㅂ / 시울들
13(:)	ㅇ ㄱ ㅇ ㅂ / 혼디	41(ㅌ)	ㅁ ㅇ ㄱ ㅇ ㅂ / 습온들
13(·)	ㅇ ㅍ ㅇ ㅂ / 흘디	41(ㄷ)	ㅁ ㅇ ㅍ ㅇ ㅂ / 습올들
21(-)	ㅌ ㄱ ㅌ / 견더	41(l·)	ㅇ ㄱ ㅇ ㅂ / 혼들
21(l)	ㅌ ㅍ ㅌ / 결더	41(·l)	ㅇ ㅍ ㅇ ㅂ / 흘들
21(·)	ㅁ ㄱ ㅌ / 신더	45(·l)	ㅁ ㄱ ㅇ ㅂ / 신드로
21(:)	ㅁ ㅍ ㅌ / 실더	45(l·)	ㅁ ㅍ ㅇ ㅂ / 실드로
25(-)	ㅇ ㅂ ㅇ ㅂ / 호듯	45(ㅌ)	ㅇ ㅂ ㅇ ㅂ / L 드로
25(l)	ㅇ ㅂ ㅇ ㅂ / 호릿	45(ㄷ)	ㅍ ㅇ ㅂ / R 드로
25(/)	ㅁ ㄱ ㅇ ㅂ / 신듯		
25(\)	ㅁ ㅂ ㅇ ㅂ / 시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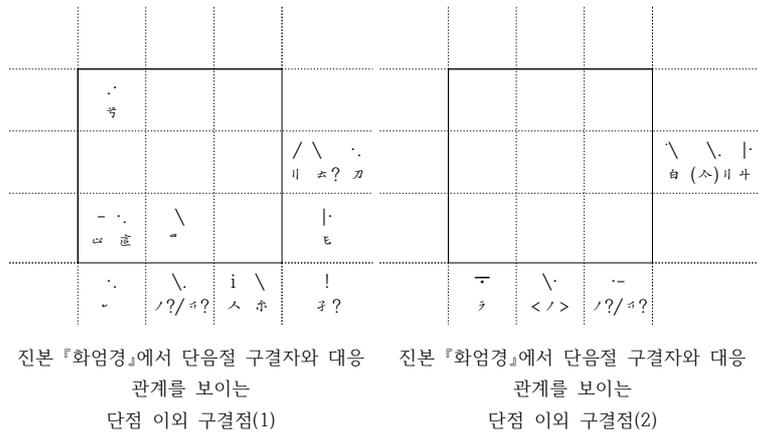
- ㉠ 12위치와 14위치의 구결점 가운데 서로 형태가 동일하면, 끝 글자인 ‘ㄱ’과 ‘ㅍ’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 동일하다.
- ㉡ 51위치와 55위치의 구결점 가운데 서로 형태가 대칭되면 끝 글자인 ‘ㅂ’와 ‘ㅣ’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 동일하다.
- ㉢ 동일 위치에서 형태상 짝을 이루는 구결점에서도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 관계도 관찰된다. 이들은 서로 형태상 짝을 이루면 대체로 ‘ㄱ’과 ‘ㅍ’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 동일하다.

- 이 구결점들은 대부분 동일한 의미를 갖는 자토로 해독되며, 그 동일한 의미는 해당 위치의 단점의 해독과 동일하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런데 이 단점들과 대응되는 구결자는 모두 어말에 오는 조사나 어미들로, 동명사어미 -ㄱ’이나 ‘-ㅍ’, 혹은 다양한 선어말어미들이 선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반면에 기준사각형 내부에 위치하는 단점들은 이러한 체계성을 보이기 어려운 구결자들로 해독된다.¹⁾ 따라서

1) 이들에 해당하는 구결점은 22(·)[ㅇ], 23(·)[ㅇ], 24(·)[ㅇ/ㅇ], 32(·)[ㅇ ㄱ], 33(·)[ㄱ], 34(·)[ㅇ], 42(·)[(ㅇ)ㅇ],

기준사각형 내부에 위치하는 구결점들은 구결점의 형태와 위치가 해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어려워지게 된다.

- 그러나 진본 『화엄경』에서는 위와 같은 구결점의 위치와 형태에 따른 체계성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12위치와 14위치의 일부 구결점을 제외하면 동형성을 관찰하기 어려우며, 51위치와 55위치에서는 대칭성이 존재하는지가 불확실하다. 결정적으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준 사각형 외부에 위치하는 단점 이외의 구결점들이 단일 구결자로 해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구결점의 형태와 위치의 체계성이 존재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비체계성은 점도의 암기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구결점의 종류가 200~300개에 달하는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경우 이 모든 구결점을 아무런 체계성 없이 통째로 암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진본 『화엄경』과 달리 주본 『화엄경』에서는 기준사각형 외부의 구결점들을 중심으로 대칭성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해독 결과를 보이도록 점도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43(·)[]], 44(·)[]]이다. 이 중 22(·)[]], 33(·)[]], 34(·)[]], 44(·)[]]은 어미로 쓰이는 구결자로 해독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결어미 22(·)[]]와 '34(·)[]]'의 경우, 연결어미 '-ㅅ'와 종결어미 '-ㅣ'에 비해서 다양한 선어말어미가 선행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고 33(·)[]]과 44(·)[]]은 다양한 선어말어미가 선행하지만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서는 12(·)[]]과 14(·)[]]처럼 'ㅣ'와 'ㅅ'을 말음으로 갖는 구결자로 해독되는 구결점이 기준사각형 외부에 따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점도 고안자는 22(·)[]], 33(·)[]], 34(·)[]], 44(·)[]]의 경우 단점 이외의 구결점들과 체계적인 대응을 맺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문현수 2017).

		ト		
ト	ト	ハ	ト	ト
	ト	ト	ト	
	ト	ト	ト	ト
		ト		

주본 『화엄경』에서 단음절 구결자와 대응 관계를 보이는, 단점 이외 구결점(1)

ト	<ト>	ト	ト	ト
	ト	ト	ト	
	ト	ト	ト	
		ト		

주본 『화엄경』에서 단음절 구결자와 대응 관계를 보이는, 단점 이외 구결점(2)

- 이러한 점도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진본 『화엄경』에서 기준사각형 외부에 존재하였던 단음절 구결자 해독 구결점들의 이동을 전제로 하여야 가능하였을 것이며, 그 이동의 결과는 주본 『화엄경』의 점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준사각형 내부로의 위치 이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시대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 사용된 점도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본고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점도는 가장 단순한 조사와 어미만을 나타내었다. 진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서는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점도를 바탕으로 좀 더 복잡한 조사와 어미 및 단어의 형태를 표기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구결점 기입 위치의 세분화와 구결점의 형태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구되었다.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점도로, 기준사각형 외부를 중심으로 주요 구결점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구결점이 늘어나면서 기억의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억의 편의를 위해 체계적으로 구결점을 배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다. 이때 고려할 만한 방법은 구결점의 문법 형태소의 대응 관계를 점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의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점도이다. 여기에서는 점도의 위치 및 형태가 그 해독에 있어서 대칭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다.

이 글은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이 초기 형태의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점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다만 이 자료는 한국의 석독구결자료인지 혹은 일본의 훈점자료인지 아직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 과정이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향후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權仁瀚(2009), 「『華嚴文義要決』 및 關聯 資料 調査記」, 『口訣研究』 23, 口訣學會, 5-30.
 김성주(2007), 「주본화엄경과 진본화엄경의 점토석독구결 비교 연구」, 『규장각』 3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규장각), 29-51.
 金星周(2009),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口訣」, 『口訣研究』 23, 口訣學會, 67-95.

- 金星周(2009L), 「湖林博物館 所藏 點吐釋讀口訣 資料 周本『華嚴經』卷第34에 대하여」,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5』, 태학사, 25-39.
- 김영옥(2003),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의 國語學的 研究」, 『口訣研究』 10, 口訣學會, 47-77.
- 남권희·남경란(2016), 「13세기 高麗 釋讀口訣本『慈悲道場懺法』卷4 殘片의 구결 소개」, 『국어사연구』 22, 국어사학회, 199-232.
- 南豊鉉(1999), 『國語史를 위한 口訣研究』, 태학사.
- 남풍현(2002), 「高麗時代 角筆點吐 釋讀口訣의 種類와 그 解讀: 晉本華嚴經 卷20의 點吐釋讀口訣을 中心으로」, 『朝鮮學報』183, 朝鮮學會, 1-22.
- 南豊鉉(2003), 「周本 華嚴經 卷六의 角筆 點吐釋讀口訣 研究」,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 태학사, 41-54.
- 南豊鉉·李丞幸·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學會, 69-102.
- 문현수(2010), 「석독구결 용언 부정사의 의미기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현수(2012), 「점토석독구결 용언 부정사의 의미기능」, 『국어사연구』 14, 국어사학회, 133-165.
- 文玄洙(2017), 「周本『華嚴經』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문현수(2020), 「진본『화엄경』 권20의 미해독 구결점에 대한 해독 시도-선어말어미 '-오-', 연결어미 '-며', 조사 및 어미 구성의 '-과', 부정문 관련 구결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9-66.
- 문현수(2021), 「해독이 겹치는 진본《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점토에 대하여」, 『國語學』 97, 國語學會, 373-398.
- 박용식(2010),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의 符號口訣과 8세기 新羅의 文法形態」, 『口訣研究』 24, 口訣學會, 37-60.
- 박진호(2003), 「周本『華嚴經』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口訣研究』 11, 口訣學會, 211-247.
- 박진호(2004), 「周本《華嚴經》卷第六의 點吐 重複 表記와 符號」, 『口訣研究』 13, 口訣學會, 129-148.
- 朴鎭浩(2006), 「晉本《華嚴經》卷第20의 點吐 解讀」, 『口訣研究』 16, 口訣學會, 173-208.
- 안대현(2008ㄱ), 「주본『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해독(1)-12와 14위치의 동형성 및 51과 55 위치의 대칭성에 대하여」, 『口訣研究』20, 口訣學會, 259-286
- 안대현(2008L), 「주본『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해독(2) -12와 14 위치 및 51 및 55 위치 이외의 점토들에 대하여」, 『國語學』 51, 國語學會, 195-227.
- 안대현(2013), 「佐藤本『華嚴文義要決問答』과 古代 韓國語의 'ㄴ/矣」, 『口訣研究』 31, 口訣學會, 71-95.
- 李丞幸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1』, 태학사.
- 李丞幸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2』, 태학사.
- 李丞幸 외(2006L),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3』, 태학사.
- 李丞幸 외(2009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4』, 태학사.
- 李丞幸 외(2009L),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5』, 태학사.
- 李丞幸(2001), 「周本 華嚴經 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口訣研究』 7, 口訣學會, 1-32.\
- 이승재(2003), 「주본『화엄경』 권제57의 서지와 각필부호구결에 대하여」, 한글 262, 한글학회, 215-246.
- 장경준(2002), 「구결점(口訣)의 위치 변이에 대한 기초 연구-『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국어사 자료 연구』 3, 국어사자료학회, 5-30.
- 장경준(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권5, 8의 단점(單點)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경준(2007), 『『瑜伽師地論』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研究』, 태학사.
- 장경준(2008), 「點吐口訣 研究의 成果와 當面 課題」, 『口訣研究』 21, 口訣學會, 67-98.
- 장경준(2009), 「점토구결 자료의 문법 형태에 대하여」, 『國語學』 56, 國語學會, 249-279.
- 장경준(2010), 「구결 자료와 형태론」, 제37회 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1-59.
- 장경준·오민석·문현수·허인영(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박문사.
- 정재영 외(2003),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 -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 鄭在永(2001),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研究』 7, 口訣學會, 33-56.
- 정재영(2006), 「한국의 구결」, 『口訣研究』 17, 口訣學會, 125-182.
- 鄭在永(2009), 「『華嚴文義要決問答』에 대한 文獻學的 研究」, 『口訣研究』 23, 口訣學會, 31-65.
- 鄭在永·安大鉉(2018), 「漢文讀法と口訣」, 『韓國語教育論講座』第3卷, くろしお出版, 335-370.
- 항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 정진원(2009), 「호림박물관 소장 점토석독구결 자료 주본 『화엄경』 권31에 대하여」, 『角筆口訣의 解讀 과 翻譯5』, 13-24.
- 小林芳規(2002), 「韓國의 角筆點と 日本의 古訓點との關係」, 『口訣研究』 8, 口訣學會, 21-49.
- 小林芳規(2004), 『角筆文獻研究導論·上卷(東アジア篇)』, 東京: 汲古書院.
- 小林芳規(2010), 「日本의 오코토点的 起源과 古代 韓國語의 點吐와의 關係」, 『口訣研究』 25, 口訣學會, 21-45.
- 小林芳規·西村浩子(2004), 「日本에 있어서 華嚴經의 講說과 初期加點資料에 대해서」,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 -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pp.117-132(尹幸舜 譯).
- ジョン・ホイットマン(2009), 「口訣資料と訓點資料の接点-佐藤本『華嚴文義要決』のヲト点/點吐を中心に」, 100回訓點語学会研究発表會.

▣ 토 론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점도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이용(서울시립대)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에서는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점도, 진본 『화엄경』의 점도, 주본 『화엄경』의 점도를 비교해, 고려시대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에 사용된 점도가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점도를 바탕으로 좀 더 복잡한 조사와 어미 및 단어의 형태를 표기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막연히 대강의 방향을 짐작하였을 뿐, 실질적인 면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또 통계를 이용해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읽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겨 이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전체적으로 보면 논의가 주로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과 주본 『화엄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합니다. 사실 변화의 과정에서 진본 『화엄경』이 가진 특징이 좀 더 세밀하게 기술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진본 『화엄경』과 주본 『화엄경』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진본 『화엄경』에 있는 체계적 요소들을 축소해서 바라보는 감이 있습니다. “12 위치와 14 위치의 일부 구결점을 제외하면 동형성을 관찰하기 어려우며, 51 위치와 55 위치에서의 대칭성이 존재하는지가 불확실하다.”에서 이러한 관점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본 『화엄경』의 51 위치와 55 위치에서도 대칭성이 보이는 측면이 있고, 25에 있는 구결점은 ‘ㄷ’, 41에 있는 구결점은 ‘ㄴ’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본 『화엄경』에서 이미 체계성에 대한 추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현토 도구의 사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의 경우에는 먹을 써서 현토를 하고 있지만 『화엄경』의 경우에는 각필을 써서 써서 현토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쓰는 경우에는 한자 내부에 현토를 하기 어려운데 이 점이 외부에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구결점이 위치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을 듯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필이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필로 찍게 되면서 ‘1’이 33의 자리에 찍히게 되고 이것이 이후에 일어날 많은 변화의 출발점이 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3. 결론에서 보면,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이 한국의 석독구결 자료인지 아니면 일본의 훈점 자료인지가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논의 과정이 설득력을 얻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료가 과연 고려시대의 석독구결과 확실히 관련을 지니고 있느냐가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점도를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설령 佐藤本 『華嚴文義要決問答』이 일본의 훈점자료라

고 하더라도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의 화엄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